ETHER LIBRARY

0022

월든

Walden

헨리 데이비드 소로

Henry David Thoreau · 1854

철학 · 종교

월든

Walden; or, Life in the Woods

헨리 데이비드 소로

에테르 라이브러리 옮김

ETHER LIBRARY

원제 Walden; or, Life in the Woods

부제 숲속의 삶

지은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1817~1862)

옮긴이 에테르 라이브러리

초판 1854년, 보스턴 티크너 앤드 필즈. 1845년 7월부터 두 해 두 달 동안 매사추세츠주 콩코드의 월든 호숫가에 손수 집을 짓고 산 기록이다.

부록 「시민 불복종」(1849). 1849년 「시민 정부에 대한 저항(Resistance to Civil Government)」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표되었다.

일러두기

저본에 관하여

이 책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Walden; or, Life in the Woods)》을 영어 원전에서 옮긴 완역본입니다. 1854년 보스턴의 티크너 앤드 필즈가 펴낸 초판의 텍스트를 옮겨 적은 퍼블릭 도메인 전자 텍스트를 저본으로 삼았습니다. 초판의 부제 「숲속의 삶(or, Life in the Woods)」은 1862년 재판부터 지은이의 뜻에 따라 빠졌고, 이 책도 제목을 『월든』으로 했습니다.

소로는 1845년 7월부터 1847년 9월까지 두 해 두 달 동안 매사추세츠주 콩코드의 월든 호숫가에 손수 지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 책은 그 삶을 몇 해에 걸쳐 고쳐 쓴 것이라, 숲에서 겪은 일은 지나간 일로, 그 일에서 얻은 생각은 쓰는 지금의 말로 적혀 있습니다. 번역도 원문의 시제를 따라 겪은 일은 과거형으로, 생각과 성찰은 현재형으로 옮겼습니다.

부록 「시민 불복종」에 관하여

이 책에는 소로의 글 「시민 불복종」을 부록으로 함께 실었습니다. 소로가 노예제와 멕시코 전쟁에 반대해 인두세를 내지 않다가 1846년 7월 콩코드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낸 일을 계기로 강연하고, 1849년 「시민 정부에 대한 저항(Resistance to Civil Government)」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입니다.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이라는 제목은 지은이가 죽은 뒤인 1866년 문집에 실리면서 붙었습니다. 『월든』과 같은 저본에 함께 실린 본문을 옮겼고, 제목은 우리말에 굳은 「시민 불복종」을 따랐습니다.

문체에 관하여

소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 나 」 로 말합니다. 두 글 모두 하다체로 옮겼습니다.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자리는 「 여러분 」 으로, 권하고 다그치는 말은 「-하라」로 옮겼습니다.

소로의 짧은 단언과 역설은 짧게 옮기고, 묘사와 논증의 긴 문장은 되도록 긴 호흡을 살렸습니다. 원문의 말놀이는 우리말로 살릴 수 있는 곳은 본문에서 살리고, 살리지 못한 것만 각주에 밝혔습니다.

「월든」의 한 장(章)인 「짐승 이웃」 첫머리의 은자와 시인의 문답은 친구 사이의 반말로 옮겼습니다.

이름과 낱말

콩코드 둘레의 호수와 땅 이름은 소리대로 적었습니다(월든 호수, 플린트 호수, 화이트 호수, 페어헤이븐). 원문의 pond는 모두 「 호수 」 로 옮겼습니다. 월든 호수는 넓이 61에이커 남짓, 깊이 100피트가 넘는 호수입니다.

소로는 공자와 맹자, 『 대학 』 , 『 바가바드기타 』 와 인도의 경전을 프랑스어와 영어 번역으로 읽고 다시 영어로 옮겨 인용했습니다. 이 책은 소로가 옮긴 말을 옮겼고, 이름은 공자·증자·맹자·거백옥처럼 한자음으로 되돌렸습니다. 출처는 각주에 밝혔습니다.

사람과 땅의 이름은 에테르 라이브러리 총서의 표기 원칙에 따랐습니다. 원문의 Indian은 「아메리카 원주민」 또는 「원주민」으로 옮겼습니다.

도량형과 셈

마일, 로드, 피트, 에이커, 부셸 같은 단위와 화씨 온도는 원문 그대로 두고 미터법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낯선 단위는 처음 나오는 자리의 각주에 어림값을 적었습니다.

「경제」와 「콩밭」 장의 셈 표는 원문의 줄과 금액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금액의 ½, ¾은 반 센트, 4분의 3센트입니다. 본문의 돈은 「28달러 12½센트」처럼 적었습니다.

연도와 날짜, 길이와 깊이는 아라비아 숫자로, 나이와 햇수와 시각은 한글로 적었습니다.

인용과 각주

소로는 라틴어 시를 원문으로 싣고 바로 뒤에 자신의 영어 번역을 붙이곤 했습니다. 이런 네 곳은 라틴어를 원문 그대로 두고 소로의 번역만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시는 원문의 행 수를 지켜 옮겼습니다.

각주 77개는 모두 옮긴이가 붙였습니다. 인용한 시와 경전의 출처, 사건과 제도, 낯선 단위, 우리말로 살리지 못한 말놀이에만 달았고, 소로의 생각을 풀이하는 주는 달지 않았습니다.

원문에서 기울여 쓴 강조는 기울임체로 살렸습니다. 원문의 줄표는 쓰지 않고 문장을 나누거나 쉼표로 이었습니다.

차례

경제 9

나는 어디서 살았고, 무엇을 위해 살았나 86

독서 105

소리 117

고독 135

방문객 146

콩밭 161

마을 174

호수들 180

베이커 농장 206

더 높은 법칙 215

짐승 이웃 228

집 데우기 242

옛 주민과 겨울 방문객 259

겨울 동물 274

겨울 호수 285

봄 300

맺음말 320

부록: 시민 불복종 335

경제

이 책의 글, 아니 그 대부분을 쓸 때 나는 매사추세츠주 콩코드의 월든 호숫가, 어느 이웃과도 1마일 떨어진 숲속에 내 손으로 지은 집에서 홀로 살며 오직 내 손의 노동으로 생계를 꾸렸다. 나는 거기서 두 해 두 달을 살았다. 지금은 다시 문명 생활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다.

읍 사람들이 내 생활을 두고 아주 꼬치꼬치 묻지 않았더라면 나는 내 일을 이토록 독자들 눈앞에 들이밀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이는 그런 물음을 주제넘다고 하겠지만, 내게는 조금도 주제넘어 보이지 않고, 사정을 따져 보면 아주 자연스럽고 주제에 꼭 맞는 물음으로 보인다. 어떤 이는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외롭지 않았는지, 무섭지 않았는지 따위를 물었다. 또 어떤 이는 내가 수입의 얼마를 자선에 썼는지 알고 싶어 했고, 식구가 많은 어떤 이는 내가 가난한 아이를 몇이나 거두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러니 내게 별 관심이 없는 독자들에게는, 내가 이 책에서 그런 물음 몇 가지에 답하려 들더라도 너그러이 보아 달라고 청한다. 대부분의 책에서는 *나*, 곧 일인칭이 빠진다. 이 책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둔다. 자기중심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것이 가장 큰 차이다. 우리는 흔히, 결국 말하는 것은 언제나 일인칭이라는 사실을 잊는다.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나는 나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많이 늘어놓지 않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내 경험이 좁아서 나는 이 주제에 갇혀 있다. 더구나 나도 나대로 모든 작가에게 언젠가는, 남의 삶을 두고 들은 이야기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적은 기록, 먼 땅에서 고향의 친척에게 써 보낼 법한 그런 기록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그가 진실하게 살았다면 그곳은 틀림없이 나에게서 먼 땅이었을 테니까. 어쩌면 이 글은 특히 가난한 학생들을 향한 것인지도 모른다. 다른 독자들은 저마다 자기에게 맞는 부분만 받아들이면 된다. 맞지도 않는 옷을 억지로 입느라 솔기를 늘이는 사람은 없으리라 믿는다. 몸에 맞는 사람에게는 쓸모 있는 옷일 테니까.

나는 중국 사람이나 샌드위치 제도 사람들보다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뉴잉글랜드에 산다는 여러분에 관해 무언가 말하고 싶다. 여러분의 처지, 특히 이 세상, 이 읍에서 여러분이 놓인 겉의 처지나 형편이 어떠한지, 지금처럼 나빠야만 하는지, 나아질 수는 없는지를. 나는 콩코드 안을 꽤 많이 여행했다. 그런데 가게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들판에서도, 어디서나 주민들은 천 가지 기이한 모습으로 고행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브라만들이 네 불 사이에 앉아 해를 똑바로 쳐다본다거나, 불길 위에 머리를 아래로 하고 매달린다거나, 어깨너머로 하늘을 바라보다가 "끝내 목이 본디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비틀린 목으로는 물 같은 것 말고 아무것도 뱃속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된다"거나, 평생 사슬에 묶여 나무 밑동에서 산다거나, 자벌레처럼 몸으로 재어 가며 드넓은 제국을 가로지른다거나, 기둥 꼭대기에서 한 발로 서 있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나는 들었지만, 스스로 알고 하는 이런 고행조차 내가 날마다 보는 광경보다 더 믿기 어렵고 놀랍지는 않다. 헤라클레스의 열두 과업도 내 이웃들이 떠맡은 일에 대면 하찮았다. 그것은 열두 가지뿐이었고 끝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괴물을 하나라도 죽이거나 사로잡는 것도, 일을 하나라도 끝내는 것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들에게는 히드라의 목 뿌리를 뜨거운 쇠로 지져 줄 벗 이올라오스가 없어서,[1] 머리 하나를 짓뭉개자마자 두 개가 돋아난다.

나는 읍의 젊은이들을 본다. 농장과 집과 헛간과 가축과 농기구를 물려받은 것이 불행인 젊은이들이다. 이런 것은 얻기는 쉬워도 떨쳐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차라리 탁 트인 목초지에서 태어나 늑대 젖을 먹고 자랐더라면, 자기가 어떤 밭에서 일하도록 부름받았는지 더 맑은 눈으로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누가 그들을 땅에 매인 농노로 만들었는가? 사람은 죽기 전에 흙 한 펙만 먹으면 된다는데, 그들은 왜 60에이커를 먹어야 하는가? 왜 태어나자마자 제 무덤을 파기 시작해야 하는가?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앞으로 밀면서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꾸려 나가야 한다. 가엾은 불멸의 영혼이 짐에 깔려 거의 짓눌리고 숨이 막힌 채, 길이 75피트 너비 40피트의 헛간과 한 번도 치운 적 없는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과,[2] 경작지와 풀밭과 목초지와 땔감 숲을 합친 100에이커의 땅을 앞으로 밀며 삶의 길을 기어 내려가는 것을 나는 얼마나 많이 보았던가![3] 그런 쓸데없는 유산의 짐과 씨름하지 않아도 되는, 물려받은 것 없는 사람들은 몇 세제곱피트의 살덩이를 다스리고 가꾸는 일만으로도 힘에 넘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못 안 채로 수고한다. 사람의 더 나은 부분은 곧 쟁기에 갈려 흙 속의 거름이 된다. 흔히 필연이라 부르는, 운명처럼 보이는 것에 떠밀려 그들은 옛 책의 말처럼 좀과 녹이 갉아먹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 갈 보물을 쌓는 데 매여 있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삶이다. 그 끝에 이르면, 아니 그 전에라도 그들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어깨 너머 뒤로 돌을 던져 사람을 지었다고 한다.[4]

> Inde genus durum sumus, experiensque laborum,
> Et documenta damus qua simus origine nati.

롤리는 이것을 낭랑한 가락으로 이렇게 옮겼다.[5]

"그리하여 우리 족속은 마음이 굳어 고통과 근심을 견디며,
우리 몸이 돌의 본성을 지녔음을 보여 준다."

엉터리 신탁에 눈먼 채 복종해서, 돌을 어깨 너머 뒤로 던지고는 어디 떨어지는지 보지도 않은 결과가 이렇다.

대부분의 사람은 비교적 자유로운 이 나라에서조차 순전히 무지와 착각 때문에, 삶이 지어낸 걱정과 쓸데없이 거친 노동에 매달리느라 삶의 더 고운 열매를 따지 못한다. 지나친 고역에 손가락이 너무 굳고 너무 떨려서 그럴 수가 없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참된 온전함을 지킬 여유가 없다. 사람들과 가장 사람다운 관계를 이어 갈 형편도 못 된다. 그랬다가는 시장에서 그의 노동 값이 떨어질 것이다. 그에게는 기계 말고 다른 무엇이 될 시간이 없다. 자기 지식을 그토록 자주 써먹어야 하는 사람이, 자라려면 꼭 있어야 하는 자기의 무지를 어떻게 제대로 기억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를 판단하기 전에 이따금 값없이 먹이고 입히고, 우리의 강장 음료로 기운을 북돋워 주어야 한다. 우리 본성의 가장 고운 자질은 과일 껍질에 앉은 뽀얀 분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만 지킬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도 서로도 그렇게 다정하게 다루지 않는다.

여러분 가운데 몇몇은, 우리 모두 알다시피, 가난하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따금 말하자면 숨을 헐떡인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 가운데에는 실제로 먹어 치운 저녁값을 다 치르지 못했거나, 빠르게 닳아 가거나 이미 다 닳아 버린 외투와 구두 값을 다 치르지 못한 채 빌리거나 훔친 시간을 쓰려고 이 쪽을 펼쳐서 빚쟁이에게서 한 시간을 훔치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이가 얼마나 비천하고 비굴한 삶을 사는지는 아주 뻔하다. 경험으로 내 눈이 날카로워졌으니까. 늘 벼랑 끝에서 장사를 시작하려 애쓰고 빚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삶, 라틴 사람들이 남의 놋쇠(aes alienum)라고 부른

아주 오래된 수렁이다. 그들의 동전 가운데 몇은 놋쇠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전히 이 남의 놋쇠로 살고 죽고 묻히며, 늘 갚겠다고, 갚겠다고, 내일 갚겠다고 약속하다가 오늘 빚을 못 갚은 채 죽는다. 감옥에 갈 죄만 아니면 갖은 수를 다 써서 환심을 사고 단골을 얻으려 한다.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표를 던지고, 예의라는 호두 껍데기 속으로 몸을 오그리거나 묽고 김 같은 너그러움의 대기로 몸을 부풀린다. 그래야 이웃을 설득해서 그의 구두나 모자나 외투나 마차를 만들게 해 달라고, 그를 위해 식료품을 들여오게 해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아플 날에 대비해 무언가 쌓아 두려고 스스로 병이 든다. 낡은 궤짝 속이나 회벽 뒤에 숨긴 양말 속, 더 안전하게는 벽돌 은행에 넣어 둘 무언가를. 어디든 상관없고, 많든 적든 상관없다.

나는 이따금 의아하다. 북부와 남부를 모두 노예로 부리는 날카롭고 교묘한 주인이 이토록 많은데, 우리가 흑인 노예제라는, 노골적이지만 어딘가 남의 나라 일 같은 예속에 마음을 쓸 만큼, 거의 경박하다고까지 말하고 싶을 만큼 한가할 수 있다니. 남부의 감독 밑에 있는 것은 괴롭다. 북부의 감독 밑에 있는 것은 더 나쁘다. 그러나 가장 나쁜 것은 스스로 자기를 부리는 노예 감독이 될 때다. 사람 안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들 한다! 큰길의 마부를 보라. 밤낮으로 시장을 향해 가는 그의 안에서 무슨 신성이 꿈틀거리는가? 그의 가장 높은 의무는 말에게 꼴과 물을 먹이는 일이다! 해운업의 이해관계에 비하면 그에게 자기 운명이 다 무엇인가? 그는 법석 나리를 위해 마차를 모는 게 아닌가? 그는 얼마나 신 같고, 얼마나 불멸인가? 그가 얼마나 움츠리고 살금거리는지, 하루 종일 얼마나 막연히 두려워하는지 보라. 그는 불멸도 신성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두고 내린 자기 의견, 제 행실로 얻은 평판의 노예이자 죄수다. 여론은 우리 자신의 사사로운 의견에 비하면 약한 폭군이다.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그것이 그의 운명을

정한다. 아니, 가리킨다. 공상과 상상이라는 서인도 식민지에서조차 스스로를 해방하는 일, 그 일을 이루어 줄 윌버포스가 어디 있는가? 또 이 땅의 숙녀들을 생각해 보라. 자기 운명에 너무 풋내 나는 관심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마지막 날에 대비해 화장대 방석을 짜고 있다! 마치 영원을 다치게 하지 않고도 시간을 죽일 수 있다는 듯이.

대부분의 사람은 조용한 절망 속에 살아간다. 이른바 체념이란 굳어 버린 절망이다. 절망의 도시를 떠나 절망의 시골로 가서는 밍크와 사향쥐의 늠름한 차림새를 보며 스스로를 달래야 한다. 인류의 놀이니 오락이니 하는 것들 밑에도 판에 박힌, 그러나 스스로는 알아채지 못하는 절망이 숨어 있다. 거기에는 놀이가 없다. 놀이는 일을 마친 다음에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망적인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한 특징이다.

교리 문답의 말을 빌려 사람의 으뜸가는 목적이 무엇이며 삶의 참된 필수품과 수단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흔한 생활을 다른 어떤 삶보다 좋아해서 일부러 고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다고 정직하게 믿는다. 그러나 눈 밝고 건강한 본성은 해가 맑게 떠올랐음을 기억한다. 편견을 버리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아무리 오래된 생각이나 행동이라도 증거 없이는 믿을 수 없다. 오늘 모두가 메아리처럼 따라 하거나 말없이 참이라고 넘기는 것이 내일은 거짓으로, 어떤 이들이 제 밭에 기름진 비를 뿌려 줄 구름으로 믿었던 한낱 의견의 연기로 드러날지도 모른다. 노인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일도 해 보면 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옛일은 옛사람에게, 새 일은 새 사람에게. 옛사람들은 어쩌면 불을 계속 지피려고 새 땔감을 가져올 줄도 몰랐을지 모른다. 새 사람들은 솥 밑에 마른 나무를 조금 넣고는, 흔히 하는 말로 늙은이 숨넘어갈 만큼 빠르게, 새처럼 지구를 휘돌아 다닌다. 나이는 젊음보다 스승으로서 나을 것이 없고, 오히려 그만도

못하다.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살면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무엇 하나 배웠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실제로 늙은이들은 젊은이에게 줄 대단히 중요한 충고가 없다. 그들 자신의 경험은 너무 치우쳐 있었고, 그들의 삶은 그들 스스로 믿을 수밖에 없듯 사사로운 이유로 그토록 비참한 실패였으니까. 또 어쩌면 그들에게는 그 경험을 거스르는 믿음이 얼마간 남아 있고, 그들은 다만 예전보다 덜 젊을 뿐인지도 모른다. 나는 이 행성에서 서른 해 남짓 살았지만 손윗사람들에게서 값진, 아니 진지하기라도 한 충고를 아직 한 마디도 들어 보지 못했다. 그들은 내게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았고, 아마 쓸모 있는 말은 아무것도 해 줄 수 없을 것이다. 여기 삶이 있다. 대부분 내가 아직 해 보지 않은 실험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해 보았다는 것은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값지다고 여기는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내 스승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떤 농부는 내게 "채소만 먹고는 못 살아요. 채소에는 뼈를 만들 거리가 하나도 없으니까"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하루의 얼마를 꼬박꼬박 경건하게 바쳐 제 몸에 뼈의 원료를 대어 준다. 그렇게 말하는 내내 그는 소 뒤를 따라 걷는데, 채소로 뼈를 만든 그 소들은 온갖 장애를 무릅쓰고 그와 그의 덜컹거리는 쟁기를 홱홱 끌고 간다. 어떤 것들은 가장 무력하고 병든 어떤 무리에게는 정말로 삶의 필수품이지만, 다른 무리에게는 한낱 사치품이고, 또 다른 무리에게는 아예 알려지지도 않은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인간 삶의 땅이 높은 곳이든 골짜기든 선배들이 이미 다 밟고 지나갔고 모든 것이 이미 다 보살펴진 것처럼 보인다. 이블린에 따르면 "지혜로운 솔로몬은 나무 사이의 거리까지 법도로 정했고, 로마의 법무관들은 이웃 땅에 떨어진 도토리를 무단 침입이 되지 않게

주우러 몇 번이나 들어가도 되는지, 또 그 가운데 몇 몫이 그 이웃의 것인지까지 정해 두었다." 히포크라테스는 손톱 깎는 법까지 일러두었다. 손가락 끝과 가지런하게, 더 짧지도 더 길지도 않게. 삶의 다양함과 기쁨을 다 써 버렸다고 지레 단정하는 지루함과 권태도 분명 아담만큼 오래되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은 한 번도 재어진 적이 없다. 해 본 것이 워낙 적으니,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선례로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무엇에 실패했든 "슬퍼하지 말라, 내 아이야. 네가 하지 않고 남겨 둔 일을 누가 너에게 따지겠느냐?"

우리는 천 가지 단순한 시험으로 우리 삶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내 콩을 익히는 그 해가 동시에 우리 지구 같은 세계들의 한 체계를 비춘다는 것. 이것을 기억했더라면 몇 가지 실수는 막았을 것이다. 나는 이런 빛 아래서 콩밭을 매지 않았다. 별들은 얼마나 놀라운 삼각형의 꼭짓점인가! 우주의 여러 거처에 사는, 멀리 떨어진 저마다 다른 존재들이 같은 순간에 같은 별 하나를 바라보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삶은 우리 저마다의 체질만큼이나 가지각색이다. 삶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전망을 펼쳐 보이는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한순간이라도 서로의 눈으로 내다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한 시간 안에 세상의 모든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그렇다, 모든 시대의 모든 세계를. 역사, 시, 신화! 남의 경험을 읽는 일 가운데 이것만큼 놀랍고 많은 것을 깨우쳐 줄 읽기를 나는 알지 못한다.

내 이웃들이 좋다고 하는 것의 대부분을 나는 마음속 깊이 나쁘다고 믿는다. 내가 무언가를 뉘우친다면 그것은 아마 내 좋은 품행일 것이다. 무슨 마귀가 씌었기에 나는 그렇게 얌전히 굴었던가? 노인이여, 일흔 해를 살며 나름의 영예도 없지 않았던 노인이여,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말을 해도 좋다. 나는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불러내는 거스를 수

없는 목소리를 듣는다. 한 세대는 앞 세대의 사업을 좌초한 배처럼 버린다.

나는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믿고 맡겨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다른 데 정직하게 쏟는 만큼은 우리 자신을 돌보는 일을 내려놓아도 된다. 자연은 우리의 강함에 맞추어진 만큼 우리의 약함에도 맞추어져 있다. 어떤 이들의 끊임없는 근심과 긴장은 거의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부풀리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은 또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병이라도 났다면 어쩔 뻔했는가? 우리는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사는가! 피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는 살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하루 종일 바짝 경계하다가, 밤이 되면 마지못해 기도를 올리고 불확실한 것에 몸을 맡긴다. 그토록 철저하고 진지하게 우리는 우리 삶을 떠받들고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하며 살도록 내몰린다. 이 길밖에 없다고 우리는 말한다. 그러나 한 중심에서 그을 수 있는 반지름만큼 많은 길이 있다. 모든 변화는 생각해 보면 기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마다 일어나는 기적이다.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앎이다"라고 말했다.[6] 한 사람이 상상 속의 사실을 자기 이해 속의 사실로 바꾸어 놓으면, 마침내 모든 사람이 그 바탕 위에 삶을 세우리라고 나는 내다본다.

내가 말한 걱정과 근심의 대부분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얼마나 걱정해야, 아니 적어도 조심해야 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자. 겉으로는 문명 한가운데 있더라도 원시의 삶, 개척지의 삶을 살아 보는 것은 얼마간 득이 될 것이다. 삶의 가장 투박한 필수품이 무엇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어떤 수단을 써 왔는지 배우는 것만으로도, 아니면 상인들의 오래된 거래 일지를 훑어보며 사람들이 가게에서 가장 흔히 산 것, 쟁여 둔 것, 곧 가장 투박한 식료품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그렇다. 시대가 거듭 이룬 개량도 사람의 존재를 다스리는 본질적인 법칙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뼈대가 아마 조상들의 뼈대와 구별되지 않듯이.

*삶의 필수품*이라는 말로 내가 뜻하는 것은, 사람이 제 힘으로 얻는 모든 것 가운데 처음부터 인간의 삶에 그토록 중요했거나 오래 써 오면서 그토록 중요해져서, 야만 때문이든 가난 때문이든 철학 때문이든 그것 없이 살아 보려는 사람이 거의, 아니 아예 없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많은 생물에게 삶의 필수품은 먹을거리 하나뿐이다. 대초원의 들소에게 그것은 맛 좋은 풀 몇 인치와 마실 물이다. 숲이나 산 그늘이라는 거처를 찾는 경우가 아니라면. 짐승 가운데 먹을거리와 거처 이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없다. 이 기후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삶의 필수품은 먹을거리, 거처, 옷, 연료라는 몇 갈래로 나누어도 꽤 정확하다. 이것들을 확보하고 나서야 우리는 삶의 참된 문제를 자유롭게, 이룰 가망을 품고 맞이할 채비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집뿐 아니라 옷과 익힌 음식도 발명했다. 그리고 어쩌면 우연히 불의 따뜻함을 발견하고 그 뒤로 불을 쓰게 되면서, 처음에는 사치였던 것이 지금은 불 곁에 앉아야만 하는 필요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고양이와 개도 같은 제2의 본성을 얻는 것을 본다. 알맞은 거처와 옷으로 우리는 제 몸속의 열을 정당하게 붙잡아 둔다. 그러나 이것들이나 연료가 지나치면, 곧 바깥의 열이 우리 몸속의 열보다 커지면, 그때 요리가 시작된다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박물학자 다윈은 티에라델푸에고 주민들을 두고, 옷을 잘 갖춰 입고 불 가까이 앉은 자기 일행은 조금도 덥지 않았는데 더 멀리 떨어져 있던 벌거벗은 야만인들이 "그렇게 구워지면서 땀을 줄줄 흘리고 있어서" 몹시 놀랐다고 쓴다. 또 듣자 하니 뉴홀랜드, 곧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은 벌거벗고 다녀도 탈이 없는데 유럽 사람은 옷을 입고도 떤다고 한다. 이 야만인들의 강인함과

문명인의 지성을 하나로 묶을 수는 없을까? 리비히에 따르면 사람의 몸은 난로이고, 음식은 허파 속의 연소를 이어 가게 하는 연료다. 추운 날에는 더 먹고 더운 날에는 덜 먹는다. 체열(animal heat)은 느린 연소의 결과이며, 이 연소가 너무 빠르면 병이 나고 죽음이 온다. 또는 연료가 모자라거나 바람길에 탈이 나면 불이 꺼진다. 물론 생명의 열을 불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비유는 이쯤 해 두자. 그러니 위의 목록으로 보아 *동물의 삶*이라는 말은 *동물의 열*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뜻인 듯하다. 먹을거리는 우리 안의 불을 지피는 연료로 볼 수 있고, 연료는 그 먹을거리를 장만하거나 바깥에서 열을 보태 몸을 덥히는 데만 쓰이며, 거처와 옷 또한 그렇게 생기고 흡수된 열을 붙잡아 두는 데만 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 몸에 가장 큰 필요는 따뜻함을 지키는 것, 우리 안의 생명의 열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거리와 옷과 거처뿐 아니라 밤의 옷인 잠자리에도 얼마나 공을 들이는가! 두더지가 굴 끝에 풀과 잎으로 잠자리를 마련하듯, 거처 안의 이 거처를 장만하려고 새의 둥지와 가슴털을 빼앗는다! 가난한 사람은 세상이 차갑다고 곧잘 투덜댄다. 우리는 우리 병의 상당 부분을 곧장 추위 탓으로 돌린다. 몸의 추위 못지않게 사회의 추위 탓으로. 어떤 기후에서는 여름이 사람에게 일종의 엘리시온 같은 삶을 열어 준다. 그때는 먹을거리를 익히는 데 말고는 연료가 필요 없다. 해가 그의 불이고, 많은 열매가 햇살에 넉넉히 익는다. 먹을거리는 대개 더 다양하고 더 쉽게 얻어지며, 옷과 거처는 전혀 또는 반쯤 필요 없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내 경험으로 알게 된 바로는, 몇 가지 연장, 곧 칼, 도끼, 삽, 손수레 따위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등불과 문구와 책 몇 권을 볼 길이 필수품 바로 다음 자리에 오는데, 이것들은 모두 하찮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런데도 지혜롭지 못한 어떤 이들은 지구 반대편의 야만스럽고 건강에 나쁜

땅으로 가서 열 해나 스무 해를 장사에 바친다. 살기 위해서, 곧 기분 좋게 따뜻하게 지내다가 마침내 뉴잉글랜드에서 죽기 위해서. 사치스러운 부자들은 그저 기분 좋게 따뜻한 게 아니라 부자연스럽게 뜨겁다. 앞에서도 내비쳤듯 그들은 익혀진다. 물론 최신 유행대로 푹 고아서.

사치품의 대부분과 이른바 삶의 안락 가운데 많은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인류가 높이 오르는 길을 적극적으로 가로막는다. 사치와 안락에 관해서라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보다 더 단순하고 빈약하게 살았다. 중국, 힌두, 페르시아, 그리스의 옛 철학자들은 겉의 재물로는 누구보다 가난하고 속의 재물로는 누구보다 부유한 무리였다. 우리는 그들을 많이 알지 못한다. 그만큼이라도 아는 것이 놀랍다. 더 가까운 시대에 제 겨레를 개혁하고 이롭게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자발적 가난이라 부를 법한 유리한 자리에 서지 않고는, 누구도 인간의 삶을 치우침 없이 지혜롭게 바라볼 수 없다. 농업이든 상업이든 문학이든 예술이든, 사치스러운 삶의 열매는 사치다. 요즘에는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있어도 철학자는 없다. 그래도 철학을 가르치는 일이 훌륭한 것은, 한때 철학대로 사는 일이 훌륭했기 때문이다.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그저 미묘한 생각을 품는 것도, 하나의 학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사랑한 나머지 지혜가 시키는 대로, 단순하고 독립적이며 너그럽고 남을 믿는 삶을 사는 것이다. 삶의 문제 몇 가지를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푸는 것이다. 위대한 학자와 사상가의 성공은 대개 궁정 신하의 성공이지 왕의 성공도, 사내다운 성공도 아니다. 그들은 순전히 순응으로, 사실상 그들의 아버지들이 산 그대로 그럭저럭 살아갈 뿐이며, 어떤 뜻으로도 고귀한 인간 종족의 조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은 왜 언제나 퇴화하는가? 무엇이 가문을 대가 끊기게 하는가? 나라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사치란 어떤 것인가? 우리 자신의 삶에는 그런 사치가 조금도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철학자는 삶의 겉모습에서조차 자기 시대를 앞서 간다. 그는 동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묵고, 입고, 몸을 덥히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수단으로 생명의 열을 지키지 않고서야 어떻게 철학자일 수 있겠는가?

사람이 내가 말한 여러 수단으로 몸을 덥히고 나면 그다음에는 무엇을 바라는가? 분명 같은 종류의 따뜻함을 더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더 많고 더 기름진 음식, 더 크고 더 화려한 집, 더 곱고 더 넉넉한 옷, 더 많고 쉼 없고 더 뜨거운 불 따위 말이다.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고 나면 남아도는 것을 얻는 일 말고 다른 길이 있다. 더 낮은 고역에서 풀려나는 방학이 시작되었으니, 이제 삶에 모험을 걸어 보는 것이다. 흙은 씨앗에 맞는 모양이다. 씨앗이 어린뿌리를 아래로 내렸으니, 이제 싹도 자신 있게 위로 올려 보낼 수 있겠다. 사람이 이토록 단단히 땅에 뿌리를 내린 것은 바로 그만큼 위로, 하늘로 솟아오르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더 고귀한 식물은 땅에서 멀리 떨어진 대기와 빛 속에서 마침내 맺는 열매로 값을 인정받으며, 더 낮은 먹는 채소처럼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채소는 두해살이라 해도 뿌리가 다 여물 때까지만 가꾸고, 그러려고 윗동을 자주 잘라 내기 때문에 꽃 필 철이 되어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나는 하늘에서든 지옥에서든 제 일을 알아서 챙기고, 어쩌면 가장 부유한 사람보다 더 웅장하게 짓고 더 헤프게 쓰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 채 한 번도 가난해지지 않는 강하고 용감한 본성들에게 규칙을 정해 주려는 것이 아니다. 꿈꾸어 온 대로 그런 사람이 정말 있다면 말이다. 바로 지금 이대로의 세상 형편에서 용기와 영감을 얻고, 그것을 연인처럼 다정하고 뜨겁게 아끼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도 아니다. 어느 정도는 나도 그 축에 든다고 여긴다. 어떤 처지에 있든 일을 잘 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도 아니다. 자기가 일을 잘 해 나가는지 아닌지는 그들 스스로 안다. 나는 주로 불만에 차서, 제 처지나 시절을 나아지게 할 수도 있을 때에 그 고달픔만 하릴없이 투덜대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말한다. 누구보다 기운차게, 누구보다 달랠 길 없이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말로는 자기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 겉보기에는 부유하지만 모든 계층 가운데 가장 지독하게 가난한 계층을 마음에 두고 있다. 찌꺼기를 쌓아 두고도 그것을 쓸 줄도 치울 줄도 몰라서, 결국 제 손으로 금이나 은으로 된 족쇄를 벼린 사람들이다.

◆

내가 지난 여러 해 동안 삶을 어떻게 보내고 싶어 했는지 이야기하려든다면, 내 삶의 실제 이력을 얼마간 아는 독자들은 아마 놀랄 것이고, 그것을 전혀 모르는 독자들은 분명 기겁할 것이다. 나는 내가 품어 온 계획 몇 가지만 넌지시 비추겠다.

날씨가 어떻든,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 나는 아슬아슬한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살려서 내 막대기에도 그 눈금을 새겨 두고 싶었다. 과거와 미래라는 두 영원이 만나는 자리,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서고 싶었다. 그 선에 발끝을 딱 대고서. 여러분은 얼마간 모호한 데가 있어도 너그러이 보아 주리라. 내 일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하는 일보다 비밀이 더 많은데, 일부러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본성과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 일에 관해 아는 것을 기꺼이 다 말하겠고, 내 문간에 "출입 금지"라고 칠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나는 오래전에 사냥개 한 마리와 밤색 말 한 마리와 멧비둘기 한 마리를 잃었고, 지금도 그 자취를 쫓고 있다. 나는 많은 나그네에게 그것들 이야기를 하며 그 발자국이 어떠했는지, 어떤 부름에 대답했는지

일러 주었다. 사냥개 소리와 말발굽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 비둘기가 구름 뒤로 사라지는 것까지 보았다는 사람을 한둘 만났는데, 그들은 마치 자기가 잃어버린 것처럼 그것들을 되찾고 싶어 안달하는 듯했다.

해돋이와 새벽만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자연 그 자체를 앞질러 맞이하고 싶었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어느 이웃도 아직 제 일을 보러 움직이지 않은 새벽에, 나는 얼마나 많은 아침을 내 일로 바삐 보냈던가! 틀림없이 많은 읍 사람이, 어스름 속에 보스턴으로 길을 나서는 농부들이나 일터로 가는 나무꾼들이, 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나와 마주쳤을 것이다. 사실 나는 해가 떠오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의심하지 말라.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더없이 중요했다.

가을날을, 아니 겨울날도 그 얼마나 많이 읍 밖에서 보냈던가. 바람 속에 무엇이 실려 오는지 들으려고, 듣고서 그것을 급행으로 실어 나르려고! 나는 거기에 내 밑천을 거의 다 쏟아붓고, 바람을 안고 달리느라 덤으로 내 숨까지 잃었다. 그것이 두 정당 가운데 어느 쪽과 관계된 일이었다면, 틀림없이 가장 빠른 소식으로 『가제트』에 실렸을 것이다. 또 어떤 때는 벼랑이나 나무라는 관측대에서 망을 보다가 새로 도착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전신으로 알리려 했고, 저녁이면 언덕 꼭대기에서 하늘이 무너지기를 기다렸다. 무언가 받아 내려고. 그러나 받아 낸 것은 많지 않았고, 그나마 만나처럼 해가 뜨면 다시 녹아 버렸다.

나는 오랫동안 발행 부수가 그리 많지 않은 어느 잡지의 기자였는데, 그 편집자는 내가 보낸 글의 대부분을 아직까지 실을 만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글 쓰는 사람에게 너무나 흔한 일이지만, 나는 수고한 대가로 수고만 얻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수고가 그 자체로 보상이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스스로 눈보라와 비바람의 감독관을 맡아 충실히 의무를 다했다. 큰길까지는 아니더라도 숲길과 밭을 가로지르는 모든 지름길의 측량사로서, 사람들의 발뒤꿈치가 그 쓸모를 증언해 준 곳이면 철마다 길을 터 두고 골짜기에 다리를 놓아 건널 수 있게 해 두었다.

나는 읍의 야생 가축을 돌보았는데, 이것들은 울타리를 뛰어넘는 바람에 충실한 목동을 꽤나 애먹인다. 또 농장에서 사람 발길이 뜸한 구석구석을 눈여겨보았다. 오늘 어느 밭에서 요나스가 일하는지 솔로몬이 일하는지는 늘 알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내 일이 아니었다. 나는 붉은 허클베리와 모래벚나무와 팽나무, 붉은소나무와 검은물푸레나무, 흰 포도와 노란 제비꽃에 물을 주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가문 철에 시들었을지도 모른다.

요컨대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자랑 삼아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일을 충실히 챙겼는데, 결국 읍 사람들이 나를 읍 관리 명단에 넣어 주지도, 알맞은 수당을 붙여 내 자리를 한직으로 만들어 주지도 않으리라는 것이 점점 더 뚜렷해졌다. 충실히 적어 왔다고 맹세할 수 있는 내 장부는 사실 한 번도 감사를 받지 못했고, 하물며 승인을 받거나 지급과 결산을 받은 적은 더더욱 없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얼마 전 떠돌이 아메리카 원주민 한 사람이 우리 동네의 이름난 변호사 집에 바구니를 팔러 갔다. "바구니 좀 사시겠소?" 그가 물었다. "아니요, 필요 없어요." 대답이 돌아왔다. "뭐요!" 원주민은 대문을 나서며 외쳤다. "우리를 굶겨 죽일 작정이오?" 그는 부지런한 백인 이웃들이 그토록 잘사는 것을 보았다. 변호사는 논변만 엮으면 무슨 마법처럼 재산과 지위가 따라왔다. 그래서 그는 혼잣말을 했다. 나도 장사를 하자, 바구니를 엮자,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바구니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 몫은 다한 것이고, 그다음은 백인이 사 줄 차례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사는 쪽에게 살 만한 값어치가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아니면 적어도 그렇다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아니면 살 만한 값어치가 있는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나도 올이 섬세한 바구니 같은 것을 엮었지만, 누구에게도 살 만한 값어치가 있게 만들지는 못했다. 그래도 내 경우에는 그것을 엮는 일이 내게 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여겼고, 사람들에게 내 바구니를 살 만한 값어치가 있게 만드는 법을 궁리하는 대신 그것을 팔아야 할 필요를 피하는 법을 궁리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성공으로 여기는 삶은 한 가지 종류일 뿐이다. 왜 다른 종류를 희생해 가며 어느 한 종류만 부풀려야 하는가?

동료 시민들이 내게 법원의 자리 하나, 어디의 부목사 자리나 성직록 하나 내줄 성싶지 않고 내가 알아서 살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어느 때보다도 오로지 숲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거기서는 내가 더 잘 알려져 있었다. 나는 흔히 마련하는 밑천을 장만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미 가진 얼마 안 되는 수단으로 당장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내가 월든 호수로 간 목적은 거기서 싸게 살려는 것도 비싸게 살려는 것도 아니었고, 가장 적은 방해를 받으며 어떤 사사로운 사업을 처리하는 데 있었다. 약간의 상식과 약간의 진취성과 사업 재능이 모자라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슬프다기보다 어리석은 일로 보였다.

나는 늘 엄격한 사업 습관을 몸에 붙이려고 애써 왔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없어서는 안 된다. 거래 상대가 천자의 나라 중국이라면, 세일럼 같은 항구의 바닷가에 작은 회계 사무소 하나만 차려도 터전으로는 넉넉할 것이다. 이 나라가 내는 물건, 순전히 이 땅의 산물인 얼음과 소나무 목재를 많이, 화강암을 조금, 늘 이 나라 배에 실어 내보낼 것이다. 이것은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 모든 세부를 몸소 감독하는 일, 수로 안내인이자 선장이고 선주이자 보험업자인 일,

사고팔고 장부를 적는 일, 받은 편지를 하나하나 읽고 보내는 편지를 하나하나 쓰거나 읽는 일, 밤낮으로 수입품 부리는 일을 감독하는 일, 해안의 여러 곳에 거의 동시에 가 있는 일(가장 값진 짐은 흔히 저지 해안에 부려지니까), 스스로 전신이 되어 지칠 줄 모르고 수평선을 훑으며 연안을 오가는 배마다 말을 거는 일, 그토록 멀고 터무니없이 탐욕스러운 시장에 대려고 상품을 꾸준히 실어 보내는 일, 시장의 형편과 곳곳의 전쟁과 평화의 전망을 늘 알고 무역과 문명의 흐름을 내다보는 일, 모든 탐험대가 거둔 결과를 활용하고 새 항로와 항해술의 모든 개량을 이용하는 일을 모두 해내야 한다. 해도를 연구해야 하고, 암초와 새 등대와 부표의 위치를 확인해야 하고, 로그표를 늘, 늘 바로잡아야 한다. 어느 계산하는 사람의 잘못 하나로, 우호적인 부두에 닿았어야 할 배가 바위에 부딪혀 쪼개지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라페루즈의 알려지지 않은 운명이 있지 않은가. 만물의 학문과 발맞추어야 하고, 한노와 페니키아 사람들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위대한 발견자와 항해자, 위대한 모험가와 상인의 생애를 공부해야 한다. 끝으로 이따금 재고를 조사해서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한 사람의 능력을 다 쏟게 하는 노동이다. 이익과 손실, 이자, 포장 무게와 손실분 공제, 온갖 계량의 문제들이 거기 들어 있어서 만물에 걸친 지식이 필요하다.

나는 월든 호수가 사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철도와 얼음 장사 때문만은 아니다. 털어놓는 것이 좋은 방책이 아닐지도 모르는 이점들이 거기 있다. 그곳은 좋은 항구이고 좋은 터전이다. 메워야 할 네바강의 늪도 없다. 물론 어디서든 제 손으로 박은 말뚝 위에 지어야 하지만. 서풍이 불 때 밀물이 들고 네바강에 얼음이 떠 있으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땅 위에서 쓸려 나가 버릴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 사업은 흔히 갖추는 밑천 없이 시작할 참이었으므로, 그런 일에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을 어디서 얻을 생각이었는지 짐작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곧장 문제의 실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옷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옷을 장만할 때 참된 쓸모보다 새것을 좋아하는 마음과 남의 눈을 의식하는 마음에 끌리는 일이 더 잦은 듯하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옷의 목적이 첫째로 생명의 열을 지키는 것, 둘째로 지금 같은 사회에서 맨몸을 가리는 것임을 떠올려 보라. 그러면 옷장에 옷을 더 보태지 않고도 필요하거나 중요한 일을 얼마나 해낼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벌을 한 번만 입는 왕과 왕비는, 그 옷을 폐하들께 바치는 재단사나 침모가 지었다 해도, 몸에 맞는 옷을 입는 편안함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깨끗한 옷을 걸어 두는 나무 옷걸이 말보다 나을 것이 없다. 우리 옷은 날마다 우리 자신과 더 닮아 가고 입은 사람의 성격을 새겨 받아서, 마침내 우리는 그것을 벗어 두기를 망설인다. 우리 몸을 묻을 때처럼 미루고 치료를 해 보고 얼마간 엄숙한 의식까지 치르지 않고는. 옷에 기운 자리가 있다고 해서 내 눈에 낮아 보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대개 사람들은 건전한 양심을 지니는 것보다 유행에 맞는 옷, 아니면 적어도 깨끗하고 기운 데 없는 옷을 입는 데 더 마음을 졸이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찢어진 데를 깁지 않았다 해도, 그것이 드러내는 가장 나쁜 악덕은 아마 앞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정도일 것이다. 나는 이따금 이런 시험으로 아는 사람들을 떠본다. 무릎 위에 기운 자리 하나, 아니 솔기 두 줄이 더 있는 바지를 누가 입을 수 있겠는가? 대부분은 그랬다가는 앞날이 망가지기라도 할 것처럼 군다. 그들에게는 바지가 찢어진 채로보다 다리가 부러진 채로 읍내까지 절뚝거리며 가는 편이 더 쉬울 것이다. 신사의 다리에 사고가 나면 흔히 고칠 수 있다. 그러나 바짓가랑이에 같은 사고가 나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는 참으로 존경할 만한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사람은 몇 안 되지만, 우리가 아는 외투와 바지는 아주 많다. 여러분의 마지막 속옷까지 허수아비에게 입히고 여러분은 속옷도 대책도 없이 곁에 서 있다면, 누가 허수아비에게 먼저 인사하지 않겠는가? 며칠 전 옥수수밭을 지나다가 말뚝에 걸린 모자와 외투 바로 옆에서 나는 그 농장의 주인을 알아보았다. 그는 내가 지난번에 보았을 때보다 비바람에 조금 더 바랬을 뿐이었다. 옷을 입고 주인집에 다가오는 낯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짖어 대면서 벌거벗은 도둑에게는 쉽게 잠잠해지는 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사람들이 옷을 벗고도 서로의 서열을 얼마나 지킬지는 흥미로운 물음이다. 그런 경우에 문명인의 어느 무리가 가장 존경받는 계층에 속하는지 확실히 말할 수 있겠는가? 파이퍼 부인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세계를 도는 모험 여행을 하다가 고향에 꽤 가까운 아시아 쪽 러시아까지 왔을 때, 관리들을 만나러 가면서 여행복 말고 다른 옷을 입어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한다. "이제는 문명국에 와 있었고,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옷으로 판단받기" 때문이다. 우리의 민주적인 뉴잉글랜드 읍에서조차 우연히 재산을 갖게 되어 그것을 옷차림과 마차와 말로 드러내기만 하면, 그 임자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그런 존경을 바치는 사람들은,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만큼은 이교도이며 선교사를 보내 주어야 할 사람들이다. 게다가 옷은 바느질을 불러들였다. 끝이 없다고 할 만한 일이다. 적어도 여자의 옷은 끝나는 법이 없다.

마침내 할 일을 찾은 사람은 그 일을 하려고 새 옷을 장만할 필요가 없다. 그에게는 다락에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던 헌 옷이면 된다. 헌 구두는 영웅의 시종보다 영웅을 더 오래 섬길 것이다. 영웅에게 시종이 있기라도 하다면 말이다. 맨발은 구두보다 오래되었으니 영웅은 맨발로도 해낼 수 있다. 야회와 의회 무도회에

가는 사람들만 새 외투가 있어야 한다. 그 속의 사람이 바뀌는 만큼 자주 갈아입을 외투가. 그러나 내 웃옷과 바지, 내 모자와 구두가 신을 섬기는 자리에 입고 갈 만하다면 그것으로 넉넉하다. 그렇지 않은가? 자기 헌 옷이, 자기 헌 외투가 정말로 닳아 해져 본디의 원소로 돌아가 버려서, 그것을 어느 가난한 소년에게 주는 일이 자선이 못 될 지경이 된 것을 본 사람이 있는가? 그 소년은 어쩌면 그것을 더 가난한, 아니 더 적은 것으로도 살 수 있으니 더 부유하다고 해야 할 누군가에게 또 물려줄 텐데. 내 말은 이렇다. 옷 입는 새사람이 아니라 새 옷을 요구하는 모든 사업을 조심하라. 새사람이 없다면 새 옷을 어떻게 몸에 맞출 수 있겠는가? 앞에 무슨 사업이 놓여 있다면 헌 옷을 입고 해 보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할* 것, 아니 무언가 *될* 것이다. 헌 옷이 아무리 해지고 더러워도, 우리가 처신하고 모험하고 어떻게든 항해해서 헌 옷 속에서 새사람이 된 느낌이 들고, 그 옷을 계속 입는 것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아 두는 일처럼 느껴질 때까지는 아마 새 옷을 장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털갈이 철은 새들의 털갈이 철처럼 우리 삶의 고비여야 한다. 아비는 털갈이 철을 보내러 외딴 호수로 물러난다. 뱀이 허물을 벗고 애벌레가 벌레 옷을 벗는 것도 이처럼 안에서 애쓰고 부풀어서다. 옷은 우리의 가장 바깥 껍질이자 죽을 몸을 감은 허물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깃발을 달고 항해하다 들킬 것이고, 마침내 인류의 판정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판정으로도 어김없이 파면될 것이다.

우리는 바깥에 덧붙여 가며 자라는 외생 식물처럼 옷 위에 옷을 껴입는다. 겉에 입는, 흔히 얇고 멋을 부린 옷은 우리의 표피, 곧 거짓 살갗이어서 우리 생명과는 상관이 없으니 여기저기 벗겨 내도 목숨에 지장이 없다. 늘 입는 두꺼운 옷은 우리의 세포 외피, 곧 겉껍질이다.

그러나 셔츠는 우리의 속껍질, 곧 참껍질이어서 나무줄기 둘레를 벗겨내듯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벗길 수 없다. 나는 모든 인종이 어떤 철에는 셔츠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입는다고 믿는다.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제 몸을 손으로 더듬어 찾을 수 있을 만큼 단순하게 입고, 모든 면에서 그만큼 간소하게, 채비를 갖추고 살아서, 적이 읍을 빼앗더라도 옛 철학자처럼 아무 근심 없이 빈손으로 성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쓰임새에서 두꺼운 옷 한 벌은 얇은 옷 세 벌만 하고, 값싼 옷은 정말로 손님 형편에 맞는 값에 구할 수 있다. 다섯 해는 입을 두꺼운 외투가 5달러, 두꺼운 바지가 2달러, 쇠가죽 장화 한 켤레가 1달러 50센트, 여름 모자가 25센트, 겨울 모자가 62½센트면 살 수 있고, 아니면 이름뿐인 비용으로 집에서 더 좋은 것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 그렇게 *제 손으로 번* 옷을 입은 사람에게 존경을 바칠 지혜로운 사람들이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어떤 모양의 옷을 지어 달라고 하면 바느질하는 여자는 엄숙하게 "요즘은 그렇게 안 만들어요"라고 말한다. "그들"에 조금도 힘을 주지 않고, 마치 운명의 여신들만큼이나 사사로운 얼굴이 없는 권위를 인용하듯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옷을 지어 받기가 어렵다. 그저 내가 하는 말을 정말로 뜻하는지, 내가 그토록 무모한지 그 여자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신탁 같은 말을 들으면 나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그 뜻에 이르려고 낱말 하나하나에 따로 힘을 주어 혼자 되뇐다. 그들이 *나*와 몇 촌이나 되는 핏줄인지, 나와 이토록 가까이 걸린 일에 그들이 무슨 권위가 있는지 알아내려고. 그리고 마침내 똑같이 수수께끼처럼, "그들"에 조금도 힘을 주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진다. "맞아요, 그들이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안 만들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만들어요." 내 성격은 재지 않고, 마치 내가 외투를 걸어 둘 말뚝이라도 되는 듯 내 어깨너비만 잰다면 이렇게 나를 재서 무슨 소용인가? 우리는 우아의

여신들도, 운명의 여신 파르카이도 아닌 유행을 섬긴다. 유행이 온전한 권위를 쥐고 실을 잣고 천을 짜고 마름질을 한다. 파리의 우두머리 원숭이가 여행 모자를 쓰면 아메리카의 원숭이들이 모두 똑같이 쓴다. 나는 이따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주 단순하고 정직한 일을 해내는 것을 단념한다. 먼저 그들을 힘센 압착기에 넣어 낡은 생각을 짜내서 금방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그 무리 가운데 누군가는 머릿속에 구더기를 품고 있을 것이다. 언제 거기 낳아 놓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알에서 깬 구더기를. 이런 것은 불로도 죽지 않으니 여러분은 헛수고만 한 셈이 될 것이다. 그래도 어떤 이집트 밀은 미라가 우리에게 물려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대체로 보아, 이 나라에서든 어느 나라에서든 옷 입는 일이 예술의 품위에 올랐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구할 수 있는 것을 그럭저럭 걸치고 산다. 난파한 뱃사람들처럼 바닷가에서 찾아낸 것을 주워 입고는, 공간이든 시간이든 조금만 떨어지면 서로의 가장무도회 차림을 비웃는다. 어느 세대나 옛 유행은 비웃지만 새 유행은 경건하게 따른다. 우리는 헨리 8세나 엘리자베스 여왕의 옷차림을 보면 식인종 섬의 왕과 왕비의 옷차림을 보듯 재미있어한다. 사람이 벗어 놓은 옷은 모두 딱하거나 괴상하다. 그 안에서 내다보는 진지한 눈과 그 안에서 보낸 진실한 삶만이 웃음을 누르고 어느 민족의 옷차림이든 거룩하게 만든다. 어릿광대가 배앓이에 걸리면 그의 화려한 차림도 그 기분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병사가 포탄에 맞으면 누더기도 자줏빛 옷만큼 어울린다.

새 무늬를 좋아하는 남녀의 유치하고 야만스러운 취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세대가 오늘 요구하는 바로 그 무늬를 찾아내려고 만화경을 흔들며 실눈을 뜨고 들여다보는지 모른다. 제조업자들은 이 취향이 그저 변덕일 뿐임을 알게 되었다. 어떤 색실이 몇 올 많거나 적을

뿐인 두 무늬 가운데 하나는 금세 팔리고 다른 하나는 선반에 남는다. 그런데 한 철이 지나면 남았던 것이 가장 유행하는 무늬가 되는 일도 흔하다. 견주어 보면 문신은 사람들이 말하는 만큼 흉측한 풍습이 아니다. 그 무늬가 살갗 깊이 새겨져 바꿀 수 없다는 것만으로 야만스러운 것은 아니다.

나는 우리의 공장 제도가 사람이 옷을 얻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지 않는다. 직공들의 처지는 날마다 영국 직공들의 처지를 닮아 간다.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내가 듣고 본 바로는 공장의 주된 목적이 인류가 잘, 정직하게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회사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은 겨냥한 것만 맞힌다. 그러니 당장은 빗나가더라도 무언가 높은 것을 겨냥하는 편이 낫다.

거처로 말하자면, 이 나라보다 추운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거처 없이 지낸 예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삶의 필수품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새뮤얼 레잉은 "라플란드 사람은 가죽옷을 입고 머리와 어깨에 가죽 자루를 뒤집어쓴 채 밤마다 눈 위에서 잔다. …… 털옷을 입고 그런 추위에 나앉으면 누구든 목숨이 꺼질 만한 추위에서"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그렇게 자는 것을 직접 보았다. 그런데도 그는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강인하지는 않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아마 사람은 땅 위에 그리 오래 살기 전에 집이 주는 편리함, 이른바 가정의 안락을 발견했을 것이다. 이 말은 본디 가족보다는 집이 주는 만족을 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집이라 하면 주로 겨울이나 장마철을 떠올리고, 한 해의 삼분의 이는 양산 말고는 집이 필요 없는 기후에서는 그런 만족이 지극히 부분적이고 어쩌다 한 번일 것이다. 우리 기후에서도 예전에는 여름의 집이 거의 밤에 몸을 덮는 것일 뿐이었다. 원주민의 소식판에서 위그웜 하나는 하루의 행군을 나타내는 표시였고, 나무껍질에 새기거나 그린 위그웜 한 줄은 그만큼 여러 번

야영했다는 뜻이었다. 사람은 팔다리가 그리 크고 튼튼하게 지어지지 않았기에, 자기 세상을 좁혀 몸에 맞는 공간을 벽으로 둘러쳐야 했다. 사람은 처음에 맨몸으로 바깥에 있었다. 그러나 맑고 따뜻한 날 낮에는 그것이 꽤 즐거웠겠지만, 이글거리는 햇볕은 말할 것도 없고 장마철과 겨울이 사람의 종족을 싹부터 잘라 버렸을지 모른다. 서둘러 집이라는 거처를 옷처럼 둘러 입지 않았다면. 옛이야기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는 다른 옷보다 먼저 나무 그늘을 입었다. 사람에게는 가정이 필요했다. 따뜻한 곳, 안락한 곳이. 처음에는 몸의 따뜻함이, 다음에는 정의 따뜻함이.

인류의 어린 시절에 어느 모험심 많은 인간이 몸을 피하려고 바위 구멍으로 기어든 때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아이는 누구나 어느 정도 세상을 새로 시작하고, 젖고 추운 날에도 밖에 있기를 좋아한다. 아이는 말 타기 놀이와 함께 소꿉장난도 하는데,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어릴 적 비죽 튀어나온 바위나 동굴 비슷한 것만 보아도 얼마나 마음이 끌렸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것은 우리 안에 아직 살아남은 우리의 가장 원시적인 조상의 그 일부, 어떤 일부가 품은 자연스러운 그리움이었다. 동굴에서 우리는 야자 잎 지붕으로, 나무껍질과 나뭇가지 지붕으로, 짜서 펼친 아마포 지붕으로, 풀과 짚 지붕으로, 널빤지와 너와 지붕으로, 돌과 기와 지붕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우리는 바깥 공기 속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었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여러 뜻에서 집에 길들여져 있다. 화롯가에서 들판까지는 아주 멀다. 우리가 낮과 밤을 더 많이 우리와 하늘의 천체 사이에 아무 가림막 없이 보낸다면, 시인이 지붕 밑에서 그토록 많이 말하지 않고 성자가 그토록 오래 거기 머물지 않는다면, 아마 좋을 것이다. 새는 동굴 속에서 노래하지 않고, 비둘기는 비둘기장 속에서 순결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지만 살 집을 지으려는 사람이라면 양키다운 약삭빠름을 조금 발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집이 아니라 구빈 작업장에, 실타래 없는 미궁에, 박물관에, 구호소에, 감옥에, 화려한 영묘에 들어앉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먼저 꼭 필요한 거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생각해 보라. 나는 이 읍에서 페놉스콧 원주민들이 둘레에 눈이 거의 1피트나 쌓였는데도 얇은 무명 천막에서 사는 것을 보았다. 바람을 막아 주게 눈이 더 깊이 쌓이면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예전에 정직하게 생계를 꾸리면서도 내가 할 일을 할 자유를 남겨 두는 방법이 지금보다 더 나를 괴롭히던 때에(안타깝게도 지금은 내가 얼마간 무디어졌다), 나는 철도 옆에서 길이 6피트에 너비 3피트쯤 되는 큰 상자를 보곤 했다. 일꾼들이 밤에 연장을 넣고 잠가 두는 상자였다. 그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몹시 쪼들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1달러에 이런 상자 하나를 구해서, 적어도 바람이 들게 송곳 구멍을 몇 개 뚫어 놓고 비 오는 날과 밤에 그 속에 들어가 뚜껑을 걸어 잠그면, 사랑에도 자유롭고 영혼도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 이것은 가장 나쁜 대안으로도, 결코 업신여길 대안으로도 보이지 않았다. 원하는 만큼 늦게까지 앉아 있을 수 있고, 언제 일어나든 땅 주인이나 집 주인이 집세를 내라고 뒤를 쫓는 일 없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자에서라면 얼어 죽지 않았을 많은 사람이 더 크고 더 사치스러운 상자의 집세를 내느라 죽도록 시달린다. 나는 결코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주제이지만, 그렇게 처리해 버릴 수는 없다. 한때 이곳에서는 대부분 바깥에서 사는 거칠고 강인한 종족이 자연이 손닿는 곳에 마련해 준 재료만으로 거의 모든 것을 지어 안락한 집을 만들었다. 매사추세츠 식민지에 복속한 원주민들의 감독관이던 구킨은 1674년에 이렇게 썼다. "그들의 가장 좋은 집은 수액이 오르는 철에 줄기에서 벗겨 내어 아직 푸를 때 무거운

통나무로 눌러 큰 판으로 만든 나무껍질로 아주 말끔하게 덮어서, 꼭 맞고 따뜻하다. …… 그보다 못한 집은 일종의 부들로 짠 거적으로 덮는데, 이것도 그런대로 꼭 맞고 따뜻하지만 앞의 것만은 못하다. …… 길이가 60피트나 100피트, 너비가 30피트인 것도 보았다. …… 나는 그들의 위그웜에서 자주 묵었는데, 영국의 가장 좋은 집만큼 따뜻했다." 그는 그 집 안에 대개 공들여 수놓은 거적을 깔고 둘렀으며 여러 가지 세간을 갖추었다고 덧붙인다. 원주민들은 지붕 구멍 위에 거적을 매달아 끈으로 움직여서 바람을 조절할 줄 알 만큼 앞서 있었다. 그런 집은 처음 지을 때 기껏해야 하루나 이틀이면 되었고, 몇 시간이면 걷었다가 다시 세울 수 있었다. 그리고 집집마다 그런 집 한 채나 그 안의 방 한 칸을 가지고 있었다.

야만의 상태에서는 집집마다 가장 좋은 것 못지않은 거처, 더 거칠고 더 단순한 필요를 채우기에 넉넉한 거처가 있다. 그러나 하늘의 새에게 둥지가 있고 여우에게 굴이 있고 야만인에게 위그웜이 있는데도,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거처를 소유한 가정이 절반도 안 된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문명이 특히 우세한 큰 읍과 도시에서는 거처를 소유한 사람의 수가 전체의 아주 작은 몫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없어서는 안 되게 된 이 가장 바깥의 옷을 위해 해마다 세를 내는데, 그 돈이면 원주민 위그웜으로 마을 하나를 살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돈이 그들을 평생 가난하게 묶어 두는 데 한몫한다. 여기서 소유에 견주어 세 드는 것이 얼마나 불리한지 우기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야만인은 거처에 드는 비용이 아주 적어서 그것을 소유하는 반면, 문명인은 대개 소유할 형편이 못 되어서 세를 들며, 길게 보면 세 들 형편도 별로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한다. 가난한 문명인은 이 세만 내면 야만인의 거처에 비하면 궁전이나 다름없는 거처를 얻는다고. 한 해에 25달러에서

100달러(이것은 시골 시세다)의 집세를 내면 그는 여러 세기에 걸친 개량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얻는다. 넓은 방, 말끔한 칠과 벽지, 럼퍼드 벽난로, 회벽 안벽, 베네치아 블라인드, 구리 펌프, 용수철 자물쇠, 널찍한 지하실, 그 밖에 많은 것을. 그러나 이런 것을 누린다는 사람이 어째서 그토록 흔히 가난한 문명인이고, 그런 것이 없는 야만인은 야만인으로서 부유한가? 문명이 사람의 처지를 참으로 나아지게 했다고 주장한다면(나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이점을 살리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뿐이다), 문명이 집을 더 비싸게 만들지 않으면서 더 나은 집을 만들어 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물건의 값은 그것과 바꾸어야 하는, 내가 삶이라 부르려는 것의 양이다. 당장 치르든 길게 두고 치르든. 이 동네의 보통 집은 아마 800달러쯤 할 텐데, 이 돈을 모으려면 딸린 식구가 없다 해도 일꾼의 삶에서 열 해에서 열다섯 해가 걸릴 것이다. 누구의 노동이든 돈으로 쳐서 하루 1달러로 잡는다면 그렇다. 더 받는 사람도 있지만 덜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 대개는 삶의 절반 이상을 보내고 나서야 제 위그웜을 벌게 된다. 그 대신 세를 낸다고 해도, 그것은 두 가지 악 가운데 무엇을 고르느냐는 미심쩍은 선택일 뿐이다. 이런 조건으로 위그웜을 궁전과 바꾸었다면 야만인이 지혜로웠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내가 이 남아도는 재산을 앞날에 대비한 비축으로 쥐고 있는 이점을, 개인에 관한 한, 거의 전부 주로 장례비를 대는 데로 줄여 버린다고 짐작할지 모른다. 그러나 아마 사람이 제 손으로 저를 묻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이것은 문명인과 야만인 사이의 중요한 차이를 가리킨다. 그리고 분명 문명인들의 삶을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 그 안에 개인의 삶을 대부분 빨아들여서 종족의 삶을 보존하고 완성하려는 것은 우리를 이롭게 하려는 계획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이점을 지금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얻고 있는지 보여 주고, 어쩌면

우리가 불리한 점은 하나도 겪지 않으면서 이점은 모두 거두며 살 수 있으리라는 것을 넌지시 비추고 싶다. 가난한 사람은 늘 너희와 함께 있다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의 이가 시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주 하느님이 말한다.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쓸 일이 없을 것이다.

"보라, 모든 영혼은 내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 내 것이듯 아들의 영혼도 내 것이다. 죄를 짓는 영혼,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다른 계층 못지않게 잘산다는 내 이웃, 콩코드의 농부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대부분 스물, 서른, 마흔 해를 고생하며 일했다. 대개 빚이 딸린 채 물려받았거나 빌린 돈으로 산 농장의 진짜 주인이 되려고. 그 고생의 삼분의 일은 그들 집의 값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런데 대개 그들은 아직 그 값을 다 치르지 못했다. 사실 빚이 농장의 가치보다 무거워서 농장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빚 덩어리가 되는 일도 있는데, 그래도 그 농장을 물려받겠다는 사람이 나선다. 그 사람 말로는 농장 사정을 잘 알기 때문이다. 세금 사정관들에게 물어보고, 나는 그들이 이 읍에서 농장을 빚 한 푼 없이 깨끗이 소유한 사람을 열두 명도 당장 꼽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놀란다. 이 농가들의 내력을 알고 싶다면 그것을 저당 잡은 은행에 물어보라. 농장에서 일해서 실제로 그 값을 다 치른 사람은 너무 드물어서 이웃마다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다. 콩코드에 그런 사람이 세 사람이나 있을지 의심스럽다. 상인들을 두고, 아주 큰 다수가, 백에 아흔일곱이나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말은 농부들에게도 똑같이 들어맞는다. 그런데 상인들에 관해서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정곡을 찌르는 말을 한다. 그들의 파산은 대부분 진짜 돈이 모자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불편하다는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곧 무너지는 것은 도덕적 품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은 사태를 한없이 더 나쁘게 보이게 할 뿐 아니라, 나머지 셋조차 아마 제 영혼을 구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어쩌면 정직하게 망한 사람들보다 더 나쁜 뜻에서 파산했으리라는 것을 내비친다. 파산과 빚 떼어먹기는 우리 문명의 상당 부분이 뛰어올라 공중제비를 넘는 발판이지만, 야만인은 굶주림이라는 탄력 없는 널빤지 위에 서 있다. 그런데도 이곳에서는 해마다 미들섹스 가축 품평회가 화려하게 열린다.[7] 마치 농업이라는 기계의 마디마디가 매끄럽게 잘 돌아가기라도 하는 듯이.

농부는 생계라는 문제를 그 문제 자체보다 더 복잡한 공식으로 풀려고 애쓴다. 구두끈 하나 얻으려고 소 떼에 투기한다. 그는 더없이 능숙한 솜씨로 안락과 독립을 잡으려고 머리카락처럼 예민한 용수철을 단 덫을 놓았는데, 돌아서다가 제 다리가 거기 걸리고 말았다. 그가 가난한 까닭이 이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까닭으로 우리 모두는 사치품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야만인이 누리는 천 가지 안락에서는 가난하다. 채프먼이 노래하듯이.

"사람들의 거짓된 사회는
땅 위의 위대함을 얻으려고
하늘의 모든 안락을 묽은 공기로 흩어 버린다."

그리고 농부가 집을 얻었을 때, 그는 그 때문에 더 부유해지기는커녕 더 가난해질지도 모르고, 집을 얻은 것이 아니라 집이 그를 얻은 것일지도 모른다. 내가 알기로 모모스가 미네르바가 지은 집을 두고 내세운 반론, 곧 미네르바가 "그 집을 옮길 수 있게 짓지 않아서 나쁜 이웃을 피할 길이 없다"는 반론은 타당한 것이었다. 그 반론은 지금도 내세울 수 있다. 우리 집은 너무나 다루기 어려운 재산이어서 우리는 그 안에 깃들어 산다기보다 갇혀 사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야

할 나쁜 이웃은 비루한 우리 자신이다. 나는 적어도 이 읍에서 한두 집을 아는데, 그들은 거의 한 세대 동안 변두리의 집을 팔고 마을로 옮겨 가고 싶어 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고, 죽음만이 그들을 풀어 줄 것이다.

다수가 마침내 온갖 개량을 갖춘 현대식 집을 소유하거나 세 들 수 있게 된다고 치자. 문명은 우리 집을 개량해 왔지만, 그 집에 살 사람들은 그만큼 개량하지 못했다. 문명은 궁전을 지어 냈지만 귀족과 왕을 지어 내기는 그리 쉽지 않았다. 그리고 *문명인이 추구하는 것이 야만인이 추구하는 것보다 더 값지지 않다면, 그가 삶의 대부분을 그저 투박한 필수품과 안락을 얻는 데 쓴다면, 그가 왜 야만인보다 더 나은 집을 가져야 하는가?*

그러면 가난한 소수는 어떻게 지내는가? 어쩌면 어떤 사람들이 겉의 처지에서 야만인보다 높이 올라선 바로 그만큼, 다른 사람들은 야만인보다 낮게 떨어졌다는 것이 드러날지 모른다. 한 계층의 사치는 다른 계층의 궁핍으로 균형이 맞추어진다. 한쪽에는 궁전이 있고, 다른 쪽에는 구호소와 "말 없는 가난한 이들"이 있다. 파라오의 무덤이 될 피라미드를 쌓은 수많은 사람은 마늘을 먹고 살았고, 아마 그들 자신은 제대로 묻히지도 못했을 것이다. 궁전의 처마 돌림띠를 마무리하는 석공은 밤이면 어쩌면 위그웜만도 못한 움막으로 돌아간다. 문명의 흔한 증거가 갖추어진 나라에서는 주민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의 처지가 야만인만큼 비참할 리 없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 나는 타락한 부자가 아니라 비참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알려고 멀리 볼 필요도 없다. 문명의 가장 최근 개량인 철도 가장자리마다 늘어선 판잣집들만 보면 된다. 나는 날마다 걷다가 거기서 돼지우리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을 본다. 그들은 빛을 들이려고 겨우내 문을 열어 두고, 눈에 보이는 장작더미는커녕 상상할 수 있는 장작더미조차 없는 일이 많으며, 늙은이고 젊은이고 추위와 비참함에 오래 움츠려 온 버릇

때문에 몸이 영영 오그라들었고, 팔다리와 온갖 능력이 자라다 말았다. 이 세대를 돋보이게 하는 사업들을 제 노동으로 이루어 내는 계층을 살펴보는 것은 분명 공정한 일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의 거대한 구빈 작업장인 영국에서 온갖 부류의 직공들이 놓인 처지도 이와 같다. 아니면 지도에 하얗게, 곧 개화된 곳으로 표시된 아일랜드를 보라고 할 수도 있다. 아일랜드 사람들의 몸의 형편을, 문명인과 접촉해서 타락하기 전의 북아메리카 원주민이나 남태평양 섬사람이나 다른 어느 야만 종족의 몸의 형편과 견주어 보라. 그래도 나는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 문명국 통치자들의 평균만큼은 지혜롭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의 처지는 문명과 함께 얼마나 지독한 불결함이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 줄 뿐이다. 이 나라의 주요 수출품을 생산하면서 그들 자신이 남부의 주요 생산품인 우리 남부 여러 주의 일꾼들은 지금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른바 *웬만한* 형편에 있다는 사람들로만 이야기를 좁히자.

대부분의 사람은 집이란 무엇인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듯하고, 이웃이 가진 것과 같은 집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평생, 그럴 필요도 없이 가난하다. 마치 재단사가 마름질해 주는 대로 아무 외투나 입어야 한다거나, 야자 잎 모자나 우드척 가죽 모자를 차츰 버리고 나서 왕관을 살 형편이 못 된다고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투덜대는 격이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편리하고 더 사치스러운 집을 발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집은 사람이 값을 치를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런 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만 궁리하고, 이따금 더 적은 것으로 만족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인가? 점잖은 시민이 젊은이에게, 죽기 전에 남아도는 덧신 몇 켤레와 우산 몇 개와, 빈 손님을 위한 빈 손님방 몇 칸쯤은 갖추어야 한다고 말과 본보기로 이처럼 엄숙하게 가르쳐야 하겠는가? 우리 가구는

왜 아랍인이나 원주민의 가구만큼 단순하면 안 되는가? 우리가 하늘에서 온 사자로, 사람에게 신의 선물을 가져다준 이들로 떠받드는 인류의 은인들을 생각하면, 나는 그들의 뒤를 따르는 시종 행렬도, 유행하는 가구를 실은 수레도 떠올리지 못한다. 아니면 우리가 도덕과 지성에서 아랍인보다 뛰어난 만큼 우리 가구도 아랍인의 것보다 더 복잡해야 한다고 내가 인정한다면 어떨까. 그것은 기묘한 인정이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 집은 가구로 어수선하고 더럽혀져 있어서, 솜씨 좋은 주부라면 그 대부분을 쓰레기 구덩이에 쓸어 넣고도 아침 일을 다 해낼 것이다. 아침 일이라! 아우로라의 홍조와 멤논의 음악에 걸고 묻건대,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해야 할 *아침 일*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내 책상에는 석회석 세 덩이가 있었다. 그런데 내 마음의 가구는 아직 먼지 하나 털지 못했는데 그 돌들은 날마다 먼지를 털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질겁해서, 넌더리를 내며 창밖으로 내던졌다. 그런 내가 어떻게 가구를 갖춘 집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나는 차라리 바깥 공기 속에 앉아 있겠다. 사람이 땅을 갈아엎은 곳이 아니라면 풀 위에는 먼지가 쌓이지 않기 때문이다.

무리가 그토록 부지런히 따르는 유행을 정하는 것은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들이다. 이른바 최고급 여관에 묵는 나그네는 곧 이것을 알게 된다. 여관 주인들은 그를 사르다나팔루스쯤으로 여기고, 그들의 다정한 자비에 몸을 맡겼다가는 금세 사내다움을 송두리째 잃을 것이다. 내 생각에 우리는 기차 객차에서도 안전과 편의보다 사치에 더 많이 쓰려는 경향이 있고, 객차는 안전도 편의도 이루지 못한 채 현대식 응접실과 다를 바 없게 될 판이다. 긴 의자와 쿠션 의자와 차양과 그 밖에 백 가지 동양 물건을 갖춘 응접실 말이다. 하렘의 여인들과 천자의 나라 중국의 나약한 사람들을 위해 발명된 그 물건들을 우리는 서쪽으로 실어 가고 있는데, 조너선이라면 그 이름을 아는 것조차 부끄러워해야 할

것들이다.[8] 나는 벨벳 방석 위에 끼어 앉느니 차라리 호박 위에 혼자 앉겠다. 유람 열차의 화려한 객차를 타고 가는 내내 말라리아, 곧 나쁜 공기를 마시며 하늘나라에 가느니, 바람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소달구지를 타고 땅 위를 가겠다.

원시 시대 사람의 삶이 그토록 단순하고 헐벗었다는 사실은 적어도 이런 이점을 뜻한다. 그 삶은 사람을 여전히 자연 속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로 남겨 두었다. 먹고 자서 기운을 되찾으면 그는 다시 제 길을 생각했다. 그는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천막에 살면서 골짜기를 누비거나 들판을 가로지르거나 산꼭대기를 올랐다. 그러나 보라! 사람은 자기 도구의 도구가 되었다. 배고플 때 제 마음대로 열매를 따 먹던 사람은 농부가 되었고, 비를 피하려고 나무 밑에 서 있던 사람은 집지기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 하룻밤을 묵듯 야영하지 않고, 땅 위에 눌러앉아 하늘을 잊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를 그저 개량된 *땅 가꾸기 기술*(*agriculture*)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가문의 저택을, 저세상을 위해 가문의 무덤을 지었다. 가장 훌륭한 예술 작품은 이런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의 몸부림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예술이 하는 일은 이 낮은 처지를 편안하게 하고 저 높은 처지를 잊게 하는 것뿐이다. 실제로 이 마을에는 *순수* 예술 작품이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다 해도 세워 둘 자리가 없다. 우리 삶도, 우리 집과 거리도 그것을 올려놓을 알맞은 받침대가 되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림 한 점 걸 못 하나, 영웅이나 성자의 흉상을 올려놓을 선반 하나 없다. 우리 집이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값이 치러지는지, 또는 치러지지 않는지, 그 안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꾸려지고 유지되는지 생각하면, 손님이 벽난로 선반 위의 자질구레한 장식품에 감탄하는 사이에 마룻바닥이 꺼져서 그를 지하실로, 흙투성이일지언정 단단하고 정직한 토대로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신기하다. 이른바 부유하고 세련된 이 삶은 껑충

뛰어서 잡아챈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고, 나는 그 삶을 꾸미는 순수 예술을 즐기는 데로 나아가지 못한다. 내 주의가 온통 그 도약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기록에 남은, 오로지 사람의 근육만으로 해낸 가장 큰 진짜 도약은 어느 떠돌이 아랍인들의 것인데, 그들은 평지에서 25피트를 뛰었다고 한다. 인위적인 받침이 없다면 사람은 그 거리 너머에서 반드시 땅으로 떨어진다. 이토록 어울리지 않는 것을 소유한 주인에게 내가 맨 먼저 던지고 싶은 물음은 이것이다. 누가 받쳐 주고 있소? 망하는 아흔일곱 가운데 하나요, 성공하는 셋 가운데 하나요? 이 물음에 대답해 보시오. 그러면 어쩌면 나도 그 장신구들을 보고 장식이 된다고 여길지 모르오. 말 앞에 매단 수레는 아름답지도 쓸모 있지도 않다. 아름다운 물건으로 집을 꾸미기 전에 벽을 벗겨 내야 하고, 우리 삶을 벗겨 내야 하며, 아름다운 살림살이와 아름다운 삶을 토대로 깔아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아름다움을 즐기는 취향은 집도 집지기도 없는 바깥에서 가장 잘 길러진다.

옛사람 존슨은 『기적을 행하는 섭리』에서 자기와 같은 시대를 산 이웃의 첫 정착민들을 두고 이렇게 전한다. "그들은 첫 거처로 어느 언덕 비탈 아래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파낸 흙을 통나무 위에 높이 덮고, 가장 높은 쪽의 흙벽에 기대어 연기 나는 불을 피운다." 그는 그들이 "주님의 축복으로 땅이 그들을 먹일 빵을 내기까지는 집을 장만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첫해의 수확이 너무 적어서 "오랫동안 빵을 아주 얇게 썰어 먹어야 했다"고 한다. 1650년에 그곳 땅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네덜란드어로 글을 쓴 뉴네덜란드 주의 서기는 더 자세히 이렇게 적는다. "뉴네덜란드에서, 특히 뉴잉글랜드에서 처음에 바라는 대로 농가를 지을 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땅에 지하실처럼 네모난 구덩이를 6피트나 7피트 깊이로, 길이와 너비는 알맞다고 여기는 만큼 판다. 안쪽 흙벽을 빙 둘러 나무로 대고,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그

나무에 나무껍질이나 다른 것을 덧댄다. 이 지하실 바닥에 널빤지를 깔고 머리 위에는 판자를 대어 천장으로 삼으며, 서까래로 지붕을 높이 올리고 그 서까래를 나무껍질이나 푸른 뗏장으로 덮는다. 그러면 온 식구가 이런 집에서 두 해, 세 해, 네 해를 마르고 따뜻하게 살 수 있다. 물론 이 지하실은 식구 수에 맞게 칸막이로 나눈다. 식민지 초기에 뉴잉글랜드의 부유한 유력자들은 두 가지 까닭으로 첫 살림집을 이렇게 지었다. 첫째로는 집 짓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다음 철에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게 하려고, 둘째로는 모국에서 무리 지어 데려온 가난한 일꾼들의 기를 꺾지 않으려고. 서너 해가 지나 땅이 농사에 알맞게 되자 그들은 수천을 들여 번듯한 집을 지었다."

우리 조상들이 걸은 이 길에는 적어도 신중함의 모양새가 있었다. 마치 더 급한 필요부터 채우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었던 듯하다. 그러나 지금 더 급한 필요는 채워져 있는가? 우리의 사치스러운 집 한 채를 장만할 생각을 하면 나는 망설여진다. 말하자면 이 땅은 아직 *사람*을 가꾸기에 알맞게 되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조상들이 밀가루 빵을 썬 것보다 훨씬 더 얇게 우리의 *영혼*의 빵을 썰어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거친 시대에도 건축의 장식을 모두 소홀히 하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우리 집은 먼저 우리 삶과 맞닿는 안쪽부터 조개의 집처럼 아름다움으로 안을 대야지, 겉에 아름다움을 덧씌워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 나는 그런 집 한두 채 안에 들어가 보았고, 그 안을 무엇으로 대었는지 안다.

우리가 오늘 동굴이나 위그웜에 살거나 가죽옷을 입지 못할 만큼 퇴화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비싸게 얻은 것이라도 인류의 발명과 근면이 내놓는 이점을 받아들이는 편이 분명 낫다. 이런 동네에서는 널빤지와 너와, 석회와 벽돌이, 알맞은 동굴이나 통나무나 넉넉한 양의 나무껍질보다, 아니 잘 이긴 진흙이나 납작한 돌보다도 값싸고 구하기

쉽다. 나는 이 주제를 알고서 말한다. 이론으로도 실제로도 이것을 익혔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지혜를 쓰면 우리는 이 재료들을 써서 지금 가장 부유한 사람보다 더 부유해지고, 우리 문명을 하나의 축복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문명인은 경험이 더 많고 더 지혜로운 야만인이다. 그러나 서둘러 내 실험으로 넘어가자.

1845년 3월 말 무렵, 나는 도끼 한 자루를 빌려 월든 호숫가의 숲, 집을 지으려던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내려가서 목재로 쓸, 아직 어리고 화살처럼 곧게 뻗은 키 큰 스트로브잣나무 몇 그루를 베기 시작했다. 빌리지 않고 시작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마 이것이 이웃들에게 내 사업에 관심을 가질 기회를 주는 가장 너그러운 길일 것이다. 도끼 임자는 도끼를 내주면서 그것이 자기 눈동자처럼 아끼는 물건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받은 것보다 더 날을 세워 돌려주었다. 내가 일한 곳은 소나무 숲이 덮인 기분 좋은 언덕 비탈이었고, 나무 사이로 호수가 내다보였으며, 숲속의 작은 빈터에서는 소나무와 히코리가 돋아나고 있었다. 호수의 얼음은 군데군데 트인 곳이 있었지만 아직 녹지 않았고, 온통 거무스름하게 물에 젖어 있었다. 내가 거기서 일하는 동안 이따금 눈발이 가볍게 날렸다. 그러나 대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로로 나서면 노란 모래 둑이 아지랑이 낀 공기 속에 반짝이며 멀리 뻗어 있었고, 레일은 봄 햇살에 빛났으며, 종다리와 딱새와 다른 새들이 벌써 와서 우리와 함께 또 한 해를 시작하려는 소리가 들렸다. 땅과 함께 사람의 불만의 겨울도 녹아내리고, 잠들어 있던 생명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는 기분 좋은 봄날들이었다. 어느 날 도낏자루가 빠져서 푸른 히코리를 잘라 쐐기를 만들어 돌로 박아 넣고는, 나무가 붇도록 통째로 호수의 물웅덩이에 담가 두었는데, 줄무늬뱀 한 마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뱀은 내가 거기 있는 동안, 그러니까 십오 분 넘게 바닥에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다. 아마 아직 겨울잠에서 제대로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이 지금의 낮고 원시적인 처지에 머물러 있는 것도 비슷한 까닭에서인 듯했다. 그러나 봄 중의 봄이 그들을 깨우는 힘을 느낀다면, 그들은 반드시 더 높고 더 정묘한 삶으로 일어설 것이다. 나는 그전에도 서리 내린 아침이면 길에서 몸의 일부가 아직 마비되어 굳은 채 해가 녹여 주기를 기다리는 뱀들을 본 적이 있었다. 4월 1일에는 비가 와서 얼음이 녹았고, 안개가 몹시 짙던 그날 이른 시간에 길 잃은 기러기 한 마리가 호수 위를 더듬어 다니며 길을 잃은 듯, 아니면 안개의 정령처럼 끼룩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나는 며칠 동안 내 좁은 도끼 하나로 목재를 베고 다듬고, 샛기둥과 서까래도 다듬었다. 남에게 전할 만하거나 학자다운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혼자 이런 노래를 흥얼거리며.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안다고 하지만,
보라! 그것들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렸다.
예술과 학문도,
천 가지 기계 장치도.
불어 가는 바람,
누구든 아는 것은 그것뿐이다.

나는 큰 목재는 6인치 네모로 다듬고, 샛기둥은 대부분 두 면만, 서까래와 마루 장선은 한 면만 다듬고 나머지는 껍질을 그대로 두었다. 그래서 톱으로 켠 것만큼 곧으면서도 훨씬 더 튼튼했다. 그때쯤에는 다른 연장도 빌려 왔으므로, 나무마다 그루터기 곁에서 장부 구멍과 장부를 꼼꼼히 깎아 냈다. 숲에서 보낸 내 하루는 그리 길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대개 버터 바른 빵을 점심으로 싸 가서, 한낮이면 내가 쳐낸 푸른 솔가지 사이에 앉아 빵을 싼 신문을 읽었다. 내 손이 송진으로 두껍게 덮여 있어서 빵에도 솔 향이 얼마간 배었다. 일을 마치기 전에

나는 소나무 몇 그루를 베기는 했어도 소나무와 더 잘 알게 되어 원수라기보다 벗이 되었다. 이따금 숲을 거닐던 사람이 내 도끼 소리에 끌려 왔고, 우리는 내가 만든 나뭇조각들을 사이에 두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4월 중순 무렵, 나는 일을 서두르지 않고 오히려 한껏 즐겼으므로, 그때쯤 내 집은 뼈대가 다 짜여 세워 올릴 채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널빤지를 얻으려고 피치버그 철도에서 일하는 아일랜드 사람 제임스 콜린스의 판잣집을 이미 사 두었다.[9] 제임스 콜린스의 판잣집은 보기 드물게 훌륭한 판잣집으로 꼽혔다. 내가 보러 갔을 때 그는 집에 없었다. 나는 바깥을 한 바퀴 돌았는데, 창이 워낙 깊고 높아서 처음에는 안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채지 못했다. 집은 작았고 뾰족한 오두막 지붕이 얹혀 있었으며, 그 밖에는 별로 보이는 것이 없었다. 둘레에 흙이 퇴비 더미처럼 5피트나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지붕이 가장 멀쩡한 부분이었지만 그것도 햇볕에 꽤 뒤틀리고 삭아 있었다. 문지방은 없고, 문짝 밑으로 닭들이 사철 드나드는 통로가 나 있었다. C 부인이 문간으로 나와 안에서 보라고 권했다. 내가 다가가자 닭들이 안으로 쫓겨 들어갔다. 안은 어두웠고 바닥은 대부분 흙바닥이었으며 축축하고 끈적하고 학질이라도 옮을 것 같았다. 여기 한 장 저기 한 장 깔린 널빤지는 들어내면 견디지 못할 것들이었다. 부인은 등불을 켜서 지붕 안쪽과 벽을 보여 주고, 널빤지 바닥이 침대 밑까지 깔려 있다는 것도 보여 주면서, 깊이 2피트쯤 되는 일종의 쓰레기 구덩이인 지하실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일렀다. 부인의 말로는 "머리 위도 좋은 널빤지, 사방도 좋은 널빤지, 좋은 창문"이었다. 창은 본디 온전한 유리 두 장이었는데, 요즘 고양이가 그리로 드나들었을 뿐이라고. 난로 하나, 침대 하나, 앉을 자리 하나, 그 집에서 태어난 갓난아기 하나, 비단 양산 하나, 금박 테 거울 하나, 어린 떡갈나무에 못 박아 둔 새 특허 커피 분쇄기 하나, 그게

다였다. 그사이 제임스가 돌아와서 흥정은 곧 끝났다. 나는 오늘 밤 4달러 25센트를 치르고, 그는 내일 새벽 다섯 시에 집을 비우되 그사이 아무에게도 팔지 않으며, 나는 여섯 시에 집을 넘겨받기로 했다. 그는 땅세와 땔감을 두고 어렴풋하지만 전혀 부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 일찍 와서 선수를 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는 그것이 유일한 빚 문제라고 장담했다. 여섯 시에 나는 길에서 그와 그 식구를 지나쳤다. 커다란 보따리 하나에 그들의 전부가 들어 있었다. 침대, 커피 분쇄기, 거울, 닭까지. 고양이만 빼고. 고양이는 숲으로 들어가 들고양이가 되었다가, 나중에 들으니 우드척을 잡으려고 놓은 덫을 밟아서 마침내 죽은 고양이가 되었다.

나는 그날 아침 못을 뽑으며 이 집을 헐어서, 작은 수레로 몇 번에 나누어 호숫가로 옮기고, 거기 풀밭에 널빤지를 펼쳐 놓아 햇볕에 바래고 뒤틀린 것이 다시 펴지게 했다. 내가 수레를 끌고 숲길을 가는데 이른 개똥지빠귀 한 마리가 한두 가락 노래를 들려주었다. 패트릭이라는 젊은이 하나가 귀띔하기를, 이웃 실리라는 아일랜드 사람이 내가 수레로 나르는 틈틈이 아직 쓸 만하고 곧고 박을 수 있는 못이며 꺾쇠며 대못을 제 주머니로 옮겼다고 했다. 그는 내가 돌아오면 서서 인사를 건네고, 봄날의 생각에 잠긴 듯 아무렇지 않게 새삼스러운 눈으로 그 폐허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말로는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구경꾼 나라를 대표해 그 자리에 있었고, 겉보기에 하찮은 이 사건을 트로이의 신들을 옮겨 간 일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데 한몫했다.

나는 남쪽으로 기운 언덕 비탈, 예전에 우드척이 굴을 팠던 자리에 지하실을 팠다. 옻나무와 블랙베리 뿌리와 가장 밑바닥의 식물 흔적을 뚫고 사방 6피트, 깊이 7피트로, 어느 겨울에도 감자가 얼지 않을 고운 모래층까지. 옆면은 비스듬히 남겨 두고 돌을 쌓지 않았다. 그러나 해가 한 번도 비친 적이 없어서 모래는 지금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두

시간짜리 일이었을 뿐이다. 나는 이렇게 땅을 파는 데서 남다른 즐거움을 느꼈다. 거의 모든 위도에서 사람들은 고른 온도를 얻으려고 땅을 파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가장 화려한 집 밑에도 여전히 옛날처럼 뿌리채소를 저장하는 지하실이 있고, 윗부분의 건물이 사라지고 오랜 뒤에도 후손들은 땅에 남은 그 움푹한 자국을 알아본다. 집은 여전히 굴 입구에 붙은 일종의 현관일 뿐이다.

마침내 5월 초에 나는 아는 사람 몇의 도움을 받아 집의 뼈대를 세웠다. 꼭 필요해서라기보다 이웃끼리 정을 나눌 좋은 기회를 살리려는 뜻이었다. 나만큼 집 세우는 일꾼들의 인품으로 영예를 누린 사람은 없었다. 나는 그들이 언젠가 더 높은 건물을 세우는 일을 돕게 되리라 믿는다. 나는 7월 4일, 판자를 대고 지붕을 얹자마자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 판자는 가장자리를 얇게 깎아 꼼꼼히 겹쳐 대었으므로 비가 조금도 새지 않았다. 판자를 대기 전에 나는 한쪽 끝에 굴뚝의 기초를 놓았는데, 그러느라 돌을 두 수레분이나 호수에서 언덕 위로 두 팔에 안아 날랐다. 굴뚝은 가을에 콩밭 김매기를 마친 뒤, 몸을 덥히려고 불을 피워야 할 때가 오기 전에 쌓았고, 그동안에는 이른 아침에 바깥 땅바닥에서 밥을 지었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하는 편이 어떤 점에서는 흔한 부엌살림보다 더 편하고 즐겁다고 생각한다. 빵이 다 구워지기 전에 비바람이 불면 불 위에 널빤지 몇 장을 얹어 두고 그 밑에 앉아 빵 덩이를 지켜보았는데,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손이 몹시 바쁘던 그 무렵에는 책을 거의 읽지 못했지만, 땅바닥에 떨어진 아주 작은 종잇조각, 냄비 잡이나 식탁보로 쓰던 종이 한 장도 『일리아스』만큼 재미를 주었고, 사실상 『일리아스』와 같은 구실을 했다.

◆

나보다 더 찬찬히 집을 짓는다면 보람이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문, 창, 지하실, 다락이 사람의 본성에 어떤 바탕을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어쩌면 우리의 일시적인 필요보다 더 나은 이유를 찾을 때까지는 아무 윗건물도 올리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제 집을 짓는 데에는 새가 제 둥지를 짓는 데 있는 것과 같은 어울림이 얼마간 있다. 사람들이 제 손으로 집을 짓고 자기와 식구들이 먹을 것을 단순하고 정직하게 마련한다면, 새들이 그런 일을 할 때 어디서나 노래하듯 시를 짓는 능력이 어디서나 자라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아! 우리는 다른 새가 지은 둥지에 알을 낳고 재잘거리는 노래답지 않은 소리로는 어떤 나그네의 기운도 북돋아 주지 못하는 찌르레기사촌이나 뻐꾸기처럼 군다. 우리는 집 짓는 즐거움을 언제까지나 목수에게 넘겨줄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이 겪는 일에서 건축이란 무엇에 이르는가? 나는 그 많은 걸음을 걸으면서 제 집을 짓는 일처럼 그토록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우리는 공동체에 속한다. 사람의 구분의 일에 지나지 않는 것은 재단사만이 아니다. 설교자도, 상인도, 농부도 마찬가지다. 이 분업은 어디서 끝날 것인가? 그리고 결국 무슨 목적에 이바지하는가? 물론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생각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렇게 하느라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일을 밀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물론 이 나라에도 이른바 건축가들이 있고, 나는 그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이 건축 장식에 진리의 알맹이, 필연성, 그리고 그로써 아름다움을 지니게 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 내린 계시라도 되는 듯이. 그의 관점에서는 아마 다 좋은 말일 테지만, 흔한 호사가 취미보다 조금 나을 뿐이다. 건축의 감상적인 개혁가인 그는 기초가 아니라 처마 돌림띠에서 시작했다. 그가 궁리한 것은 장식 속에 어떻게 진리의 알맹이를 넣느냐, 그러니까 사탕마다

아몬드나 캐러웨이 씨를 하나씩 넣느냐였을 뿐이다. 나는 아몬드가 설탕 없이 먹을 때 가장 몸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거주자,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안팎으로 참되게 지어서 장식은 장식대로 알아서 되게 하느냐를 궁리한 것이 아니었다. 이성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장식이 그저 바깥에, 살갗에만 있는 것이라고 여겼겠는가? 거북이 얼룩무늬 등딱지를, 조개가 진줏빛 껍데기를, 브로드웨이 주민들이 트리니티 교회를 얻듯 도급 계약으로 얻었다고 여겼겠는가? 그러나 사람은 거북이 제 등딱지의 양식과 상관이 없듯 제 집의 건축 양식과 상관이 없다. 병사도 제 덕의 빛깔을 그대로 깃발에 칠하려 할 만큼 한가할 필요가 없다. 적이 알아낼 것이다. 시험이 닥치면 그는 하얗게 질릴지도 모른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처마 돌림띠 위로 몸을 기울여, 사실은 그보다 그것을 더 잘 아는 투박한 거주자들에게 자기의 반쪽 진리를 쭈뼛쭈뼛 속삭이는 것 같았다. 지금 내가 보는 건축의 아름다움은, 유일한 건축가인 거주자의 필요와 성격에서, 어떤 무의식적인 진실함과 고귀함에서, 겉모습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채 안에서 밖으로 차츰 자라난 것임을 나는 안다.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이런 종류의 아름다움은 무엇이든 그와 같은 무의식적인 삶의 아름다움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화가가 알다시피 이 나라에서 가장 흥미로운 집은 대개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꾸밈없고 소박한 통나무 움막과 오두막이다. 그것을 그림 같게 만드는 것은 그 표면의 어떤 특이함이 아니라 그것을 껍데기로 삼아 사는 사람들의 삶이다. 시민의 교외 상자 집도 그의 삶이 그만큼 단순하고 상상에 즐거워지며 집의 양식에 효과를 노린 억지가 그만큼 적어진다면 똑같이 흥미로워질 것이다. 건축 장식의 상당 부분은 글자 그대로 속이 비어 있어서, 9월의 강풍 한 번이면 알맹이는 다치지 않은 채 빌린 깃털처럼 벗겨져 나갈 것이다. 지하실에 올리브도 포도주도 없는 사람은 건축 없이도 지낼 수 있다. 문학에서 문체의

장식을 두고 똑같이 법석을 떤다면, 우리 성경의 건축가들이 우리 교회의 건축가들만큼 처마 돌림띠에 시간을 쓴다면 어떻겠는가? 이른바 아름다운 글과 아름다운 예술과 그 교수들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막대기 몇 개가 제 머리 위나 발아래로 어떻게 비스듬히 놓이는지, 제 상자에 무슨 색이 처발라지는지가 사람에게 참으로 중요하기도 하겠다! 그가 어떤 진지한 뜻으로든 손수 그 막대기를 비스듬히 놓고 그 색을 칠한다면 얼마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이 그 세입자를 떠나 버렸다면, 그것은 제 관을 짜는 일, 무덤의 건축과 다를 바 없고, "목수"는 "관 짜는 사람"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어떤 사람은 삶에 절망해서인지 무관심해서인지, 발밑의 흙을 한 줌 집어 그 색으로 집을 칠하라고 말한다. 그는 자기의 마지막 좁은 집을 생각하는 것인가? 그럴 바에야 동전이라도 던져 정하라. 그는 틀림없이 여가가 넘쳐나는 사람이다! 왜 흙 한 줌을 집어 드는가? 차라리 제 얼굴빛으로 집을 칠하라. 집이 대신 하얗게 질리거나 붉어지게 하라. 오두막 건축 양식을 개량하겠다는 사업이라니! 내 장식을 마련해 놓으면 내가 걸치겠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나는 굴뚝을 쌓고, 이미 비가 새지 않던 집의 옆면에 너와를 댔다. 통나무를 처음 켜 낸 조각으로 만든, 흠 있고 진이 밴 너와였는데, 그 가장자리는 대패로 곧게 밀어야 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너비 10피트, 길이 15피트, 기둥 높이 8피트에, 다락과 벽장, 양쪽 벽에 큰 창 하나씩, 들창 둘, 한쪽 끝에 문 하나, 그 맞은편에 벽돌 벽난로를 갖춘, 너와를 대고 회반죽을 바른 꼭 짜인 집을 갖게 되었다. 내가 쓴 재료에 흔한 값을 치르고, 내가 몸소 다 한 품은 셈에 넣지 않은 내 집의 정확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자세히 적는 까닭은 자기 집에 정확히 얼마가 들었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드물고, 집을 이루는 여러 재료 하나하나의 비용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기, 아니 아예 없기 때문이다.

널빤지	$8.03½	대부분 판잣집 널빤지.
지붕과 옆면에 댄 허드레 너와	4.00	
욋가지	1.25	
유리 끼운 중고 창 두 개	2.43	
헌 벽돌 천 장	4.00	
석회 두 통	2.40	비쌌다.
털	0.31	필요보다 많았다.
벽난로 선반 쇠	0.15	
못	3.90	
경첩과 나사	0.14	
걸쇠	0.10	
분필	0.01	
운반	1.40	상당 부분은 내가 등에 지고 날랐다.
합계	$28.12½	

이것이 재료의 전부다. 무단 정착민의 권리로 차지한 목재와 돌과 모래는 빼고. 집 짓고 남은 재료로 주로 만든 작은 장작 헛간도 집에 붙여 두었다.

나는 콩코드 큰길의 어느 집보다 웅장하고 사치스러운 집을 지을 생각이다. 그 집이 지금 집만큼 내 마음에 들고 지금 집보다 돈이 더 들지 않게 되는 대로 곧.

그래서 나는 거처를 바라는 학생이 지금 해마다 내는 집세보다 많지 않은 비용으로 평생 살 거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분수에 넘치게 자랑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 뽐내는 것이라고 변명하겠다. 그리고 내 모자람과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내 말의 진실을 해치지는 않는다. 말뿐인 위선, 내 밀알에서 골라내기 어려운 쭉정이가 많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누구 못지않게 안타깝게 여기지만, 나는 이 점에서는 마음껏 숨 쉬고 기지개를 켜겠다. 그것이 도덕의 몸에도 육신의 몸에도 그토록 큰 위안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겸손하다는 핑계로 악마의 변호인이 되지는 않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진실을 위해 좋은 말을 해 보려고 애쓰겠다. 케임브리지의 대학에서는 내 방보다 조금 클 뿐인 학생 방 하나의 세만 해도 한 해에 30달러다. 대학 법인은 한 지붕 아래 서른두 칸을 나란히 짓는 이점을 누렸고, 방에 사는 사람은 시끄러운 이웃이 많고 어쩌면 4층에 살아야 하는 불편을 겪는데도 그렇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더 있다면 교육이 덜 필요할 뿐 아니라(그야 물론 이미 더 많은 것을 깨쳤을 테니까) 교육을 받는 데 드는 돈도 상당 부분 사라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케임브리지에서든 다른 데서든 학생에게 필요한 편의 시설은, 양쪽이 제대로 관리한다면 들었을 것보다 열 배나 큰 삶의 희생을 그 학생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치르게 한다. 가장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수업료는 학기 청구서의 중요한 항목이지만, 동시대의 가장 교양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얻는 훨씬 값진 교육에는 한 푼도 매기지 않는다. 대학을 세우는 일은 대개 이렇게 진행된다. 달러와 센트로 기부금을 모으고, 그다음에는 분업의 원리를 끝까지 맹목적으로 따라서(이 원리는 늘 조심스럽게만 따라야 하는데도) 이 일을 투기 거리로 삼는 도급업자를 불러들인다. 그러면 그는 아일랜드 사람이나 다른 직공들을 부려 실제로 기초를 놓게 하고, 그동안 장차 학생이 될 사람들은 거기 들어갈 채비를 한다고들 한다. 그리고 이런 소홀함의 값은 대대로

치러야 한다. 학생들이, 아니면 대학의 덕을 보려는 사람들이 차라리 손수 기초를 놓는 편이 *이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람에게 필요한 노동을 체계적으로 모두 피해서 바라던 여가와 은둔을 얻는 학생은 비천하고 쓸모없는 여가를 얻을 뿐이며, 여가를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경험을 스스로 빼앗는다. 누군가 말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머리 대신 손으로 일해야 한다는 말이오?"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가 그것과 꽤 비슷하다고 여길 만한 것을 뜻하기는 한다. 내 말은 공동체가 이 값비싼 놀이의 비용을 대 주는 동안 그들이 삶을 그저 *놀이*로 하거나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젊은이들이 당장 사는 실험을 해 보는 것보다 사는 법을 더 잘 배울 길이 어디 있겠는가? 내 생각에 그것은 수학만큼 그들의 머리를 단련시킬 것이다. 이를테면 내가 어떤 소년에게 예술과 학문을 얼마간 알게 하고 싶다면, 나는 흔한 길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흔한 길이란 그저 어느 교수 곁으로 보내는 것인데, 거기서는 삶의 기술 말고는 무엇이든 가르친다고 내세우고 실습한다.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 세상을 살펴보게 하되 맨눈으로는 결코 보지 않게 하고, 화학을 공부하게 하되 자기 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배우지 않게 하고, 역학을 공부하게 하되 그 빵을 어떻게 버는지는 배우지 않게 하고, 해왕성의 새 위성을 발견하게 하되 제 눈의 티끌도, 자기가 어느 떠돌이의 위성인지도 알아채지 못하게 하고, 식초 한 방울 속의 괴물들을 들여다보는 사이 제 둘레에 우글거리는 괴물들에게 잡아먹히게 하는 길이다. 한 달 뒤에 누가 더 나아갔겠는가? 손수 캐내고 녹인 광석으로 제 주머니칼을 만들면서 그 일에 필요한 만큼 책을 읽은 소년인가, 아니면 그사이 학회에서 야금학 강의를 듣고 아버지에게서 로저스 주머니칼을 받은 소년인가? 누가 손가락을 벨 가능성이 더 클까? …… 놀랍게도 나는 대학을 떠날 때 내가 항해술을 공부했다는 말을

들었다! 아니, 항구에 한 바퀴만 나가 보았어도 그것을 더 많이 알았을 것이다. 가난한 학생조차 *정치*경제학만 공부하고 배우며, 철학과 같은 뜻인 삶의 경제는 우리 대학에서 진지하게 가르치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다. 그 결과 그는 애덤 스미스와 리카도와 세를 읽는 동안 아버지를 돌이킬 수 없는 빚에 빠뜨린다.

우리 대학이 그렇듯 백 가지 "현대적 개량"도 마찬가지다. 거기에는 환상이 있다. 늘 확실한 진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악마는 그 개량에 일찍 넣은 제 몫과 그 뒤로 거듭 넣은 투자에 대해 끝까지 복리 이자를 물린다. 우리의 발명품은 흔히 진지한 일에서 우리의 주의를 흩뜨리는 예쁜 장난감이다. 그것은 개량되지 않은 목적을 위한 개량된 수단일 뿐이며, 그 목적에는 이미 너무나 쉽게 이를 수 있었다. 철도가 보스턴이나 뉴욕으로 이어지듯이. 우리는 메인주에서 텍사스까지 전신을 놓으려고 몹시 서두른다. 그러나 메인과 텍사스는 어쩌면 서로 전할 중요한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 둘 다 귀가 먹은 이름난 부인에게 소개받고 싶어 안달하던 사람의 처지와 같다. 막상 소개를 받고 부인의 보청 나팔 한쪽 끝을 손에 쥐자 그는 할 말이 없었다. 마치 분별 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도 되는 듯이. 우리는 대서양 밑에 굴을 뚫어 구세계를 신세계에 몇 주 더 가깝게 끌어오려고 안달한다. 그러나 어쩌면 넓적하게 펄럭이는 미국의 귀로 처음 새어 들어올 소식은 애들레이드 공주가 백일해에 걸렸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결국 1분에 1마일을 달리는 말을 탄 사람이 가장 중요한 소식을 나르는 것은 아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가 아니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돌아다니지도 않는다. 플라잉 칠더스가 옥수수 한 펙이라도 방앗간에 날라 준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누군가 내게 말한다. "자네가 돈을 모으지 않는 게 이상하군. 여행을 좋아하잖나. 오늘 기차를 타고 피치버그에 가서 구경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러나 나는 그보다는 지혜롭다. 나는 가장 빠른 나그네는 걸어서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다. 나는 내 벗에게 말한다. 누가 먼저 닿나 해 보세. 거리는 30마일이고 찻삯은 90센트야. 그건 거의 하루 품삯이지. 바로 이 철로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품삯이 하루 60센트이던 때를 나는 기억하네. 자, 나는 지금 걸어서 떠나 밤이 되기 전에 거기 닿을 걸세. 나는 그 속도로 몇 주씩 내리 여행한 적이 있네. 자네는 그동안 찻삯을 벌어서 내일 언젠가, 아니면 운 좋게 제때 일거리를 얻으면 오늘 저녁에 닿겠지. 자네는 피치버그에 가는 대신 하루의 대부분을 여기서 일하고 있을 걸세. 그러니 철도가 세계를 한 바퀴 두른다 해도 나는 자네를 앞서 갈 것 같네. 그리고 구경을 하고 그런 경험을 쌓는 일이라면, 나는 자네와 아예 사귐을 끊어야 할 걸세.

이것이 누구도 꾀로 이길 수 없는 보편 법칙이다. 철도에 관해서도 넓이나 길이나 매한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철도를 세계에 두르고 온 인류가 그것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행성의 겉면 전체를 고르는 일과 같다. 사람들은 합자 회사와 삽질이라는 이 활동을 충분히 오래 이어 가면 마침내 모두가 어딘가로, 거의 순식간에, 공짜로 타고 가게 되리라는 어렴풋한 생각을 품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정거장으로 몰려가고 차장이 "모두 타시오!" 하고 외쳐도, 연기가 걷히고 김이 엉기고 나면 몇 사람은 타고 가지만 나머지는 깔려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참담한 사고"라고 불릴 것이고, 실제로 그럴 것이다. 물론 찻삯을 번 사람은 마침내 탈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살아남는다면. 그러나 그때쯤이면 아마 몸의 탄력도 여행하고 싶은 마음도 잃었을 것이다. 삶에서 가장 값어치 없는 부분에 미심쩍은 자유를 누리려고 삶의 가장 좋은 부분을 돈 버는 데 쓰는 것을 보면, 먼저 한밑천 잡은 다음 영국으로 돌아와 시인의 삶을 살겠다고 인도로 간 영국 사람이 떠오른다. 그는 당장 다락으로 올라갔어야 했다. "뭐요!"

이 땅의 판잣집이란 판잣집에서 백만 아일랜드 사람이 벌떡 일어나 외친다. "우리가 놓은 이 철도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오?" 그렇다, 하고 나는 대답한다. 비교적 좋다고. 곧 여러분이 그보다 더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었다고. 그러나 여러분은 내 형제이니, 이 흙을 파는 것보다 더 나은 데 시간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

집을 다 짓기 전에, 나는 뜻밖의 지출을 메우려고 정직하고 기분 좋은 일로 10달러나 12달러쯤 벌고 싶어서 집 근처의 가볍고 모래가 많은 땅 2½에이커쯤에 주로 콩을 심고, 일부에는 감자와 옥수수와 완두와 순무를 조금 심었다. 그 땅은 모두 11에이커로 대부분 소나무와 히코리가 자라 올라오는 곳이었는데, 그 전해에 에이커당 8달러 8센트에 팔렸다. 어느 농부는 그 땅이 "찍찍거리는 다람쥐나 키우는 데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했다. 나는 이 땅에 거름을 전혀 주지 않았다. 땅 임자가 아니라 그저 무단 정착민이었고 다시 그렇게 많이 경작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이다. 김도 밭 전체를 한 차례 다 매지는 못했다. 갈아엎으면서 그루터기를 여러 코드나 캐냈는데,[10] 그것으로 오랫동안 땔감을 댈 수 있었고, 그 자리에는 손대지 않은 흙이 작은 동그라미로 남아서 여름 내내 그곳 콩이 더 무성한 것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나머지 땔감은 집 뒤의 죽은 나무, 대부분 팔 수도 없는 나무와 호수에서 떠밀려 온 나무로 댔다. 쟁기는 내가 잡았지만 밭을 갈려고 소 한 겨리와 일꾼 한 사람을 사야 했다. 첫해 농사 지출은 농기구, 씨앗, 품삯 따위로 14달러 72½센트였다. 씨옥수수는 얻은 것이다. 이것은 넉넉한 양보다 더 심지만 않으면 말할 만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 나는 콩 12부셸과 감자 18부셸, 그 밖에 완두와 단옥수수를

얼마간 거두었다. 노란 옥수수와 순무는 너무 늦어서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농장에서 거둔 수입은 모두 다음과 같다.

	$23.44
지출을 빼면	14.72½
남는 돈	$8.71½

여기에 더해 이 셈을 할 때까지 먹어 치운 것과 남아 있던 농산물이 4달러 50센트어치였다. 남아 있던 양이 내가 기르지 않은 약간의 풀값을 넉넉히 메우고도 남았다.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곧 사람의 영혼과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내 실험에 든 시간이 짧았는데도, 아니 어느 정도는 바로 그것이 잠깐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해 콩코드의 어느 농부보다 내가 더 잘했다고 나는 믿는다.

이듬해에는 더 잘했다. 필요한 땅 3분의 1에이커쯤을 모두 삽으로 일구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서 영을 비롯한 농사에 관한 이름난 책들에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두 해의 경험으로 이런 것을 배웠다. 단순하게 살면서 제가 기른 곡식만 먹고, 먹을 만큼만 기르고, 그것을 더 사치스럽고 비싼 물건 얼마 안 되는 양과 바꾸지 않는다면, 땅은 몇 로드만 경작하면 된다.[11] 그만한 땅은 소로 가는 것보다 삽으로 일구는 편이 싸게 먹히고, 묵은 땅에 거름을 주는 것보다 이따금 새 자리를 고르는 편이 싸게 먹히며, 필요한 농사일은 모두 여름날 짬짬이 말하자면 왼손으로 해낼 수 있다. 그러면 지금처럼 소나 말이나 젖소나 돼지에 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점에 관해 치우침 없이, 지금의 경제적·사회적 질서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말하고 싶다. 나는 콩코드의 어느 농부보다 독립적이었다. 집이나 농장에 닻을 내리고 묶여 있지 않아서, 언제든 내 정령이 이끄는 굽은 길을, 그것도 몹시 굽은 길을 따라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그들보다

형편이 나았을 뿐 아니라, 내 집이 불타거나 농사를 망쳤더라도 나는 그전과 거의 다름없이 지냈을 것이다.

나는 사람이 가축 떼를 지킨다기보다 가축 떼가 사람을 지킨다고 생각하곤 한다. 가축 떼가 그만큼 더 자유롭다. 사람과 소는 일을 맞바꾼다. 그러나 꼭 필요한 일만 따져 보면 소가 훨씬 이득을 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소의 농장이 그만큼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사람은 여섯 주 동안의 건초 만들기로 맞바꾼 일에서 제 몫의 일부를 하는데, 그것은 아이들 장난이 아니다. 분명 모든 면에서 단순하게 사는 민족, 곧 철학자들의 민족이라면 짐승의 노동을 부리는 그토록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물론 철학자들의 민족은 지금까지 없었고 곧 생길 것 같지도 않으며, 그런 민족이 생기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나*라면 말이나 황소를 길들여서 나를 위해 해 줄 일을 바라고 먹여 주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말 부리는 사람이나 소 치는 사람이 되어 버릴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회가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한 사람의 이득이 다른 사람의 손해가 아니라고, 마구간지기 소년도 주인과 똑같이 만족할 까닭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런 도움 없이는 세우지 못했을 공공사업도 있다고 치고, 그런 일의 영광을 사람이 소와 말과 나누게 하자. 그렇다고 해서 그 경우에 사람이 자기에게 더 걸맞은 일을 이루지 못했으리라는 결론이 나오는가? 사람들이 짐승의 도움을 받아 그저 필요 없는 일이나 예술적인 일이 아니라 사치스럽고 하릴없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몇 사람이 소와 맞바꾸는 일을 도맡아 하게 되는 것, 곧 가장 힘센 자의 노예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은 제 안의 짐승을 위해 일할 뿐 아니라, 그것을 상징하듯 제 밖의 짐승을 위해서도 일한다. 우리에게는 벽돌이나 돌로 지은 튼튼한 집이 많지만, 농부의 번영은 여전히 헛간이 집을 얼마나 내리누르느냐로 잰다. 이 읍에는 이

근방에서 가장 큰 소와 젖소와 말의 집이 있다고 하며, 공공건물에서도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군에는 자유로운 예배나 자유로운 말을 위한 회관이 거의 없다. 민족이 스스로를 기념하려 한다면 건축으로가 아니라, 왜 추상적인 사고의 힘으로라도 하지 않는가? 『바가바드기타』는 동방의 모든 폐허보다 얼마나 더 경탄할 만한가![12] 탑과 신전은 군주의 사치다. 단순하고 독립적인 정신은 어느 군주의 명령에도 애써 일하지 않는다. 천재는 어느 황제의 가신도 아니며, 그 재료는 은도 금도 대리석도 아니다. 아주 하찮은 정도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많은 돌을 쪼는가? 내가 아르카디아에 있을 때 나는 돌 쪼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민족들은 저마다 남기는 쪼아 낸 돌의 양으로 제 기억을 영원히 남기겠다는 미친 야망에 사로잡혀 있다. 똑같은 공을 들여 제 품행을 다듬고 닦는다면 어떻겠는가? 분별 있는 생각 하나가 달만큼 높은 기념비보다 더 기억할 만할 것이다. 나는 돌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보는 편이 더 좋다. 테베의 웅장함은 천박한 웅장함이었다. 삶의 참된 목적에서 더 멀리 떠나 헤매는, 백 개의 문이 있는 테베보다 정직한 사람의 밭을 두른 1로드의 돌담이 더 분별 있다. 야만스럽고 이교적인 종교와 문명은 화려한 신전을 짓는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라 부를 만한 것은 그러지 않는다. 한 민족이 쪼는 돌은 대부분 그 무덤으로만 간다. 민족은 스스로를 산 채로 묻는다. 피라미드로 말하자면, 거기서 놀라운 것은 어떤 야심 많은 얼간이의 무덤을 짓는 데 평생을 바칠 만큼 타락한 사람을 그토록 많이 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만 한 것이 없다. 그 얼간이는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고 그 몸을 개들에게 던져 주는 편이 더 지혜롭고 사내다웠을 것이다. 그들과 그를 위해 어떤 변명을 지어낼 수도 있겠지만 내게는 그럴 시간이 없다. 건축하는 이들의 종교와 예술 사랑으로 말하자면, 그 건물이 이집트 신전이든 합중국 은행이든 온 세상 어디서나 거의 같다. 그것은 값어치보다

비용이 더 든다. 태엽은 허영이고, 마늘과 버터 바른 빵을 좋아하는 마음이 그것을 거든다. 앞날이 촉망되는 젊은 건축가 볼컴 씨가 단단한 연필과 자로 비트루비우스 책 뒷면에 설계도를 그리면, 그 일은 석재상 돕슨 부자 상회에 도급으로 넘어간다. 서른 세기가 그것을 내려다보기 시작할 때 인류는 그것을 올려다보기 시작한다. 높은 탑과 기념비로 말하자면, 예전에 이 읍에는 땅을 파서 중국까지 뚫겠다고 나선 미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말로는 중국 사람들의 냄비와 솥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릴 만큼 깊이 팠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가 판 구멍을 보며 감탄하려고 굳이 길을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서양과 동양의 기념물에 마음을 쓰며 누가 그것을 지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나로서는 그 시절에 누가 그것을 짓지 않았는지, 누가 그런 하찮은 일보다 높은 곳에 있었는지 알고 싶다. 그러나 내 통계로 넘어가자.

그사이 나는 마을에서 측량과 목수 일과 다른 여러 날품을 팔아 13달러 34센트를 벌었다. 나는 손가락 수만큼 많은 기술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 셈을 낸 때인 3월 1일까지, 곧 7월 4일부터 여덟 달 동안의 먹을거리 비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거기서 두 해 넘게 살았지만, 내가 기른 감자와 풋옥수수 조금과 완두 얼마는 셈에 넣지 않았고, 마지막 날에 남아 있던 것의 값도 따지지 않았다.

쌀	$1.73½	
당밀	1.73	가장 값싼 당분.
호밀 가루	1.04¾	
옥수수 가루	0.99¾	호밀보다 싸다.
돼지고기	0.22	
모두 실패한 실험:		
밀가루	0.88	옥수수 가루보다 돈도 품도 더 든다.
설탕	0.80	
돼지기름	0.65	
사과	0.25	
말린 사과	0.22	
고구마	0.10	
호박 한 개	0.06	
수박 한 개	0.02	
소금	0.03	

그렇다, 나는 모두 합쳐 8달러 74센트어치를 먹었다. 그러나 독자 대부분이 나 못지않게 죄가 있고 그들의 행실도 활자로 찍어 놓으면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나는 이렇게 낯 뜨거운 줄도 모르고 내 죄를 공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듬해에는 이따금 저녁거리로 물고기를 한 접시 잡았고, 한번은 내 콩밭을 망쳐 놓은 우드척 한 마리를 잡아, 타타르 사람 말로 하자면 그의 윤회를 거들어 주고, 얼마간은 실험 삼아 먹어 치우기까지 했다. 그러나 사향 냄새가 나는데도 잠깐은 즐거웠지만, 아무리 오래 해 본들 좋은 습관이 되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마을 푸줏간이 미리 손질해 준 우드척을 먹는 일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같은 기간의 옷값과 이런저런 부수 비용은, 이 항목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다음과 같다.

	$8.40¾
등잔 기름과 살림 도구 몇 가지	2.00

그러므로 돈으로 나간 지출은 모두 다음과 같다. 빨래와 바느질은 대부분 집 밖에 맡겼고 그 청구서는 아직 받지 못했으니 빼고, 이것이 세상의 이쪽에서 돈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길의 전부이자 전부보다 많은 것이다.

집	$28.12½
농장 한 해	14.72½
먹을거리 여덟 달	8.74
옷 따위 여덟 달	8.40¾
기름 따위 여덟 달	2.00
합계	$61.99¾

이제 나는 독자 가운데 생계를 꾸려야 하는 이들에게 말한다. 이것을 메우려고 내가 판 농산물과 번 돈은 다음과 같다.

	$23.44
날품으로 번 돈	13.34
합계	$36.78

이것을 지출 총액에서 빼면 한쪽에는 25달러 21¾센트가 남는다. 이것은 내가 처음 시작할 때 가진 밑천과 거의 같고, 앞으로 들 비용의 잣대이기도 하다. 다른 쪽에는 그렇게 얻은 여가와 독립과 건강 말고도, 내가 원하는 만큼 오래 살 수 있는 안락한 집이 남는다.

이 통계는 아무리 우연하고 그래서 배울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어느 정도 완결된 것이니 어느 정도 가치도 있다. 내가 받은 것 가운데 셈을 밝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위의 셈으로 보면 먹을거리에만 든 돈은 한 주에 27센트쯤이었다. 그 뒤로 두 해 가까이 그것은 효모를 넣지 않은 호밀과 옥수수 가루, 감자, 쌀, 아주 조금의 소금 절인 돼지고기, 당밀, 소금이었고, 마실 것은 물이었다. 인도 철학을 그토록 좋아하는 내가 주로 쌀을 먹고 산 것은 마땅한 일이었다. 몇몇 고질적인 트집쟁이의 반론을 막으려고 밝혀 두자면, 나는 늘 그래 왔듯 이따금 밖에서 저녁을 먹었고 앞으로도 그럴 기회가 있으리라 믿는데, 그것은 흔히 내 집안 살림에 해가 되었다. 그러나 밖에서 먹는 저녁은, 말했듯이 늘 있는 요소이므로, 이런 비교 셈에는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는 두 해의 경험으로, 이 위도에서도 꼭 필요한 먹을거리를 얻는 데 믿을 수 없을 만큼 적은 수고가 든다는 것, 사람이 짐승만큼 단순하게 먹고도 건강과 힘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옥수수밭에서 뜯어 삶아서 소금을 친 쇠비름(*Portulaca oleracea*) 한 접시만으로, 여러 가지 점에서 흡족한 저녁을 먹은 적이 있다. 라틴어 학명을 적는 것은 그 종명이 입맛을 돋우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체 평화로운 시절의 여느 한낮에, 이성 있는 사람이 소금을 쳐서 삶은 풋 단옥수수 넉넉한 몇 자루보다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내가 즐긴 얼마 안 되는 변화조차 건강이 아니라 식욕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필수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치품이 모자라서 굶주리는 일이 잦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나는 아들이 물만 마시기 시작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어느 착한 부인을 안다.

독자는 내가 이 주제를 식이요법의 관점보다는 경제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아챌 것이다. 그러니 먹을거리를 넉넉히 쟁여 둔 찬장이 없다면 내 절제를 감히 시험해 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빵은 처음에는 순 옥수수 가루와 소금으로, 진짜 괭이 빵으로 만들었는데, 바깥 불 앞에서 너와 조각이나 집 지을 때 켜고 남은 목재 끄트머리에 올려 구웠다. 그러나 연기가 배고 솔 냄새가 나기 일쑤였다. 밀가루로도 해 보았다. 그러나 마침내 호밀과 옥수수 가루를 섞는 것이 가장 편하고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추운 날 이것으로 작은 빵 덩이를 여러 개 잇달아 구우며 이집트 사람이 부화하는 알을 돌보듯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뒤집는 것은 적잖은 즐거움이었다. 그것은 내가 익힌 진짜 곡식 열매였고, 내 감각에는 다른 고귀한 열매 같은 향기가 났는데, 나는 그것을 천에 싸서 될 수 있는 한 오래 그 향을 가두어 두었다. 나는 오래되고 없어서는 안 될 빵 만드는 기술을 연구했다. 구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책을 뒤져, 사람들이 처음으로 견과와 고기의 야생에서 이 음식의 온화함과 세련됨에 이른 원시 시대, 효모 없는 빵을 처음 발명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반죽이 우연히 시큼해지면서 발효법을 가르쳐 주었으리라고 여겨지는 대목과 그 뒤의 여러 발효를 거쳐 차츰 내려오다가 마침내 삶의 지팡이인 "좋고 달고 몸에 좋은 빵"에 이르렀다. 어떤 이들이 빵의 영혼으로 여기는 효모, 빵의 세포 조직을 채우는 숨결(spiritus), 베스타의 성화처럼 경건하게 지켜 온 효모(아마 처음 메이플라워호에 실려 온 귀한 한 병이 아메리카에서 제 몫을 다했고, 그 영향은 지금도 곡식의 물결이 되어 이 땅 위로 부풀고 일고 퍼져 나가고 있을 것이다), 이 씨를 나는 마을에서 꼬박꼬박 충실히 구해 왔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규칙을 잊고 효모를 뜨거운 물에 데어

버렸는데, 이 사고로 이것마저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님을 발견했다. 내 발견은 종합이 아니라 분석의 길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뒤로 나는 기꺼이 효모를 빼 왔다. 주부들은 대부분 효모 없이는 안전하고 몸에 좋은 빵이 될 수 없다고 진지하게 장담했고, 나이 든 이들은 생명력이 곧 쇠하리라고 예언했지만. 그러나 나는 효모가 꼭 있어야 하는 재료가 아님을 알았고, 한 해 동안 그것 없이 지내고도 여전히 산 사람의 땅에 있다. 그리고 주머니에 효모 한 병을 넣고 다니다가 이따금 그것이 펑 터져 쏟아지는 바람에 낭패를 보는 하찮은 일에서 벗어나 기쁘다. 빼는 편이 더 단순하고 더 점잖다. 사람은 어떤 동물보다도 모든 기후와 처지에 잘 적응하는 동물이다. 나는 빵에 탄산소다나 다른 산이나 알칼리도 넣지 않았다. 나는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가 그리스도보다 두 세기쯤 앞서 일러 준 조리법대로 빵을 만든 듯하다(Panem depsticium sic facito. Manus mortariumque bene lavato. Farinam in mortarium indito, aquae paulatim addito, subigitoque pulchre. Ubi bene subegeris, defingito, coquitoque sub testu.). 내가 풀이하기로는 이런 뜻이다. "반죽 빵은 이렇게 만들라. 손과 반죽 통을 잘 씻으라. 가루를 반죽 통에 넣고 물을 조금씩 부어 가며 꼼꼼히 치대라. 잘 치댔으면 모양을 빚어 뚜껑을 덮고 구우라." 곧 빵 굽는 솥에 넣어 구우라는 말이다. 효모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다. 그러나 나는 이 삶의 지팡이를 늘 쓰지는 않았다. 한때는 지갑이 비어서 한 달 넘게 빵 구경도 하지 못했다.

뉴잉글랜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호밀과 옥수수의 땅에서 자기가 먹을 곡식을 손쉽게 모두 길러, 멀리 있고 값이 오르내리는 시장에 기대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단순함과 독립에서 너무 멀어서, 콩코드에서는 신선하고 단 곡식 가루를 가게에서 거의 팔지 않고, 굵게 탄 옥수수나 그보다 더 거친 옥수수는 거의 아무도 쓰지 않는다. 농부는

대개 제가 거둔 곡식을 소와 돼지에게 먹이고, 적어도 더 몸에 좋을 것도 없는 밀가루를 더 비싼 값에 가게에서 산다. 나는 호밀과 옥수수 한두 부셸쯤은 쉽게 기를 수 있음을 알았다. 호밀은 가장 메마른 땅에서도 자라고 옥수수도 가장 좋은 땅을 바라지 않으니, 그것을 손맷돌에 갈면 쌀과 돼지고기 없이도 지낼 수 있었다. 그리고 진한 단것이 꼭 있어야 한다면, 호박이나 사탕무로 아주 좋은 당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알아냈고, 단풍나무 몇 그루만 심으면 더 쉽게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도 알았으며, 나무가 자라는 동안에는 앞에 든 것 말고도 여러 대용품을 쓸 수 있었다. 조상들이 노래했듯이.

"입술을 달게 할 술은 우리가 빚을 수 있지,
호박이며 파스닙이며 호두나무 부스러기로."

끝으로 가장 투박한 식료품인 소금으로 말하자면, 그것을 구하는 일은 바닷가에 한번 가 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니면 아예 소금 없이 지낸다면 아마 물을 덜 마시게 될 것이다. 원주민들이 소금을 구하러 애써 다녔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먹을거리에 관한 한 모든 거래와 물물교환을 피할 수 있었고, 거처는 이미 있었으니 남은 것은 옷과 연료를 얻는 일뿐이었다. 내가 지금 입은 바지는 어느 농부의 집에서 짠 것이다. 사람에게 아직 그만한 덕이 남아 있으니 하늘에 감사할 일이다. 농부에서 공장 직공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람에서 농부로 떨어지는 것만큼 크고 기억할 만한 추락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 연 땅에서는 연료가 오히려 짐이다. 살 터로 말하자면, 계속 무단으로 눌러살게 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경작한 땅이 팔린 것과 같은 값, 곧 8달러 8센트에 1에이커를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정이 이러하니, 나는 그 땅에 눌러삶으로써 땅값을 올려 주었다고 여겼다.

어떤 부류의 불신자들은 이따금 내게 채소만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따위를 묻는다. 나는 곧장 문제의 뿌리를 치려고(뿌리는 믿음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판자 못을 먹고도 살 수 있다고 대답하곤 한다.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대부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나로서는 이런 실험을 해 본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반갑다. 이를테면 어떤 젊은이가 이 주일 동안 딱딱한 날옥수수를 이삭째 이로만 빻아 먹으며 살아 보았다는 이야기 같은 것. 다람쥐 족속도 같은 실험을 해서 성공했다. 인류는 이런 실험에 관심이 있다. 그런 실험을 할 수 없는 몇몇 노부인이나 방앗간에 과부 몫 삼분의 일을 가진 노부인들은 기겁할지 모르지만.

◆

내 가구는 일부는 내가 만들었고, 나머지도 셈을 밝히지 않은 비용은 하나도 들지 않았는데, 침대 하나, 식탁 하나, 책상 하나, 의자 셋, 지름 3인치짜리 거울 하나, 부젓가락 한 벌과 장작 받침쇠, 주전자 하나, 냄비 하나, 프라이팬 하나, 국자 하나, 세숫대야 하나, 나이프와 포크 두 벌, 접시 셋, 잔 하나, 숟가락 하나, 기름 단지 하나, 당밀 단지 하나, 옻칠한 등잔 하나였다. 호박 위에 앉아야 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 그건 주변머리가 없는 것이다. 마을의 다락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의자가 가져가기만 하면 되게 널려 있다. 가구라니! 고맙게도 나는 가구 창고의 도움 없이도 앉을 수 있고 설 수 있다. 철학자가 아니고서야 누가 자기 가구가 수레에 실려 하늘의 빛과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난 채 시골로 실려 가는 것을, 빈 상자들의 초라한 목록을 보며 부끄러워하지 않겠는가? 저것이 스폴딩네 가구로군. 그런 짐을 살펴보고 그것이 이른바 부자의 것인지 가난한 사람의 것인지 나는 한 번도 가려낼 수

없었다. 임자는 언제나 가난에 찌든 사람처럼 보였다. 사실 그런 것을 많이 가질수록 더 가난하다. 짐마다 판잣집 열두 채의 살림을 담은 것처럼 보인다. 판잣집 한 채가 가난하다면 이것은 열두 배나 가난하다. 대체 우리가 *이사*하는 것은 가구를, 우리의 허물을 떨쳐 버리려는 것 말고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나 새로 가구를 갖춘 다른 세상으로 가면서 이것은 불태우라고 남겨 두려는 것 말고? 그것은 마치 이 모든 덫이 사람의 허리띠에 채워져서, 우리 몫으로 떨어진 거친 땅을 지나려면 그것들을, 제 덫을 질질 끌고 가야 하는 것과 같다. 덫에 꼬리를 남겨 두고 달아난 여우는 운이 좋았다. 사향쥐는 자유로워지려고 세 번째 다리를 물어뜯어 끊는다. 사람이 탄력을 잃은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그는 얼마나 자주 꼼짝없이 덫에 걸려 있는가! "선생, 실례지만 꼼짝없이 덫에 걸렸다는 게 무슨 뜻이오?" 앞일을 내다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만나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아니 그가 갖지 않은 체하는 많은 것까지, 부엌세간이며 불태우지 않고 쟁여 두는 온갖 잡동사니까지 그의 뒤에서 보게 될 것이고, 그는 거기에 마구로 매여서 힘닿는 대로 앞으로 나아가려 애쓰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옹이구멍이나 문을 빠져나갔는데 썰매에 실은 가구가 뒤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꼼짝없이 덫에 걸린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겉보기에 자유롭고 허리띠를 졸라매 채비를 다 갖춘 듯한 말쑥하고 다부진 사람이 자기 "가구"를 두고 보험에 들었느니 안 들었느니 하는 말을 들으면 딱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내 가구는 어떻게 하지?" 그렇다면 나의 화사한 나비가 거미줄에 걸린 셈이다. 오랫동안 가구가 없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도 더 꼼꼼히 캐 보면 누군가의 헛간에 얼마간 쟁여 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오늘의 영국을 짐을 잔뜩 지고 여행하는 늙은 신사로 본다. 오랜 살림살이에서 쌓인, 불태울 용기가 없는 잡동사니들, 큰 트렁크, 작은 트렁크, 모자 상자, 보따리. 적어도 앞의 셋은 내던지라. 요즘은 건강한

사람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는 힘에 부칠 것이고, 나라면 아픈 사람에게 분명 자리를 내려놓고 뛰라고 권하겠다. 전 재산을 담은 보따리를 지고, 마치 목덜미에서 거대한 혹이 자라난 듯한 모습으로 비틀거리는 이민자를 만났을 때 나는 그를 딱하게 여겼다. 그것이 그의 전부여서가 아니라 *그것을 다* 지고 가야 해서였다. 내가 덫을 끌고 가야 한다면, 그것이 가볍고 급소를 물지 않는 덫이 되도록 조심하겠다. 그러나 어쩌면 아예 덫에 발을 들이밀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 것이다.

말이 난 김에 덧붙이자면, 나는 커튼에 한 푼도 들지 않는다. 해와 달 말고는 막아야 할 구경꾼이 없고, 해와 달이라면 들여다보아도 좋기 때문이다. 달은 내 우유를 시게 하거나 고기를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해도 내 가구를 해치거나 깔개를 바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해가 이따금 너무 뜨거운 벗이 되더라도, 나는 살림살이 목록에 한 가지라도 보태느니 자연이 마련해 준 어떤 커튼 뒤로 물러나는 편이 여전히 더 나은 절약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부인이 한번은 내게 깔개를 주겠다고 했지만, 집 안에는 남는 자리가 없었고 안에서든 밖에서든 그것을 털 시간도 없었으므로 사양하고 문 앞 뗏장에 발을 닦는 쪽을 택했다. 악은 그 시작부터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얼마 전 나는 어느 교회 집사의 유품 경매에 갔다. 그의 삶은 남긴 것이 없지 않았으니까.

"사람이 저지른 악은 죽은 뒤에도 살아남는다."[13]

여느 때처럼 상당 부분은 그의 아버지 시절부터 쌓이기 시작한 잡동사니였다. 그 가운데에는 말린 촌충도 하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반세기 동안 그의 다락과 다른 쓰레기 구덩이에 처박혀 있던 이 물건들은 불태워지지 않았다. *모닥불*, 곧 그것들을 정화하는 파괴 대신 *경매*, 곧 그것들을 불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웃들은 그것을 구경하려고

앞다투어 모여들어 모조리 사서는 조심스럽게 자기네 다락과 쓰레기 구덩이로 옮겨 갔다. 그들의 유산이 정리될 때까지 거기 처박혀 있다가 그때 다시 길을 떠날 것이다. 사람은 죽을 때 먼지를 걷어찬다.

어떤 야만 민족의 풍습은 어쩌면 우리가 본받으면 이로울 것이다. 그들은 적어도 해마다 허물을 벗는 시늉은 한다. 실제로 그렇게 하든 않든 그 일의 관념은 지니고 있다. 바트럼이 머클래시 원주민의 풍습이었다고 전하는 "버스크", 곧 "첫 열매의 잔치"를 우리도 치른다면 좋지 않겠는가?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한 마을이 버스크를 치를 때에는 미리 새 옷과 새 냄비와 솥과 다른 살림 도구와 가구를 장만해 두고서, 해진 옷과 그 밖의 하찮은 물건을 모두 모으고, 집과 광장과 온 마을을 쓸고 닦아 더러운 것을 치운 다음, 남은 곡식과 다른 묵은 양식을 모두 한 무더기로 쌓아 불로 태워 버린다. 약을 먹고 사흘 동안 단식한 뒤에는 마을의 불을 모두 끈다. 이 단식 동안 그들은 어떤 욕구와 정념도 채우지 않는다. 전면 사면이 선포되고, 죄인들은 모두 마을로 돌아올 수 있다."

"나흘째 아침, 대사제가 마른 나무를 비벼 광장에 새 불을 일으키면, 거기서 마을의 모든 집이 새롭고 깨끗한 불길을 얻어 간다."

그런 다음 그들은 사흘 동안 햇옥수수와 햇과일로 잔치를 벌이고 춤추고 노래하며, "그다음 나흘 동안은 똑같이 몸을 깨끗이 하고 채비를 갖춘 이웃 마을 벗들의 방문을 받으며 함께 즐긴다."

멕시코 사람들도 쉰두 해가 끝날 때마다 세상이 끝날 때가 되었다고 믿고 이와 비슷한 정화 의식을 치렀다.

사전이 정의하듯 "안의 영적인 은총이 겉으로 드러나 눈에 보이는 표징"을 성사라 한다면, 나는 이보다 더 참된 성사를 들어 본 적이 거의 없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계시를 적은 성경 기록이 없지만, 그들이 처음에 하늘에서 곧바로 영감을 받아 그렇게 했으리라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

나는 다섯 해 넘게 이렇게 오직 내 손의 노동으로 먹고살았고, 한 해에 여섯 주쯤 일하면 생활비를 모두 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겨울 내내, 그리고 여름의 대부분을 나는 공부하는 데 고스란히 쓸 수 있었다. 나는 학교 선생 노릇도 철저히 해 보았는데, 지출이 수입에 비례한다는 것, 아니 비례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각하고 믿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옷차림과 몸가짐도 그에 걸맞게 갖추어야 했고, 덤으로 시간까지 잃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웃을 이롭게 하려고가 아니라 그저 생계를 위해 가르쳤으므로 이것은 실패였다. 장사도 해 보았지만, 거기서 자리를 잡으려면 열 해는 걸릴 것이고 그때쯤이면 아마 악마에게 가는 길 위에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때쯤이면 이른바 장사가 잘되는 짓을 하고 있을까 봐 정말로 두려웠다. 예전에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둘러보던 때, 벗들의 바람에 맞추려다 겪은 서글픈 경험이 아직 마음에 생생해서 꾀를 짜내던 때, 나는 허클베리를 따는 일을 자주 진지하게 생각했다. 그 일이라면 분명 할 수 있고, 그 적은 이익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다. 내 가장 큰 재주는 바라는 것이 적은 것이었으니까. 밑천도 거의 들지 않고 늘 지니던 기분을 흩뜨리는 일도 거의 없으리라고 나는 어리석게 생각했다. 아는 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장사나 전문직으로 나아가는 동안, 나는 이 일이 그들의 일과 가장 비슷하다고 여겼다. 여름 내내 언덕을 쏘다니며 눈에 띄는 열매를 따고, 그다음에는 무심히 처분하는 일. 그렇게 아드메토스의 양 떼를 치는 일. 들풀을 모으거나, 숲을 떠올리기를 좋아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니 도시에까지 상록수를 건초 수레로 실어 나르는 꿈도 꾸었다. 그러나 그 뒤로 나는 장사가 손대는 것마다 저주를 내린다는 것을 배웠다.

하늘에서 온 소식을 사고판다 해도 장사의 저주는 고스란히 그 일에 들러붙는다.

나는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좋아했고 특히 내 자유를 소중히 여겼으며, 거칠게 먹고 지내면서도 잘 해낼 수 있었으므로, 화려한 양탄자나 다른 고급 가구나 섬세한 요리나 그리스 양식이나 고딕 양식의 집을 버느라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이런 것을 얻는 일이 아무 방해도 되지 않고, 얻은 뒤에 그것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일을 그들에게 넘기겠다.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해서" 일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일이 더 나쁜 장난을 막아 주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으로서는 할 말이 없다. 지금 누리는 것보다 여가가 더 많으면 무엇을 할지 모를 사람들에게는 지금보다 두 배로 열심히 일하라고, 제 몸값을 다 치르고 해방 증서를 받을 때까지 일하라고 권할 수도 있겠다. 나로서는 날품팔이가 무엇보다도 독립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특히 한 사람이 먹고살려면 한 해에 삼사십 일만 일하면 되었으니까. 날품팔이의 하루는 해가 지면 끝나고, 그다음에는 자유롭게 제 노동과 상관없이 자기가 고른 일에 몸을 바칠 수 있다. 그러나 다달이 투기를 하는 그의 고용주는 한 해 내내 쉴 틈이 없다.

요컨대 나는 믿음으로도 경험으로도 확신한다. 우리가 단순하고 지혜롭게 살려고만 한다면, 이 땅에서 제 몸을 건사하는 일은 고역이 아니라 놀이다. 더 단순한 민족들이 하는 일이 더 인위적인 민족들에게는 여전히 운동 경기인 것처럼.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나보다 땀을 쉽게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아는 한 젊은이는 땅 몇 에이커를 물려받았는데, *그럴 수단만 있다면* 나처럼 살고 싶다고 했다. 나는 어떤 이유로도 누구에게 *내* 사는

법을 따르게 하고 싶지 않다. 그가 그것을 제대로 익히기도 전에 나는 나를 위해 또 다른 길을 찾아냈을지도 모를 뿐 아니라, 나는 세상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저마다 다른 사람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다만 사람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웃의 길이 아니라 *자기만의* 길을 아주 조심스럽게 찾아내어 따라가기를 바란다. 젊은이는 집을 지어도 좋고 씨를 뿌려도 좋고 배를 타도 좋다. 다만 내게 하고 싶다고 말한 그 일을 하는 데 방해만 받지 않으면 된다. 우리가 지혜로운 것은 뱃사람이나 도망 노예가 북극성을 눈에서 놓치지 않듯 오직 수학적인 한 점 덕분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평생을 이끌기에 충분하다. 우리가 셈할 수 있는 기간 안에 항구에 닿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참된 항로는 지킬 것이다.

물론 이 경우 한 사람에게 맞는 것은 천 사람에게 더 잘 맞는다. 큰 집이 작은 집보다 비례해서 더 비싸지는 않은 것과 같다. 지붕 하나가 여러 집을 덮고, 지하실 하나가 그 밑에 깔리고, 벽 하나가 그 사이를 가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나로서는 혼자 사는 집이 더 좋았다. 게다가 대개는 공동의 벽이 이롭다고 남을 설득하는 것보다 혼자 집을 통째로 짓는 편이 더 싸게 먹힐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설득하고 나면, 공동 칸막이는 훨씬 싸게 하려면 얇아야 하고, 그 다른 사람은 나쁜 이웃으로 드러나 제 쪽을 손보지 않을지도 모른다. 대개 가능한 유일한 협력은 지극히 부분적이고 피상적이다. 참된 협력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은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화음이어서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같은 믿음으로 협력할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느 무리에 끼든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이다. 가장 높은 뜻에서나 가장 낮은 뜻에서나 협력한다는 것은 *함께 생계를 꾸리는 것*이다. 얼마 전 나는 두 젊은이가 함께 세계를 여행하자는 제안을 들었다. 한 사람은 돈 없이 가면서 돛대 앞에서 뱃일을 하고 쟁기

뒤에서 밭일을 해 그때그때 경비를 벌고, 다른 한 사람은 주머니에 환어음을 넣고 가기로 했다. 그들이 오래 길동무가 되거나 함께 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다. 한 사람은 아예 *일하지* 않을 테니까. 그들은 모험 중에 처음 맞닥뜨리는 흥미로운 고비에서 갈라설 것이다. 무엇보다 앞에서 내비쳤듯 혼자 가는 사람은 오늘 떠날 수 있다. 그러나 남과 함께 여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채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들이 길을 나서기까지는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

◆

그러나 이것은 모두 아주 이기적이라고 몇몇 읍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고백하건대 나는 지금까지 박애 사업에 거의 빠져 본 적이 없다. 나는 의무감에 몇 가지를 희생했고, 그 가운데 이 즐거움도 희생했다. 갖은 수를 다 써서 나를 설득해 읍의 어느 가난한 가족을 부양하게 하려던 사람들이 있다. 내가 할 일이 없었다면(악마는 게으른 자에게 일거리를 찾아 주니까) 그런 소일거리에 손을 대 보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점에서 나 자신을 한번 즐겁게 해 주려고,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모든 면에서 나만큼 안락하게 부양해서 그들의 하늘에 빚을 지워 볼까 생각하고, 실제로 그들에게 제안까지 해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망설임 없이 가난하게 남는 쪽을 택했다. 읍의 남녀가 그토록 여러 모양으로 이웃의 이익에 몸을 바치고 있으니, 적어도 한 사람쯤은 다른, 덜 인도적인 일에 남겨 두어도 되리라 믿는다. 자선에도 다른 모든 일처럼 재능이 있어야 한다. 선행이라면 이미 자리가 꽉 찬 직업 가운데 하나다. 게다가 나는 공정하게 그것을 해 보았는데,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것이 내 체질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아마 나는 사회가 내게 요구하는 선을 행하려고, 우주를 멸망에서

구하려고, 알면서 일부러 내 고유한 소명을 저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주를 지키는 것은 다른 어딘가에 있는, 이와 같지만 한없이 더 큰 꿋꿋함뿐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누구와 그의 정령 사이에도 끼어들지 않겠다. 내가 사양하는 이 일을 온 마음과 영혼과 삶을 다해 하는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끝까지 하라. 세상이 그것을 악행이라 부르더라도. 그리고 세상은 아마 그렇게 부를 것이다.

나는 내 경우가 별나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틀림없이 많은 독자가 비슷한 변론을 할 것이다. 무언가를 하는 일이라면(이웃들이 그것을 좋다고 말하리라고 장담하지는 않겠지만) 나는 고용하기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겠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를 고용하는 사람이 알아낼 일이다. 그 말의 흔한 뜻으로 내가 행하는 *선*은 내 주된 길에서 벗어난 곳에 있을 수밖에 없고, 대부분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은 사실상 이렇게 말한다. 더 값진 사람이 되는 것을 주로 노리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모습 그대로 시작하라. 그리고 미리 마음먹은 친절로 선을 행하며 돌아다니라. 내가 이런 투로 설교라도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말하겠다. 선한 사람이 되는 일에 착수하라. 마치 해가 제 불을 달이나 6등성만큼 밝게 지핀 다음에 멈추어서, 로빈 굿펠로처럼 오두막 창문마다 기웃거리고 미치광이를 부추기고 고기를 상하게 하고 어둠을 보이게 하며 돌아다녀야 하는 것처럼. 해는 그 대신 다정한 열과 은혜를 꾸준히 더해서 어떤 인간도 그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을 만큼 밝아진 다음, 그리고 그동안에도, 제 궤도를 따라 세상을 돌며 세상에 선을 행한다. 아니, 더 참된 철학이 밝혀냈듯 세상이 해의 둘레를 돌며 선을 얻는다. 파에톤은 제 은혜로 하늘의 혈통임을 증명하려고 단 하루 해의 수레를 몰았다가 늘 다니던 길에서 벗어나는 바람에, 하늘 아랫동네의 집 몇 구역을 태우고 땅의 겉면을 그슬리고 샘이란 샘을 모두 말리고 거대한 사하라사막을

만들었다. 마침내 유피테르가 벼락으로 그를 땅으로 거꾸로 내던졌고, 해는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한 해 동안 빛나지 않았다.

썩은 선에서 피어오르는 냄새만큼 고약한 냄새는 없다. 그것은 인간의, 아니 신의 썩은 고기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을 베풀겠다는 뚜렷한 계획을 품고 내 집에 오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나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날 것이다. 숨이 막힐 때까지 입과 코와 귀와 눈을 먼지로 채우는, 시뭄이라 불리는 아프리카 사막의 바싹 마른 열풍에서 달아나듯이. 그의 선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베풀어질까 봐, 그 독이 조금이라도 내 피에 섞일까 봐. 아니다. 이런 경우라면 나는 차라리 자연스러운 길로 악을 겪겠다. 내가 굶주릴 때 먹여 주고, 얼어 갈 때 덥혀 주고, 언젠가 도랑에 빠지면 끌어내 준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내게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만한 일을 하는 뉴펀들랜드 개라면 얼마든지 찾아 줄 수 있다. 박애는 가장 넓은 뜻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워드는 분명 나름대로 더없이 친절하고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에 맞는 보답도 받았다.[14] 그러나 견주어 말하자면, 박애가 우리의 가장 좋은 처지에서, 우리가 가장 도움받을 만할 때 우리를 돕지 못한다면 하워드 백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나나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선이라도 베풀자고 진지하게 제안한 박애 모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예수회 수사들은 화형대에서 불타면서 자기를 고문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고문법을 일러 준 원주민들 앞에서 완전히 낭패를 보았다. 그들은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 있었기에, 선교사들이 줄 수 있는 어떤 위로도 넘어서 있는 일이 이따금 있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율법도, 자기가 남에게 어떻게 대접받든 상관하지 않고 원수를 새로운 모양으로 사랑하며 원수가 저지른 모든 것을 거의 기꺼이 용서하려던 사람들의 귀에는 그리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도록 하라. 그것이 그들을 멀리 뒤처지게 하는 여러분의 본보기일지라도. 돈을 준다면 돈과 함께 여러분 자신을 쓰고, 그저 돈을 그들에게 내버리지 말라. 우리는 이따금 진기한 실수를 저지른다. 가난한 사람은 춥고 배고프다기보다 더럽고 누더기를 걸치고 상스러운 경우가 흔하다. 그것은 얼마간 그의 취향이지 그저 그의 불행만은 아니다. 그에게 돈을 주면 그는 아마 그 돈으로 누더기를 더 살 것이다. 나는 호수에서 얼음을 자르는 어설픈 아일랜드 일꾼들이 그토록 초라하고 해진 옷을 입은 것을 딱하게 여기곤 했다. 나는 그보다 말쑥하고 조금 더 유행에 맞는 옷을 입고도 떨고 있었는데. 그러다 몹시 추운 어느 날, 물에 미끄러져 빠진 한 사람이 몸을 녹이러 내 집에 왔다. 나는 그가 맨살이 드러날 때까지 바지 세 벌과 양말 두 켤레를 벗는 것을 보았다. 사실 그 옷들은 꽤 더럽고 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내준 *덧옷*을 사양할 수 있었다. *속옷*이 그만큼 많았으니까.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물에 빠지는 일이었다. 그러자 나는 나 자신이 딱해지기 시작했고, 그에게 싸구려 기성복 가게를 통째로 주는 것보다 나에게 플란넬 셔츠 한 벌을 주는 것이 더 큰 자선이리라는 것을 알았다. 악의 뿌리를 치는 사람 하나에 악의 가지를 쳐 대는 사람이 천이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베푸는 사람이, 바로 그 사는 모양으로, 헛되이 덜어 주려 애쓰는 그 비참함을 가장 많이 만들어 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노예 열 명째마다 그 몫을 떼어 나머지 노예들에게 일요일 하루의 자유를 사 주는 경건한 노예 사육자와 같다. 어떤 이들은 가난한 사람을 제 부엌에 부려서 그들에게 친절을 보인다. 차라리 자기 자신을 거기 부린다면 더 친절하지 않을까? 여러분은 수입의 십분의 일을 자선에 쓴다고 자랑한다. 어쩌면 나머지 십분의 구도 그렇게 쓰고 끝을 내야 할지 모른다. 그러면 사회는 그 재산의 십분의 일만 되찾는 셈이다. 이것은 그

재산을 지닌 사람이 너그러워서인가, 아니면 정의를 맡은 관리들이 게을러서인가?

박애는 인류가 충분히 알아주는 거의 유일한 덕이다. 아니, 그것은 크게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이기심이다. 어느 화창한 날 여기 콩코드에서 건장한 가난뱅이 하나가 내게 같은 읍 사람 하나를 칭찬했다. 그 사람이 가난한 이들에게 친절하다는 이유였다. 자기 자신을 두고 한 말이다. 인류의 친절한 삼촌과 이모들이 인류의 참된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더 존경받는다. 나는 한번은 학식과 지성을 갖춘 어느 목사가 영국에 관해 강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는 셰익스피어, 베이컨, 크롬웰, 밀턴, 뉴턴 같은 영국의 과학과 문학과 정치의 위인들을 꼽은 다음 그 나라의 그리스도교 영웅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의 직업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기라도 하듯 그들을 위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다른 모든 사람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다. 그들은 펜과 하워드와 프라이 부인이었다. 누구나 이 말의 거짓과 위선을 느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영국 최고의 남녀가 아니었다. 어쩌면 최고의 박애가였을 뿐이다.

나는 박애가 받아야 할 칭찬에서 무엇 하나 덜어 내고 싶지 않다. 다만 삶과 일로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기를 요구할 뿐이다. 나는 사람의 올곧음과 자비를 가장 높이 치지 않는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의 줄기와 잎이다. 푸른빛이 시들면 우리가 앓는 사람에게 약초 차로 달여 주는 식물은 하찮은 쓰임에만 쓰이고, 대개 돌팔이들이 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사람의 꽃과 열매다. 그에게서 내게로 어떤 향기가 풍겨 오고, 어떤 무르익음이 우리의 사귐에 맛을 들이기를 바란다. 그의 선은 부분적이고 덧없는 행위가 아니라 늘 넘쳐흐르는 것, 그에게 아무 대가도 치르게 하지 않고 그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수많은 죄를 덮어 주는 사랑이다. 박애가는

너무나 자주 자기가 벗어 던진 슬픔의 기억으로 대기처럼 인류를 감싸고는 그것을 동정이라 부른다.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용기를, 병이 아니라 건강과 편안함을 나누어 주어야 하고, 병이 옮아 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어느 남쪽 들판에서 통곡 소리가 올라오는가? 우리가 빛을 보내 주려는 이교도는 어느 위도에 사는가? 우리가 구원하려는 그 무절제하고 잔인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무슨 탈이 나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배앓이만 해도(배는 동정이 깃드는 자리이니까), 그는 곧장 개혁에 착수한다. 세상을. 그 자신이 하나의 소우주이므로 그는 세상이 풋사과를 먹어 왔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은 참된 발견이며, 그는 그것을 발견할 만한 사람이다. 사실 그의 눈에는 지구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풋사과여서, 사람의 자식들이 그것이 익기도 전에 갉아먹을지 모른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의 설사약처럼 독한 박애는 당장 에스키모와 파타고니아 사람을 찾아 나서고, 사람이 북적이는 인도와 중국의 마을들을 끌어안는다. 그렇게 몇 해 동안 박애 활동을 하고 나면, 그동안 높은 권세들은 틀림없이 그를 제 목적에 써먹었을 텐데, 그는 제 소화불량을 고치고, 지구는 이제 막 익기 시작하는 듯 한쪽이나 양쪽 뺨에 엷은 홍조를 띠며, 삶은 날것의 떫은맛을 잃고 다시 한번 달고 몸에 좋은 것이 된다. 나는 내가 저지른 것보다 더 큰 극악무도함을 꿈꾸어 본 적이 없다.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을 알았던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개혁가를 그토록 슬프게 하는 것이 곤경에 처한 이웃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그가 아무리 거룩한 하느님의 아들이라 해도, 그의 사사로운 탈이라고 믿는다. 그것을 바로잡아 주라. 그에게 봄이 오고 그의 잠자리 위로 아침이 떠오르게 하라. 그러면 그는 사과 한마디 없이 너그러운 동료들을 저버릴 것이다. 내가 담배 씹는 버릇을 반대하는 강연을 하지 않는 핑계는 담배를 씹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담배를 끊은 사람들이 치러야 하는 벌이다. 물론 내가 씹어 본 것 가운데에도 반대하는 강연을 할 만한 것은 넉넉히 있지만. 혹시라도 이런 박애에 빠져들게 되거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알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고 구두끈을 매라. 서두르지 말고, 무언가 자유로운 노동에 착수하라.

우리의 품행은 성자들과 사귀다가 타락했다. 우리 찬송가에는 신을 저주하고 영원히 그를 견디는 노래가 아름다운 가락으로 울려 퍼진다. 예언자와 구원자들조차 사람의 희망을 굳혀 주었다기보다 두려움을 달래 주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삶이라는 선물에 대한 단순하고 억누를 수 없는 만족, 기억할 만한 신에 대한 찬미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모든 건강과 성공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물러나 있는 듯 보여도 내게 이롭다. 모든 병과 실패는 그것이 아무리 나를 동정하고 내가 그것을 동정해도 나를 슬프게 하고 내게 해를 끼친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원주민의 요법으로든 약초 요법으로든 자기 요법으로든 자연 요법으로든 인류를 되살리려 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자연만큼 단순하고 건강해져서 우리 이마에 드리운 구름을 걷어 내고 땀구멍으로 조금이라도 생명을 빨아들이자. 가난한 이들의 감독관 노릇에 머물지 말고 세상의 훌륭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려고 애쓰라.

나는 시라즈의 셰이크 사디가 쓴 『굴리스탄』, 곧 『꽃동산』에서 이런 글을 읽는다.[15] "사람들이 한 현자에게 물었다. 지고하신 신이 높고 그늘 짙게 지은 이름난 나무가 많은데, 열매를 맺지 않는 삼나무 말고는 어느 나무도 아자드, 곧 자유롭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슨 신비가 있습니까? 현자가 대답했다. 나무마다 제게 맞는 소출과 정해진 철이 있어서, 그 철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싱싱하게 꽃피고 그 철이 가고 나면 메마르고 시든다. 삼나무는 늘 무성하므로 그 어느 쪽 처지에도 놓이지 않는다. 아자드, 곧 신앙의 독립자들이 이런 본성을 지녔다.

덧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칼리프의 혈통이 끊어진 뒤에도 디즐라, 곧 티그리스강은 바그다드를 지나 흐를 것이다. 네 손에 가진 것이 넉넉하거든 대추야자처럼 아낌없이 베풀라. 그러나 내줄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 삼나무처럼 아자드, 곧 자유로운 사람이 되라."

덧붙이는 시

가난의 허세[16]

가난하고 궁핍한 가련한 자여, 그대는 너무 주제넘다,
하늘에 한자리를 달라고 하다니.
그대의 초라한 오두막이나 그대의 통이
값싼 햇볕 속에서나 그늘진 샘가에서
뿌리와 나물로 게으르거나 현학적인 덕을 기른다고 해서.
그대의 오른손은 거기서
아름답게 꽃피는 덕이 그 줄기에 접붙어 무성하는
사람다운 정념을 마음에서 뜯어내며
자연을 떨어뜨리고 감각을 마비시키며,
고르곤처럼 활동하는 사람들을 돌로 바꾼다.
우리는 그대가 어쩔 수 없어 지키는 절제의
따분한 벗을 바라지 않는다.
기쁨도 슬픔도 모르는
그 부자연스러운 우둔함도, 억지로
능동적인 것보다 거짓되게 높인
수동적인 꿋꿋함도 바라지 않는다. 범속함에
제자리를 붙박은 이 비천하고 천한 족속은
그대들의 비굴한 마음에나 어울린다. 그러나 우리는
넘침을 허락하는 덕만을 내세운다.
용감하고 너그러운 행위, 왕다운 장엄함,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신중함, 끝을 모르는
너그러움, 그리고 옛날이
이름은 남기지 않고 본보기만 남긴
영웅의 덕을. 이를테면 헤라클레스,
아킬레우스, 테세우스 같은. 그대의 지긋지긋한 골방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새로 빛을 받은 천구를 보거든
그 훌륭한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기에 힘쓰라.
T. 커루

1. 이올라오스: 헤라클레스가 히드라의 목을 벨 때마다 그 자리를 불로 지져 다시 돋지 못하게 한 조카.

2.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 서른 해 동안 치우지 않았다는 외양간. 헤라클레스가 강물을 끌어들여 하루 만에 치웠다.

3. 에이커: 넓이 단위, 약 4,047제곱미터. 펙: 곡식 부피 단위, 약 8.8리터.

4. 데우칼리온과 피라: 대홍수 뒤 어깨 너머로 돌을 던져 사람을 다시 지었다는 그리스 신화의 부부.

5. 앞의 라틴어 두 행은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 제1권. 다음 두 행의 영역은 월터 롤리의 『세계사』에서 따왔다.

6. 『논어』 「위정」 편.

7. 미들섹스 가축 품평회: 미들섹스 농업 협회가 해마다 콩코드에서 연 가을 품평회.

8. 조너선: 브라더 조너선. 미국 사람을 사람처럼 부르는 별칭.

9. 피치버그 철도: 보스턴에서 콩코드를 거쳐 피치버그로 가는 철도. 1844년 월든 호수 서쪽 기슭을 따라 놓였다.

10. 코드: 장작 더미를 재는 단위, 가로 8피트·높이 4피트·너비 4피트. 부셸: 곡식 부피 단위, 약 35리터.

11. 로드: 길이 단위, 16.5피트(약 5미터).

12. 『바가바드기타』: 인도 서사시 『마하바라타』 속의 철학시. 크리슈나가 전사 아르주나에게 행위와 해탈의 길을 가르친다.

13. 셰익스피어, 『줄리어스 시저』 3막 2장. 안토니우스의 연설.

14. 존 하워드(1726~1790): 감옥 개혁에 평생을 바친 영국의 박애가.

15. 사디(1210?~1291?): 페르시아의 시인. 『굴리스탄』은 1258년에 지은 교훈집.

16. 토머스 커루(1595?~1640)의 가면극 『영국의 하늘』(1634)에서 따온 시행. 제목은 소로가 붙였다.

나는 어디서 살았고, 무엇을 위해 살았나

삶의 어느 철에 이르면 우리는 어느 곳이든 집 지을 만한 자리로 여기곤 한다. 그래서 나도 내가 사는 곳에서 사방 12마일 안의 땅을 두루 살펴보았다. 나는 상상 속에서 농장을 차례로 모두 사들였다. 어느 농장이든 살 수 있었고, 나는 그 값도 알았다. 농부마다 그 땅을 걸어 보고, 그 집 야생 사과를 맛보고, 그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고는, 그가 부르는 값에, 아니 어떤 값에라도 농장을 사들여 마음속으로 그에게 저당을 잡혔다. 값을 더 얹어 주기까지 했다. 증서만 빼고 모든 것을 받았으니, 증서 대신 그의 말을 받은 셈이다. 나는 이야기하기를 몹시 좋아하니까. 그러고는 그 땅을 일구었고, 감히 말하건대 농부의 마음도 얼마쯤은 일구었으며, 실컷 누렸다 싶으면 물러나 농사는 그에게 계속 맡겨 두었다. 이런 경험 덕분에 벗들은 나를 일종의 부동산 중개인으로 여기게 되었다. 내가 앉는 곳이면 어디든 내가 살 수 있는 곳이었고, 풍경은 그에 맞추어 나를 가운데 두고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집이란 결국 앉을 자리(sedes), 곧 자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시골에 둔 자리라면 더 좋고. 나는 머지않아 개발될 것 같지 않은 집터를 여럿 찾아냈는데, 어떤 사람은 그곳이 마을에서 너무 멀다고 여겼겠지만 내 눈에는 마을이 그곳에서 너무 멀었다. 그래, 여기서 살 수 있겠다, 하고 나는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살았다. 한 시간 동안, 여름 한 철과 겨울 한 철의 삶을. 세월을 어떻게 흘려보낼지, 겨울을 어떻게 버텨 낼지, 봄이 오는 것을 어떻게 맞을지 내다보았다. 이 고장에 앞으로 살

사람들은 어디에 집을 앉히든 누군가 이미 앞질러 다녀갔다고 믿어도 좋다. 오후 한나절이면 땅을 과수원과 땔감 숲과 목초지로 나누고, 문 앞에 어떤 훌륭한 떡갈나무나 소나무를 남겨 둘지, 벼락 맞아 말라 죽은 나무 하나하나를 어디서 보아야 가장 보기 좋을지 정하기에 넉넉했다. 그러고는 그 땅을 그대로 두었다. 묵혀 두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람은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이 많은 만큼 부자니까.

상상은 나를 꽤 멀리까지 데려가서, 나는 몇몇 농장의 우선 매수권까지 얻었다. 내가 바란 것은 그 우선권뿐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소유하다가 손을 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실제 소유에 가장 가까이 갔던 것은 홀로웰 농장을 샀을 때다. 나는 벌써 씨앗을 고르기 시작했고, 그 농장을 꾸려 나가거나 아예 실어 가 버리는 데 쓸 외바퀴 손수레를 만들 재료까지 모아 두었다. 그런데 주인이 증서를 넘겨주기 전에 그의 아내가 마음을 바꾸어 농장을 지키고 싶어 했다. 어느 남자에게나 그런 아내가 있다. 그래서 주인은 계약을 없던 일로 해 주면 10달러를 주겠다고 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때 나는 세상에 가진 것이 10센트뿐이었으니, 내가 10센트를 가진 사람인지, 농장을 가진 사람인지, 10달러를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그 모두를 가진 사람인지 셈하는 일은 내 산수 실력을 넘어섰다. 어쨌든 나는 그에게 10달러도 농장도 그대로 갖게 했다. 그만하면 충분히 밀고 나갔으니까. 아니, 너그럽게 말하자면, 나는 농장을 산 값 그대로 그에게 되팔았고, 그가 부자가 아니었으므로 10달러를 선물로 주었으며, 그러고도 내게는 10센트와 씨앗과 손수레 재료가 고스란히 남았다. 이렇게 해서 나는 가난에 아무 흠도 내지 않고 부자였던 셈이다. 그러나 풍경은 내 몫으로 남겼고, 그 뒤로 해마다 그 풍경이 내는 소출을 손수레도 없이 실어 왔다. 풍경에 관해서라면,

"나는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의 군주,
그곳에서 내 권리에 맞설 자 아무도 없다."[1]

나는 시인이 농장에서 가장 값진 것을 누리고 물러나는 것을 자주 보았다. 그동안 무뚝뚝한 농부는 시인이 야생 사과 몇 알만 얻어 갔다고 여겼다. 아니, 시인이 농장을 운율 속에 담아 버리면 주인은 여러 해가 지나도록 그 사실을 모른다. 운율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울타리여서, 시인은 그 안에 농장을 고스란히 가두어 놓고 젖을 짜고 웃물을 걷어 크림은 다 가져가며 농부에게는 걷어 내고 남은 묽은 젖만 남겨 준다.

내게 홀로웰 농장의 참된 매력은 이런 것들이었다. 우선 완전히 외떨어져 있었다. 마을에서 2마일쯤,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 반 마일 떨어져 있었고, 넓은 들판 하나가 큰길과 사이를 갈라놓았다. 강에 닿아 있었는데, 주인 말로는 강안개가 봄 서리를 막아 준다고 했지만 내게는 아무래도 좋은 일이었다. 집과 헛간은 잿빛으로 무너져 가고 울타리는 허물어져서, 나와 마지막으로 살던 사람 사이에 그만큼 긴 세월을 놓아 주었다. 속이 비고 이끼에 덮인 사과나무들은 토끼에게 갉아 먹혀서, 내가 어떤 이웃을 두게 될지 보여 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주 어려서 처음 강을 거슬러 배를 저어 갔을 때의 기억이 있었다. 그때 집은 빽빽한 붉은단풍나무 숲 뒤에 숨어 있었고, 나는 그 숲 너머로 집 지키는 개가 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주인이 바위 몇 개를 캐내고, 속 빈 사과나무를 베어 내고, 목초지에 돋아난 어린 자작나무를 뿌리째 뽑기 전에, 한마디로 무엇이든 더 개량하기 전에 서둘러 그 농장을 사고 싶었다. 이런 이점을 누리려고 나는 농장을 꾸려 갈 각오가 되어 있었다. 아틀라스처럼 세상을 어깨에 짊어지고(그가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는 들은 적이 없다), 값을 치르고 아무 방해 없이 소유하려는 것 말고는 다른 동기도 핑계도 없는 온갖 일을 다 할 각오였다. 그 땅을

그냥 내버려 둘 여유만 있다면 내가 바라는 종류의 작물을 가장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을 나는 내내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일은 앞서 말한 대로 되고 말았다.

그러니 큰 규모의 농사에 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텃밭은 늘 가꾸어 왔다) 씨앗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뿐이었다. 많은 사람이 씨앗은 묵을수록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을 가려낸다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 마침내 씨를 뿌릴 때는 실망할 일이 덜할 것이다. 그러나 동료들에게 이 말만은 분명히 해 두고 싶다. 될 수 있는 한 오래 자유롭게, 어디에도 매이지 말고 살라. 농장에 매이든 군 감옥에 매이든 별 차이가 없다.

늙은 카토의 『농업론』은 내게 농업 잡지 『컬티베이터』나 다름없는데, 그는 이렇게 말한다(내가 본 단 하나뿐인 번역은 이 대목을 아주 터무니없는 말로 만들어 놓았다). "농장을 얻을 생각이 들거든 마음속으로 이렇게 궁리하라. 욕심내어 사지 말고, 수고를 아끼지 말고 둘러보며, 한 번 돌아보고 충분하다고 여기지 말라. 좋은 땅이라면 자주 갈수록 더 마음에 들 것이다." 나는 욕심내어 사지 않고 살아 있는 동안 그 땅을 돌고 또 돌다가, 먼저 그 땅에 묻히려 한다. 그래야 마침내 그 땅이 더욱 마음에 들 테니까.

◆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이런 종류의 다음 실험이다. 이것은 좀 더 자세히 그려 보려 하는데, 편의상 두 해의 경험을 한 해로 묶는다. 앞에서 말했듯 나는 낙담의 송가를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홰에 올라선 수탉처럼 기운차게 큰소리를 치려는 것이다. 그것이 이웃을 깨우는 일일 뿐이라 해도.

처음 숲에 거처를 정했을 때, 곧 낮뿐 아니라 밤까지 거기서 보내기 시작한 날은 우연히도 독립기념일, 1845년 7월 4일이었다. 그때 내 집은 겨울을 날 채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회반죽도 굴뚝도 없이 그저 비를 가려 줄 뿐이었다. 벽은 비바람에 얼룩진 거친 판자였고 틈이 넓어서 밤이면 서늘했다. 똑바로 선 하얀 샛기둥과 새로 대패질한 문틀과 창틀 덕분에 집은 깨끗하고 바람이 잘 통해 보였는데, 특히 아침에 목재가 이슬에 흠뻑 젖어 있을 때면 한낮쯤에는 거기서 달콤한 진이 배어 나올 것만 같았다. 내 상상 속에서 집은 하루 내내 이 새벽 같은 기운을 얼마쯤 간직했고, 그래서 한 해 전에 찾아갔던 어느 산 위의 집을 떠올리게 했다. 그것은 바람이 잘 통하고 회반죽을 바르지 않은 오두막으로, 길 가던 신을 묵어 가게 하기에 알맞았고 여신이 옷자락을 끌며 거닐 만한 곳이었다. 내 집 위로 지나가는 바람은 산등성이를 쓸고 가는 바람과 같아서, 땅의 음악을 토막토막, 아니 그 천상의 가락만을 실어 날랐다. 아침 바람은 영원히 불고, 창조의 시는 끊이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듣는 귀가 드물 뿐이다. 올림포스는 어디서나 땅의 바깥일 뿐이다.

배를 빼면 내가 전에 가져 본 집이라고는 천막 하나뿐이었다. 여름에 멀리 나다닐 때 이따금 쓰던 것으로, 지금도 다락에 말아 두었다. 배는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넘어가다가 시간의 강을 따라 떠내려가 버렸다. 이보다 든든한 거처를 두르고 보니 나는 세상에 자리를 잡는 쪽으로 얼마쯤 나아간 셈이었다. 옷을 얇게 걸친 이 뼈대는 내 둘레에 맺힌 일종의 결정이어서, 지은 사람에게 되돌아와 작용했다. 윤곽만 그린 그림처럼 무언가를 넌지시 일러 주었다.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갈 필요가 없었다. 안의 공기도 신선함을 조금도 잃지 않았으니까. 비가 가장 많이 오는 날에도 내가 앉은 곳은 문 안이라기보다 문 뒤였다. 『하리방샤』[2]는 "새가 없는 거처는 양념하지 않은 고기와 같다"고 한다. 내 거처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새들의 이웃이 되었다. 새를 가두어서가 아니라 새들 가까이에 나를 가두어서였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에 흔히 드나드는 새들뿐 아니라, 마을 사람에게는 좀처럼, 아니 결코 노래를 불러 주지 않는, 더 작고 더 가슴 떨리게 노래하는 숲의 가수들과도 가까워졌다. 숲지빠귀, 비리지빠귀, 붉은풍금새, 들참새, 쏙독새, 그 밖에 많은 새였다.

내가 자리 잡은 곳은 작은 호수의 기슭으로, 콩코드 마을에서 남쪽으로 1마일 반쯤, 마을보다 조금 높은 곳이었다. 콩코드 읍과 링컨 사이에 펼쳐진 넓은 숲 한가운데였고, 우리 고장에서 유일하게 이름난 싸움터인 콩코드 전적지에서 남쪽으로 2마일쯤 되는 곳이었다. 그러나 나는 숲속 낮은 곳에 자리했으므로, 반 마일 떨어진 맞은편 기슭이 가장 먼 지평선이었다. 그 기슭도 다른 곳처럼 숲에 덮여 있었다. 처음 한 주 동안은 호수를 내다볼 때마다 산허리 높이 걸린 산중 호수처럼 보였다. 그 바닥이 다른 호수들의 수면보다도 훨씬 높은 데 있는 듯했다. 해가 떠오르면 호수가 밤사이 걸쳤던 안개 옷을 벗어 던지는 것이 보였고, 여기저기서 차츰 부드러운 잔물결이나 매끄럽게 비치는 수면이 드러났으며, 그사이 안개는 밤의 비밀 집회가 흩어질 때처럼 유령같이 살그머니 사방의 숲으로 물러갔다. 이슬마저 산허리에서처럼 여느 때보다 늦게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이 작은 호수가 이웃으로서 가장 값졌던 때는 8월, 부드러운 비바람이 잠시 멎은 사이였다. 공기도 물도 아주 고요하고 하늘만 구름에 덮이면 한낮이 지난 오후에도 저녁의 고요함이 온전히 깃들었고, 숲지빠귀가 사방에서 노래해 이 기슭에서 저 기슭까지 들렸다. 이런 호수는 그런 때만큼 잔잔한 적이 없다. 그 위의 맑은 대기층이 얕고 구름에 가려 어두워지면, 빛과 그림자를 가득 담은 물은 그 자체로 낮은 하늘이 되어 그만큼 더 귀해진다. 가까운 언덕 꼭대기는 얼마 전 나무를 베어 낸

곳인데, 거기서 남쪽으로 호수 건너 기분 좋은 경치가 트였다. 기슭을 이루는 언덕들이 넓게 움푹 들어간 자리로, 양쪽 비탈이 서로를 향해 기울어져 있어 그쪽으로 숲 우거진 골짜기를 지나 흘러 나가는 개울이 있을 것만 같았지만 개울은 없었다. 그쪽으로 나는 가까운 푸른 언덕들 사이로, 또 그 너머로 지평선에 걸린 더 높고 먼 언덕들을 바라보았다. 언덕들은 푸른빛을 띠었다. 실제로 발끝으로 서면 북서쪽으로 더 푸르고 더 먼 산줄기의 봉우리 몇을 언뜻 볼 수 있었는데, 하늘의 조폐국에서 손수 찍어 낸 진짜 푸른 동전 같은 봉우리들이었다. 마을도 얼마쯤 보였다. 그러나 다른 쪽으로는 이 자리에서도 나를 둘러싼 숲 너머를 볼 수 없었다. 가까이에 물이 조금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물은 땅에 부력을 주어 띄워 준다. 아무리 작은 우물이라도 쓸모가 하나 있으니, 들여다보면 땅이 대륙이 아니라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우물이 버터를 차게 지켜 준다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이 봉우리에서 호수 건너 서드베리 풀밭 쪽을 바라보면, 홍수 때 그 풀밭은 끓어오르는 골짜기 안에서 신기루 때문인지 대야 속 동전처럼 떠올라 보였고, 호수 너머의 땅은 모두 이 작은 물 한 장에 갈라져 떠 있는 얇은 껍질 같아서, 나는 내가 사는 이곳도 *마른 땅*일 뿐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문 앞에서 보이는 경치는 더 좁았지만 나는 조금도 비좁거나 갇혔다고 느끼지 않았다. 내 상상력이 풀을 뜯을 목초지는 넉넉했다. 맞은편 기슭이 올라가 닿은 낮은 관목참나무 고원은 서부의 대초원과 타타르의 스텝까지 뻗어 있어서, 떠도는 인류의 모든 가족이 넉넉히 머물 만했다. "드넓은 지평선을 마음껏 누리는 이들 말고는 이 세상에 행복한 이가 없다." 다모다라[3]는 자기 소 떼에게 새롭고 더 넓은 목초지가 필요해졌을 때 이렇게 말했다.

장소도 시간도 바뀌어서, 나는 우주에서 나를 가장 끌어당겼던 곳들과 역사에서 가장 끌렸던 시대들에 더 가까이 살았다. 내가 산 곳은

천문학자들이 밤마다 바라보는 여러 영역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 우리는 흔히 드물고 즐거운 곳이 저 멀리, 더 천상에 가까운 우주의 어느 구석, 카시오페이아의 의자 별자리 너머 소음과 소란에서 먼 곳에 있으리라고 상상한다. 나는 내 집이 실제로 그처럼 외떨어졌지만 영원히 새롭고 더럽혀지지 않은 우주의 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았다. 플레이아데스나 히아데스, 알데바란이나 알타이르 가까이에 자리 잡는 것이 해 볼 만한 일이라면, 나는 정말로 거기 있었던 셈이다. 아니면 내가 두고 온 삶에서 그만큼 멀리 떨어져서,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는 그만큼 가늘게 줄어들어 반짝이며 달 없는 밤에나 그의 눈에 띄는 별이 되어 있었다. 내가 무단으로 눌러앉은 창조의 한 구석은 그런 곳이었다.

"옛날에 한 목동이 살았는데,
그의 생각은 높기가
그의 양 떼가 때마다 곁에서
풀을 뜯는 산만큼이었다."

목동의 양 떼가 언제나 그의 생각보다 더 높은 목초지로 떠돌아다닌다면, 우리는 그 목동의 삶을 어떻게 여겨야 할까?

아침마다 나는 내 삶을 자연만큼 단순하게, 감히 말하자면 자연만큼 천진하게 만들라는 즐거운 초대를 받았다. 나는 그리스 사람들만큼이나 진실하게 아우로라를 섬겨 왔다. 일찍 일어나 호수에서 몸을 씻었다. 그것은 종교적인 수행이었고, 내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의 하나였다. 탕왕의 목욕통에 이런 뜻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날마다 너 자신을 온전히 새롭게 하라. 또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영원히 또 새롭게 하라."[4] 나는 그 마음을 알 수 있다. 아침은 영웅시대를 다시 불러온다. 이른 새벽 문과 창을 열어 놓고 앉아 있으면, 모기 한 마리가 보이지도 않고 짐작할 수도 없는 길을 따라 내 방을 돌며 내는

희미한 앵앵 소리가, 명성을 노래한 어떤 나팔 소리 못지않게 내 마음을 울렸다. 그것은 호메로스의 진혼곡이었다. 그 자체로 허공에 울리는 『일리아스』 이자 『오디세이아』 로서, 제 분노와 방랑을 노래했다. 거기에는 무언가 우주적인 것이 있었다. 금지당할 때까지 내걸린 광고처럼, 세상의 영원한 활력과 풍요를 알렸다. 하루 가운데 가장 기억할 만한 철인 아침은 깨어나는 시간이다. 그때 우리 안에는 졸음이 가장 적다. 그리고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하루의 나머지 낮과 밤 내내 잠들어 있는 우리 안의 어떤 부분이 깨어난다. 우리를 깨우는 것이 우리의 정령이 아니라 어떤 하인이 기계적으로 쿡쿡 찌르는 손길이라면, 공장 종소리 대신 천상의 음악이 물결치고 향기가 공기를 채우는 가운데 안에서 새로 얻은 힘과 열망으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잠들 때보다 더 높은 삶으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날에는, 그날을 하루라고 부를 수 있다면,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 그렇게 깨어나야 어둠도 열매를 맺고, 빛 못지않게 어둠 또한 좋은 것임을 스스로 보여 준다. 하루하루가 자기가 아직 더럽히지 않은, 더 이르고 더 거룩한 새벽의 시간을 품고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삶에 절망한 사람이며, 내리막의 어두워지는 길을 걷고 있다. 감각의 삶이 얼마쯤 멈춘 뒤에 사람의 영혼은, 아니 그 기관들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그의 정령은 어떤 고귀한 삶을 지을 수 있는지 다시 시도한다. 기억할 만한 일은 모두 아침 시간에, 아침의 공기 속에서 일어난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베다』 는 말한다. "모든 지성은 아침과 함께 깨어난다." 시와 예술, 그리고 사람이 한 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억할 만한 일은 그런 시간에서 비롯한다. 모든 시인과 영웅은 멤논처럼 아우로라의 자식이며, 해 뜰 때 음악을 울린다. 탄력 있고 힘찬 생각으로 해와 발을 맞추는 사람에게 하루는 끝없는 아침이다. 시계가 무엇이라 하든, 사람들이 어떤 몸짓으로 무슨 수고를 하든 상관없다. 아침은 내가 깨어 있고 내 안에 새벽이 있을 때다.

도덕의 개혁이란 잠을 떨쳐 내려는 노력이다. 사람들이 잠들어 있지 않았다면 어째서 자기 하루를 그토록 보잘것없이 셈하겠는가? 그들은 그렇게 서툰 셈꾼이 아니다. 졸음에 지지 않았다면 무언가를 해냈을 것이다. 수백만이 몸 쓰는 일을 할 만큼은 깨어 있다. 그러나 지적인 노력을 제대로 할 만큼 깨어 있는 사람은 백만에 하나, 시적이거나 신성한 삶에 이를 만큼 깨어 있는 사람은 일억에 하나뿐이다. 깨어 있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이다. 나는 아직 완전히 깨어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만났다면 내가 어떻게 그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기계의 도움이 아니라, 가장 깊은 잠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새벽에 대한 끝없는 기대로 다시 깨어나고 깨어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람이 의식적인 노력으로 자기 삶을 높일 수 있다는, 의심할 여지 없는 그 능력보다 더 힘이 되는 사실을 나는 알지 못한다.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상을 새겨 몇몇 대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내다보는 바로 그 대기와 매질을 새기고 칠하는 것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며, 도덕적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하루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예술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삶을, 그 세세한 부분까지, 자기의 가장 고양되고 가장 엄정한 시간에 돌아보아도 부끄럽지 않게 만들 과제가 지워져 있다. 우리가 얻는 하찮은 정보를 거절한다면, 아니 남김없이 다 써 버린다면, 신탁은 이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 똑똑히 일러 줄 것이다.

내가 숲으로 간 것은 깨어서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삶의 본질적인 사실들만 마주하고, 삶이 가르쳐야 하는 것을 내가 배울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었고, 죽을 때가 되어서야 내가 살지 않았음을 깨닫는 일은 없기를 바랐다. 나는 삶이 아닌 것을 살고 싶지 않았다. 산다는 것은

그토록 귀하다. 꼭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체념을 익히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깊이 살면서 삶의 골수를 남김없이 빨아들이고 싶었고, 스파르타 사람처럼 굳세게 살아서 삶이 아닌 것은 모조리 몰아내고 싶었으며, 낫질을 넓게 하고 풀을 바싹 깎아 삶을 구석으로 몰아넣고는 분수를 약분하듯 가장 간단한 꼴로 줄여 보고 싶었다. 그래서 삶이 비천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 비천함을 고스란히 다 맛보고 세상에 알리고, 숭고한 것이라면 몸소 겪어서 알고 다음 글에서 참되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랐다. 내가 보기에 사람들은 대부분 삶이 악마의 것인지 신의 것인지 묘하게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사람의 으뜸가는 목적은 "신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조금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 버렸기 때문이다.[5]

옛이야기는 우리가 오래전에 개미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개미처럼 비천하게 산다. 피그미족처럼 두루미와 싸우고, 잘못에 잘못을 덧대고 누더기에 누더기를 기우며, 우리의 가장 훌륭한 덕조차 없어도 될 비참함, 피할 수도 있었던 비참함을 계기로 삼는다. 우리의 삶은 자질구레한 일에 조금씩 닳아 없어진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열 손가락보다 많이 셀 일이 거의 없고, 아주 드물게 열 발가락을 보태면 나머지는 한데 뭉뚱그려도 된다. 단순하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내 말은 이렇다. 할 일은 백 가지나 천 가지가 아니라 두세 가지로 두라. 백만 대신 여섯까지만 세고, 장부는 엄지손톱에 적으라. 문명 생활이라는 이 거친 파도 한가운데에서는 헤아려 두어야 할 구름과 폭풍과 모래 수렁과 천한 가지 항목이 너무 많아서, 사람은 난파해 바닥으로 가라앉아 끝내 항구에 닿지 못하는 꼴을 면하려면 추측 항법으로 살아야 하며,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셈꾼임에 틀림없다. 단순하게 하라, 단순하게. 필요하다면 하루 세 끼 대신 한 끼만 먹고, 백 가지 요리 대신 다섯 가지만 먹고, 다른 것들도 그만큼 줄이라. 우리의 삶은 독일

연방과 같다.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졌고 국경이 끝없이 오락가락해서, 독일 사람조차 어느 때든 그 경계가 어떻게 그어져 있는지 말하지 못한다. 나라 자체도 이른바 국내 개량 사업이라는 것을 다 갖추었지만(말이 났으니 말이지 그것은 모두 안이 아니라 겉을 손보는 일이고 피상적이다), 이 땅의 백만 가구와 똑같이 다루기 힘들게 웃자란 살림이어서, 가구로 어수선하고 제가 놓은 덫에 걸려 넘어지며, 사치와 무분별한 씀씀이로, 셈이 모자라고 값진 목표가 없어서 망가져 있다. 그러니 그 집들에나 나라에나 유일한 처방은 엄격한 경제, 곧 스파르타 사람보다 더 엄한 삶의 단순함과 목적의 고양에 있다. 나라는 너무 빨리 산다. 사람들은 *나라*가 상업을 하고, 얼음을 수출하고, 전신으로 말을 주고받고, 한 시간에 30마일을 달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의심 없이 생각한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든 말든. 그러나 우리가 비비원숭이처럼 살아야 하는지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지는 조금 불확실하다. 우리가 침목을 내고 레일을 벼리고 밤낮을 그 일에 바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손보아 *그것*을 개량하는 데 매달린다면 누가 철도를 놓겠는가? 그리고 철도가 놓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제때 천국에 가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집에 머물며 제 일에 마음을 쓴다면 누가 철도를 원하겠는가? 우리가 철도를 타는 것이 아니다. 철도가 우리를 타고 달린다. 철도 밑에 깔린 침목(sleeper), 그 잠자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하나가 사람이다. 아일랜드 사람이거나 양키다. 그 위에 레일이 깔리고 모래가 덮이고, 기차는 그 위를 부드럽게 달린다. 장담하건대 그들은 곤히 잠들어 있다. 그리고 몇 해마다 새 무리가 깔리고 그 위로 기차가 지나간다. 그러니 누군가 레일을 타는 즐거움을 누린다면 다른 누군가는 깔리는 불운을 겪는다. 그런데 기차가 잠결에 걷는 사람, 엉뚱한 자리에 놓인 여분의 침목을 치고 지나가 그를 깨우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갑자기 기차를 세우고 마치 이것이 예외라는 듯 떠들썩하게

소리친다. 침목들이 지금처럼 제자리에 반듯이 누워 있게 하려면 5마일마다 인부 한 무리가 붙어야 한다니 나는 기쁘다. 언젠가 그들이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표시이니까.

우리는 왜 이토록 서두르며 삶을 낭비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배고프기도 전에 굶어 죽기로 작정했다. 사람들은 제때 한 땀이 아홉 땀을 던다면서 내일 아홉 땀을 덜려고 오늘 천 땀을 꿰맨다. *일*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대단한 일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성 비토의 춤이라는 무도병에 걸려 머리를 가만히 두지 못한다. 내가 교구 종 줄을 몇 번만 잡아당겨도, 불이 났을 때처럼, 그러니까 종을 제대로 세워 놓지 않고 울리기만 해도, 콩코드 변두리 농장에 있는 남자는 오늘 아침에만 몇 번이나 핑계로 댄 그 바쁜 일거리가 있는데도 거의 하나 빠짐없이, 사내아이도, 감히 말하자면 여자도,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 소리를 따라올 것이다. 불길에서 재산을 건지려는 마음이 앞서서가 아니라, 솔직히 털어놓자면 불이 타는 것을 보려는 마음이 훨씬 커서다. 어차피 탈 수밖에 없고, 알다시피 불을 지른 것은 우리가 아니니까. 아니면 불을 끄는 것을 구경하고 한 손 거들려는 것이다. 그쪽이 그만큼 멋지게 끝난다면. 그렇다, 그것이 교구 교회 자체라 해도 그렇다. 점심을 먹고 반 시간 낮잠을 잔 사람도 거의 예외 없이, 깨어나면 고개를 들고 "무슨 소식 있나?" 하고 묻는다. 마치 나머지 인류가 그를 위해 보초라도 서 준 듯이. 어떤 사람은 반 시간마다 깨워 달라고 일러 두는데, 틀림없이 그 밖의 목적은 없다. 그러고는 그 값을 치르려고 꿈 이야기를 한다. 밤잠을 자고 나면 소식은 아침밥만큼이나 없어서는 안 된다. "이 지구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일어난 새로운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 주시오." 그러고는 커피와 롤빵을 앞에 놓고, 오늘 아침 와치토강에서 어떤 사람이 눈알을 도려냈다는 기사를 읽는다. 그동안 자기가 이

세상이라는, 어둡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매머드 동굴에 살면서 자기 자신도 눈이라고는 흔적만 남았다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나로 말하면 우체국 없이도 거뜬히 살 수 있다. 우체국을 거쳐 오가는 중요한 소식은 아주 드물다고 생각한다. 엄밀히 말해 내가 평생 받은 편지 가운데 우편 요금만큼 값어치가 있었던 것은 한두 통뿐이다. 이 글은 몇 해 전에 썼다. 1페니 우편이란 대개, 농담으로는 흔히 아무 탈 없이 건네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해 주면 1페니 주지" 하는 그 1페니를 진지하게 건네는 장치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신문에서 기억할 만한 소식을 읽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자신한다.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하거나 살해되거나 사고로 죽었다는 기사, 집 한 채가 불탔다거나 배 한 척이 난파했다거나 증기선 한 척이 폭발했다는 기사, 소 한 마리가 웨스턴 철도에서 치였다거나 미친개 한 마리를 잡았다거나 겨울에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는 기사를 한 번 읽었다면, 다른 기사는 읽을 필요가 없다. 하나면 충분하다. 원리를 안다면 무수한 사례와 응용이 무슨 상관인가? 철학자에게 이른바 *소식*이라는 것은 모두 잡담이며, 그것을 엮고 읽는 사람들은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늙은 아낙네들이다. 그런데도 이 잡담을 탐내는 사람이 적지 않다. 들리는 말로는 며칠 전 어느 신문사에 마지막 배편으로 들어온 외국 소식을 알려는 사람이 어찌나 몰려들었는지 그 사무실의 커다란 판유리 몇 장이 밀려서 깨졌다고 한다. 내가 진지하게 생각하기로, 그런 소식은 재치 있는 사람이라면 열두 달 전에, 아니 열두 해 전에 미리 써 두어도 충분히 정확할 것이다. 이를테면 스페인이라면, 돈 카를로스와 왕녀, 돈 페드로와 세비야와 그라나다를 때때로 알맞은 비율로 버무려 넣을 줄 알고(내가 신문을 본 뒤로 이름이 조금 바뀌었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볼거리가 떨어지면 투우 한 판을 내놓으면, 그 기사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을 것이고, 신문에 이 제목으로 실리는 가장 간결하고 명쾌한

보도만큼이나 스페인의 정확한 형편이나 몰락상을 잘 알려 줄 것이다. 영국으로 말하자면, 그쪽에서 온 의미 있는 소식 쪼가리로는 1649년의 혁명이 거의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보통 해의 그 나라 작황 내력을 한 번 익혔다면, 셈속이 순전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닌 한 다시는 그 일에 마음 쓸 필요가 없다. 신문을 좀처럼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이 판단해도 된다면, 외국에서는 새로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프랑스 혁명도 예외가 아니다.

소식이라니! 결코 낡은 적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일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위(衛)나라의 높은 대부 거백옥(蘧伯玉)이 공자에게 사람을 보내 소식을 물었다. 공자는 심부름꾼을 곁에 앉히고 이렇게 물었다. 주인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 심부름꾼이 공손히 대답했다. 제 주인께서는 허물을 줄이려 하시지만 아직 끝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심부름꾼이 떠나자 철학자가 말했다. 참으로 훌륭한 심부름꾼이구나! 참으로 훌륭한 심부름꾼이구나!"[6] 설교자는 한 주의 끝 쉬는 날에 꾸벅꾸벅 조는 농부들의 귀를 또 한 편의 질질 끄는 설교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일요일은 잘못 보낸 한 주에 걸맞은 끝맺음이지 새 주를 여는 신선하고 씩씩한 시작이 아니니까) 우레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외쳐야 한다. "멈추라! 거기 서라! 어째서 겉으로는 그리 빠른 듯하면서 실은 죽도록 느린가?"

거짓과 망상은 가장 확실한 진리로 떠받들어지는데, 실재는 꾸며 낸 이야기로 여겨진다. 사람들이 꾸준히 실재만을 바라보고 스스로 속지 않는다면, 삶은, 우리가 아는 것에 견주자면, 동화나 『아라비안나이트』 같을 것이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있을 권리가 있는 것만 존중한다면 음악과 시가 거리마다 울려 퍼질 것이다. 서두르지 않고 지혜로울 때 우리는 크고 값진 것만이 영원하고 절대적으로 존재하며, 하찮은 두려움과 하찮은 즐거움은 실재의

그림자일 뿐임을 깨닫는다. 이 깨달음은 언제나 우리를 들뜨게 하고 숭고하다. 사람들은 눈을 감고 잠들어 겉모습에 속기로 동의함으로써 어디서나 판에 박힌 일상과 습관의 삶을 세우고 굳히는데, 그 삶은 여전히 순전한 환상 위에 지어져 있다. 삶을 놀이로 하는 아이들이, 삶을 값지게 살지 못하면서도 경험으로, 곧 실패로 더 지혜로워졌다고 생각하는 어른들보다 삶의 참된 법칙과 관계를 더 또렷이 알아본다. 나는 어느 힌두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다. "한 왕자가 있었는데, 어려서 태어난 도성에서 쫓겨나 어느 숲지기의 손에 자랐다. 그런 처지에서 어른이 되자 그는 자기가 함께 살던 야만족에 속한다고 여겼다. 그러다 아버지의 대신 하나가 그를 찾아내 그가 누구인지 알려 주자, 자기를 잘못 알던 생각이 걷히고 그는 자기가 왕자임을 알았다." 힌두 철학자는 이어서 말한다. "영혼도 이와 같아서, 자기가 놓인 처지 때문에 제 본성을 잘못 알다가 어느 거룩한 스승이 진리를 드러내 주면 그때 자기가 브라흐만임을 안다." 우리 뉴잉글랜드 사람들이 지금처럼 비천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눈이 사물의 겉을 꿰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본다. 우리는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을 *있는* 것이라 여긴다. 어떤 사람이 이 읍을 걸어 지나가며 실재만을 본다면 "밀댐"은 어디로 가 버리겠는가? 그가 거기서 본 실재를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의 묘사에서 그곳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예배당이나 법원이나 감옥이나 가게나 살림집을 보고, 참된 눈길 앞에서 그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말해 보라. 이야기하는 사이에 그것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사람들은 진리가 먼 곳, 우주의 변두리, 가장 먼 별 너머, 아담보다 앞서고 마지막 사람보다 뒤에 있다고 여긴다. 영원 속에는 참으로 참되고 숭고한 무엇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때와 곳과 기회는 지금 여기에 있다. 신 자신도 지금 이 순간에 절정에 이르며,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이보다 더 신성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숭고하고 고귀한 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실재가 끊임없이 스며들고 흠뻑 적셔 주기 때문이다. 우주는 우리의 구상에 언제나 고분고분 응답한다. 우리가 빨리 가든 느리게 가든 길은 우리를 위해 놓여 있다. 그러니 구상하는 데 삶을 쓰자. 시인이나 예술가가 아무리 아름답고 고귀한 구상을 품었더라도, 그의 후손 가운데 적어도 누군가가 그것을 이루어 내지 못한 적은 아직 없었다.

하루만이라도 자연처럼 찬찬히 보내자. 레일 위에 떨어지는 견과 껍데기 하나, 모기 날개 하나에 궤도에서 튕겨 나가지 말자. 일찍 일어나 아침을 굶든, 굶기를 깨뜨려 아침을 먹든, 부드럽게 흔들림 없이 보내자. 손님이 오면 오게 하고 가면 가게 하고, 종이 울리면 울리게 하고 아이들이 울면 울게 두자. 하루를 온전히 하루답게 보내기로 마음먹고. 우리가 왜 굴복하고 물결에 휩쓸려 가야 하는가? 정오의 얕은 여울에 자리 잡은, 점심이라는 무시무시한 급류와 소용돌이에 뒤집히거나 휩쓸리지 말자. 이 위험만 헤쳐 나가면 안전하다. 나머지 길은 내리막이니까. 신경을 늦추지 말고 아침의 기운으로, 오디세우스처럼 돛대에 몸을 묶고 딴 데를 바라보며 그 곁을 지나가라. 기관차가 기적을 울리면 수고한 값으로 목이 쉬도록 울리게 두라. 종이 울린다고 우리가 왜 달려가야 하는가? 그것들이 어떤 음악을 닮았는지나 생각해 보자.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론과 편견과 전통과 망상과 겉모습이라는 진흙과 진창, 지구를 뒤덮은 그 충적토를 뚫고, 파리와 런던을 지나, 뉴욕과 보스턴과 콩코드를 지나, 교회와 국가를 지나, 시와 철학과 종교를 지나, 우리가 *실재*라고 부를 수 있는 단단한 바닥과 제자리에 박힌 바위에 닿을 때까지 두 발을 쐐기처럼 박으며 밀고 내려가자. 그리고 "이것이다, 틀림없다" 하고 말하자. 그런 다음 홍수와 서리와 불이 미치지 않는 그 받침점에서 시작하자. 거기는 성벽이나 국가의 터를 닦거나, 가로등 기둥을 안전하게 세우거나, 어쩌면 눈금 기둥을, 나일강 수위계가

아니라 실재 수위계를 세워서, 거짓과 겉모습의 홍수가 때때로 얼마나 깊이 불어났는지 뒷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할 만한 자리다. 어떤 사실과 똑바로 얼굴을 마주하고 서면, 그 사실의 양면에 언월도처럼 햇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그 달콤한 날이 심장과 골수까지 우리를 가르는 것을 느끼며, 그렇게 기꺼이 이승의 길을 마치게 될 것이다. 삶이든 죽음이든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오직 실재뿐이다. 우리가 정말로 죽어 가고 있다면 목에서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듣고 손발 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자. 살아 있다면 제 할 일을 하러 가자.

시간은 내가 낚시하러 가는 개울일 뿐이다. 나는 그 물을 마신다. 그러나 마시는 동안 모래 바닥이 보이고, 그것이 얼마나 얕은지 알아챈다. 그 가는 물줄기는 미끄러져 흘러가 버리지만 영원은 남는다. 나는 더 깊이 마시고 싶다. 바닥에 별들이 조약돌처럼 깔린 하늘에서 낚시하고 싶다. 나는 별 하나도 세지 못한다. 알파벳 첫 글자도 모른다. 태어나던 날만큼 지혜롭지 못한 것을 나는 늘 아쉬워해 왔다. 지성은 고기를 가르는 큰 칼이다. 그것은 사물의 비밀을 가려내고 쪼개며 길을 낸다. 나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손을 바삐 놀리고 싶지 않다. 내 머리가 손이고 발이다. 내 가장 좋은 능력이 모두 거기 모여 있는 것을 느낀다. 어떤 짐승들이 주둥이와 앞발을 쓰듯 내 머리는 땅을 파는 기관이라고 본능이 일러 주니, 나는 그것으로 이 언덕들을 파 들어가며 길을 내고 싶다. 가장 풍부한 광맥이 이 근처 어딘가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점치는 막대와 엷게 피어오르는 김을 보고 그렇게 판단한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파 들어가련다.

---

1. 윌리엄 쿠퍼(1731~1800)의 시 「알렉산더 셀커크의 독백」. 소로가 기울인 survey는 「바라보다」이자 「측량하다」다. 소로는 측량 일로도 생계를 꾸렸다.

2. 『하리방샤』: 『마하바라타』에 덧붙은, 크리슈나의 일대기를 담은 경전.

3. 다모다라: 크리슈나의 별칭.

4. 『대학』에 전하는, 은나라 탕왕이 목욕 대야에 새긴 글.

5.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1647)의 첫 물음 "사람의 으뜸가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

6. 『논어』 「헌문」 편.

독서

할 일을 고를 때 조금만 더 찬찬히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이 어쩌면 본디 공부하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의 본성과 운명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흥미로운 것이 틀림없으니까. 우리 자신이나 후손을 위해 재산을 모을 때, 가문이나 나라를 세울 때, 명성을 얻을 때조차 우리는 죽을 운명이다. 그러나 진리를 다룰 때 우리는 죽지 않으며, 어떤 변화도 사고도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가장 오래된 이집트나 힌두의 철학자는 신상에 드리운 베일 한 자락을 들어 올렸다. 그 떨리는 옷자락은 아직도 들린 채로 있고, 나는 그가 보았던 것만큼 싱싱한 영광을 바라본다. 그때 그토록 대담했던 것은 그 사람 안의 나였고, 지금 그 광경을 다시 보는 것은 내 안의 그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옷자락에는 먼지 하나 내려앉지 않았고, 그 신성이 드러난 뒤로 시간은 조금도 흐르지 않았다. 우리가 참으로 살려 쓰는 시간, 살려 쓸 수 있는 시간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니다.

내 거처는 생각에도 진지한 독서에도 대학보다 나았다. 나는 보통의 순회 대출 도서관이 닿는 곳 밖에 있었지만, 세상을 두루 도는 책들의 힘이 미치는 곳으로는 어느 때보다 가까이 들어와 있었다. 그 책들의 문장은 처음에는 나무껍질에 쓰였고, 지금은 그저 이따금 아마포 종이에 옮겨 적힐 뿐이다. 시인 미르 카마르 우딘 마스트는 이렇게 말한다. "앉은 채로 영혼의 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는 것, 나는 책에서 이 덕을 보았다. 포도주 한 잔에 취하는 것, 비밀스러운 가르침의 술을 마셨을 때

나는 이 즐거움을 맛보았다." 나는 여름 내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책상에 두었지만 그 책장을 들여다본 것은 이따금일 뿐이었다. 처음에는 집도 마저 지어야 하고 콩밭도 매야 해서 쉴 새 없이 손으로 일하느라 더 공부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앞으로 그런 책을 읽게 되리라는 기대로 버텼다. 일하는 틈틈이 얄팍한 여행기를 한두 권 읽다가 그 짓이 부끄러워져서, 그렇다면 *나*는 대체 어디에 살고 있느냐고 스스로 물었다.

공부하는 사람은 호메로스나 아이스킬로스를 그리스어로 읽더라도 방탕이나 사치에 빠질 위험이 없다. 그렇게 읽는다는 것은 얼마쯤 그들의 영웅을 본받고 아침 시간을 그들의 책장에 바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영웅의 책은 우리 모국어의 글자로 찍혀 있더라도 타락한 시대에는 언제나 죽은 말로 쓰인 책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낱말 하나, 행 하나의 뜻을 애써 찾아야 하고, 우리가 지닌 지혜와 용기와 너그러움을 다 짜내어 흔한 쓰임새가 허락하는 것보다 더 큰 뜻을 짐작해 내야 한다. 값싸고 다산하는 요즘의 인쇄기는 온갖 번역을 쏟아냈지만 고대의 영웅적인 작가들에게 우리를 가까이 데려다주는 일은 거의 하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외로워 보이고, 그들을 찍은 글자도 여전히 드물고 진기해 보인다. 고대 언어의 낱말 몇 개만 배우더라도, 그 낱말들이 거리의 하찮음에서 솟아올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일깨우고 자극해 준다면, 젊은 날과 값비싼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다. 농부가 어디서 들은 라틴어 몇 마디를 기억해 되풀이하는 것도 헛된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따금 고전 공부가 마침내 더 근대적이고 실용적인 공부에 자리를 내주리라는 듯이 말한다. 그러나 모험을 아는 학생은 언제나 고전을 공부할 것이다. 그 고전이 어떤 언어로 쓰였든, 얼마나 오래되었든. 고전이란 사람이 기록한 가장 고귀한 생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고전은 썩지 않은 단 하나의 신탁이며, 그 안에는 가장

근대적인 물음에 대해서도 델포이와 도도나가 준 적 없는 답이 들어 있다. 자연이 늙었다고 자연을 공부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잘 읽는 것, 곧 참된 책을 참된 정신으로 읽는 것은 고귀한 수련이며, 요즘의 풍습이 높이 치는 어떤 수련보다도 읽는 사람을 더 고되게 부린다. 그것은 운동선수가 받았던 것 같은 훈련, 거의 평생을 이 목표에 꾸준히 바치는 마음을 요구한다. 책은 쓰일 때만큼 찬찬히, 삼가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그 책을 쓴 민족의 말을 할 줄 아는 것으로도 모자라다. 말하는 언어와 글로 쓴 언어, 귀로 듣는 언어와 눈으로 읽는 언어 사이에는 잊지 못할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앞의 것은 대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 소리이고 혀이고 사투리일 뿐이며 거의 짐승의 것이어서, 우리는 그것을 짐승처럼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에게서 배운다. 뒤의 것은 앞의 것이 무르익고 경험을 쌓은 것이다. 앞의 것이 어머니의 말이라면 뒤의 것은 아버지의 말로, 삼가고 가려 뽑은 표현이며 귀로 듣기에는 너무 뜻이 깊어서, 그것을 말하려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중세에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그저 말할 줄만 알던 숱한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그 언어로 쓰인 천재의 작품을 읽을 자격을 얻지는 못했다. 그 작품들은 그들이 아는 그리스어나 라틴어가 아니라 가려 뽑은 문학의 언어로 쓰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와 로마의 더 고귀한 말을 배우지 않았고, 그 작품들을 적은 종이마저 그들에게는 폐지였으며, 그들은 그 대신 값싼 당대 문학을 귀히 여겼다. 그러나 유럽의 여러 민족이 아직 거칠기는 해도 저마다 뚜렷한 글말을 갖추어, 일어나는 제 문학에 쓰기에 넉넉해졌을 때 비로소 학문이 되살아났고, 학자들은 그 먼 거리에서 고대의 보물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로마와 그리스의 군중이 *들을* 수 없었던 것을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몇몇 학자가 *읽었고,* 지금도 그것을 읽는 사람은 몇몇 학자뿐이다.

웅변가가 이따금 터뜨리는 웅변에 우리가 아무리 감탄하더라도, 가장 고귀한 글말은 대개 덧없는 입말보다, 별이 박힌 하늘이 구름보다 뒤에 있고 위에 있는 만큼 멀리 뒤에, 또 위에 있다. *거기에* 별이 있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별을 읽는다. 천문학자들은 끝없이 별을 풀이하고 관찰한다. 별은 우리의 일상 잡담이나 김 서린 입김처럼 피어올랐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광장에서 웅변이라 불리는 것도 서재에서 보면 대개 수사일 뿐이다. 웅변가는 덧없는 계기의 영감에 몸을 맡기고, 눈앞의 군중, 곧 자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러나 작가는 더 고른 삶 자체가 그의 계기이며, 웅변가에게 영감을 주는 사건과 군중에는 오히려 마음이 흐트러질 사람이어서, 인류의 지성과 건강에게, 어느 시대에든 자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알렉산드로스가 원정길에 『일리아스』를 값진 상자에 넣어 가지고 다닌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글로 쓴 말은 유물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유물이다. 그것은 다른 어떤 예술 작품보다 우리와 더 가까우면서도 더 보편적이다. 삶 자체에 가장 가까운 예술 작품이다. 그것은 모든 언어로 옮겨질 수 있고, 읽힐 뿐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사람의 입술에서 숨결이 되어 나올 수 있다. 화폭이나 대리석에 그려지고 새겨질 뿐 아니라 삶의 숨결 자체에서 깎아 낼 수 있다. 옛사람이 생각을 적은 기호가 오늘 사람의 말이 된다. 이천 번의 여름은 그리스 문학의 기념비에, 그리스의 대리석에 그러했듯, 좀 더 무르익은 금빛, 가을빛만을 입혔을 뿐이다. 그 기념비들은 저마다 고요한 천상의 공기를 모든 땅에 품고 가서 시간의 부식을 막아 왔기 때문이다. 책은 세상이 소중히 간직한 재산이며, 세대와 민족이 물려받기에 알맞은 유산이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좋은 책들은 어느 오두막 선반에나 저절로, 마땅히 꽂혀 있다. 그 책들에게는 스스로 내세울 송사가 없지만, 읽는 사람을 깨우치고 북돋우는 동안에는

그의 상식이 그 책들을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 책을 쓴 이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자연스럽고 거스를 수 없는 귀족이며, 왕이나 황제보다 더 큰 힘을 인류에게 미친다. 글을 모르고 어쩌면 글을 업신여기는 장사꾼이 수완과 부지런함으로 그토록 바라던 여가와 독립을 얻어 부와 유행의 무리에 끼게 되면, 그는 마침내 어쩔 수 없이 그보다 더 높지만 아직 다가갈 수 없는 지성과 천재의 무리로 눈을 돌리고, 자기 교양이 모자라다는 것과 자기 재산이 모두 헛되고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만을 절감하며, 자기가 그토록 아프게 느끼는 지적 교양의 결핍을 자식들에게는 물려주지 않으려고 애씀으로써 자기가 분별 있는 사람임을 한 번 더 보여 준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한 가문을 일으킨 사람이 된다.

고대의 고전을 그것이 쓰인 언어로 읽는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인류의 역사를 아주 불완전하게밖에 알지 못할 것이다. 놀랍게도 그 고전들은 어떤 근대 언어로도 옮겨 적힌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명 자체를 그런 옮겨 적기로 볼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호메로스는 아직 영어로 인쇄된 적이 없고, 아이스킬로스도, 베르길리우스조차도 그렇다. 아침 그 자체만큼이나 세련되고 단단하게 지어졌으며 아름다운 작품들인데도. 뒷날의 작가들은 그 재능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든, 옛사람의 공들인 아름다움과 마무리, 평생을 바친 영웅적인 문학의 수고에 견줄 만한 적이 설령 있었다 해도 드물다. 옛사람을 잊자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알았던 적이 없는 사람들뿐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귀 기울이고 그들을 제대로 알아볼 학식과 재능을 갖추었을 때 그들을 잊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고전이라 부르는 그 유물과, 그보다 더 오래되고 고전 이상이지만 더욱 알려지지 않은 여러 민족의 경전이 한층 더 쌓이고, 바티칸들이 『베다』와 『젠드아베스타』와 성경으로, 호메로스와 단테와 셰익스피어로 가득 차고, 앞으로 올 모든 세기가

차례로 제 전리품을 세계의 광장에 쌓아 놓을 때, 그 시대는 참으로 풍요로울 것이다. 그만큼 쌓인 더미라면 우리는 마침내 하늘에 오르기를 바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위대한 시인들의 작품은 아직 인류에게 읽힌 적이 없다. 위대한 시인만이 그것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작품들은 군중이 별을 읽듯이, 잘해야 점성술로 읽혔을 뿐 천문학으로 읽힌 적은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셈을 배워 장부를 적고 장사에서 속지 않으려 하듯, 하찮은 편의를 채우려고 글 읽기를 배웠다. 고귀한 지적 수련으로서 읽는 일에 관해서라면 그들은 거의 또는 전혀 모른다. 그러나 높은 뜻에서 독서라 할 만한 것은 이것뿐이다. 사치품처럼 우리를 달래 잠재우고 그사이 더 고귀한 능력을 잠들게 내버려 두는 읽기가 아니라, 발끝으로 서야 읽을 수 있고 우리가 가장 또렷하게 깨어 있는 시간을 바쳐야 하는 읽기 말이다.

글자를 익혔으면 문학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읽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언제까지나 '에이, 비, 에이비' 하는 철자 연습과 한 음절 낱말만 되뇌며, 넷째 반이나 다섯째 반의 가장 낮은 맨 앞 걸상에 평생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좋은 책 한 권, 곧 성경을 읽거나 남이 읽어 주는 것을 듣고 어쩌면 그 지혜에 죄를 깨우쳤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남은 평생을 이른바 쉬운 읽을거리 속에서 그저 식물처럼 살며 제 능력을 흩어 버린다. 우리 순회 도서관에는 『리틀 리딩(Little Reading)』이라는 여러 권짜리 책이 있는데, 나는 그것이 내가 가 보지 못한 같은 이름의 읍 이야기인 줄 알았다. 가마우지나 타조처럼 이런 것은 무엇이든 소화하는 사람들이 있다. 고기와 채소로 배를 가득 채운 뒤에도 그렇다.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료를 대는 기계라면 이들은 그것을 읽는 기계다. 그들은 제뷸런과 소프로니아에 관한 구천 번째 이야기를 읽는다. 두

사람이 어떻게 누구도 해 본 적 없는 사랑을 했는지, 그 참된 사랑의 길도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무튼 그 사랑이 어떻게 달리다가 비틀거리고 다시 일어나 나아갔는지를! 어느 가엾은 불운아가 어떻게 뾰족탑 꼭대기에 올라갔는지를 읽는다. 그는 종루까지도 올라가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괜히 그를 거기까지 올려놓은 행복한 소설가는 온 세상이 모여 와서 듣도록 종을 친다. 오, 세상에! 그가 어떻게 다시 내려왔는지! 나로 말하면, 소설 세계의 이처럼 높이 오르려는 영웅들은 모두 사람 모양 바람개비로 바꾸어 버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옛사람들이 영웅을 별자리 사이에 올려놓았듯이 말이다. 그리고 녹슬 때까지 거기서 빙빙 돌게 하고, 내려와서 장난질로 정직한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일은 아예 없게 하는 것이다. 다음에 소설가가 종을 치면 예배당이 타서 무너지더라도 나는 꿈쩍하지 않으련다. "『발끝깡충뜀의 도약』, 중세 연애담, 『찔끔똑딱땡』의 이름난 작가 지음, 매달 분책 발간 예정. 주문 쇄도. 한꺼번에 몰려오지 마시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접시만 한 눈으로, 꼿꼿하고 원시적인 호기심으로, 지칠 줄 모르는 모래주머니로 읽는다. 그 모래주머니의 주름은 아직 갈아 세울 필요도 없다. 네 살배기 꼬마가 걸상에 앉아 금박 표지를 입힌 2센트짜리 『신데렐라』를 읽는 꼴과 꼭 같다. 내가 보기에는 발음이나 억양이나 강세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교훈을 끄집어내거나 집어넣는 솜씨도 더 늘지 않는다. 그 결과는 흐려진 눈, 생명의 흐름이 고이는 것, 모든 지적 능력이 녹아내리고 허물처럼 벗겨져 나가는 것이다. 이런 생강 과자는 거의 어느 화덕에서나 순밀이나 호밀과 옥수수 가루 빵보다 더 부지런히 날마다 구워지고, 더 확실한 시장을 찾는다.

가장 좋은 책들은 좋은 독자라 불리는 사람들에게조차 읽히지 않는다. 우리 콩코드의 교양이란 무엇에 이르는가? 이 읍에는 아주 드문 몇

사람을 빼면, 모두가 읽고 철자를 댈 줄 아는 영문학에서조차 가장 좋은 책, 아니 아주 좋은 책을 즐기는 취향이 없다. 여기서나 다른 곳에서나 대학을 나왔다는 사람들, 이른바 교양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조차 실은 영국 고전을 거의 또는 전혀 모른다. 그리고 인류가 기록한 지혜, 곧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고대의 고전과 여러 경전에 관해서라면, 그것과 친해지려는 노력은 어디서나 아주 미약하다. 나는 중년의 나무꾼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프랑스어 신문을 받아 본다. 그의 말로는 소식 때문이 아니라(그는 그런 것을 넘어선 사람이다) "솜씨를 녹슬지 않게 하려고"서다. 그는 캐나다 태생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내가 물으면, 그는 그 일 말고는 영어를 놓지 않고 더 늘리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대개 하는 일이나 하려고 바라는 일도 이 정도이며, 그들은 그런 목적으로 영어 신문을 받아 본다. 영어로 쓰인 가장 좋은 책 가운데 하나를 막 읽고 나온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그 책을 두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을 얼마나 찾아낼까? 아니면 이른바 글 모르는 사람들조차 그 찬사를 익히 아는 그리스나 라틴의 고전을 원문으로 막 읽고 나왔다고 하자. 그는 말을 건넬 사람을 아무도 찾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 대학에는 그 언어의 어려움을 깨쳤으면서 그리스 시인의 재치와 시의 어려움도 그만큼 깨쳐서, 날카롭고 영웅적인 독자에게 나누어 줄 공감을 지닌 교수가 거의 없다. 그리고 거룩한 경전, 곧 인류의 성경들로 말하자면, 이 읍에서 그 제목이라도 내게 말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히브리 민족 말고 다른 민족에게도 경전이 있었다는 것을 모른다. 누구든 은화 1달러를 줍기 위해서라면 꽤 먼 길을 돌아간다. 그런데 여기 금 같은 말이 있다. 옛날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한 말이며, 그 뒤 모든 시대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값어치를 우리에게

보증해 온 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쉬운 읽을거리, 초급 독본과 교과서까지만 읽기를 배우고, 학교를 마치면 소년과 초보자를 위한 『리틀 리딩』과 이야기책을 읽는다. 그래서 우리의 독서와 대화와 생각은 모두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피그미족과 난쟁이에게나 어울린다.

나는 우리 콩코드 땅이 낳은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 여기서는 이름조차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과 사귀고 싶다. 아니면 나는 플라톤이라는 이름을 듣고도 그의 책을 끝내 읽지 않을 것인가? 플라톤이 같은 읍 사람인데 한 번도 그를 보지 못한 것처럼, 바로 옆집 이웃인데 그가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그 말의 지혜에 귀 기울인 적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 그에게서 죽지 않을 것을 담은 『대화편』이 바로 옆 선반에 꽂혀 있는데도 나는 그것을 읽은 적이 없다. 우리는 못 배우고 천하게 살며 글을 모른다. 이 점에서 고백하자면 나는 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같은 읍 사람의 무지와, 아이와 약한 머리를 위한 것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의 무지를 그리 크게 가르지 않는다. 우리는 옛날의 훌륭한 사람들만큼 훌륭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그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박새만 한 인간 족속이어서, 지적으로 날아오른다 해도 일간 신문의 단보다 그리 높이 오르지 못한다.

모든 책이 그 독자만큼 따분한 것은 아니다. 아마도 우리의 처지에 꼭 맞추어 건네진 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말을 정말로 듣고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침이나 봄보다도 우리 삶에 더 이롭고, 어쩌면 우리에게 세상의 얼굴을 새롭게 보여 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책 한 권을 읽은 날을 제 삶의 새 시대의 시작으로 삼았던가! 우리의 기적을 풀이해 주고 새로운 기적을 드러내 줄 책이 어쩌면 우리를 위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어딘가에는

말로 적혀 있을지 모른다. 우리를 어지럽히고 당혹하게 하고 갈피를 못 잡게 하는 바로 그 물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 모두에게 차례로 찾아왔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저마다 제 능력껏 말과 삶으로 그 물음에 답했다. 게다가 지혜와 함께 우리는 너그러움도 배울 것이다. 콩코드 변두리 어느 농장의 외로운 품팔이꾼은 두 번째로 태어나는 남다른 종교 체험을 했고, 그가 믿기로는 신앙 때문에 말 없는 엄숙함과 배타 속으로 내몰렸으므로, 그런 이야기를 사실이 아니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로아스터는 수천 년 전에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체험을 했다. 다만 그는 지혜로워서 그 체험이 보편적인 것임을 알았고, 그에 걸맞게 이웃을 대했으며, 사람들 사이에 예배를 만들어 세웠다고까지 전한다. 그렇다면 그 품팔이꾼은 겸손하게 조로아스터와 마음을 나누고, 모든 훌륭한 사람들의 너그럽게 하는 힘을 빌려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도 마음을 나누고, "우리 교회" 따위는 내버려 두게 하라.

우리는 19세기에 속해 있고 어느 민족보다도 빠르게 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이 마을이 제 교양을 위해 하는 일이 얼마나 적은지 생각해 보라. 나는 같은 읍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싶지도, 그들의 아첨을 받고 싶지도 않다. 그래 봐야 어느 쪽도 나아지지 않을 테니까. 우리에게는 자극이 필요하다. 지금의 우리 꼴대로 소처럼 막대기에 찔려야 종종걸음이라도 친다. 우리에게는 그런대로 괜찮은 보통 학교 제도가 있지만 그것은 어린아이만을 위한 학교다. 겨울에 여는, 반쯤 굶주린 라이시엄[1]과 근래 주에서 권해 겨우 시작한 보잘것없는 도서관을 빼면 우리 자신을 위한 학교는 없다. 우리는 마음의 양식보다 몸의 양식이나 몸의 병에 거의 무엇이든 더 많은 돈을 쓴다. 이제는 보통이 아닌 학교를 가질 때다. 어른이 되기 시작하면서 교육을 그만두지 않을 때다. 이제는 마을이 대학이 되고, 마을의 나이 든 주민들이 대학의

연구원이 되어, 정말로 형편이 그만큼 넉넉하다면 남은 평생 여가를 누리며 교양 학문을 닦을 때다. 세상이 언제까지나 파리 하나, 옥스퍼드 하나에 갇혀 있어야 하는가? 학생들이 여기서 하숙하며 콩코드 하늘 아래에서 교양 교육을 받을 수는 없는가? 우리도 아벨라르 같은 사람을 모셔다 강의를 들을 수는 없는가? 아아! 소에게 꼴을 먹이랴 가게를 보랴 우리는 너무 오래 학교에서 멀어져 있고, 우리의 교육은 딱하게도 내버려져 있다. 이 나라에서는 마을이 어떤 점에서 유럽 귀족의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 마을이 예술을 후원해야 한다. 마을은 그럴 만큼 넉넉하다. 모자라는 것은 너그러움과 세련됨뿐이다. 마을은 농부와 장사꾼이 값지게 여기는 것에는 돈을 넉넉히 쓰면서도,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훨씬 더 값지다고 아는 것에 돈을 쓰자고 하면 몽상이라 여긴다. 이 읍은 운이 좋았든 정치 덕이든 읍 회관 하나에 1만 7천 달러를 썼지만, 그 껍데기 속에 넣을 참된 알맹이인 살아 있는 지혜에는 아마 백 년이 지나도 그만큼 쓰지 않을 것이다. 겨울 라이시엄에 해마다 모이는 125달러의 기부금은 이 읍에서 걷는 같은 액수의 어떤 돈보다 잘 쓰인다. 우리가 19세기에 산다면 왜 19세기가 주는 이점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우리 삶이 어떤 점에서든 촌스러워야 하는가? 신문을 읽을 거라면 왜 보스턴의 잡담은 건너뛰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신문을 당장 받아 보지 않는가? 여기 뉴잉글랜드에서 "중립 가정" 신문의 묽은 죽이나 빨고 『올리브 가지』나 뜯어 먹을 것이 아니라. 모든 학회의 보고서가 우리에게 오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아는지 우리가 알아볼 것이다. 왜 우리가 읽을 책을 고르는 일을 하퍼 앤드 브러더스나 레딩 출판사에 맡겨야 하는가? 교양 있는 귀족이 자기 교양에 이바지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곧 천재와 학식과 재치와 책과 그림과 조각과 음악과 과학 기구 따위를 제 곁에 모아 두듯이 마을도 그렇게 하게 하라. 우리의 필그림 선조들이 어느 해 추운 겨울을 황량한 바위 위에서 교사 하나,

목사 하나, 교회지기 하나, 교구 도서관 하나, 읍 행정위원 셋으로 났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 말게 하라. 함께 힘을 모아 행동하는 것이 우리 제도의 정신에 맞는다. 그리고 나는 우리 형편이 더 넉넉한 만큼 우리 재력이 귀족의 재력보다 크다고 확신한다. 뉴잉글랜드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두 불러 가르치게 하고 그동안 돌아가며 그들을 먹이고 재워도, 조금도 촌스럽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보통이 아닌* 학교다. 귀족 대신 귀한 사람들의 마을을 갖자. 필요하다면 강 위의 다리 하나를 덜 놓고 거기서는 좀 돌아가더라도, 우리를 둘러싼 더 어두운 무지의 심연 위에 적어도 아치 하나는 걸치자.

---

1. 라이시엄: 강연과 토론으로 어른을 가르치던 미국 읍마다의 모임. 소로도 콩코드 라이시엄에서 강연했다.

소리

그러나 아무리 가려 뽑은 고전이라 해도 책에만 갇혀 특정한 글말만 읽고 있으면, 그 글말 자체도 사투리이자 시골말일 뿐이어서, 우리는 모든 사물과 사건이 비유 없이 하는 말, 그것만이 풍성하고 표준이 되는 그 언어를 잊어버릴 위험에 놓인다. 펴내는 것은 많지만 찍어 내는 것은 적다. 덧창 틈으로 흘러드는 빛줄기는 덧창을 아예 떼어 내고 나면 더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방법이나 규율도 언제나 깨어 살피고 있어야 할 필요를 대신하지 못한다. 아무리 잘 고른 역사나 철학이나 시의 강좌, 가장 좋은 사교, 가장 훌륭한 생활 습관이라 한들, 보아야 할 것을 늘 바라보는 수련에 견주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은 그저 읽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 되겠는가, 아니면 보는 사람이 되겠는가? 여러분의 운명을 읽고,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미래로 걸어 들어가라.

첫여름에 나는 책을 읽지 않았다. 콩밭을 맸다. 아니, 그보다 더 나은 일을 할 때가 많았다. 지금 이 순간의 꽃을 머리로 하는 일이든 손으로 하는 일이든 어떤 일에도 바칠 수 없을 때가 있었다. 나는 내 삶에 넓은 여백이 있는 것이 좋다. 이따금 여름 아침이면 늘 하던 대로 몸을 씻고 나서, 해 뜰 때부터 한낮까지 해가 드는 문간에 앉아 소나무와 히코리와 옻나무 사이에서, 아무도 흐트러뜨리지 않는 고독과 고요 속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사이 새들은 둘레에서 노래하거나 소리 없이 집 안을 스쳐 날았고, 서쪽 창으로 해가 들거나 먼 큰길에서 어느 나그네의 마차 소리가 들려오고서야 나는 시간이 흘렀음을 깨달았다. 그런 철에 나는

밤사이의 옥수수처럼 자랐고, 그 시간은 손으로 하는 어떤 일보다도 훨씬 나았다. 그것은 내 삶에서 덜어 낸 시간이 아니라 여느 때 내 몫에 덤으로 얹힌 시간이었다. 동양 사람들이 관조와 행위의 버림이라는 말로 무엇을 뜻하는지 나는 깨달았다. 대개 나는 시간이 어떻게 가든 마음 쓰지 않았다. 하루는 내 어떤 일을 비추어 주려는 듯이 나아갔다. 아침이었는데, 보라, 이제 저녁이고 기억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새처럼 노래하는 대신 끊이지 않는 내 행운에 말없이 미소 지었다. 참새가 내 문 앞 히코리에 앉아 지저귀듯이 나도 내 둥지에서 참새가 들을 만한 낄낄 웃음이나 삼킨 지저귐을 냈다. 내 하루하루는 어느 이교 신의 도장이 찍힌 요일이 아니었고, 시간 단위로 잘게 썰려 시계 똑딱거리는 소리에 시달리지도 않았다. 나는 푸리족 원주민처럼 살았기 때문이다. 그들에 관해서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가리키는 낱말이 하나뿐이어서, 뜻의 차이는 손짓으로 나타내는데, 어제는 뒤를, 내일은 앞을, 지나가는 오늘은 머리 위를 가리킨다"는 이야기가 있다. 같은 읍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순전한 게으름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새와 꽃이 저희 잣대로 나를 쟀다면 나는 모자라다는 판정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은 제 할 일의 계기를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은 사실이다. 자연의 하루는 아주 고요해서 그의 게으름을 나무라는 일이 거의 없다.

밖에서 즐거움을 찾아 사교계와 극장을 기웃거려야 하는 사람들에 견주어, 내 생활 방법에는 적어도 이런 이점이 있었다. 내 삶 자체가 내 즐거움이 되었고 그 즐거움은 결코 새로움을 잃지 않았다. 그것은 장면이 많고 끝이 없는 연극이었다. 우리가 언제나 정말로 생계를 꾸리면서 우리가 배운 가장 새롭고 가장 좋은 방법에 따라 삶을 다스린다면 결코 권태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정령을 바싹 따르라. 그러면 정령은 반드시 시간마다 새로운 전망을 보여 줄 것이다.

집안일은 즐거운 소일거리였다. 방바닥이 더러워지면 나는 일찍 일어나 살림살이를 모두 문밖 풀밭에 내놓았다. 침구와 침대를 한 꾸러미로 묶어 내놓고 바닥에 물을 끼얹은 다음 호수에서 가져온 흰 모래를 뿌리고 비로 박박 문질러 깨끗하고 하얗게 닦았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아침을 먹을 즈음에는 아침 해가 집을 넉넉히 말려 주어 다시 들어가 살 수 있었고, 내 명상은 거의 끊기지 않았다. 살림살이가 모두 풀밭에 나와 집시의 보따리처럼 작은 더미를 이루고, 책과 펜과 잉크를 치우지 않은 세 발 탁자가 소나무와 히코리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즐거웠다. 살림살이들도 밖에 나와서 기쁜 듯했고 다시 들어가기 싫어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따금 그 위에 차양을 치고 거기 자리를 잡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 물건들 위에 해가 비치는 것을 보고 그 위로 자유로운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들을 만했다. 아주 낯익은 물건도 집안보다 밖에서 훨씬 더 흥미로워 보이는 법이다. 새 한 마리가 바로 옆 가지에 앉고, 탁자 밑에는 떡쑥이 자라고, 블랙베리 덩굴이 탁자 다리를 휘감아 오른다. 솔방울과 밤송이와 딸기 잎이 둘레에 흩어져 있다. 이런 모양들이 우리 가구에, 탁자와 의자와 침대에 옮겨 새겨지게 된 것은 그 가구들이 한때 이런 것들 한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인 것만 같았다.

내 집은 언덕 비탈, 더 큰 숲의 바로 가장자리에 있었고, 리기다소나무와 히코리가 자라는 어린 숲 한가운데 호수에서 6로드쯤 떨어져 있었으며, 좁은 오솔길이 언덕을 따라 호수로 내려갔다. 앞마당에는 딸기, 블랙베리, 떡쑥, 고추나물과 미역취, 관목참나무와 모래벚나무, 블루베리와 땅콩이 자랐다. 5월 끝 무렵이면 모래벚나무(*Cerasus pumila*)가 짧은 줄기를 빙 둘러 원통꼴로 우산처럼 핀 섬세한 꽃으로 길가를 꾸몄다. 그 줄기는 가을이 되면 큼직하고 보기 좋은 버찌의 무게에 휘어서 사방으로 햇살처럼 화환을 이루며 늘어졌다. 나는 자연에 대한 예의로 그 버찌를 맛보았지만 먹을 만하지는 않았다.

옻나무(*Rhus glabra*)는 집 둘레에 무성하게 자라서 내가 쌓은 흙둑을 뚫고 올라왔고 첫해에 5, 6피트나 자랐다. 넓은 깃꼴의 열대풍 잎은 낯설었지만 보기에 좋았다. 죽은 것처럼 보이던 마른 가지에서 늦봄에 갑자기 큰 눈이 터져 나와, 마술처럼 지름 1인치의 우아하고 연한 초록 가지로 자라났다. 이따금 창가에 앉아 있으면, 가지들이 어찌나 대중없이 자라 약한 마디를 혹사했는지,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싱싱하고 연한 가지 하나가 제 무게를 못 이겨 부채처럼 갑자기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8월이 되면 꽃 필 때 야생벌을 숱하게 불러 모았던 커다란 열매 송이들이 차츰 밝은 우단 같은 진홍빛을 띠었고, 다시 그 무게로 연한 가지를 휘어 부러뜨렸다.

◆

이 여름 오후 창가에 앉아 있으니, 매들이 내가 일군 빈터 위를 맴돈다. 두셋씩 내 눈앞을 가로질러 날거나 집 뒤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에 앉아 들썩이는 나그네비둘기들의 날갯소리가 허공에 목소리를 준다. 물수리 한 마리가 유리 같은 호수 수면에 보조개를 내고 물고기를 낚아 올린다. 밍크 한 마리가 문 앞 늪에서 살그머니 나와 물가의 개구리를 덮친다.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쌀먹이새들의 무게로 사초가 휘어진다. 그리고 지난 반 시간 동안 나는 기차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자고새의 날갯짓 소리처럼 잦아들었다 되살아났다 하며 보스턴에서 시골로 나그네들을 실어 간다. 나는 내가 들은 이야기 속의 그 소년처럼 세상에서 동떨어져 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 소년은 읍 동쪽 어느 농부의 집에 맡겨졌는데, 얼마 안 가 달아나 아주 초라한 꼴로 향수병에 걸려 집으로 돌아왔다. 소년의 말로는 그렇게 따분하고 외진 곳은 처음

보았단다.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 버리고, 글쎄, 기적 소리조차 들리지 않더란다! 지금 매사추세츠에 그런 곳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참으로 우리 마을은 저 날랜 철도의 화살
하나가 노리는 과녁이 되었고, 우리의
평화로운 들판 위로 울리는 그 달래는 소리는, 콩코드."[1]

피치버그 철도는 내가 사는 곳에서 남쪽으로 100로드쯤 되는 곳에서 호수에 닿는다. 나는 대개 그 둑길을 따라 마을에 가고, 말하자면 이 고리로 사회와 이어져 있다. 철도 노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가는 화물 열차의 사람들은 나를 하도 자주 지나치니까 옛 친구에게 하듯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데, 아무래도 나를 철도 일꾼으로 아는 모양이다. 사실 나는 철도 일꾼이다. 나도 지구 궤도 어딘가에서 선로를 고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기관차의 기적 소리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내 숲을 꿰뚫는다. 어느 농가 마당 위를 떠도는 매의 날카로운 울음 같은 그 소리는, 들뜬 도시 상인들이 숱하게 읍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아니면 반대편에서 모험심 많은 시골 장사꾼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내게 알려 준다. 그들은 한쪽 지평선 아래로 들어서면서 다른 쪽 지평선을 향해 선로에서 비키라고 경고를 외치고, 그 소리는 때로 두 읍을 넘어서까지 들린다. 시골이여, 여기 너의 식료품이 온다. 시골 사람들이여, 여기 너희의 배급이 온다! 어떤 사람도 제 농장에서 그만큼 독립해 있지 않아서 이것을 마다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 그 값이 있다! 하고 시골 사람의 기적이 소리친다. 길쭉한 공성 망치 같은 목재가 시속 20마일로 도시의 성벽을 향해 달려가고, 성벽 안에 사는 고단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을 모두 앉히고도 남을 만큼 의자가 실려 간다. 이처럼 거대하고 굼뜬 예의를 차리며 시골은 도시에 의자를 내민다. 원주민들이 허클베리를 따던

언덕은 모두 벗겨지고, 크랜베리 풀밭은 모두 갈퀴로 긁혀 도시로 실려 간다. 목화가 올라가고 짠 천이 내려온다. 비단이 올라가고 모직이 내려온다. 책이 올라가는데, 그 책을 쓰는 지혜는 내려간다.

기관차가 줄줄이 객차를 달고 행성처럼 움직여 가는 것을 볼 때면, 아니 혜성처럼이라고 해야겠다. 그 궤도가 되돌아오는 곡선처럼 보이지 않으니, 보는 사람은 그것이 그런 빠르기와 그런 방향으로 다시 이 태양계를 찾아올지 알 수 없으니까. 증기 구름이 금빛과 은빛 화환을 이루며 깃발처럼 뒤로 나부끼는 것이, 내가 하늘 높이에서 본 숱한 솜털 구름이 빛을 향해 그 덩어리를 펼치는 모습과 같아서, 마치 이 떠도는 반신(半神), 이 구름을 모는 자가 머지않아 해 질 녘 하늘을 제 열차의 제복으로 삼을 것만 같다. 그리고 철마가 우레 같은 콧김으로 언덕을 울리고 발굽으로 땅을 흔들고 콧구멍으로 불과 연기를 내뿜는 소리를 들을 때면(새 신화에 그들이 어떤 날개 달린 말이나 불 뿜는 용을 넣을지 나는 모르겠다), 대지가 이제야 거기 살 만한 족속을 얻은 것 같다.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이고, 사람들이 고귀한 목적을 위해 자연의 힘을 부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관차 위에 걸린 구름이 영웅적인 행위가 흘린 땀이라면, 아니면 농부의 밭 위에 떠도는 구름만큼 이로운 것이라면, 자연의 힘과 자연 자체가 기꺼이 사람의 심부름길을 함께하며 호위해 줄 것이다.

나는 해가 뜨는 것을 지켜볼 때와 같은 마음으로 아침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본다. 해가 뜨는 것도 기차보다 그리 더 규칙적이지는 않다. 기차가 보스턴으로 가는 동안 그 뒤로 멀리 늘어서서 점점 더 높이 올라 하늘로 가는 구름의 행렬은 잠깐 해를 가리고 멀리 있는 내 밭에 그늘을 드리운다. 그 천상의 행렬에 견주면 땅바닥에 달라붙은 객차의 하찮은 행렬은 창끝의 미늘일 뿐이다. 철마의 마부는 이 겨울 아침 산속에서 별빛을 받으며 일찍 일어나 제 말에게

꼴을 먹이고 마구를 채웠다. 불도 이렇게 일찍 깨어나 말에게 생명의 열을 불어넣고 길을 떠나게 했다. 그 사업이 이른 만큼 순수하기도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눈이 깊이 쌓이면 사람들은 말에게 설피를 매어 주고, 거대한 쟁기로 산에서 바닷가까지 고랑을 낸다. 그러면 객차들이 뒤따르는 파종기처럼 그 고랑에 나라 안의 들뜬 사람들과 떠도는 상품을 씨앗으로 뿌린다. 불의 말은 하루 내내 나라를 날아다니며 주인이 쉬어야 할 때만 멈춘다. 나는 한밤중에 그 말발굽 소리와 도전하는 콧김 소리에 잠이 깬다. 그때 말은 숲속 외진 골짜기에서 얼음과 눈에 갇혀 자연의 힘과 맞서고 있다. 그리고 샛별이 뜰 때에야 마구간에 닿았다가 쉬지도 자지도 않고 다시 길을 떠날 것이다. 아니면 저녁에 마구간에서 그 말이 하루 동안 남은 기운을 뿜어내는 소리가 들린다. 몇 시간의 쇠 같은 잠을 자려고 신경을 가라앉히고 간과 머리를 식히는 것이다. 그 사업이 오래 끌고 지칠 줄 모르는 만큼 영웅적이고 위엄 있기도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때는 사냥꾼만이 낮에 드나들던, 읍 경계의 사람 발길 드문 숲을 멀리 꿰뚫고, 가장 캄캄한 밤에 이 환한 객실들이 그 숲에 사는 것들도 모르게 쏜살같이 달린다. 이 순간에는 사람들이 모여 북적이는 어느 읍이나 도시의 환한 정거장에 멎었다가, 다음 순간에는 디스멀 습지에서 올빼미와 여우를 놀래 준다. 이제 기차가 떠나고 닿는 시각이 마을의 하루를 가르는 마디가 되었다. 기차가 어찌나 규칙적이고 정확하게 오가며 그 기적 소리가 어찌나 멀리까지 들리는지, 농부들은 기차에 맞추어 시계를 맞춘다. 그렇게 잘 운영되는 제도 하나가 온 나라를 다스린다. 철도가 생긴 뒤로 사람들은 시간을 지키는 일에서 얼마쯤 나아지지 않았는가? 역마차 사무소에서보다 기차 정거장에서 더 빨리 말하고 생각하지 않는가? 정거장의 공기에는 무언가 전기 같은 것이 있다. 나는 그것이 일으킨 기적에 놀라 왔다. 저렇게 서두르는

탈것으로는 결코 보스턴에 가지 못하리라고 내가 단언했을 이웃 몇 사람이 종이 울릴 때면 어김없이 거기 나와 있다. 무슨 일이든 "철도식으로" 한다는 것이 이제는 입버릇이 되었다. 그리고 어떤 힘이 그토록 자주, 그토록 진심으로 제 길에서 비키라고 경고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이 경우에는 해산 명령을 읽어 주려고 멈추는 일도, 군중의 머리 위로 위협 사격을 하는 일도 없다. 우리는 결코 비켜 가지 않는 운명, 아트로포스를 만들어 냈다. (여러분의 기관차 이름을 그렇게 짓자.) 사람들은 몇 시 몇 분에 이 화살들이 나침반의 어느 방위를 향해 쏘아질 것인지 미리 알림을 받는다. 그래도 그것은 누구의 일도 방해하지 않고, 아이들은 다른 선로를 따라 학교에 간다. 우리는 그 덕분에 더 꾸준하게 산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텔의 아들이 되도록 교육받는다. 허공에는 보이지 않는 화살이 가득하다. 자기 길이 아닌 모든 길은 운명의 길이다. 그러니 자기 선로를 지키라.

내가 상업을 높이 치는 것은 그 진취성과 용기 때문이다. 상업은 두 손을 모으고 유피테르에게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이 사람들이 날마다 얼마쯤의 용기와 만족을 품고 제 일을 하러 다니는 것을 본다. 그들은 스스로 짐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어쩌면 의식적으로 궁리해 낼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잘 쓰이고 있다. 부에나비스타 싸움에서 반 시간 동안 맨 앞줄에 버티고 선 사람들의 영웅심보다, 제설기를 겨울 막사로 삼아 사는 사람들의 꾸준하고 쾌활한 용기가 내게는 더 깊이 와닿는다. 그들은 나폴레옹이 가장 드물다고 여긴 새벽 세 시의 용기를 지녔을 뿐 아니라, 그 용기가 그렇게 일찍 잠자리에 들지도 않는다. 그들은 폭풍이 잠들거나 쇠말의 힘줄이 얼어붙을 때에야 잠자리에 든다. 어쩌면 큰 눈[2]이 내리는 이 아침, 아직도 눈보라가 몰아쳐 사람의 피를 얼리는데, 나는 그들이 내쉰 숨이 얼어 생긴 안개 둑 저편에서 그들의 기관차 종소리가 먹먹하게 들려오는 것을 듣는다. 뉴잉글랜드의 북동풍

눈보라가 거부권을 행사하는데도 기차가 크게 늦지 않고 *오고 있다*고 알리는 소리다. 그리고 나는 눈과 서리를 뒤집어쓴 쟁기꾼들을 본다. 그들은 데이지나 들쥐 둥지 말고 다른 것을 뒤엎는 볏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있어서, 우주의 바깥 자리를 차지한 시에라네바다의 둥근 바위들처럼 보인다.

상업은 뜻밖에도 자신 있고 차분하며, 기민하고 모험심 많으며 지칠 줄을 모른다. 게다가 그 방법은 아주 자연스러워서 숱한 공상적인 사업이나 감상적인 실험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래서 남다른 성공을 거둔다. 화물 열차가 덜컹거리며 내 곁을 지나가면 나는 기운이 나고 마음이 넓어진다. 보스턴의 롱 워프에서 샘플레인 호수까지 가는 내내 냄새를 풍기는 물건들의 냄새를 맡으면, 먼 이국 땅과 산호초와 인도양과 열대의 풍토와 지구의 넓이가 떠오른다. 다음 여름에 뉴잉글랜드의 숱한 아마빛 머리를 덮을 종려 잎, 마닐라삼과 야자 껍질, 낡은 밧줄 부스러기, 마대, 고철, 녹슨 못을 보면 나는 더욱 세계 시민이 된 듯하다. 찢어진 돛을 가득 실은 이 화차 한 칸은 그 돛을 종이로 만들어 책을 찍어 낸 것보다 지금 더 잘 읽히고 더 흥미롭다. 이 찢긴 자리들만큼 돛이 헤쳐 온 폭풍의 역사를 생생하게 써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것은 교정이 필요 없는 교정쇄다. 여기 메인 숲에서 온 목재가 간다. 지난 홍수 때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은 목재로, 떠내려가거나 쪼개진 것 때문에 천 단위당 4달러가 올랐다. 소나무, 가문비나무, 삼나무가 1등품, 2등품, 3등품, 4등품으로 나뉘어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두 한 등급으로 곰과 무스와 순록 위에서 흔들리던 나무들이다. 다음으로 토머스턴 석회가 굴러간다. 최상품 한 무더기인데, 물을 먹어 삭기 전에 언덕 깊숙이까지 들어갈 것이다. 이 꾸러미의 넝마들은 온갖 빛깔과 온갖 품질의 것으로, 무명과 리넨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처지, 옷이 마지막에 이르는 모습이다. 이제는

밀워키가 아니라면 아무도 추어올리지 않는 무늬들이다. 한때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의 날염 천, 깅엄, 모슬린 따위의 화려한 물건이었는데, 유행과 가난의 온갖 구석에서 모여 이제 한 빛깔이나 몇 가지 빛깔뿐인 종이가 되러 가는 길이다. 그 종이에는 정말이지 높고 낮은 실제 삶의 이야기, 사실에 바탕을 둔 이야기들이 쓰일 것이다! 이 닫힌 화차에서는 소금에 절인 생선 냄새, 강한 뉴잉글랜드의 냄새이자 장사의 냄새가 나서 그랜드뱅크스와 어장이 떠오른다. 이 세상살이에 맞게 속속들이 절여져 무엇도 그것을 상하게 할 수 없고, 성자들의 인내조차 부끄럽게 만드는 절인 생선을 본 적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것으로 거리를 쓸거나 포장할 수도 있고, 불쏘시개를 쪼갤 수도 있으며, 짐마차꾼은 그 뒤에 자기와 짐을 숨겨 해와 바람과 비를 피할 수도 있다. 장사꾼은 언젠가 콩코드의 한 장사꾼이 그랬듯이 가게를 열 때 그것을 문 옆에 간판으로 걸어 둘 수도 있는데, 마침내 가장 오래된 단골조차 그것이 동물인지 식물인지 광물인지 똑똑히 말하지 못하게 될 때까지 걸어 두어도, 그것은 여전히 눈송이처럼 깨끗할 것이고, 솥에 넣어 삶으면 토요일 저녁상에 올릴 훌륭한 절인 대구가 되어 나올 것이다. 다음은 스페인산 쇠가죽인데, 그 가죽을 입었던 소들이 스패니시 메인의 팜파스를 내달릴 때의 꼬임과 치켜든 각도를 꼬리가 아직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온갖 고집의 표본이며, 타고난 악덕이란 모두 거의 가망 없고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고백하자면, 실제로 어떤 사람의 참된 기질을 알고 나면 나는 이승에서 그것을 더 낫게도 더 나쁘게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품지 않는다. 동양 사람들이 말하듯 "똥개의 꼬리는 데우고 누르고 끈으로 칭칭 감아 열두 해 동안 공을 들여도 여전히 본디 모양을 지킨다." 이 꼬리들이 보여 주는 그런 고질에 듣는 유일한 처방은 그것으로 아교를 만드는 것이다. 대개 그렇게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꼬리는 제자리에

머물러 착 달라붙는다. 여기 당밀이나 브랜디 한 통이 있다. 버몬트주 커팅스빌의 존 스미스 앞으로 가는 것이다. 그는 그린산맥 기슭의 장사꾼으로, 자기 개간지 근처 농부들을 위해 물건을 들여오는데, 지금쯤 아마 지하 저장고 문 앞에 서서 바닷가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물건들을 생각하며 그것이 자기에게 값을 어떻게 움직일지 따져 보고, 오늘 아침에만 벌써 스무 번은 했듯이 지금도 손님들에게 다음 기차로 최상품이 들어올 거라고 말하고 있을 것이다. 그 소식은 『커팅스빌 타임스』에 광고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사이에 다른 것들이 내려온다. 휙 하는 소리에 책에서 눈을 들면, 저 먼 북쪽 언덕에서 베어 낸 키 큰 소나무 하나가 그린산맥과 코네티컷강을 날개 단 듯 넘어와 10분도 안 되어 화살처럼 읍을 꿰뚫고 지나가는데, 그것을 보는 다른 눈은 거의 없다. 그 나무가 가는 곳은

"어느 큰 기함의
돛대가 되는 자리."[3]

그리고 들어 보라! 이번에는 가축 열차가 온다. 천 개 언덕의 소 떼와 양 우리와 마구간과 외양간을 허공에 싣고, 막대기를 든 가축 상인들과 양 떼 한가운데의 목동 소년들까지, 산속 목초지만 빼고 모든 것을 싣고 9월의 강풍이 산에서 날려 보낸 나뭇잎처럼 휩쓸려 간다. 송아지와 양이 우는 소리와 소들이 밀치락달치락하는 소리가 허공을 가득 채워, 마치 목가적인 골짜기 하나가 지나가는 듯하다. 맨 앞의 늙은 방울 숫양이 방울을 흔들면 정말로 산들이 숫양처럼, 작은 언덕들이 어린양처럼 뛰논다. 한가운데에는 가축 상인들을 실은 화차도 한 칸 있다. 이제 그들은 자기 가축과 같은 높이에 있고 할 일도 없어졌지만, 아직도 직책의 표지로 쓸모없는 막대기를 붙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개는

어디 있는가? 개들에게는 이것이 큰 소동이다. 개들은 아주 따돌림을 당하고 냄새를 놓쳤다. 피터버러 언덕 뒤에서 짖거나 그린산맥의 서쪽 비탈을 헐떡이며 오르는 개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 개들은 사냥감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지 못할 것이다. 개들의 일도 사라졌다. 그 충성과 영리함도 이제 값이 떨어졌다. 개들은 망신을 당하고 슬그머니 개집으로 돌아가거나, 어쩌면 야생으로 달아나 늑대와 여우와 동맹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의 목가적인 삶은 휩쓸려 지나가 버린다. 그러나 종이 울리니 나는 선로에서 비켜 기차를 보내야 한다.

철도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 끝이 어디인지
나는 보러 가지 않는다.
철도는 움푹한 데를 몇 군데 메우고,
제비들에게 둑을 쌓아 주고,
모래를 날리게 하고,
블랙베리를 자라게 한다,

그러나 나는 숲속 수레길을 건너듯 철도를 건너다닌다. 나는 그 연기와 증기와 쉭쉭 소리에 눈이 멀고 귀가 망가지고 싶지 않다.

◆

이제 기차가 지나가고 들뜬 세상도 모두 함께 지나가 버려서 호수의 물고기들도 더는 그 울림을 느끼지 않으니, 나는 어느 때보다 홀로다. 아마 남은 긴 오후 내내 내 명상을 끊는 것은 먼 큰길을 따라가는 마차나 짐수레의 희미한 덜컹거림뿐일 것이다.

이따금 일요일이면 바람이 알맞게 불 때 종소리가 들렸다. 링컨이나 액턴이나 베드퍼드나 콩코드의 종소리로, 희미하고 달콤하며 말하자면

자연의 가락이어서 황야로 들여올 만했다. 숲 위로 충분히 멀리 떨어지면 이 소리는 어떤 떨리는 웅웅거림을 얻는다. 마치 지평선의 솔잎들이 하프 줄이고 그 소리가 그 줄을 쓸어 내리는 것 같다. 아주 먼 데서 들리는 소리는 모두 하나의 같은 효과를 낸다. 우주의 수금이 떨리는 것이다. 사이에 낀 대기가 먼 산등성이에 푸른빛을 입혀 우리 눈에 흥미롭게 만드는 것과 꼭 같다. 이때 내게 다다른 것은 공기가 걸러 낸 가락, 숲의 잎 하나 솔잎 하나와 모두 이야기를 나눈 가락, 자연의 힘이 받아 들고 조율하여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로 메아리치게 한 소리의 한 부분이었다. 메아리는 어느 정도 그 자체로 본디의 소리이며, 바로 거기에 메아리의 마력과 매력이 있다. 그것은 종소리에서 되풀이할 만한 것을 그저 되풀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얼마쯤은 숲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숲의 요정이 부르는, 같은 하찮은 낱말과 가락이다.

저녁이면 숲 너머 지평선에서 어느 소가 멀리 우는 소리가 달콤하고 가락 있게 들렸다. 처음에 나는 그것을 이따금 내게 세레나데를 불러 주던 어떤 떠돌이 악사들이 언덕과 골짜기를 헤매며 내는 목소리로 잘못 알곤 했다. 그러나 곧 그것이 소의 값싸고 자연스러운 음악으로 길게 늘어지자 나는 그다지 언짢지 않게 실망했다. 그 젊은이들의 노래가 소의 음악과 한 핏줄이며, 그 둘이 마침내 자연의 한 발음이라는 것을 내가 똑똑히 알아차렸다고 말하는 것은 비꼬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래를 높이 쳐서 하는 말이다.

여름 한때에는 저녁 기차가 지나간 뒤 일곱 시 반이면 어김없이 쏙독새들이 문 옆 그루터기나 집 용마루에 앉아 반 시간 동안 저녁 기도를 읊었다. 쏙독새들은 저녁마다 해 지는 때를 기준으로 어느 시각에서 5분 안팎으로, 거의 시계만큼 정확하게 노래를 시작했다. 나는 그 습성을 익힐 드문 기회를 얻었다. 이따금 숲 여기저기에서 네다섯 마리가 한꺼번에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연히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보다 한 마디씩 늦게 울었고, 어찌나 가까웠는지 음마다 뒤에 붙는 꼬꼭 소리뿐 아니라 거미줄에 걸린 파리 같은, 다만 그만큼 더 큰 묘한 윙윙 소리까지 가려 들을 수 있었다. 이따금 한 마리가 숲속에서 몇 피트 떨어진 곳을 끈에 매인 듯 빙빙 돌기도 했는데, 아마 내가 그 알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쏙독새들은 밤새 사이사이 노래했고, 새벽 직전과 새벽 무렵에 다시 어느 때 못지않게 가락을 뽑았다.

다른 새들이 잠잠해지면 소쩍새들이 곡조를 이어받는다. 상복 입은 여인들이 예부터 내는 울룰루 곡소리 같다. 그 음산한 비명은 참으로 벤존슨풍이다. 슬기로운 한밤의 마녀들! 그것은 시인들이 노래하는 정직하고 투박한 투윗 투후가 아니라, 농담이 아니라 아주 엄숙한 무덤가의 노래이며, 지옥의 숲에서 천상의 사랑의 고통과 기쁨을 떠올리는 동반 자살한 연인들의 서로 위로하는 말이다. 그래도 나는 숲 가장자리를 따라 떨며 이어지는 그들의 울음과 구슬픈 화답을 듣는 것이 좋다. 그 소리는 이따금 음악과 노래하는 새들을 떠올리게 한다. 마치 음악의 어둡고 눈물 젖은 면, 노래가 되고 싶어 하는 후회와 한숨인 것처럼. 그들은 영들이다. 한때 사람의 모습으로 밤마다 땅 위를 헤매며 어둠의 짓을 저지르다가, 이제는 죄를 지은 그 풍경 속에서 울부짖는 찬가와 만가로 죄를 씻고 있는 타락한 영혼들의 침울한 넋이자 우울한 예감이다. 그들은 우리 모두의 거처인 자연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지 새로이 느끼게 해 준다. *오오오오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호수 이쪽에서 한 마리가 한숨을 쉬고는 절망의 안절부절못함으로 맴돌다가 잿빛 떡갈나무의 새 횃대로 옮겨 앉는다. 그러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하고 저편 기슭에서 다른 한 마리가 떨리는 진심으로 메아리치고, *말았더라면!* 하는 소리가 멀리 링컨 숲에서 희미하게 들려온다.

부엉이도 내게 세레나데를 불러 주었다. 가까이서 들으면 자연에서 가장 구슬픈 소리라고 여길 만하다. 마치 자연이 이 소리로 사람이 죽어 가며 내는 신음을 판에 박아 제 합창단에 길이 남기려는 것 같다. 희망을 뒤로하고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서면서 짐승처럼, 그러나 사람의 흐느낌으로 울부짖는, 가련하고 약한 필멸의 잔해가 내는 신음이다. 거기 어떤 꾸르륵거리는 가락이 섞여 있어 더욱 무시무시하다. 흉내 내 보려 하면 나도 모르게 ㄱ*르* 하는 소리로 시작하게 된다. 그 소리는 건강하고 용감한 생각이 모두 썩어 들어가 아교처럼 끈적하고 곰팡이 핀 단계에 이른 마음을 드러낸다. 그 소리는 송장 먹는 귀신과 백치와 미친 사람의 울부짖음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이제 먼 숲에서 거리 덕분에 참으로 가락이 된 소리로 한 마리가 화답한다. *후 후 후, 후러 후.* 그리고 사실 그 소리는 낮이든 밤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대개는 즐거운 연상만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부엉이가 있어서 기쁘다. 사람을 대신해 백치 같고 미친 듯한 울음은 부엉이들에게 맡기자. 그것은 어떤 낮도 비추지 못하는 늪과 어스름 숲에 아주 잘 어울리는 소리로, 사람이 아직 알아보지 못한 거대하고 미개발된 자연을 넌지시 보여 준다. 부엉이는 누구에게나 있는 삭막한 어스름과 채워지지 않은 생각을 나타낸다. 하루 내내 해는 어느 거친 늪의 수면을 비추었다. 거기에는 소나무겨우살이 이끼를 늘어뜨린 가문비나무 한 그루가 홀로 서 있고, 작은 매들이 그 위를 맴돌고, 박새가 상록수 사이에서 혀 짧은 소리로 지저귀고, 자고새와 토끼가 그 밑에 숨어 다녔다. 그러나 이제 더 음산하고 더 걸맞은 낮이 밝아 오고, 다른 족속의 생물들이 깨어나 그곳에서 자연이 뜻하는 바를 드러낸다.

밤늦게 나는 마차가 멀리 다리를 건너며 우르릉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밤에는 그 소리만큼 멀리 들리는 소리가 거의 없다. 개 짖는 소리도, 이따금 먼 농가 마당에서 어느 쓸쓸한 소가 우는 소리도 다시 들렸다.

그사이 온 기슭에 황소개구리의 나팔 소리가 울렸다. 그들은 옛 술꾼과 잔치꾼의 억센 넋으로, 아직도 뉘우치지 않고 스틱스의 호수에서 돌림노래를 부르려 애쓴다. 월든의 요정들이여, 이런 비유를 용서하라. 거기에는 물풀이 거의 없지만 개구리는 있으니까. 그들은 옛 잔칫상의 흥겨운 규칙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목소리는 쉬고 엄숙하게 무거워져 즐거움을 비웃는 소리가 되었으며, 술은 맛을 잃고 그저 배를 불리는 액체가 되었고, 달콤한 취기는 결코 찾아와 지난날의 기억을 잠재우지 못하고, 그저 물에 흠뻑 젖고 퉁퉁 불고 배만 부풀 뿐이다. 가장 시의원다운 놈이 침 흘리는 턱에 냅킨 삼아 수련 잎에 턱을 괴고, 이 북쪽 기슭 밑에서 한때 업신여기던 물을 한 모금 깊이 들이켜고는 *트르르릉크, 트르르릉크, 트르르릉크!* 하고 외치며 잔을 돌린다. 그러자 곧바로 먼 물굽이에서 같은 암호가 물을 건너 되풀이되어 온다. 나이로나 배 둘레로나 그다음가는 놈이 제 눈금까지 술을 들이켠 것이다. 그리고 이 의례가 기슭을 한 바퀴 돌면 사회자가 흡족하게 *트르르릉크!* 하고 외치고, 차례대로 저마다 같은 소리를 되풀이해서, 가장 덜 부풀고 가장 잘 새고 가장 배가 물렁한 놈까지 이어진다. 빠진 놈이 없도록. 그러고는 해가 아침 안개를 걷을 때까지 그 고함이 몇 번이고 한 바퀴씩 돌고, 마침내 족장 하나만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따금 *트룽크* 하고 헛되이 울부짖고는 답을 기다린다.

내 빈터에서 닭 우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수평아리 한 마리를 그저 그 음악을 위해, 노래하는 새로 길러 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한때 야생이던 이 인도 꿩의 울음은 틀림없이 어느 새의 울음보다도 놀라운 것이어서, 길들이지 않고 이 땅에 자리 잡게 할 수만 있다면 곧 거위의 꽥꽥 소리와 부엉이의 울음을 넘어 우리 숲에서 가장 이름난 소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리들의 나팔 소리가 쉴 때 그 틈을 채우는 암탉들의 꼬꼬댁 소리를 상상해 보라! 사람이 이 새를 제

가축에 보탠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알과 닭다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새들이 넘쳐나는 숲, 그들의 고향 숲을 겨울 아침에 거닐며 야생 수평아리들이 나무 위에서 우는 소리, 울려 퍼지는 땅 위로 몇 마일이나 맑고 날카롭게 뻗어 다른 새들의 더 약한 소리를 덮어 버리는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라! 그 소리는 온 나라를 깨어 있게 할 것이다. 누군들 일찍 일어나지 않겠는가. 평생 날마다 조금씩 더 일찍 일어나서 마침내 이루 말할 수 없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지혜로워지지 않겠는가? 이 외래종 새의 울음은 어느 나라에서나 시인들이 제 고장 가수들의 노래와 함께 기린다. 어떤 풍토든 씩씩한 챈티클리어와 잘 맞는다. 그는 토박이보다도 더 토박이다. 그의 건강은 언제나 좋고, 폐는 튼튼하며, 기운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 대서양과 태평양의 뱃사람마저 그 목소리에 잠을 깬다. 그러나 그 날카로운 소리가 나를 잠에서 깨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개도 고양이도 소도 돼지도 암탉도 기르지 않았으니, 여러분은 집안의 소리가 모자랐다고 말할 것이다. 버터 젓는 통 소리도, 물레 소리도, 주전자가 노래하는 소리나 찻물 통이 쉭쉭거리는 소리도, 마음을 달래 줄 아이 우는 소리도 없었다. 옛날식 사람이라면 벌써 정신을 잃었거나 권태로 죽었을 것이다. 벽 속의 쥐도 없었다. 쥐들은 굶주려 나가 버렸다. 아니, 애초에 미끼로 꾀어 들인 적이 없었다. 지붕 위와 마루 밑의 다람쥐, 용마루의 쏙독새, 창 밑에서 꽥꽥거리는 어치, 집 밑의 산토끼나 우드척, 집 뒤의 소쩍새나 수리부엉이, 호수 위의 야생 거위 떼나 웃는 듯이 우는 아비, 밤에 짖는 여우뿐이었다. 순한 농장 새인 종다리나 꾀꼬리조차 내 빈터를 찾아온 적이 없었다. 마당에서 우는 수평아리도 꼬꼬댁거리는 암탉도 없었다. 마당이 없었다! 울타리 없는 자연이 바로 문지방까지 다가와 있었다. 풀밭 밑에서는 어린 숲이 자라 올라오고, 야생 옻나무와 블랙베리 덩굴이 지하실로 뚫고 들어오고, 억센 리기다소나무가 자리가 모자라 지붕널에 몸을 비비며

삐걱거렸고, 그 뿌리는 집 밑까지 뻗어 있었다. 강풍에 날아간 지붕 창 뚜껑이나 덧문 대신, 땔감으로 쓸, 집 뒤에서 부러지거나 뿌리째 뽑힌 소나무가 있었다. 큰 눈이 내렸을 때 앞마당 대문까지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문도 없고 앞마당도 없고 문명 세계로 가는 길도 없었다.

---

1. 소로의 벗 엘러리 채닝(1817~1901)의 시. 끝말 Concord(콩코드)에는 「화합」이라는 뜻도 있다.

2. 큰 눈: 1717년 2월 뉴잉글랜드를 덮은 큰 눈.

3. 밀턴, 『실낙원』 제1권. 사탄의 창을 큰 기함의 돛대에 견준 구절.

고독

황홀한 저녁이다. 온몸이 하나의 감각이 되어 털구멍마다 기쁨을 빨아들인다. 나는 자연 속을 묘한 자유로움으로 오가며 자연의 한 부분이 된다. 서늘하고 구름 끼고 바람까지 부는데도 셔츠 바람으로 호수의 돌 많은 기슭을 따라 걸으면, 딱히 눈길을 끄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도 자연의 모든 힘이 여느 때와 달리 내게 살갑다. 황소개구리들이 나팔을 불어 밤을 맞아들이고, 쏙독새의 울음이 잔물결 이는 바람에 실려 물 건너에서 온다. 파르르 떠는 오리나무와 포플러 잎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 숨이 멎을 것만 같다. 그래도 내 고요함은 호수처럼 잔물결이 일 뿐 뒤흔들리지는 않는다. 저녁 바람이 일으킨 이 잔물결은 매끄럽게 비치는 수면만큼이나 폭풍과 거리가 멀다. 이제 어두워졌는데도 바람은 여전히 숲에서 불며 울부짖고, 물결은 여전히 부딪치며, 어떤 생물들은 제 소리로 나머지를 잠재운다. 휴식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 가장 야생의 짐승들은 쉬지 않고 이제 먹이를 찾아 나선다. 여우와 스컹크와 토끼가 이제 두려움 없이 들과 숲을 돌아다닌다. 그들은 자연의 야경꾼이며, 살아 움직이는 삶의 낮과 낮을 잇는 고리다.

집에 돌아와 보면 손님들이 다녀가면서 명함을 남겨 두었다. 꽃 한 다발이거나 상록수 가지로 엮은 화환이거나, 노랗게 물든 호두나무 잎이나 나무 조각에 연필로 쓴 이름이다. 숲에 좀처럼 오지 않는 사람들은 오는 길에 숲의 작은 조각 하나를 손에 들고 만지작거리다가

일부러든 무심코든 두고 간다. 어떤 사람은 버드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 고리로 엮어서 내 탁자 위에 떨구어 놓았다. 내가 없는 사이에 손님이 다녀갔는지는 휘어진 잔가지나 풀, 신발 자국을 보고 언제나 알 수 있었다. 대개는 그들이 남긴 작은 흔적, 이를테면 떨어뜨린 꽃 한 송이나, 뜯었다 내던진 풀 한 줌을 보고 성별과 나이와 신분까지 알아맞혔다. 그 흔적이 반 마일 떨어진 철도까지 가 있을 때도 있었고, 남아 있는 시가나 파이프 냄새로 알아챌 때도 있었다. 아니, 60로드 떨어진 큰길로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그의 파이프 냄새로 알아챌 때도 잦았다.

우리 둘레에는 대개 넉넉한 공간이 있다. 우리의 지평선이 바로 팔꿈치에 닿아 있는 일은 결코 없다. 울창한 숲이 바로 문 앞에 있지도 않고 호수도 그렇다. 언제나 얼마쯤은 빈터가 있어서, 우리에게 낯익고 우리 발길에 닳았으며, 어떻게든 우리 것이 되어 울타리가 쳐지고 자연에게서 되찾아 온 땅이 된다. 사람들이 버려두어 나 혼자 차지하게 된 이 넓은 범위와 둘레, 사람 발길 드문 몇 제곱마일의 숲이 무슨 까닭으로 나만의 것이 되었을까? 가장 가까운 이웃은 1마일 떨어져 있고, 내 집에서 반 마일 안에 있는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으면 어디서도 집 한 채 보이지 않는다. 나는 숲으로 둘러싸인 지평선을 혼자 다 차지하고 있다. 한쪽으로는 철도가 호수에 닿는 곳이 멀리 보이고, 다른 쪽으로는 숲길을 따라 늘어선 울타리가 보인다. 그러나 대체로 내가 사는 곳은 대초원만큼이나 외롭다. 그곳은 뉴잉글랜드인 만큼 아시아이기도 하고 아프리카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나에게는 나만의 해와 달과 별, 나 혼자만의 작은 세계가 있다. 밤이면 내가 최초의 사람이거나 마지막 사람인 것처럼 내 집 앞을 지나가거나 문을 두드리는 나그네가 하나도 없었다. 봄이면 예외여서, 아주 이따금 마을에서 메기를 낚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분명히 월든 호수보다 제

본성의 월든 호수에서 훨씬 더 많이 낚시를 했고, 낚싯바늘에 어둠을 미끼로 끼웠다. 그러나 그들은 대개 가벼운 바구니를 들고 곧 물러가서 "세상을 어둠과 나에게" 맡겨 두었고, 밤의 검은 알맹이는 사람이 가까이 오는 일로 더럽혀진 적이 없었다. 마녀들은 모두 목매달렸고 그리스도교와 촛불이 들어온 지 오래인데도, 사람들은 대개 아직도 어둠을 조금은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이따금 겪어 알았다. 가장 달콤하고 다정하며 가장 순진하고 힘이 되는 벗은 어떤 자연물에서든 찾을 수 있고, 가련한 사람 싫어하는 이나 가장 우울한 사람에게도 그렇다. 자연 한가운데 살며 감각이 아직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깊은 우울이 있을 수 없다. 건강하고 순진한 귀에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의 음악이 되지 않은 폭풍은 아직 없었다. 단순하고 씩씩한 사람을 천박한 슬픔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계절과 우정을 나누는 동안에는 어떤 것도 내 삶을 짐으로 만들 수 없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오늘 내 콩밭에 물을 주고 나를 집 안에 붙잡아 두는 부드러운 비는 쓸쓸하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내게도 좋은 것이다. 비 때문에 콩밭을 매지 못하지만 비는 내 김매기보다 훨씬 더 값지다. 비가 너무 오래 와서 씨앗이 땅속에서 썩고 낮은 땅의 감자가 망가진다 해도, 높은 땅의 풀에는 여전히 좋을 것이고, 풀에 좋으니 내게도 좋을 것이다. 이따금 나를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 보면, 내가 의식하는 어떤 공덕보다도 넘치게 신들이 나를 그들보다 더 아끼는 것 같다. 동료들은 받지 못한 보증과 담보를 내가 신들의 손에서 받아 특별히 이끌림과 보살핌을 받는 것만 같다. 나는 스스로 우쭐대지 않는다. 우쭐하게 해 주는 쪽이 있다면 그것은 신들이다. 나는 외롭다고, 아니 고독감에 조금이라도 짓눌린다고 느낀 적이 한 번밖에 없다. 숲에 오고 나서 몇 주 지났을 때였는데, 한 시간 동안 나는 고요하고 건강한 삶에 사람이 가까이 사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했다.

홀로 있다는 것이 어딘지 언짢았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내 기분에 가벼운 광기가 섞여 있음을 알아차렸고, 곧 회복되리라는 것을 내다보는 듯했다. 이런 생각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부드러운 빗속에서, 나는 문득 자연 속에, 바로 빗방울 듣는 소리에, 내 집 둘레의 모든 소리와 모든 광경에 참으로 달콤하고 은혜로운 벗이 있음을 느꼈다. 끝없고 까닭 모를 다정함이 한꺼번에 공기처럼 나를 떠받쳐서, 사람이 가까이 산다는 것이 주리라고 상상하던 이점이 하찮아졌고, 그 뒤로 나는 그것을 다시 생각한 적이 없다. 작은 솔잎 하나하나가 공감으로 펴지고 부풀어 나와 벗이 되었다. 우리가 흔히 거칠고 쓸쓸하다고 부르는 풍경 속에서도 나와 한 핏줄인 무언가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핏줄, 가장 사람다운 것은 어떤 사람도 마을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어찌나 또렷이 깨달았는지, 이제 어떤 곳도 다시는 내게 낯설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때아닌 슬픔은 슬픈 이를 사위게 하니,
산 이들의 땅에서 그들이 누리는 날은 짧다,
토스카르의 아름다운 딸이여."[1]

내가 가장 즐거웠던 시간 가운데 어떤 것은 봄이나 가을의 긴 비바람 속에서였다. 비바람은 오전뿐 아니라 오후까지 나를 집 안에 가두었고, 그칠 줄 모르는 울림과 두드림으로 나를 달래 주었다. 일찍 찾아온 어스름이 긴 저녁을 불러들이면 그 저녁에는 많은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피어날 시간이 있었다. 마을 집들을 그토록 시달리게 하는 북동풍 장대비가 몰아쳐서 하녀들이 걸레와 양동이를 들고 현관에 서서 물난리를 막을 채비를 하는 동안, 나는 온통 현관뿐인 내 작은 집의 문 뒤에 앉아 그 보호를 마음껏 누렸다. 한번은 세찬 뇌우 속에서 번개가 호수 건너편의 큰 리기다소나무를 쳐서, 지팡이에 홈을 파듯이

꼭대기에서 밑동까지 깊이 1인치가 넘고 너비 4, 5인치나 되는, 아주 눈에 띄고 완벽하게 고른 나선 홈을 냈다. 며칠 전 그 곁을 다시 지나다가 고개를 들어 그 자국을 보고 나는 외경에 사로잡혔다. 여덟 해 전 아무 해 없는 하늘에서 무시무시하고 거스를 수 없는 벼락이 내리꽂힌 그 자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또렷하다. 사람들은 자주 내게 말한다. "거기 있으면 외롭겠어요. 사람들 가까이 있고 싶겠지요. 특히 비 오고 눈 오는 날이나 밤에는요." 나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진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전체가 우주 속의 한 점일 뿐이다. 우리의 기구로는 그 원반의 너비조차 잴 수 없는 저 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사는 두 주민은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왜 외로워해야 하는가? 우리 행성도 은하수 안에 있지 않은가? 여러분이 던지는 그 물음은 내게는 가장 중요한 물음이 아닌 것 같다. 한 사람을 그 동료들에게서 떼어 놓아 고독하게 만드는 공간이란 어떤 것인가? 다리를 아무리 부지런히 놀려도 두 마음이 서로 훨씬 가까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분명 많은 사람은 아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정거장이나 우체국이나 술집이나 예배당이나 학교나 식료품점이나 비컨힐이나 파이브 포인츠도 아니다. 우리가 모든 경험에서 삶이 솟아나오는 것을 보아 온 영원한 삶의 샘이다. 버드나무가 물가에 서서 그쪽으로 뿌리를 뻗듯이. 이것은 본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지하실을 팔 곳은 바로 거기다. …… 어느 저녁 나는 월든 길에서 같은 읍 사람 하나를 따라잡았다. 그는 이른바 "번듯한 재산"을 모은 사람이지만 나는 그것을 *번듯하게* 구경한 적이 없다. 그는 소 두 마리를 몰고 장에 가는 길이었는데, 내게 어떻게 삶의 안락을 그렇게 많이 포기할 마음이 들었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 생활이 꽤 마음에 든다고 분명히 대답했다. 농담이 아니었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고, 그는 어둠과 진창 속을 더듬으며 브라이턴, 아니 '밝은 읍'으로 가게 내버려 두었다. 그는 아침 언젠가 거기 닿을 것이다.

죽은 사람에게 깨어나거나 되살아날 가망이 있다면 어느 때 어느 곳이든 아무래도 좋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언제나 같고, 우리의 모든 감각에 말할 수 없이 즐겁다. 우리는 대개 동떨어지고 덧없는 사정들만이 우리의 계기가 되게 내버려 둔다. 사실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원인이다. 만물에 가장 가까운 것은 만물의 존재를 빚어내는 힘이다. 우리 *바로 곁에서* 가장 장엄한 법칙들이 끊임없이 집행되고 있다. 우리 *바로 곁에* 있는 것은 우리가 품삯을 주고 부리며 이야기 나누기를 그토록 좋아하는 일꾼이 아니라, 우리를 작품으로 빚고 있는 일꾼이다.

"하늘과 땅의 미묘한 힘이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넓고 깊은가!"

"그것을 알아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사물의 실체와 하나가 되어 있어서 사물에서 떼어 낼 수 없다."

"그 힘은 온 우주에서 사람들이 마음을 깨끗이 하고 거룩하게 하며, 명절 옷을 차려입고 조상에게 제물과 공물을 바치게 한다. 그것은 미묘한 지성의 바다다. 그 힘은 어디에나 있다. 우리 위에, 우리 왼쪽에, 우리 오른쪽에 있으며, 사방에서 우리를 에워싼다."

우리는 내게 적잖이 흥미로운 실험의 대상이다. 이런 처지에서 수다 떠는 벗들과 어울리지 않고 잠시 지내며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기운을 낼 수는 없을까? 공자는 참으로 옳게 말했다. "덕은 버려진 고아처럼 홀로 남지 않는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2]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온전한 정신으로 제정신을 벗어날 수 있다. 마음을 의식적으로 애씀으로써 우리는 행위와 그 결과에서 떨어져 설 수 있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이 급류처럼 우리 곁을 지나간다. 우리는 자연 속에 온통 휘말려 있지 않다. 나는 개울에 떠내려가는

나뭇조각일 수도 있고, 하늘에서 그것을 내려다보는 인드라일 수도 있다. 나는 연극 공연에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다. 반면에 나와 훨씬 더 깊이 관련된 듯한 실제 사건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람이라는 하나의 존재로만, 말하자면 생각과 감정이 펼쳐지는 무대로만 알며, 어떤 이중성을 느낀다. 그 이중성 덕분에 나는 남에게서 떨어져 서듯 나 자신에게서도 멀리 떨어져 설 수 있다. 내 경험이 아무리 강렬해도, 나는 내 안의 한 부분이 거기 있으면서 나를 비평하는 것을 의식한다. 그 부분은 말하자면 나의 한 부분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경험을 나누지 않고 그저 기록해 둔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닌 만큼 나도 아니다. 삶이라는 연극, 어쩌면 비극이 끝나면 구경꾼은 제 갈 길을 간다. 그에게 그것은 일종의 허구, 상상만으로 지어낸 작품이었다. 이 이중성 때문에 우리는 이따금 시원찮은 이웃이나 벗이 되기 쉽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지내는 것이 몸과 마음에 좋다고 느낀다. 남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 해도 곧 지치고 마음이 흩어진다.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좋다. 나는 고독만큼 함께 지내기 좋은 벗을 만난 적이 없다. 우리는 대개 제 방에 머물 때보다 밖에 나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더 외롭다. 생각하거나 일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언제나 홀로다. 고독은 한 사람과 그 동료들 사이에 놓인 공간의 마일 수로 재는 것이 아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북적이는 벌집 같은 기숙사에서 정말로 부지런히 공부하는 학생은 사막의 수도승만큼이나 고독하다. 농부는 하루 내내 들이나 숲에서 김을 매거나 나무를 찍으며 홀로 일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밤에 집에 돌아오면 생각에 휘둘리며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지 못하고, "사람 구경"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기분을 풀고, 그가 생각하기로는 하루의 고독을 보상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는 학생이 어떻게 밤새도록, 또 낮의 대부분을 권태도 "울적함"도 없이 집에 홀로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의아해한다. 그러나 학생이 집 안에 있어도 농부가 제 밭에서 그러듯 *제* 밭에서 여전히 일하고 *제* 숲에서 나무를 찍고 있으며, 차례가 오면 농부가 찾는 것과 같은 기분 전환과 사교를 찾는다는 것을, 다만 그것이 더 압축된 꼴일 수 있다는 것을 농부는 깨닫지 못한다.

사교는 대개 너무 값싸다. 우리는 아주 짧은 간격으로 만나서, 서로에게 새로운 가치를 얻을 시간이 없다. 우리는 하루 세 번 식사 때 만나서, 우리 자신이라는 그 곰팡내 나는 묵은 치즈를 서로에게 새로 맛보인다. 이렇게 잦은 만남을 견딜 만하게 하고 드러내 놓고 싸움을 벌이지 않으려고, 우리는 예절이니 예의니 하는 일정한 규칙에 합의해야 했다. 우리는 우체국에서 만나고, 친목회에서 만나고, 밤마다 난롯가에서 만난다. 우리는 빽빽하게 모여 살며 서로 방해가 되고 서로에게 걸려 넘어진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존경을 얼마쯤 잃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중요하고 진심 어린 소통이라면 이보다 덜 자주 만나도 틀림없이 넉넉할 것이다. 공장에서 일하는 처녀들을 생각해 보라. 결코 홀로 있지 못하고 꿈속에서조차 거의 홀로 있지 못한다. 내가 사는 곳처럼 1제곱마일에 주민이 하나뿐이라면 더 좋을 것이다. 사람의 가치는 살갗에 있지 않으니, 그를 만져 보아야 할 까닭이 없다.

숲에서 길을 잃고 굶주림과 탈진으로 나무 밑에서 죽어 가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몸이 약해지자 병든 상상력이 기괴한 환영들로 그를 에워쌌는데, 그 환영들이 그의 외로움을 덜어 주었고 그는 그것을 진짜라고 믿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면 그와 비슷하지만 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벗들에게서 끊임없이 기운을 얻어, 우리가 결코 홀로가 아님을 알게 될 수 있다.

내 집에는 벗이 아주 많다. 특히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아침에 그렇다. 내 처지를 짐작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견주어 보겠다. 나는 그토록 크게 웃는 호수의 아비보다, 아니 월든 호수 자체보다 더 외롭지 않다.

묻건대, 그 외로운 호수에게 무슨 벗이 있는가? 그런데도 호수에는 푸른 우울의 악마가 아니라 푸른 천사들이 깃들어 있다. 그 물의 하늘빛 속에. 해는 홀로다. 날이 흐릴 때는 이따금 해가 둘로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가짜 해다. 신은 홀로다. 그러나 악마는 결코 홀로가 아니다. 악마는 벗이 아주 많다. 그의 이름은 군대다. 나는 목초지의 우단담배풀 한 포기나 민들레 한 포기보다, 콩잎 하나나 수영 한 포기나 등에 한 마리나 뒤영벌 한 마리보다 더 외롭지 않다. 나는 밀 개울이나 바람개비나 북극성이나 남풍이나 4월의 소나기나 1월의 해동이나 새집의 첫 거미보다 더 외롭지 않다.

긴 겨울밤, 눈이 펑펑 내리고 바람이 숲에서 울부짖을 때면 이따금 나를 찾아오는 이가 있다. 오래전에 자리 잡은 정착민이자 본디 이 땅의 주인으로, 월든 호수를 파고 둘레에 돌을 깔고 소나무 숲으로 가장자리를 둘렀다고 전하는 이다. 그는 옛 시절과 새로운 영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 둘은 사과나 사과술이 없어도 어울려 웃고 세상일을 즐겁게 바라보며 유쾌한 저녁을 그럭저럭 보낸다. 아주 지혜롭고 익살스러운 벗이고, 나는 그를 무척 좋아한다. 그는 고프나 훨리보다도 더 꼭꼭 숨어 지낸다. 그가 죽었다고들 하지만 그가 어디 묻혔는지 보여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이웃에는 나이 지긋한 부인도 한 분 사는데, 대부분의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나는 이따금 그 향기로운 약초밭을 거닐며 약초를 캐고 그 부인의 옛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한다. 부인은 비길 데 없이 풍요로운 재능을 지녔고, 그 기억은 신화보다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옛이야기의 본디 모습과 그 하나하나가 어떤 사실에 바탕을 두었는지를 내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 부인이 젊었을 때니까. 볼이 붉고 기운찬 노부인으로, 어떤 날씨 어떤 계절이든 즐기며, 아직도 자식들보다 오래 살 것 같다.

자연의, 해와 바람과 비의, 여름과 겨울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순진함과 은혜로움이여. 그것들은 영원히 그런 건강과 그런 기운을 베풀어 준다! 그것들은 언제나 우리 인류와 깊이 공감해서, 누군가 정당한 까닭으로 슬퍼한다면 온 자연이 마음 아파하여 햇빛이 바래고, 바람이 사람처럼 한숨짓고, 구름이 눈물의 비를 뿌리고, 숲이 한여름에 잎을 떨구고 상복을 입을 것이다. 내가 대지와 뜻을 나누지 않겠는가? 나 자신도 얼마쯤은 나뭇잎이고 부엽토가 아닌가?

우리를 건강하고 고요하고 만족하게 지켜 줄 알약은 무엇인가? 나나 여러분의 증조할아버지의 약이 아니라, 우리의 증조할머니인 자연의 두루 듣는 풀과 식물의 약이다. 자연은 그 약으로 늘 젊음을 지켜 왔고, 제 시대에 올드 파 같은 장수 노인들을 숱하게 앞질러 살아남았으며, 그들의 썩어 가는 기름기로 제 건강을 살찌웠다. 내 만병통치약으로는, 이따금 보는, 병을 실어 나르게 만든 길고 얕고 검은 스쿠너선 같은 짐마차에서 나오는, 아케론강과 사해에서 떠 온 물을 섞은 엉터리 약병 대신, 물 타지 않은 아침 공기 한 모금을 마시게 하라. 아침 공기! 사람들이 하루의 샘머리에서 이것을 마시지 않으려 한다면, 글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아침 시간 정기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얼마쯤 병에 담아 가게에서 팔기라도 해야 한다. 그러나 잊지 말라. 아침 공기는 가장 서늘한 지하실에서도 한낮까지 버티지 못하고, 그보다 훨씬 전에 병마개를 밀어내고 아우로라의 발자취를 따라 서쪽으로 가 버린다. 나는 늙은 약초 의사 아스클레피오스의 딸로, 비석에 한 손에는 뱀을, 다른 한 손에는 뱀이 이따금 그 물을 마시는 잔을 든 모습으로 새겨진 히기에이아를 섬기지 않는다. 차라리 유피테르의 잔을 받드는 헤베를 섬긴다. 헤베는 유노와 야생 상추의 딸로, 신과 사람을 젊음의 활력으로 되돌리는 힘이 있었다. 헤베는 아마 지구를 걸어 다닌 젊은 여자 가운데

몸이 온전히 튼튼하고 건강하고 억센 단 한 사람이었을 것이며, 헤베가 가는 곳마다 봄이었다.

---

1. 오시안의 시. 18세기 제임스 맥퍼슨이 옛 게일어 서사시를 옮겼다며 펴냈다.
2. 『논어』 「이인」 편.

방문객

나는 내가 대부분의 사람만큼은 사람 사귀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며, 피가 넘치는 사람이 내 앞길에 나타나면 그동안만큼은 거머리처럼 그에게 들러붙을 채비도 넉넉히 되어 있다. 나는 타고난 은자가 아니며, 볼일이 있어 술집에 가게 된다면 그곳의 가장 끈질긴 단골보다도 더 오래 버티고 앉아 있을지 모른다.

내 집에는 의자가 셋 있었다. 하나는 고독을 위해, 둘은 우정을 위해, 셋은 사교를 위해. 손님이 예상보다 많이 몰려오면 그들 모두에게 내줄 의자는 세 번째 의자 하나뿐이었지만, 그들은 대개 서서 자리를 아껴 주었다. 작은 집 하나에 위대한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놀랍다. 한번은 내 지붕 아래에 스물다섯에서 서른 명의 영혼이 저마다 몸까지 거느리고 한꺼번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도 우리는 서로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헤어지곤 했다. 공공건물이든 개인 집이든 우리의 집들은 거의 셀 수 없이 많은 방과 거대한 홀과 포도주며 그 밖의 평화의 군수품을 쌓아 두는 지하실을 거느리고 있어서, 거기 사는 사람에 비해 터무니없이 커 보인다. 집이 하도 넓고 웅장하니 거기 사는 사람은 집에 들끓는 해충처럼만 보인다. 트레몬트 하우스나 애스터 하우스나 미들섹스 하우스 같은 호텔 앞에서 전령이 나팔을 불어 사람을 불러낼 때, 거기 사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 우스꽝스러운 생쥐 한 마리가 현관 앞 회랑으로 기어 나왔다가 이내 다시 포석 틈 어느 구멍으로 숨어드는 꼴을 보면 나는 놀란다.

그렇게 작은 집에서 이따금 겪은 불편이 하나 있었으니, 손님과 내가 큰 생각을 큰 말로 꺼내기 시작할 때 손님에게서 충분히 멀리 떨어지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생각이 항구에 들기 전에 돛을 갖추고 한두 바닷길을 달려 보려면 자리가 넉넉해야 한다. 생각의 탄환은 듣는 사람의 귀에 닿기 전에 옆으로 흔들리고 튀어 오르는 움직임을 다 이겨내고 마지막의 곧은 탄도에 들어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탄환이 그의 머리 옆을 뚫고 도로 빠져나갈지도 모른다. 우리의 문장에도 그 사이에서 펼쳐져 대열을 짓기까지 자리가 필요했다. 사람도 나라처럼 서로의 사이에 알맞게 넓고 자연스러운 경계, 나아가 꽤 넓은 중립 지대까지 두어야 한다. 나는 호수 건너편 기슭에 있는 벗과 호수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남다른 사치라는 것을 알았다. 내 집에서는 우리가 너무 가까워서 들을 수가 없었다. 들릴 만큼 낮게 말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다. 잔잔한 물에 돌 두 개를 너무 가까이 던지면 물결이 서로를 깨뜨리는 것과 같다. 우리가 그저 수다스럽고 목청 큰 이야기꾼일 뿐이라면 서로 바싹 붙어 서서 뺨을 맞대고 서로의 숨결을 느껴도 괜찮다. 그러나 삼가며 생각 깊게 말하려면 더 멀리 떨어져서, 모든 체열과 습기가 날아갈 틈을 주어야 한다.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말을 걸 수 없거나 말을 넘어서 있는 그것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누리려면 침묵해야 할 뿐 아니라, 대개는 어떤 경우에도 서로의 목소리를 결코 들을 수 없을 만큼 몸을 멀리 두어야 한다. 이 기준에 비추면 말이란 귀가 어두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소리쳐야 한다면 말할 수 없는 섬세한 것들이 많다. 대화가 더 높고 웅대한 가락을 띠기 시작하면 우리는 의자를 조금씩 뒤로 밀어 마침내 맞은편 두 구석의 벽에 닿게 했고, 그러면 대개 그래도 자리가 모자랐다.

그러나 내 "가장 좋은" 방, 언제든 손님을 맞을 채비가 된 내 응접실, 그 양탄자에 햇볕이 좀처럼 들지 않는 방은 집 뒤의 소나무 숲이었다.

여름날 귀한 손님이 오면 나는 그들을 그리로 데려갔고, 값을 매길 수 없는 하인이 바닥을 쓸고 가구의 먼지를 털고 물건을 가지런히 정돈해 두었다.

손님이 한 사람 오면 이따금 내 검소한 끼니를 함께 들었고, 그동안 옥수수 죽을 젓거나 잿불 속에서 빵 한 덩이가 부풀어 익는 것을 지켜본다고 해서 대화가 끊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스무 사람이 와서 내 집에 앉으면, 빵이 두 사람 몫은 넉넉히 있었을지 몰라도 저녁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았다. 먹는 일이 버려진 습관이라도 된 듯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절제를 실천했고, 이것은 한 번도 손님 대접에 어긋나는 일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장 알맞고 사려 깊은 처사로 여겨졌다. 그토록 자주 보수를 해 주어야 하는 육체의 소모와 쇠퇴가 그럴 때는 기적처럼 늦추어지는 듯했고, 생명의 기운은 제자리를 지켰다. 나는 이런 식사로 스물이 아니라 천 명도 대접할 수 있었다. 혹시 누가 나를 집에서 만나고도 실망하거나 배고픈 채로 떠났다면, 적어도 내가 그를 딱하게 여겼다는 것만은 믿어도 좋다. 많은 주부가 의심하지만, 낡은 관습을 몰아내고 새롭고 더 나은 관습을 세우기란 이렇게 쉽다. 내놓는 만찬에 평판을 걸 필요는 없다. 나로 말하면, 어떤 케르베로스도 그 집 사람이 나에게 저녁을 먹이겠다고 법석을 떨 때만큼 효과적으로 나를 어떤 사람의 집에 드나들지 못하게 막지는 못했다. 나는 그것을 다시는 그렇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아주 정중하고도 에두른 암시로 받아들였다. 나는 그런 자리를 다시는 찾지 않을 것 같다. 손님 하나가 노란 호두나무 잎에 명함 삼아 적어 준 스펜서의 시구를 내 오두막의 좌우명으로 삼는다면 나는 자랑스러울 것이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은 작은 집을 가득 채우고,
대접이 없는 곳에서 대접을 바라지 않는다.
쉼이 그들의 잔치요 모든 것이 그들 뜻대로이니,
가장 고귀한 마음이 가장 큰 만족을 누린다."[1]

뒷날 플리머스 식민지의 총독이 된 윈슬로가 동행 한 사람과 함께 숲을 지나 걸어서 마사소이트에게 예방을 갔을 때, 그들은 지치고 굶주린 채 그의 거처에 이르렀고 추장은 그들을 잘 맞아 주었지만 그날은 먹는 이야기를 아무도 꺼내지 않았다. 밤이 되자, 그들 자신의 말을 빌리면 이러했다. "그는 우리를 자기와 자기 아내가 자는 침상에 눕혔는데, 그들은 한쪽 끝에, 우리는 다른 쪽 끝에 누웠다. 침상이라야 땅에서 1피트 높이에 널빤지를 깔고 그 위에 얇은 거적을 덮은 것뿐이었다. 그의 우두머리 부하 둘이 자리가 모자라 우리 곁과 우리 위로 밀고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보다 잠자리에 더 녹초가 되었다." 이튿날 한 시에 마사소이트는 도미보다 세 배쯤 큰 "자기가 쏘아 잡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왔다." "이것을 삶자 적어도 마흔 사람이 한몫을 바랐고, 대부분이 그것을 먹었다. 이틀 밤과 하루 동안 우리가 먹은 것은 이 한 끼뿐이었다. 우리 가운데 하나가 자고새 한 마리를 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굶은 채로 길을 나섰을 것이다." 먹을 것과 잠이 모자라 머리가 어지러워질까 두렵기도 하고("야만인들의 야만스러운 노래 때문에.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잠드는 버릇이 있다"), 걸을 힘이 남아 있을 때 집에 닿고 싶기도 해서 그들은 길을 떠났다. 잠자리로 말하자면 그들이 변변찮은 대접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에게 불편했던 것이 원주민에게는 틀림없이 예우로 마련한 것이었다. 그러나 먹는 일에 관해서라면 원주민이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지 나는 모르겠다. 그들 자신이 먹을 것이 없었고, 사과가 손님에게 음식을 대신할 수 있다고 여길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그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윈슬로가 다른 때 그들을 찾아갔을 때는 그들에게 넉넉한 철이어서 이 점에서 모자람이 없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어디서든 모자랄 일은 거의 없다. 나는 숲에 사는 동안 내 평생 어느 때보다 손님이 많았다. 몇 사람은 있었다는 뜻이다. 나는 그곳에서 다른 어디에서보다 더 좋은 처지로 여러 사람을 만났다. 그러나 하찮은 볼일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줄었다. 이 점에서 내 손님은 내가 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키질을 당한 셈이다. 나는 사교라는 강물들이 흘러드는 고독이라는 큰 바다 안쪽으로 아주 멀리 물러나 있었으므로, 내게 필요한 만큼에 대해서라면 대개 가장 고운 앙금만이 내 둘레에 가라앉았다. 게다가 저쪽 건너편에 아직 탐사되지 않고 개간되지 않은 대륙들이 있다는 증거들이 내게로 떠밀려 오기도 했다.

오늘 아침 내 오두막에 누가 왔는가 하면, 참으로 호메로스풍의, 아니 파플라고니아풍의 사람이었다. 그는 하도 알맞고 시적인 이름을 지녀서 여기에 그 이름을 찍어 내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캐나다 사람이고 나무꾼이자 울타리 말뚝을 만드는 사람인데, 하루에 말뚝 쉰 개에 구멍을 뚫을 수 있고, 지난 저녁에는 개가 잡아 온 우드척 한 마리로 끼니를 때웠다. 그도 호메로스에 대해 들은 적이 있고, "책이 없으면" "비 오는 날 뭘 해야 할지 모를" 것이라고 하지만, 아마 여러 해 장마철이 지나도록 책 한 권을 끝까지 다 읽어 본 적은 없을 것이다. 멀리 떨어진 그의 고향 교구에서 그리스어를 직접 소리 내어 읽을 줄 아는 어느 신부가 그에게 『신약』의 성경 구절 읽는 법을 가르쳤다. 그래서 지금 나는 그가 책을 들고 있는 동안, 아킬레우스가 슬픈 얼굴을 한 파트로클로스를 나무라는 대목을 그에게 옮겨 주어야 한다. "파트로클로스, 너는 왜 어린 계집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느냐?"

"아니면 너 혼자 프티아에서 무슨 소식이라도 들었느냐?
사람들 말로는 악토르의 아들 메노이티오스가 아직 살아 있고,
아이아코스의 아들 펠레우스도 미르미돈 사람들 사이에 살아
있다는데,
그 둘 가운데 누가 죽었다면 우리가 크게 슬퍼하련만."[2]

그는 "그거 좋네요." 하고 말한다. 그는 앓는 사람에게 주려고 이일요일 아침에 벗겨 모은 흰떡갈나무 껍질 한 아름을 옆구리에 끼고 있다. "오늘 같은 날 이런 걸 구하러 다녀도 나쁠 건 없겠지요." 그가 말한다. 그에게 호메로스는 위대한 작가였지만, 그의 글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보다 더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사람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세상에 그토록 어두운 도덕의 빛깔을 드리우는 악덕과 질병이 그에게는 거의 있지도 않은 것 같았다. 그는 스물여덟 살쯤 되었고, 열두 해 전에 캐나다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합중국으로 일하러 왔는데, 돈을 벌어 마침내 농장을 사려는 것이었고 아마 고향 땅에 살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는 가장 거친 거푸집에서 부어 낸 사람이었다. 몸은 다부지되 굼떴지만 거동에는 품위가 있었고, 햇볕에 그은 굵은 목, 숱 많은 검은 머리, 흐릿하고 졸린 듯한 푸른 눈을 지녔는데 그 눈에 이따금 표정의 불이 켜졌다. 그는 납작한 회색 천 모자를 쓰고, 칙칙한 양털빛 외투를 입고, 소가죽 장화를 신었다. 그는 고기를 아주 많이 먹는 사람이어서, 여름 내내 나무를 베었으므로 내 집을 지나 2마일쯤 떨어진 일터로 점심을 양철 들통에 담아 가지고 다니곤 했다. 식은 고기, 흔히 식은 우드척 고기였고, 커피는 허리띠에 끈으로 매달아 흔들리는 돌병에 담겨 있었다. 그는 이따금 나에게도 한 모금 권했다. 그는 일찍 내 콩밭을 가로질러 지나갔지만, 양키들이 보이는 것처럼 일터에 닿으려고 애태우거나 서두르지는 않았다. 그는 몸을 상하게 할 생각이 없었다. 그저 밥값만 벌어도 그만이었다. 오는 길에 개가 우드척을 잡으면 그는

흔히 점심을 덤불 속에 놓아두고 1마일 반을 되돌아가서 그것을 손질해 자기가 하숙하는 집 지하실에 두고 왔는데, 그 전에 밤이 될 때까지 그것을 호수에 가라앉혀 두어도 안전하지 않을까 하고 반 시간 동안 궁리부터 했다. 그는 이런 주제를 오래 곱씹기를 좋아했다. 그는 아침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 "비둘기가 참 빽빽하게도 많네요! 날마다 일하는 게 내 생업만 아니라면 사냥으로 먹고 싶은 고기는 다 얻을 텐데. 비둘기, 우드척, 토끼, 자고새, 참말이지! 일주일 먹을 걸 하루에 다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솜씨 좋은 나무꾼이었고, 자기 기술에 얼마간 멋과 장식을 부리기도 했다. 그는 나무를 땅에 바싹 붙여 평평하게 베었는데, 뒤에 돋는 움이 더 힘차게 자라고 썰매가 그루터기 위로 미끄러져 지나갈 수 있게 하려는 뜻이었다. 그는 쌓아 놓은 장작을 받치려고 나무 한 그루를 통째로 남겨 두는 대신, 그것을 깎고 깎아서 마침내 손으로 꺾을 수 있을 만큼 가느다란 말뚝이나 막대기로 만들곤 했다.

그는 아주 조용하고 외로우면서도 그토록 행복했기에 내 흥미를 끌었다. 그는 눈으로 넘쳐흐르는 좋은 기분과 만족의 우물이었다. 그의 즐거움에는 섞인 것이 없었다. 이따금 나는 그가 숲에서 나무를 베며 일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흐뭇한 웃음과 함께 캐나다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넸다. 영어도 그만큼 잘했는데도 그랬다. 내가 다가가면 그는 일을 멈추고, 웃음을 반쯤 참으며 자기가 베어 넘긴 소나무 둥치를 따라 길게 드러누워서는 속껍질을 벗겨 공처럼 둥글게 말아 씹으며 웃고 이야기했다. 그에게는 동물의 기운이 하도 넘쳐서, 무엇이든 그를 생각하게 하고 간질이는 것이 있으면 이따금 웃다가 넘어져 땅바닥을 뒹굴기도 했다. 그는 나무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외치곤 했다. "이런! 여기서 나무 베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워요. 이보다 나은 놀이는 바라지도 않아요." 이따금 한가할 때면 그는 주머니 권총을

가지고 하루 종일 숲에서 놀았는데, 걸어가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자기 자신에게 예포를 쏘았다. 겨울에는 불을 피워 한낮에 주전자에 커피를 데웠고, 그가 통나무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으면 박새들이 이따금 날아와 그의 팔에 앉아서 그가 손가락에 쥔 감자를 쪼아 먹곤 했다. 그는 "작은 *녀석들*이 곁에 있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에게서 주로 자라난 것은 동물로 사는 사람이었다. 몸으로 견디는 힘과 만족에서 그는 소나무와 바위의 사촌이었다. 나는 한번 그에게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밤에 이따금 지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진지하고 엄숙한 얼굴로 대답했다. "젠장, 난 평생 지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안의 지성의 사람, 이른바 영혼의 사람은 갓난아기 안에서처럼 잠들어 있었다. 그는 가톨릭 신부들이 원주민을 가르치는 그 순진하고 효과 없는 가르침만 받았는데, 그 가르침에서 배우는 이는 결코 의식의 단계까지 교육받지 못하고 믿음과 공경의 단계까지만 교육받으며, 아이는 어른이 되지 못하고 그대로 아이로 남는다. 자연은 그를 지을 때 튼튼한 몸과 만족을 그의 몫으로 주었고, 그가 일흔 해 한평생을 아이로 살 수 있도록 공경과 의지로 사방을 받쳐 주었다. 그는 하도 꾸밈없고 순박해서 어떤 소개도 그를 소개하는 데 쓸모가 없었다. 우드척을 이웃에게 소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우리가 그랬듯 이웃도 그를 스스로 알아내야 했다. 그는 어떤 배역도 연기하지 않으려 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일한 품삯을 주어 그를 먹이고 입히는 데 보탰지만, 그는 그들과 한 번도 의견을 주고받지 않았다. 그는 하도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겸손해서,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을 겸손하다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지만, 겸손이 그 안에서 따로 떨어진 성질이 아니었고 그는 겸손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에게 반신(半神)이었다. 그런 사람이 온다고 일러 주면 그는 그토록 대단한 이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모든 책임을 스스로

떠맡아 자기를 그대로 잊힌 채 두리라 여기는 듯이 굴었다. 그는 칭찬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특히 작가와 설교자를 우러렀다. 그들이 해내는 일은 기적이었다. 내가 글을 꽤 많이 쓴다고 하자 그는 오랫동안 내가 그저 글씨 쓰는 일을 말하는 줄 알았다. 그 자신이 놀랄 만큼 글씨를 잘 썼기 때문이다. 나는 이따금 큰길가 눈 위에 프랑스어 악센트 부호까지 제대로 붙여 멋지게 써 놓은 그의 고향 교구 이름을 보고 그가 지나갔음을 알았다. 나는 그에게 자기 생각을 글로 써 보고 싶은 적은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편지를 읽어 주고 써 준 적은 있지만 생각을 써 보려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아니, 그건 할 수 없다, 무엇을 먼저 써야 할지 모르겠고, 그러다가는 죽을 것 같으며, 게다가 그와 함께 철자까지 신경 써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들리는 말로는 이름난 현자이자 개혁가인 어떤 사람이 그에게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그런 물음이 일찍이 누군가의 머리에 떠오른 적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놀란 듯 킥킥 웃으며 캐나다 사투리로 대답했다. "아뇨, 난 이대로도 꽤 좋은데요." 철학자라면 그와 사귀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이다. 낯선 사람에게 그는 세상 일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보였다. 그러나 나는 이따금 그에게서 전에 본 적 없는 사람을 보았고, 그가 셰익스피어만큼 지혜로운지 아이처럼 그저 무지한지, 그에게 섬세한 시적 의식이 있다고 짐작해야 할지 어리석음이 있다고 짐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읍 사람 하나가 내게 말하기를, 작고 머리에 꼭 맞는 모자를 쓰고 혼자 휘파람을 불며 마을을 느긋이 거니는 그를 만났을 때 변장한 왕자가 떠올랐다고 했다.

그의 책이라고는 책력 한 권과 산수책 한 권뿐이었는데, 산수에는 꽤 능했다. 책력은 그에게 일종의 백과사전이어서, 그는 거기에 인류

지식의 요약이 담겨 있다고 여겼고, 실제로도 상당 부분 그렇다. 나는 그 무렵의 갖가지 개혁에 대해 그의 속을 떠보기를 좋아했는데, 그는 언제나 그것들을 가장 단순하고 실제적인 빛 아래에서 보았다. 그는 그런 것을 전에 들어 본 적이 없었다. 공장 없이 지낼 수 있겠느냐고 나는 물었다. 그는 집에서 짠 버몬트산 회색 옷을 입어 왔는데 그거면 좋았다고 했다. 차와 커피 없이 지낼 수 있겠느냐? 이 나라에 물 말고 다른 마실 것이 있느냐? 그는 솔송나무 잎을 물에 담가 우려 마셔 보았는데 더운 날에는 물보다 낫더라고 했다. 돈 없이 지낼 수 있겠느냐고 묻자, 그는 돈이 얼마나 편리한지를 보여 주었는데, 그 설명이 이 제도의 기원에 관한 가장 철학적인 해설을 떠올리게 했고 그것과 들어맞았으며, 돈을 뜻하는 라틴어 *pecunia*의 어원 바로 그것과도 들어맞았다. 그의 재산이 소 한 마리이고 그가 가게에서 바늘과 실을 사고 싶다면, 그때마다 그 값어치만큼 소의 일부를 저당 잡히는 일을 계속하는 것은 불편할 테고 곧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많은 제도를 어떤 철학자보다도 더 잘 옹호할 수 있었다. 그 제도들이 자기와 관련된 대로 설명하면서 그것들이 널리 퍼진 참된 까닭을 댔고, 사변이 그에게 다른 까닭을 일러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한번은 사람이란 깃털 없는 두 발 짐승이라는 플라톤의 정의와, 누군가 털 뽑은 수탉을 내보이며 그것을 플라톤의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무릎*이 반대로 굽는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따금 이렇게 외쳤다. "난 이야기하는 게 정말 좋아요! 이런, 하루 종일이라도 떠들 수 있겠어요!" 여러 달 그를 보지 못했다가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이번 여름에 무슨 새로운 생각을 얻었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아이고," 그가 말했다. "나처럼 일해야 하는 사람은 전에 했던 생각이나 잊어버리지 않으면 잘하는 거예요. 같이 김매는 사람이 경주라도 할 기세면, 참말로, 정신을 거기 붙들어 둬야 해요.

잡초 생각만 하게 되지요." 그런 때면 그는 이따금 먼저 나에게 무슨 나아진 것이 있느냐고 묻곤 했다. 어느 겨울날 나는 그에게 늘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느냐고 물었다. 바깥의 신부를 대신할 무엇을 그의 안에 두고, 살아가는 데 더 높은 동기를 두어 보라고 넌지시 일러 주고 싶어서였다. "만족이요!" 그가 말했다. "어떤 사람은 이것에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에 만족하지요. 어떤 사람은, 아마, 먹을 게 넉넉하면 하루 종일 등은 불 쪽에, 배는 식탁 쪽에 두고 앉아 있는 걸로 만족할 거예요, 이런!" 그러나 나는 어떤 꾀를 부려도 그가 사물을 영적으로 보게 할 수 없었다. 그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높은 것은 단순한 편의, 짐승도 알아줄 법한 그런 것인 듯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도 맞는 말이다. 내가 그의 생활에 무엇이든 고칠 점을 일러 주면, 그는 아무런 아쉬움도 내비치지 않고 그저 너무 늦었다고만 대답했다. 그래도 그는 정직과 그 비슷한 덕목들을 철저히 믿었다.

그에게서는 아무리 희미할지라도 어떤 뚜렷한 독창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나는 이따금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하도 드문 현상이라 나는 그것을 보려고 어느 날이든 10마일을 걸어갈 것이다. 그것은 사회의 많은 제도를 새로 만들어 내는 일과 같았다. 그는 머뭇거렸고 어쩌면 자기 뜻을 또렷하게 나타내지 못했지만, 그 뒤에는 늘 내놓을 만한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하도 원시적이고 동물의 삶에 깊이 잠겨 있어서, 그저 학식만 있는 사람의 생각보다 더 장래가 있어 보이기는 했지만, 남에게 전할 만한 무엇으로 여무는 일은 드물었다. 그는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도, 아무리 평생 비천하고 글을 모르더라도, 언제나 자기 눈으로 보거나 아예 보는 척을 하지 않는 천재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런 사람들은 어둡고 흐릴지는 몰라도, 한때 바닥이 없다고 여겨졌던 월든 호수만큼이나 바닥을 모를 만큼 깊다.

많은 나그네가 나와 내 집 안을 보려고 길을 벗어나 찾아왔고, 들른 핑계로 물 한 잔을 청했다. 나는 그들에게 호수에서 물을 마신다고 말하고 그쪽을 가리키며 국자를 빌려주겠다고 했다. 나는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내 생각에 4월 1일 무렵, 누구나 움직이는 철에 찾아오는 해마다의 방문을 면하지는 못했다. 손님들 가운데 진기한 견본도 몇 있었지만 나에게도 행운의 몫이 돌아왔다. 구빈원과 그 밖의 곳에서 모자란 사람들이 나를 보러 왔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지닌 지혜를 다 짜내게 하고 나에게 속을 털어놓게 하려고 애썼고, 그럴 때면 지혜를 우리 대화의 주제로 삼았다. 그래서 보상을 받았다. 사실 나는 그들 가운데 몇이 이른바 읍의 빈민 *감독관*이나 행정위원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는 처지가 뒤바뀔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지혜에 관해서라면 반편과 온편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특히 어느 날은 남을 해칠 줄 모르는 단순한 빈민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 나처럼 살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가 다른 빈민들과 함께 울타리 재목처럼 쓰이는 것을 자주 보았는데, 가축과 그 자신이 헤매지 않도록 들판에서 부셸 됫박 위에 서 있거나 앉아 있곤 했다. 그는 더없이 소박하고 진실하게, 겸손이라 불리는 어떤 것보다도 훨씬 위에 있는, 아니 차라리 훨씬 *아래*에 있는 태도로 자기가 "지능이 모자란다"고 말했다. 그것이 그의 말이었다. 주님이 그를 그렇게 지으셨지만 주님은 다른 이만큼 그도 아끼신다고 그는 여겼다. "난 늘 이랬어요." 그가 말했다. "어릴 때부터요. 정신이 별로 없었어요. 다른 애들 같지 않았어요. 머리가 약해요. 주님의 뜻이겠지요." 그리고 그는 자기 말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거기 있었다. 그는 나에게 형이상학의 수수께끼였다. 나는 그렇게 장래가 있어 보이는 바탕 위에서 동료 인간을 만나는 일이 드물었다. 그가 하는 말은 모두 그토록 단순하고 진실하고 참되었다. 그리고 과연, 그가 스스로를 낮추어 보일수록 그는

높아졌다. 처음에 나는 그것이 지혜로운 계산의 결과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그 가련하고 머리 약한 빈민이 놓은 진실과 솔직함의 바탕에서라면 우리의 교제가 현자들끼리의 교제보다 더 나은 무엇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나에게는 흔히 읍의 빈민으로 꼽히지는 않지만 꼽혀야 마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손님이 몇 있었다. 어쨌든 세상의 빈민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여러분의 환대가 아니라 여러분의 *환자 대접*에 호소하는 손님이며, 도움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호소의 서두에 무엇보다 자기는 결코 스스로를 돕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정보를 늘어놓는다. 나는 손님에게, 그 식욕을 어떻게 얻었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식욕을 지녔더라도 상관없지만 실제로 굶주리고 있지는 않기를 요구한다. 자선의 대상은 손님이 아니다. 내가 다시 내 일을 보러 가며 점점 더 먼 데서 대꾸하는데도 자기 방문이 언제 끝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철새의 철에는 거의 온갖 수준의 지혜를 지닌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 지혜가 남아돌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농장의 몸가짐이 밴 도망 노예들도 있었다. 그들은 우화 속 여우처럼 사냥개들이 자기 발자취를 쫓으며 짖어 대는 소리를 듣는 듯이 이따금 귀를 기울였고, 마치 이렇게 말하려는 듯 애원하는 눈으로 나를 보았다.

"오, 그리스도교도여, 나를 돌려보내려 하십니까?"

그 가운데 진짜 도망 노예 하나를 나는 북극성 쪽으로 보내는 일을 도왔다. 병아리 한 마리를 거느린, 그것도 오리 새끼 한 마리를 거느린 암탉 같은, 생각이 하나뿐인 사람들. 백 마리 병아리를 맡아 키우게 된 암탉들처럼 생각이 천 가지이고 머리는 헝클어진 사람들. 그 병아리들은 모두 벌레 한 마리를 쫓아다니다가 아침 이슬마다 스무 마리씩 길을 잃고, 그 결과 털이 곱슬곱슬해지고 옴이 오른다. 다리 대신 생각을 지닌

사람들, 일종의 지적인 지네여서 보는 사람의 온몸에 소름이 기게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화이트산맥에서처럼 손님들이 이름을 적을 방명록을 두자고 했다. 그러나 아아! 나는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이 필요 없다.

나는 손님들의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었다. 소녀와 소년과 젊은 여자들은 대개 숲에 와서 기뻐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호수와 꽃들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잘 썼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농부들까지도, 고독과 일거리만 생각했고, 내가 무엇인가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사는지만 생각했다. 그들은 이따금 숲속을 한가로이 걷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뻔히 보였다. 생계를 꾸리거나 그것을 지키는 데 시간을 몽땅 빼앗긴, 매인 데 많고 안절부절못하는 사람들, 신을 마치 자기들이 독점이라도 한 주제처럼 이야기하며 갖가지 의견을 견디지 못하는 목사들, 의사들, 변호사들, 내가 나간 사이에 내 찬장과 침대를 들추어 본 불안한 주부들(아무개 부인은 내 홑이불이 자기 것만큼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젊음을 그만두고 직업이라는 다져진 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결론 내린 젊은이들, 이들은 모두 대체로 내 처지에서는 그리 많은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 바로 그게 걸림돌이었다. 나이를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늙고 병약한 사람들과 겁 많은 사람들은 무엇보다 병과 뜻밖의 사고와 죽음을 생각했다. 그들에게 삶은 위험으로 가득 차 보였고(위험 따위 생각하지 않으면 무슨 위험이 있겠는가?), 그들은 신중한 사람이라면 B 의사가 부르자마자 달려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리를 조심스레 고르리라 생각했다. 그들에게 마을은 글자 그대로 *방위 공동체*(com-munity), 서로를 지키려고 맺은 동맹이었으며, 그들은 약상자 없이는 허클베리 따러도 가지 않을 것 같았다. 요컨대 사람이 살아 있으면 언제나 죽을 위험이 있다. 다만

애초에 살아도 죽은 듯 사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그 위험이 적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사람은 달려 나가 무릅쓰는 만큼의 위험을 앉아서도 무릅쓴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개혁가라 일컫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야말로 가장 지겨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내가 노상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내가 지은 집,
이것은 내가 지은 집에 사는 사람.

그러나 그들은 셋째 줄이 이렇다는 것을 몰랐다.[3]

이것은 내가 지은 집에 사는 그 사람을
들볶는 사람들.

닭을 치지 않았으니 나는 닭 사냥하는 매는 두렵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 사냥하는 매는 오히려 두려웠다.

나에게는 마지막 부류보다 더 반가운 손님들이 있었다. 장과를 따러 오는 아이들, 깨끗한 셔츠를 입고 일요일 아침 산책을 나온 철도 일꾼들, 낚시꾼과 사냥꾼, 시인과 철학자, 요컨대 자유를 위해 숲으로 나와 정말로 마을을 뒤에 두고 온 모든 정직한 순례자를, 나는 이렇게 맞을 채비가 되어 있었다. "어서 오시오, 영국 사람들! 어서 오시오, 영국 사람들!" 나는 그 종족과 교류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

1. 스펜서, 『선녀 여왕』 제1권.

2. 『일리아스』 제16권. 아킬레우스가 울며 찾아온 파트로클로스에게 하는 말.

3. 영국 전래 동요 「잭이 지은 집」을 비튼 것.

콩밭

그러는 동안 이미 심어 놓은 내 콩은, 이랑의 길이를 다 이으면 7마일이나 되었는데, 김을 매 주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가장 먼저 심은 것은 가장 늦게 심은 것이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꽤 자라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콩은 쉽게 미루어 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토록 꾸준하고 자존심 강한 일, 이 작은 헤라클레스의 노동이 무슨 뜻인지 나는 알지 못했다. 내가 바란 것보다 훨씬 많았지만 나는 내 이랑을, 내 콩을 사랑하게 되었다. 콩은 나를 땅에 붙들어 매었고, 그래서 나는 안타이오스처럼 힘을 얻었다. 그러나 나는 왜 콩을 길러야 하는가? 하늘만이 안다. 여름 내내 나는 이 진기한 일에 매달렸다. 전에는 양지꽃이며 블랙베리며 고추나물 따위, 달콤한 야생 열매와 어여쁜 꽃밖에 내지 않던 지구 표면의 이 한 조각이 그 대신 이 콩을 내게 하는 일이었다. 나는 콩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콩은 나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나는 콩을 아끼고, 김을 매고, 아침저녁으로 눈여겨본다. 이것이 나의 하루 일이다. 보기에 넓적하고 좋은 잎이다. 나를 돕는 군대는 이 메마른 흙을 적셔 주는 이슬과 비, 그리고 흙 자체에 든 기름기인데, 흙은 대부분 메마르고 기운이 다했다. 나의 적은 벌레와 서늘한 날씨, 그리고 무엇보다 우드척이다. 우드척은 내 밭 4분의 1에이커를 말끔히 갉아 먹어 치웠다. 그러나 나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서 고추나물과 그 나머지를 쫓아내고 그들의 오래된 약초밭을 갈아엎었단 말인가? 그래도

남은 콩은 곧 우드척에게는 너무 질겨질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적들을 맞을 것이다.

똑똑히 기억하거니와, 네 살 때 나는 보스턴에서 이곳 내 고향 읍으로 실려 와서, 바로 이 숲과 이 밭을 지나 호수까지 왔다. 그것은 내 기억에 새겨진 가장 오래된 장면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지금 오늘 밤, 내 피리 소리가 바로 그 물 위로 메아리를 깨웠다. 소나무들은 나보다 나이를 먹은 채 아직 여기 서 있다. 더러 쓰러진 것이 있다면 나는 그 그루터기로 저녁밥을 지었고, 사방에서 새로 돋는 나무들이 새로운 어린 눈을 위해 또 다른 풍경을 마련하고 있다. 이 목초지에서는 거의 똑같은 고추나물이 똑같은 여러해살이 뿌리에서 돋아나고, 나조차 마침내 내 어린 시절 꿈속의 그 꿈같은 풍경에 옷을 입히는 일을 거들었으니, 내가 여기 있고 손을 댄 결과 가운데 하나를 이 콩잎과 옥수숫잎과 감자 덩굴에서 볼 수 있다.

나는 높은 땅 2에이커 반쯤에 씨를 뿌렸다. 그 땅은 개간한 지 열다섯 해 남짓밖에 되지 않았고 나 자신도 그루터기를 두세 코드나 캐냈으므로 거름은 주지 않았다. 그런데 여름 동안 김을 매다가 뒤집혀 나온 화살촉들을 보니, 이제는 사라진 어느 겨레가 백인이 와서 땅을 개간하기 전에 옛적부터 이곳에 살면서 옥수수와 콩을 심었고, 그래서 바로 이 작물을 기르기에는 땅의 기운을 얼마간 이미 다 써 버린 듯했다.

우드척이나 다람쥐가 아직 길을 건너가기 전에, 해가 떡갈나무 덤불 위로 솟기도 전에, 이슬이 아직 다 맺혀 있는 동안, 농부들이 그러지 말라고 일렀는데도 (나는 여러분에게 될 수 있으면 모든 일을 이슬이 맺혀 있는 동안에 하라고 권하겠다) 나는 콩밭의 오만한 잡초들의 대열을 쓰러뜨리고 그 머리 위에 흙먼지를 끼얹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에는 맨발로 일하며 이슬에 젖어 부슬부슬한 모래를 조각가처럼 주물렀지만, 한낮이 지나면 햇볕에 발에 물집이 잡혔다. 거기서 해는

내가 콩밭을 매도록 비추었고, 나는 그 누런 자갈투성이 높은 땅 위에서 15로드나 되는 긴 초록 이랑 사이를 천천히 오갔다. 이랑 한쪽 끝은 그늘에서 쉴 수 있는 떡갈나무 덤불숲에 닿았고, 다른 쪽 끝은 블랙베리 밭에 닿았는데, 내가 한 바퀴 더 돌고 오면 그곳의 푸른 열매는 그새 빛깔이 짙어져 있었다. 잡초를 뽑고, 콩 줄기 둘레에 새 흙을 북돋우고, 내가 뿌린 이 풀을 북돋워 주는 것, 누런 흙이 여름의 생각을 쑥이나 피리풀이나 기장풀이 아니라 콩잎과 콩꽃으로 나타내게 하고, 땅이 풀 대신 콩을 말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하루 일이었다. 말이나 소, 품팔이 일꾼이나 소년, 개량된 농기구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으므로 나는 훨씬 더뎠고, 그만큼 내 콩과 여느 때보다 훨씬 가까워졌다. 그러나 손으로 하는 노동은 고역에 가까울 만큼 밀어붙인다 해도 아마 결코 가장 나쁜 꼴의 게으름은 아닐 것이다. 그것에는 변함없고 사라지지 않는 교훈이 있고, 학자에게는 고전과 같은 결실을 안겨 준다. 링컨과 웨이랜드를 지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서쪽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에게 나는 그야말로 *agricola laboriosus,* 부지런한 농사꾼이었다. 그들은 두 바퀴 마차에 편히 앉아 무릎에 팔꿈치를 괴고 고삐를 꽃줄처럼 느슨히 늘어뜨렸고, 나는 집에 머물며 땅을 일구는 부지런한 토박이였다. 그러나 내 집터는 곧 그들의 눈과 생각에서 사라졌다. 길 양쪽으로 한참 동안 트이고 일군 밭은 내 밭 하나뿐이었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한껏 구경거리로 삼았고, 밭에 있는 사람은 이따금 나그네들의 수다와 촌평을 자기 귀에 들리라고 한 것보다 더 많이 들었다. "콩을 이렇게 늦게! 완두를 이렇게 늦게!" 다른 사람들이 김매기를 시작했을 때도 나는 계속 씨를 뿌렸기 때문인데, 목사 같은 그 농사꾼은 그런 줄을 짐작도 못 했다. "옥수수야, 얘야, 사료로는 옥수수지. 사료로는 옥수수." "저 사람이 저기 *산다고*?" 검은 보닛이 회색 외투에게 묻는다. 그리고 험상궂은 얼굴의 농부는 고마운 늙은 말의 고삐를 당겨 세우고는,

고랑에 거름이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고 묻고, 나무 부스러기 거름을 조금, 아니면 무엇이든 하찮은 찌꺼기를, 그도 아니면 재나 석고를 주라고 권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2에이커 반의 고랑이 있었고, 수레라고는 괭이 하나, 그것을 끄는 것은 두 손뿐이었다. 다른 수레와 말은 내키지 않았고, 나무 부스러기 거름은 멀리 있었다.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길동무들은 내 밭을 자기들이 지나온 밭들과 큰 소리로 견주었으므로, 나는 농업계에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게 되었다. 이것은 콜먼 씨의 보고서에 들지 않은 밭이었다.[1] 그런데 말이 났으니 말이지만, 사람이 손대지 않은 더 야생의 들판에서 자연이 내는 작물의 가치는 누가 매기는가? *영국* 건초의 수확량은 꼼꼼히 무게를 달고 수분과 규산염과 칼리까지 계산하지만, 숲과 목초지와 늪의 모든 골짜기와 웅덩이에는 다만 사람이 거두지 않을 뿐인 풍성하고 갖가지인 작물이 자란다. 내 밭은 말하자면 야생의 들판과 일군 밭을 잇는 고리였다. 어떤 나라는 문명화되었고 어떤 나라는 반쯤 문명화되었으며 또 어떤 나라는 야만스럽거나 미개하듯이, 내 밭은 나쁜 뜻에서가 아니라 반쯤 일군 밭이었다. 내가 기른 것은 기꺼이 야생의 원시 상태로 돌아가는 콩이었고, 내 괭이는 그들을 위해 스위스 목동이 소를 부르는 노래를 연주했다.

가까운 자작나무 꼭대기 잔가지에서는 갈색지빠귀가, 더러는 붉은개똥지빠귀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 그 새가 아침 내내 노래한다.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기쁜 것인데, 여러분의 밭이 여기 없었다면 다른 농부의 밭을 찾아냈을 것이다. 여러분이 씨를 심는 동안 그 새는 이렇게 외친다. "떨궈, 떨궈, 덮어, 덮어, 뽑아, 뽑아, 뽑아." 그러나 이것은 옥수수가 아니었으므로 그런 적에게서 안전했다. 줄 하나로 또는 스무 개로 하는 그 아마추어 파가니니의 연주, 그 장황한 넋두리가 여러분의 씨뿌리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은 의아할 것이다. 그래도

여러분은 그것을 우려낸 재나 석고보다 낫게 여길 것이다. 그것은 내가 전적으로 믿은 값싼 웃거름이었다.

괭이로 이랑 둘레에 더 새로운 흙을 끌어모으다가 나는 태곳적에 이 하늘 아래 살았던, 기록되지 않은 겨레들의 재를 휘저었고, 그들의 자그마한 전쟁 도구와 사냥 도구가 이 근대의 햇빛 속으로 드러났다. 그것들은 다른 자연석과 섞여 있었는데, 그 돌들 가운데 어떤 것에는 원주민의 불에 그을린 자국이, 어떤 것에는 햇볕에 탄 자국이 있었고, 최근에 이 땅을 일군 사람들이 가져온 질그릇과 유리 조각도 섞여 있었다. 내 괭이가 돌에 부딪혀 쨍그랑거리면 그 음악이 숲과 하늘로 메아리쳐 내 노동의 반주가 되었고, 그 노동은 당장에 헤아릴 수 없는 수확을 거두었다. 내가 김매는 것은 이제 콩이 아니었고, 콩을 매는 것도 내가 아니었다. 그리고 오라토리오를 들으러 도시로 간 지인들을, 혹시라도 떠올린다면, 자랑만큼이나 딱한 마음으로 떠올렸다. 해가 쨍한 오후면 (나는 이따금 하루를 꼬박 밭에서 보냈다) 밤매(nighthawk)가 눈 속의 티끌처럼, 아니 하늘의 눈 속의 티끌처럼 머리 위를 맴돌다가, 이따금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휙 내리꽂혔다. 하늘은 마침내 갈가리 넝마가 되도록 찢기는데도 솔기 없는 망토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작은 요정들은 하늘을 가득 메우고, 언덕 꼭대기 맨모래나 바위 위 땅바닥에 알을 낳는데, 그 알을 찾아낸 사람은 드물다. 바람에 들려 하늘에 떠도는 나뭇잎처럼 호수에서 건져 올린 잔물결처럼 우아하고 날씬하니, 자연에는 그러한 핏줄이 있다. 매는 그가 날아 건너며 굽어보는 물결의 하늘 형제이고, 공기를 머금은 그 완벽한 날개는 바다의 깃털 없는 원초의 날개에 화답한다. 또 이따금 나는 닭매 한 쌍이 하늘 높이 맴돌며 번갈아 솟구쳤다 내려앉고, 서로 다가갔다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그들은 마치 내 생각이 몸을 입은 것 같았다. 또 나는 이 숲에서 저 숲으로 날아가는 야생 비둘기들이 가볍게

떨리는 키질 소리를 내며 편지 나르는 비둘기처럼 서둘러 지나가는 데에 마음이 끌렸다. 또는 내 괭이가 썩은 그루터기 밑에서, 굼뜨고 불길해 보이고 낯선 점박이 도롱뇽을 뒤집어 냈다. 이집트와 나일강의 흔적이면서도 우리와 한 시대를 사는 놈이었다. 괭이에 기대어 쉴 때면 나는 이랑 어디에서나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광경을 보았는데, 시골이 내놓는 끝없는 즐거움의 한 자락이었다.

경축일이면 읍에서는 큰 대포를 쏘는데, 그 소리가 이 숲에는 장난감 딱총처럼 메아리치고, 군악의 몇 가락이 이따금 이렇게 멀리까지 흘러들기도 한다. 읍의 다른 쪽 끝 멀리 콩밭에 있는 나에게는 큰 대포 소리가 말불버섯 하나가 터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내가 모르는 군대 사열이 있는 날이면 나는 이따금 하루 종일, 지평선에 무슨 가려움증이나 병이 돌아서 곧 성홍열이든 궤양성 발진이든 무엇이 거기서 돋아날 것 같은 막연한 느낌에 시달렸는데, 마침내 더 고마운 바람 한 줄기가 들판을 서둘러 건너고 웨이랜드 길을 따라 올라와서 "훈련병들"의 소식을 전해 주곤 했다. 멀리서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누군가의 벌들이 분봉을 해서, 이웃들이 베르길리우스의 가르침대로 집에서 가장 잘 울리는 세간을 두드려 희미한 *tintinnabulum*, 방울 소리를 내며 벌들을 다시 벌통으로 불러들이려 애쓰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소리가 아주 잦아들고 웅웅거림이 그치고 가장 고마운 산들바람도 아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그들이 마지막 수벌 한 마리까지 무사히 미들섹스 벌통에 들여보냈으며 이제는 벌통에 발라 둔 꿀에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매사추세츠와 우리 조국의 자유가 그토록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알자 나는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다시 김매기로 돌아섰을 때 나는 말할 수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찼고, 미래를 차분히 믿으며 기꺼이 일을 계속했다.

악대가 여럿 나오는 날이면 온 마을이 거대한 풀무가 되어 모든 건물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번갈아 부풀었다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따금 정말로 고결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가락이 이 숲에 닿기도 했고, 명예를 노래하는 나팔 소리도 들려왔다. 그러면 나는 멕시코 사람 하나쯤은 신나게 꼬챙이에 꿸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언제까지 사소한 것만 지키고 있어야 하겠는가?) 내 기사도를 시험해 볼 우드척이나 스컹크가 없나 둘레를 살폈다. 이 군가 가락은 팔레스타인만큼이나 멀리 들렸고, 마을 위로 드리운 느릅나무 우듬지가 사냥 나팔 소리에 맞추어 가볍게 떨리는 모습은 지평선을 행진하는 십자군을 떠올리게 했다. 이날은 *대단한* 날 가운데 하루였다. 하지만 내 개간지에서 보는 하늘은 날마다 짓는 그 영원히 대단한 얼굴 그대로였고, 나는 거기서 아무런 차이도 보지 못했다.

콩을 심고, 김매고, 거두고, 타작하고, 고르고, 내다 팔면서 (파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 내가 콩과 맺은 오랜 사귐은 남다른 경험이었다. 먹는 일도 덧붙일 수 있겠다. 나는 맛을 보았으니까. 나는 콩을 제대로 알기로, 하다못해 콩인지 팥인지는 가릴 줄 알게 되기로 작정했다. 콩이 자라는 동안 나는 아침 다섯 시부터 정오까지 김을 매곤 했고, 하루의 나머지는 대개 다른 일로 보냈다. 갖가지 잡초와 맺게 되는 친밀하고 진기한 사귐을 생각해 보라. 노동에 되풀이가 적지 않았으니 이야기에도 되풀이가 얼마간 허락될 것이다. 그들의 섬세한 조직을 그토록 무자비하게 흩뜨리고, 괭이로 그토록 얄궂게 차별을 두어, 한 종은 대열째 쓰러뜨리고 다른 종은 부지런히 길러 낸다. 저건 돼지풀이고, 저건 명아주고, 저건 수영이고, 저건 피리풀이다. 달려들라, 잘게 찍으라, 뿌리를 해 쪽으로 뒤집으라, 실뿌리 하나라도 그늘에 두지 말라, 그랬다가는 이틀 만에 몸을 뒤집어 대파처럼 시퍼렇게 살아날 테니. 두루미가 아니라 잡초와 벌이는 긴 전쟁, 해와 비와 이슬을 제 편에 둔

저 트로이 사람들과 벌이는 전쟁이었다. 날마다 콩들은 내가 괭이로 무장하고 구하러 와서 적의 대열을 솎아 내고 참호를 잡초의 주검으로 메우는 것을 보았다. 북적이는 동료들보다 1피트나 우뚝 솟아 투구 깃을 흔들던 헥토르 같은 억센 놈들이 수없이 내 무기 앞에 쓰러져 흙먼지 속을 굴렀다.

내 동시대인들 가운데 어떤 이는 보스턴이나 로마에서 미술에, 어떤 이는 인도에서 명상에, 또 어떤 이는 런던이나 뉴욕에서 장사에 바친 그 여름날들을, 나는 이렇게 뉴잉글랜드의 다른 농부들과 함께 농사에 바쳤다. 콩을 먹고 싶어서는 아니었다. 콩에 관한 한 나는 타고난 피타고라스학파여서, 콩이 죽을 뜻하든 투표를 뜻하든 콩을 멀리했고,[2] 거둔 콩은 쌀과 바꾸었다. 그러나 비유와 표현을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밭에서 일해야 하듯, 어쩌면 언젠가 우화를 짓는 이에게 쓸모가 있으려고 그랬을 것이다. 그것은 대체로 드문 놀이였고, 너무 오래 계속했다면 방탕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거름을 주지 않았고 콩밭 전체를 한 번씩 다 매지도 못했지만, 손이 간 데까지는 남달리 잘 맸고 결국 그 보답을 받았다. 이블린의 말처럼 "사실 삽으로 흙을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고 다시 갈고 뒤집는 것에 견줄 만한 퇴비나 비료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데서 이렇게 덧붙인다. "흙은, 특히 새 흙이라면, 그 안에 일종의 자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흙에 생명을 주는 소금이나 힘이나 덕(어느 이름으로 부르든)을 끌어당긴다. 우리가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흙에 들이는 모든 노동과 법석의 이치가 바로 그것이다. 온갖 거름 주기와 그 밖의 지저분한 손질은 이 개량을 대신하는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이 밭은 "안식일을 누리는, 낡고 기운이 다한 묵정밭" 가운데 하나였으므로, 케넬름 딕비 경이 그럴 법하다고 여기듯 어쩌면 공기에서 "생명의 기운"을 끌어당겼을지도 모른다. 나는 콩 12부셸을 거두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말하자면, 콜먼 씨가 주로 신사 농부들의 돈 많이 드는 실험만 보고했다는 불평이 있으니 말인데, 내 지출은 다음과 같았다.

괭이	$0.54	
쟁기질, 써레질, 고랑 내기	7.50	너무 많다.
씨콩	3.12½	
씨감자	1.33	
씨완두	0.40	
순무 씨	0.06	
까마귀 막이 울타리용 흰 줄	0.02	
말 경운기와 소년 세 시간	1.00	
수확물을 실어 올 말과 수레	0.75	
합계	$14.72½	

내 수입은 (patrem familias vendacem, non emacem esse oportet)[3] 다음에서 나왔다.

판 콩 9부셸 12쿼트	$16.94
큰 감자 5부셸	2.50
작은 감자 9부셸	2.25
풀	1.00
줄기	0.75
합계	$23.44
다른 데서 말했듯이 남는 돈	$8.71½

콩을 기른 내 경험의 결과는 이렇다. 흔한 작은 흰 덤불콩을 6월 1일 무렵, 이랑 사이는 3피트, 포기 사이는 18인치로 심으라. 싱싱하고 둥글고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씨를 고르도록 조심하라. 먼저 벌레를 살피고, 빈자리는 다시 심어 메우라. 다음으로 드러난 곳이라면 우드척을 살피라. 우드척은 가장 먼저 돋은 여린 잎을 지나가면서 거의 말끔히 갉아 먹고, 또 어린 덩굴손이 나오면 그것을 알아채고는 다람쥐처럼 똑바로 앉아서 꽃눈과 어린 꼬투리째 깎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서리를 피하고 보기 좋고 팔 만한 작물을 얻고 싶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거두라. 그러면 손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

나는 이런 경험도 얻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다음 여름에는 콩과 옥수수를 이렇게 부지런히 심지 않고, 씨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면 성실, 진리, 단순함, 믿음, 순진함 같은 씨를 심어서, 그것들이 더 적은 수고와 거름으로도 이 흙에서 자라 나를 먹여 살리지 않는지 보리라. 이 흙은 분명 그런 작물로 기운이 다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아아! 나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이제 또 한 여름이 가고, 또 한 여름이, 또 한 여름이 갔으며, 독자 여러분에게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심은 씨는, 그것이 정말로 그 덕목들의 *씨였다면*, 벌레 먹었거나 생명력을 잃어서 싹이 트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대개 자기 아버지들이 용감했던 만큼만 용감하거나, 그만큼 겁이 많을 뿐이다. 이 세대는 해마다 새해가 오면 마치 거기에 운명이라도 있는 듯이, 몇 세기 전 원주민이 하던 그대로, 원주민이 처음 정착한 이들에게 가르쳐 준 그대로 어김없이 옥수수와 콩을 심는다. 요전 날 나는 한 노인이 적어도 일흔 번째로 괭이로 구덩이를 파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것도 자기가 들어가 누울 구덩이가 아니었다! 그러나 뉴잉글랜드 사람은 왜 새로운 모험을 해 보지 않고, 자기 곡식과 감자와 꼴과 과수원에만 그토록 힘을 쏟는가? 왜 이것들과 다른 작물을 기르지 않는가? 우리는 왜 씨콩에는

그토록 마음을 쓰면서 새로운 세대의 사람에게는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는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꼽은 자질들 가운데 몇 가지가, 우리 모두 저 다른 산물보다 더 귀히 여기지만 대개는 공중에 흩뿌려져 떠다니는 그 자질들이 그 사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랐음을 틀림없이 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배부르고 기운이 날 것이다. 이를테면 진리나 정의 같은 미묘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질이,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혹은 새로운 품종이라도, 길을 따라 이리로 온다고 하자. 우리 대사들은 이런 씨를 고국으로 보내라는 훈령을 받아야 하고, 연방 의회는 그것을 온 나라에 나누어 주는 일을 도와야 한다. 성실 앞에서 우리는 결코 격식을 따져서는 안 된다. 가치와 우정의 알맹이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비천함으로 서로를 속이고 모욕하고 내쫓는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바삐 만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을 아예 만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콩 일로 바쁘다. 늘 이렇게 터벅터벅 일하며, 일하는 틈틈이 괭이나 삽을 지팡이 삼아 기대어 선 사람, 버섯처럼이 아니라 땅에서 반쯤 일어선 사람, 땅에 내려앉아 걷는 제비처럼 똑바로 선 것 이상인 사람과는, 우리는 이렇게 사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말할 때 그의 날개는 이따금
날아오르려는 듯 펼쳐졌다가 다시 접히곤 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될 것이다. 빵이 늘 우리를 먹여 살리지는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나 자연에게서 어떤 너그러움을 알아보는 일, 섞인 것 없는 영웅적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도 모를 때 언제나 우리에게 이롭고, 관절의 뻣뻣함까지 풀어 주며, 우리를 나긋하고 가볍게 해 준다.

옛 시와 신화는 적어도 농사가 한때 거룩한 기술이었음을 일러 준다. 그러나 우리는 불경하게 서두르며 아무 생각 없이 농사를 짓는다. 우리의 목적은 그저 큰 농장과 큰 수확을 얻는 데 있다. 우리에게는 농부가 자기 소명의 거룩함을 드러내거나 그 거룩한 기원을 되새길 축제도 행렬도 의식도 없다. 가축 품평회와 이른바 추수 감사절도 예외가 아니다. 농부를 꾀는 것은 상금과 잔치다. 그는 케레스와 땅의 유피테르에게가 아니라 오히려 저승의 플루토스에게 제물을 바친다.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구도 벗어나지 못한 비굴한 버릇, 곧 땅을 재산으로, 아니면 주로 재산을 얻는 수단으로 여기는 버릇 때문에 풍경은 일그러지고, 우리 사이에서 농사는 타락하며, 농부는 가장 비천한 삶을 산다. 그는 자연을 도둑으로서만 안다. 카토는 농사로 얻는 이익이 특히 경건하거나 의롭다(*maximeque pius quaestus*)고 말하고, 바로에 따르면 옛 로마 사람들은 "같은 땅을 어머니라고도 케레스라고도 불렀으며, 땅을 일구는 사람들은 경건하고 쓸모 있는 삶을 살고, 그들만이 사투르누스 왕의 겨레 가운데 살아남은 이들이라고 여겼다."

해가 우리가 일군 밭과 초원과 숲을 가리지 않고 굽어본다는 것을 우리는 곧잘 잊는다. 그것들은 모두 똑같이 햇살을 되비추고 빨아들이며, 일군 밭은 해가 날마다 길을 가며 바라보는 찬란한 그림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해가 보기에 땅은 모두 똑같이 정원처럼 일구어져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해의 빛과 열이 주는 혜택을 그에 걸맞은 믿음과 너그러움으로 받아야 한다. 내가 이 콩의 씨를 귀히 여기고 가을에 그것을 거둔다 한들 무엇이 대수인가? 내가 그토록 오래 바라본 이 넓은 밭은 나를 으뜸가는 경작자로 바라보지 않고, 나를 지나쳐 더 다정한 힘들, 그것을 적시고 푸르게 하는 힘들을 바라본다. 이 콩에는 내가 거두지 않는 결실이 있다. 콩은 얼마간 우드척을 위해서도 자라지

않는가? 밀 이삭(라틴어로 *spica*, 옛말로 *speca*, 「희망」을 뜻하는 *spe*에서 왔다)이 농부의 유일한 희망이어서는 안 된다. 그 알맹이 곧 낟알(「맺는다」는 *gerendo*에서 온 *granum*)이 그것이 맺는 전부는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수확이 실패할 수 있겠는가? 씨앗이 새들의 곳간인 잡초가 넘쳐나는 것도 나는 기뻐해야 하지 않겠는가? 밭이 농부의 곳간을 채우느냐 마느냐는 견주어 보면 그리 중요하지 않다. 참된 농부는 근심을 그칠 것이다. 다람쥐가 올해 숲에 밤이 열릴지 말지 아무 걱정도 내보이지 않듯이, 참된 농부는 날마다 그날의 일을 마치고 밭의 산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 첫 열매뿐 아니라 마지막 열매까지도 바칠 것이다.

---

1. 헨리 콜먼(1785~1849): 매사추세츠주 농업 조사 보고서를 펴낸 농학자.

2. 피타고라스학파는 콩을 먹지 않았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콩으로 투표했다.

3. "가장은 사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다 파는 사람이어야 한다." 카토, 『농업론』 2장.

마을

오전에 김을 매거나, 아니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나면, 나는 대개 호수에서 한 번 더 몸을 씻었다. 일과 삼아 호수의 작은 만 하나를 헤엄쳐 건너며 몸에서 노동의 먼지를 씻어 내거나, 공부가 남긴 마지막 주름살을 펴고 나면 오후에는 온전히 자유로웠다.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나는 마을로 느긋이 걸어가서 그곳에서 끊임없이 오가는 소문을 얼마간 들었다.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아니면 신문에서 신문으로 돌았고, 동종요법의 약처럼 아주 조금씩 먹으면 그 나름으로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나 개구리가 우는 소리만큼이나 정말로 상쾌했다. 새와 다람쥐를 보러 숲을 걷듯 나는 남자와 소년들을 보러 마을을 걸었다. 소나무 사이를 지나는 바람 소리 대신 짐수레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내 집에서 한쪽으로 가면 강가 풀밭에 사향쥐들의 군락이 있었고, 다른 쪽 지평선의 느릅나무와 플라타너스 숲 아래에는 바쁜 사람들의 마을이 있었는데, 그들은 저마다 제 굴 어귀에 앉아 있거나 수다를 떨러 이웃에게 달려가는 프레리도그라도 되는 듯 나에게는 진기했다. 나는 그들의 습성을 관찰하러 자주 그곳에 갔다. 마을은 나에게 하나의 거대한 신문 열람실로 보였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한쪽에서는, 예전에 스테이트가의 레딩 상회에서 그랬듯이, 견과와 건포도, 또는 소금과 곡식 가루와 그 밖의 식료품을 갖춰 놓았다. 어떤 사람들은 앞의 상품, 곧 뉴스에 대한 식욕이 하도 엄청나고 소화 기관이 하도 튼튼해서, 공공의 길가에 언제까지나 꼼짝 않고 앉아

뉴스가 에테시아 계절풍처럼 자기들 몸을 지나며 보글보글 끓고 속삭이게 둘 수 있다. 아니면 에테르를 들이마시듯이 그것은 그저 감각을 마비시키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할 뿐이어서(그러지 않으면 견디기 괴로운 일이 많을 것이다) 의식은 건드리지 않는다. 마을을 거닐 때면 나는 그런 명사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거의 빠짐없이 보았다. 그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사다리에 앉아 햇볕을 쬐면서 이따금 관능에 겨운 얼굴로 길을 따라 이쪽저쪽 눈길을 던지거나, 아니면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헛간에 기대어 마치 카리아티드처럼 헛간을 받치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대개 바깥에 있었으므로 바람결에 떠도는 것은 무엇이든 들었다. 이들은 가장 거친 맷돌이어서, 모든 소문은 집 안의 더 곱고 섬세한 깔때기로 쏟아지기 전에 먼저 여기서 거칠게 소화되거나 빻아진다. 마을의 급소는 식료품점과 술집과 우체국과 은행이라는 것을 나는 알아보았다. 그리고 기계에 꼭 필요한 부품으로 종 하나, 큰 대포 하나, 소방 펌프차 한 대를 알맞은 자리에 두었으며, 집들은 사람을 가장 알뜰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골목을 따라 서로 마주보게 늘어서 있어서, 나그네는 누구나 태형 대열 사이를 달려야 했고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누구나 그를 한 대씩 칠 수 있었다. 물론 대열의 맨 앞자리 가까이에, 가장 잘 보고 가장 잘 보이며 그에게 첫 매를 먹일 수 있는 곳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장 비싼 값을 치렀다. 그리고 대열에 긴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그네가 담을 넘거나 소다니는 길로 비켜서 달아날 수 있는 변두리에 띄엄띄엄 사는 몇몇 주민은 아주 적은 토지세나 창문세를 냈다. 나그네를 꾀려고 사방에 간판이 걸려 있었다. 선술집과 음식을 파는 지하 식당처럼 식욕으로 그를 낚는 곳도 있고, 포목점과 보석상처럼 공상으로 낚는 곳도 있으며, 이발사나 구두장이나 재봉사처럼 머리카락이나 발이나 옷자락으로 낚는 곳도 있었다. 게다가 이 집들 하나하나에 들르라는, 그리고 이맘때쯤

손님을 기다린다는 훨씬 더 무서운 상시 초대장이 걸려 있었다. 나는 대개 이런 위험에서 놀랍도록 잘 빠져나왔다. 태형 대열 사이를 달리는 사람에게 권하는 대로 머뭇거리지 않고 단숨에 대담하게 목표로 내달리거나, 아니면 오르페우스처럼 생각을 높은 것에 두었다. 오르페우스는 "리라에 맞추어 신들을 찬미하는 노래를 크게 불러 세이렌의 목소리를 덮고 위험을 벗어났다." 이따금 나는 갑자기 내빼 버려서 아무도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점잖은 체면을 그리 따지지 않았고, 울타리의 틈 앞에서 머뭇거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나는 몇몇 집에 불쑥 쳐들어가는 버릇까지 있었는데, 그런 집에서는 대접을 잘 받았고, 뉴스의 알맹이와 맨 마지막 체질에 남은 것까지, 무엇이 가라앉았는지, 전쟁과 평화의 전망은 어떤지, 세상이 앞으로도 오래 버틸 성싶은지까지 다 알아낸 뒤에는 뒷길로 내보내졌고, 그렇게 다시 숲으로 달아났다.

읍에 늦게까지 머물렀다가 밤 속으로 몸을 띄우는 것은 무척 즐거웠다. 특히 어둡고 폭풍이 부는 밤이면, 환한 마을의 거실이나 강연장에서 호밀이나 옥수수 가루 한 자루를 어깨에 메고 숲속의 아늑한 내 항구를 향해 돛을 올렸는데, 바깥은 단단히 다 여미어 두고 즐거운 생각의 선원들과 함께 갑판 아래로 물러나, 키에는 내 바깥 사람만 남겨 두거나, 순항일 때는 아예 키를 묶어 두었다. 나는 "항해하며" 선실의 불가에서 정다운 생각을 많이 떠올렸다. 사나운 폭풍을 몇 번 만나기는 했지만 나는 어떤 날씨에도 난파하거나 곤경에 빠진 적이 없었다. 숲은 보통 밤에도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둡다. 나는 길을 알아보려고 오솔길 위 나무 사이의 트인 데를 자주 올려다보아야 했고, 수레 길이 없는 곳에서는 내가 다져 놓은 희미한 발자취를 발로 더듬거나, 손으로 더듬어 아는 특정한 나무들의 익숙한 자리를 길잡이로 삼았다. 이를테면 숲 한가운데서 18인치도 떨어지지 않은 소나무 두

그루 사이를, 가장 어두운 밤에도 어김없이 지나갔다. 이따금 어둡고 후텁지근한 밤에 이렇게 늦게 집에 돌아오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길을 발이 더듬는 동안 나는 줄곧 꿈꾸듯 넋을 놓고 있다가 빗장을 들려고 손을 올려야 할 때에야 정신이 들었는데, 걸어온 길의 한 걸음도 떠올릴 수가 없었다. 그럴 때면 나는 손이 도움 없이도 입을 찾아가듯, 주인이 몸을 버려두어도 어쩌면 몸은 저 혼자 집을 찾아가리라고 생각하곤 했다. 손님이 어쩌다 저녁까지 머물렀는데 마침 어두운 밤이면, 나는 여러 번 그를 집 뒤의 수레 길까지 데려다주고 그가 가야 할 방향을 가리켜 주어야 했다. 그 방향을 지키려면 그는 눈보다 발의 안내를 받아야 했다. 아주 어두운 어느 밤에는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젊은이 둘에게 이렇게 길을 일러 주었다. 그들은 숲을 지나 1마일쯤 떨어진 곳에 살았고 그 길에 아주 익숙했다. 하루 이틀 뒤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그들은 바로 자기 집 근처에서 밤의 거의 내내 헤매다가 새벽녘에야 집에 닿았는데, 그사이 소나기가 여러 번 세차게 쏟아져 나뭇잎이 흠뻑 젖어 있어서 둘 다 살갗까지 젖었다고 했다. 흔히 말하듯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어둠이 짙은 밤에는 마을 거리에서도 길을 잃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 변두리에 사는 몇몇은 짐마차를 타고 장을 보러 읍에 왔다가 하룻밤 묵어 가야 했고, 남의 집을 찾아가던 신사 숙녀들은 발로만 보도를 더듬으며 언제 길을 돌았는지도 모른 채 반 마일이나 길을 벗어났다. 언제든 숲에서 길을 잃는 것은 놀랍고 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값진 경험이다. 눈보라 속에서는 낮에도 잘 아는 길로 나서고서 어느 쪽이 마을로 가는 길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그 길을 천 번은 다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의 생김새 하나 알아볼 수 없고, 길은 시베리아의 어느 길처럼 낯설다. 밤이라면 물론 그 당혹은 끝없이 더 크다. 아무리 하찮은 산책에서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채로 끊임없이 잘 아는 등대와 곶을 길잡이로 삼아 도선사처럼 배를 몰며, 늘

다니던 뱃길을 벗어나도 마음속으로는 가까운 어느 곶의 방위를 지니고 다닌다. 그리고 완전히 길을 잃거나 방향을 잃고 나서야 (이 세상에서 길을 잃으려면 눈을 감고 한 번 빙 돌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자연이 얼마나 광대하고 낯선지를 실감한다. 사람은 잠에서든 어떤 넋 놓음에서든 깨어날 때마다 나침반의 방위를 다시 익혀야 한다. 길을 잃고 나서야, 바꾸어 말해 세상을 잃고 나서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맺은 관계가 얼마나 끝없이 넓은지를 깨닫는다.

첫 여름이 끝나 갈 무렵 어느 오후, 구둣방에 맡긴 신을 찾으러 마을에 갔다가 나는 붙잡혀 감옥에 갇혔다. 다른 데서 이야기했듯이, 의사당 문 앞에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를 가축처럼 사고파는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목적으로 숲에 갔었다. 그러나 사람이 어디로 가든 사람들은 그를 쫓아와 그들의 더러운 제도로 그를 주무르고, 할 수만 있으면 그를 그들의 절망적인 오드펠로 결사 같은 사회에 억지로 들게 한다.[1] 내가 힘으로 맞섰다면 얼마간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르고, 사회를 향해 "아모크"처럼 미쳐 날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회가 나를 향해 "아모크"처럼 미쳐 날뛰는 쪽을 택했다. 절망적인 쪽은 사회였으니까. 아무튼 나는 이튿날 풀려나 수선한 신을 찾았고, 때맞추어 숲으로 돌아와 페어헤이븐 언덕에서 허클베리로 저녁을 먹었다. 국가를 대표하는 자들 말고는 누구에게도 나는 시달린 적이 없었다. 원고를 넣어 둔 책상 말고는 자물쇠도 빗장도 없었고, 문고리나 창문에 박을 못 하나조차 없었다. 며칠씩 집을 비울 때에도 나는 밤이나 낮이나 문을 잠근 적이 없었다. 이듬해 가을 메인주의 숲에서 보름을 보냈을 때에도 그랬다. 그런데도 내 집은 병사들이 줄지어 둘러싸고 있을 때보다 더 존중을 받았다. 지친 나그네는 내 불가에서 쉬며 몸을 녹일 수 있었고, 글을 즐기는 사람은 내

탁자에 놓인 몇 권 안 되는 책으로 소일할 수 있었으며, 호기심 많은 사람은 찬장 문을 열어 내 점심에서 무엇이 남았는지, 내가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 전망인지 볼 수 있었다. 온갖 계층의 많은 사람이 이 길로 호수에 왔지만 나는 그 때문에 이렇다 할 불편을 겪지 않았다. 잃어버린 것이라고는 작은 책 한 권, 호메로스 한 권뿐이었는데, 아마 금박을 잘못 입힌 탓이었을 것이다. 지금쯤은 우리 진영의 어느 병사가 그것을 찾아냈으리라 믿는다. 모든 사람이 그때의 나처럼 단순하게 산다면 도둑질과 강도질은 알려지지도 않으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런 일은 어떤 이들은 넉넉한 것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다른 이들은 모자라게 가진 사회에서만 일어난다. 포프가 옮긴 호메로스도 곧 제대로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2]

"Nec bella fuerunt,
Faginus astabat dum scyphus ante dapes."

"사람들을 괴롭히는 전쟁도 없었다,
너도밤나무 사발만을 찾던 시절에는."

"나랏일을 다스리는 이가 형벌을 쓸 까닭이 무엇인가? 덕을 사랑하라. 그러면 백성이 덕스러워질 것이다.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다. 풀은 바람이 그 위로 지나가면 눕는다."[3]

---

1. 오드펠로: 상조 친목 단체 「오드펠로 독립 결사」. odd fellow에는 「괴짜」라는 뜻도 있다.

2. 다음 라틴어 시는 티불루스, 『비가』 제1권 10편. 그다음 두 행은 소로가 붙인 영역이다.

3. 『논어』 「안연」 편.

호수들

이따금 사람들과 어울리고 수다를 떠는 데 물리고 마을 친구들도 다 지치게 해 버리면, 나는 평소 사는 곳보다 더 서쪽으로, 읍에서도 사람 발길이 더 뜸한 곳으로 "싱싱한 숲과 새 목장을 찾아" 헤매고 다녔다. 또는 해 질 무렵 페어헤이븐 언덕에서 허클베리와 블루베리로 저녁을 때우고 며칠 먹을 것을 모아 두기도 했다. 열매는 그것을 사는 사람에게도, 시장에 내려고 기르는 사람에게도 참맛을 내주지 않는다. 그 맛을 얻는 길은 하나뿐인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드물다. 허클베리 맛을 알고 싶거든 소 치는 아이나 자고새에게 물어보라. 한 번도 따 보지 않고서 허클베리를 맛보았다고 여기는 것은 흔한 착각이다. 허클베리는 보스턴까지 가는 법이 없다. 보스턴의 세 언덕에 허클베리가 자라던 시절 뒤로 그곳에서는 허클베리를 아는 사람이 없다. 열매에서 신들의 음식 같은 정수는 시장 수레에서 문질러 벗겨지는 뽀얀 분과 함께 사라지고, 열매는 한낱 꼴이 되고 만다. 영원한 정의가 다스리는 한, 순진한 허클베리 한 알도 시골 언덕에서 그리로 실려 갈 수 없다.

가끔은 그날 김매기를 마친 뒤, 아침부터 호수에서 낚시하던 성마른 벗에게 갔다. 그는 오리나 물에 뜬 나뭇잎처럼 말없이 꼼짝 않고 앉아 갖가지 철학을 실천해 본 끝에, 내가 닿을 즈음이면 대개 자기가 오래된 수도사(Cænobites) 종파에 속한다는 결론을 내려 두곤 했다.[1] 나이 든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뛰어난 낚시꾼이자 숲에서 하는 온갖 일에 능숙한 그는 내 집을 낚시꾼들의 편의를 위해 지은 건물로 여기며

기꺼워했고, 나도 그가 내 문간에 앉아 낚싯줄을 손질하는 것이 그만큼 기꺼웠다. 이따금 우리는 함께 호수에 나가 그는 배 한쪽 끝에, 나는 다른 쪽 끝에 앉았다. 그러나 둘 사이에 오간 말은 많지 않았다. 그는 늘그막에 귀가 먹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가 가끔 찬송가를 흥얼거렸는데, 그 가락이 내 철학과 제법 잘 어울렸다. 그러니 우리의 사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깨지지 않은 화음이었고, 말로 나누었더라면 이만큼 즐겁게 떠올릴 수 없었을 것이다. 흔히 그렇듯이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면, 나는 노로 뱃전을 두드려 메아리를 일으키곤 했다. 둥글게 넓어지며 퍼져 나가는 소리로 둘레 숲을 가득 채우고, 동물원 사육사가 맹수들을 들쑤시듯 숲을 들쑤셔서, 마침내 나무 우거진 골짜기와 산비탈마다 으르렁 소리를 끌어냈다.

따뜻한 저녁이면 나는 자주 배에 앉아 피리를 불었고, 내가 홀리기라도 한 듯 농어들이 내 둘레를 맴도는 모습과, 숲의 잔해가 흩어진 골진 바닥 위로 달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전에도 나는 이따금 캄캄한 여름밤에 벗과 함께 모험 삼아 이 호수에 오곤 했다. 물가 가까이 불을 피우면 물고기가 모여든다고 여겼기에, 우리는 실에 지렁이를 한 묶음 꿰어 메기를 낚았고, 밤이 깊어 낚시를 마치면 불붙은 장작을 불꽃놀이 폭죽처럼 공중 높이 던졌다. 장작은 호수로 떨어지며 요란하게 쉬익 소리를 내고 꺼졌고, 우리는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더듬었다. 그 어둠을 뚫고 휘파람으로 노래를 불며 우리는 다시 사람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기슭에 집을 마련해 두었다.

때로는 마을의 어느 집 응접실에서 식구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머물다가 숲으로 돌아와서, 얼마간은 이튿날 저녁거리를 마련할 생각으로 한밤의 몇 시간을 달빛 아래 배에서 낚시하며 보냈다. 올빼미와 여우가 세레나데를 불러 주었고, 가까이서 이름 모를 새가 끼익거리는 소리가 이따금 들렸다. 이런 경험은 내게 무척 기억할

만하고 값진 것이었다. 깊이 40피트 물에, 기슭에서 20~30로드 떨어진 곳에 닻을 내리고 있으면, 때로는 달빛 비친 수면에 꼬리로 보조개를 짓는 수천 마리 작은 농어와 피라미에 둘러싸였고, 긴 삼실 낚싯줄 하나로 40피트 아래 사는 신비로운 밤 물고기들과 통했으며, 때로는 부드러운 밤바람에 배가 떠밀리는 대로 60피트 낚싯줄을 끌고 호수를 돌아다녔다. 그러다 이따금 줄을 타고 가느다란 떨림이 전해 오면, 줄 끝에서 어떤 생명이 어슬렁거린다는 뜻이었다. 그 생명의 뜻은 둔하고 흐릿하고 갈팡질팡해서 좀처럼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마침내 손을 번갈아 줄을 천천히 당겨 올리면, 뿔메기 한 마리가 끽끽거리고 몸부림치며 위쪽 공기 속으로 올라온다. 특히 캄캄한 밤, 생각이 다른 천체의 광대한 우주 생성의 주제로 떠돌고 있을 때 이 희미한 당김을 느끼는 것은 무척 묘한 일이었다. 그 당김이 와서 꿈을 끊고 우리를 다시 자연에 이어 주었다. 다음에는 공기보다 별로 더 짙지도 않은 이 물이라는 원소 아래로만이 아니라, 공기 속 위로도 낚싯줄을 던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렇게 나는 이를테면 낚싯바늘 하나로 물고기 두 마리를 잡았다.

◆

월든의 풍경은 규모가 소박해서, 무척 아름답기는 하지만 웅장함에 이르지는 못하고, 오래 드나들었거나 그 기슭에 살아 본 사람이 아니면 그리 마음 쓸 만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호수는 깊이와 맑기가 남달라서 따로 자세히 그려 볼 만하다. 월든은 맑고 깊은 초록 우물이다. 길이 ½마일, 둘레 1¾마일에 넓이는 61½에이커쯤 되며, 소나무와 떡갈나무 숲 한가운데서 마르지 않는 샘으로, 구름과 증발 말고는 눈에 보이는 들목도 날목도 없다. 둘레 언덕들은 물가에서 가파르게 솟아

높이가 40피트에서 80피트에 이르고, 남동쪽과 동쪽에서는 ¼마일과 ⅓마일 안에서 저마다 100피트와 150피트쯤까지 올라간다. 언덕은 온통 숲이다. 우리 콩코드의 물은 모두 적어도 두 가지 빛깔을 띤다. 하나는 멀리서 볼 때의 빛깔이고, 다른 하나는 가까이서 볼 때의 더 제 것다운 빛깔이다. 앞의 것은 빛에 더 많이 달려 있어서 하늘을 따른다. 맑은 날씨에, 여름이면 조금 떨어져서 볼 때, 특히 물결이 일 때 푸르게 보이고, 아주 멀리서는 모두 똑같아 보인다. 날이 사나우면 때로 짙은 석판 빛을 띤다. 그런데 바다는 대기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데도 어느 날은 푸르고 어느 날은 초록이라고 한다. 나는 온 풍경이 눈에 덮였을 때 우리 강의 물과 얼음이 둘 다 거의 풀처럼 초록인 것을 본 적이 있다. 어떤 이들은 푸른색을 "액체든 고체든 맑은 물의 빛깔"로 여긴다. 그러나 배에서 우리 물을 곧바로 내려다보면 사뭇 다른 빛깔들이 보인다. 월든은 같은 자리에서 보아도 어느 때는 푸르고 어느 때는 초록이다. 땅과 하늘 사이에 놓여 있어 둘의 빛깔을 함께 나누어 가진다. 언덕 꼭대기에서 보면 하늘빛을 비추지만, 가까이서 보면 모래가 보이는 물가 쪽은 누르스름하고, 그다음은 연초록이며, 그 초록이 차츰 짙어져 호수 몸통에서는 고르게 짙은 초록이 된다. 빛에 따라서는 언덕 꼭대기에서 보아도 물가 쪽이 선명한 초록이다. 이것을 둘레 푸나무가 비친 탓으로 돌린 사람들도 있지만, 철둑의 모래 비탈을 마주한 곳도 똑같이 초록이고 잎이 펴지기 전인 봄에도 그러니, 이것은 그저 주된 푸른색에 모래의 노란색이 섞인 결과일지도 모른다. 이것이 월든의 홍채 빛깔이다. 또 이곳은 봄이 되면 바닥에서 되비친 햇볕과 땅을 타고 전해 온 열에 데워진 얼음이 맨 먼저 녹아, 아직 얼어 있는 한가운데를 둘러 좁은 물길을 내는 자리이기도 하다. 우리의 다른 물과 마찬가지로, 맑은 날 물결이 크게 일면 물결의 겉면이 알맞은 각도로 하늘을 비추기 때문인지, 아니면 빛이 더 많이 섞이기 때문인지, 월든은 조금 떨어져서

보면 하늘보다 더 짙은 푸른색으로 보인다. 그런 때 물 위에 떠서 비친 모습을 보려고 시선을 둘로 나누어 바라보면, 나는 비할 데 없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연푸른 빛을 알아보았다. 물결무늬 비단이나 보는 각도에 따라 빛이 바뀌는 비단, 칼날을 떠올리게 하는, 하늘보다 더 하늘빛인 그 빛은 물결 맞은편 비탈의 본디 짙은 초록과 번갈아 나타났는데, 그 초록은 견주어 보면 흙탕물 같기만 했다. 내 기억으로 그것은 유리 같은 초록빛 푸른색이고, 해 지기 전 서쪽 구름 틈으로 보이는 겨울 하늘 조각들과 같다. 그런데도 그 물을 한 잔 떠서 빛에 비추어 보면 같은 양의 공기처럼 아무 빛깔이 없다. 큰 판유리에는 초록빛이 돌지만 같은 유리의 작은 조각은 빛깔이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유리 만드는 사람들은 그 까닭을 유리의 "몸통"에 돌린다. 월든의 물이 얼마나 큰 몸통이 되어야 초록빛을 비추는지 나는 끝내 밝혀 보지 못했다. 우리 강의 물은 곧바로 내려다보는 사람에게 검거나 아주 짙은 갈색이고, 대부분의 호수 물처럼 그 안에서 멱 감는 사람의 몸에 누르스름한 빛을 입힌다. 그러나 이 물은 수정처럼 맑아서 멱 감는 사람의 몸이 설화석고처럼 하얗게 보이는데, 그것이 더욱 부자연스러운 데다 팔다리가 크게 비치고 일그러지기까지 해서 기괴한 효과를 내니, 미켈란젤로가 습작으로 삼기에 알맞다.

물이 하도 투명해서 깊이 25피트나 30피트의 바닥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 위로 노를 저어 가면 수면 몇 피트 아래로 길이가 겨우 1인치쯤 되는 농어와 피라미 떼가 보이는데, 농어는 가로 줄무늬로 쉽게 가려낼 수 있다. 저런 곳에서 먹고사는 물고기라면 금욕하는 수도자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해 전 어느 겨울, 강꼬치고기를 잡으려고 얼음에 구멍을 뚫다가 물가로 올라서면서 도끼를 얼음 위로 도로 던졌는데, 무슨 심술궂은 정령이 이끌기라도 한 듯 도끼가 4~5로드를 곧장 미끄러져 구멍 하나로 빠져 버렸다. 그곳의 물 깊이는 25피트였다.

궁금해서 얼음 위에 엎드려 구멍으로 들여다보니, 마침내 조금 비켜난 자리에 도끼가 머리를 바닥에 박고 거꾸로 서서, 곧추세운 자루를 호수의 맥박에 맞추어 이리저리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내가 건드리지 않았더라면 도끼는 세월이 흘러 자루가 썩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곧추서서 흔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가지고 있던 얼음끌로 바로 그 위에 구멍을 하나 더 내고, 근처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긴 자작나무를 칼로 베어 그 끝에 올가미를 매단 다음, 그것을 조심조심 내려 자루 끝의 손잡이에 걸고 자작나무를 따라 늘인 줄로 당겨서 도끼를 다시 끌어냈다.

기슭은 포석 같은 매끄럽고 둥근 흰 돌이 띠를 이루고 있으며, 짧은 모래톱이 한두 곳 있을 뿐이다. 기슭이 하도 가팔라서 여러 곳에서 한 번만 뛰어들어도 머리 위까지 물에 잠긴다. 물이 남달리 투명하지 않았더라면 바닥은 거기서 마지막으로 보이고는 맞은편에 가서야 다시 솟아오를 것이다. 바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어디에도 진흙이 없고, 대충 보는 사람은 물풀이 전혀 없다고 말할 것이다. 눈에 띄는 식물로 말하면, 이 호수에 본디 딸린 곳이 아니라 최근에 물에 잠긴 작은 풀밭들을 빼면, 더 꼼꼼히 살펴도 붓꽃이나 골풀 하나, 노랗거나 흰 수련 하나 없고, 심장 모양 잎을 단 작은 물풀 몇 포기와 가래 몇 포기, 어쩌면 순채 한두 포기가 있을 뿐이다. 그나마 멱 감는 사람은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식물들은 그것이 자라는 물처럼 깨끗하고 맑다. 돌은 물속으로 1~2로드 뻗어 있고, 그다음부터 바닥은 순전한 모래인데, 가장 깊은 곳에는 대개 앙금이 조금 깔려 있다. 아마도 수없는 가을 동안 바람에 실려 와 쌓인 낙엽이 썩은 것이리라. 한겨울에도 닻에 선명한 초록 물풀이 걸려 올라온다.

우리에게는 이것과 꼭 닮은 호수가 하나 더 있다. 서쪽으로 2½마일쯤 떨어진 나인에이커 코너의 화이트 호수다. 이곳을 중심으로 12마일 안에

있는 호수는 거의 다 알지만, 이렇게 맑고 우물 같은 호수를 셋째로는 알지 못한다. 여러 민족이 차례로 이 물을 마시고 우러러보고 깊이를 재고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물은 여전히 예전처럼 초록이고 맑다. 때때로 끊기는 샘이 아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던 그 봄날 아침에도 월든 호수는 이미 있었고, 그때도 안개와 남풍을 거느린 부드러운 봄비 속에 얼음이 풀리고 있었으며, 아직 타락 소식을 듣지 못한 무수한 오리와 기러기에 덮여 있었을 것이다. 그때는 이런 맑은 호수로 그들에게 넉넉했다. 그때 이미 물이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물을 맑게 걸러 지금 띤 빛깔로 물들였으며, 이 세상에 하나뿐인 월든 호수이자 하늘 이슬을 거르는 증류기가 되라는 하늘의 특허를 받았다. 기억되지 못한 얼마나 많은 민족의 문학에서 이 호수가 카스탈리아 샘이었는지 누가 알겠는가? 황금시대에 어떤 님프들이 이 호수를 다스렸는지 누가 알겠는가? 이 호수는 콩코드가 왕관에 박은, 물빛이 으뜸인 보석이다.

그래도 이 우물에 처음 온 이들은 어쩌면 발자국을 조금 남겼을 것이다. 나는 호수를 빙 둘러, 기슭의 울창한 숲을 막 베어 낸 곳에서도, 가파른 산비탈에 선반처럼 좁은 길이 나 있는 것을 알아보고 놀랐다. 그 길은 오르락내리락하며 물가에 다가갔다 멀어졌다 하는데, 아마 이곳에 사람이 산 만큼 오래되었을 것이다. 원주민 사냥꾼들의 발에 닳은 길이고, 지금 이 땅을 차지한 사람들도 저도 모르게 이따금 그 길을 밟는다. 겨울에 가벼운 눈이 막 내린 뒤 호수 한가운데 서서 보면 그 길이 특히 또렷하다. 물풀이나 잔가지에 가리지 않은 맑은 흰 물결선으로 드러나서, 여름이면 가까이서도 거의 알아볼 수 없던 많은 곳이 ¼마일 밖에서도 뚜렷하다. 눈이 이를테면 맑은 흰 활자의 돋을새김으로 그 길을 다시 찍어 내는 셈이다. 언젠가 이곳에 지어질 별장들의 꾸민 뜰에도 그 자취가 얼마간 남을지 모른다.

호수는 물이 오르내리지만, 그것이 규칙적인지 아닌지, 얼마를 주기로 그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도 여느 때처럼 안다고 우기는 사람은 많다. 대개 겨울에 높고 여름에 낮지만, 날씨가 전반적으로 궂거나 가문 것과는 들어맞지 않는다. 나는 내가 이 호숫가에 살 때보다 물이 1~2피트 낮았던 때도, 적어도 5피트 높았던 때도 기억한다. 호수 안으로 좁은 모래톱이 하나 뻗어 있는데 한쪽은 물이 아주 깊다. 1824년 무렵 나는 본디 기슭에서 6로드쯤 나간 그 모래톱에서 차우더 한 솥을 끓이는 일을 거든 적이 있는데, 지난 스물다섯 해 동안은 그럴 수가 없었다. 한편, 그 몇 해 뒤 내가 숲속 외진 후미에서 배를 띄우고 낚시하곤 했으며 그곳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기슭에서 15로드나 떨어져 있었다고 말하면, 벗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듣곤 했다. 그곳은 오래전에 풀밭이 되었다. 그러나 호수는 두 해 동안 줄곧 차올라, 지금 1852년 여름에는 내가 그곳에 살 때보다 꼭 5피트 높고 서른 해 전만큼 높아서, 그 풀밭에서 다시 낚시를 한다. 그러니 수위 차는 많아야 6~7피트다. 그런데 둘레 언덕에서 흘러드는 물은 양이 보잘것없으니, 이 넘침은 깊은 샘에 미치는 원인에서 찾아야 한다. 바로 올여름 호수는 다시 낮아지기 시작했다. 이 오르내림이 주기적이든 아니든 한 번 이루어지는 데 여러 해가 걸리는 듯하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나는 한 번 오르는 것과 두 번 내리는 것의 일부를 지켜보았는데, 지금부터 열두 해나 열다섯 해 뒤에는 물이 다시 내가 알던 가장 낮은 수위만큼 내려가리라고 본다. 동쪽으로 1마일 떨어진 플린트 호수도, 들목과 날목 때문에 생기는 흔들림을 감안하면,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작은 호수들도 월든과 함께 오르내리며, 최근에 월든과 같은 때 가장 높은 수위에 이르렀다. 내가 살펴본 바로는 화이트 호수도 마찬가지다.

월든이 긴 간격을 두고 이렇게 오르내리는 데는 적어도 쓸모가 하나 있다. 물이 한 해나 그 이상 이렇게 높이 차 있으면 호수를 걸어서

돌기는 어렵지만, 지난번 물이 찬 뒤로 물가에 돋아난 관목과 나무들, 곧리기다소나무, 자작나무, 오리나무, 사시나무 같은 것들이 죽고, 물이 다시 빠지면 막힘 없는 기슭이 남는다. 다른 많은 호수나 날마다 조수가 드나드는 모든 물과 달리, 월든의 기슭은 물이 가장 낮을 때 가장 깨끗하기 때문이다. 내 집 쪽 호숫가에는 높이 15피트의 리기다소나무가 한 줄로 죽어 지렛대로 밀어 넘긴 듯 쓰러져 있고, 그렇게 해서 나무들의 침범이 멈추었다. 그 크기를 보면 지난번에 물이 이 높이까지 오른 지 몇 해가 지났는지 알 수 있다. 이 오르내림으로 호수는 기슭에 대한 제 권리를 주장한다. 그렇게 *기슭*은 *깎이고*(shore, shorn), 나무들은 점유를 내세워 기슭을 차지하지 못한다. 이것이 호수의 입술이고, 거기에는 수염이 자라지 않는다. 호수는 이따금 제 입가를 핥는다. 물이 가장 높을 때면 오리나무, 버드나무, 단풍나무는 버티려고 애쓰며 물에 잠긴 줄기 사방에서, 땅에서 3~4피트 높이까지, 길이가 몇 피트나 되는 붉은 실뿌리를 한 무더기씩 내민다. 또 나는 여느 때는 열매를 맺지 않는 호숫가의 키 큰 블루베리 덤불이 이럴 때 열매를 푸짐하게 맺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기슭이 어떻게 이토록 고르게 포장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해 어리둥절해한 사람들이 있다. 읍 사람들은 모두 옛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다. 가장 나이 많은 이들은 젊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내게 말한다. 옛날 원주민들이 이곳 언덕 위에서 주술 모임을 열고 있었는데, 그 언덕은 지금 호수가 땅속 깊이 꺼져 있는 만큼 하늘 높이 솟아 있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불경한 말을 많이 했다. 원주민이 한 번도 저지른 적 없는 악덕인데도 그렇다고 한다. 그들이 그러고 있는 사이 언덕이 흔들리더니 갑자기 꺼져 버렸고, 월든이라는 원주민 노파 하나만 살아남았고, 호수 이름은 그 노파에게서 따왔다. 언덕이 흔들릴 때 이 돌들이 비탈로 굴러 내려 지금의 기슭이 되었다고들 짐작해 왔다.

어쨌든 한때 여기에 호수가 없었고 지금은 있다는 것만은 아주 확실하다. 이 원주민 설화는 내가 앞서 말한 옛 정착민의 이야기와도 어느 모로 보나 어긋나지 않는다. 그는 점지팡이를 들고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잔디에서 엷은 김이 피어오르고 개암나무 가지가 줄곧 아래를 가리키는 것을 보고 이곳에 우물을 파기로 한 일을 아주 잘 기억한다. 돌로 말하면, 이 언덕들에 부딪는 물결의 작용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그러나 내가 보니 둘레 언덕들에는 같은 종류의 돌이 유난히 많아서, 사람들은 호수에서 가장 가까운 철로의 깎은 땅 양쪽에 그 돌로 담을 쌓아 올려야 했다. 게다가 기슭이 가장 가파른 곳에 돌이 가장 많다. 그러니 유감스럽게도 내게는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니다. 나는 포장한 장인을 알아보았다. 그 이름이 영국의 어느 고장, 이를테면 새프런월든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본디 *월드인*(Walled-in), 곧 담을 두른 호수라고 불렸으리라고 짐작해 볼 수도 있겠다.

호수는 이미 파 놓은 내 우물이었다. 한 해 가운데 넉 달 동안 그 물은 늘 맑은 만큼 차갑기도 하다. 그때는 읍에서 가장 좋다고까지는 못 해도 어느 물 못지않게 좋다고 나는 생각한다. 겨울에는 공기에 드러난 물이 모두 공기를 피해 있는 샘이나 우물보다 차갑다. 오후 다섯 시부터 이튿날인 1846년 3월 6일 낮 열두 시까지 내가 앉아 있던 방에 놓아둔 호수 물의 온도는, 지붕에 내리쬔 햇볕 탓도 있어 온도계가 한동안 화씨 65도나 70도까지 올라갔는데도,[2] 화씨 42도로 마을에서 가장 차가운 우물 가운데 하나에서 막 길어 올린 물보다 1도 낮았다. 같은 날 보일링 샘의 온도는 화씨 45도로 재 본 물 가운데 가장 따뜻했지만, 그 샘은 내가 아는 한 여름에 가장 차가운 물이다. 여름에는 게다가 얕게 고인 지표의 물이 그 샘에 섞이지 않는다. 또 여름에도 월든은 깊어서 햇볕에 드러난 대부분의 물만큼 따뜻해지는 일이 없다. 가장 더운 날씨에 나는

대개 한 들통을 지하 저장고에 두었는데, 그 물은 밤사이 시원해져 낮 동안 내내 시원했다. 근처의 샘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말이다. 그 물은 한 주가 지나도 떠 온 날만큼 좋았고 펌프 맛이 나지 않았다. 여름에 호숫가에서 한 주 야영하는 사람은 야영지 그늘에 물 한 들통을 몇 피트 깊이로 묻어 두기만 하면 얼음이라는 사치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

월든에서는 7파운드짜리 강꼬치고기가 잡혔고, 엄청난 속도로 릴을 끌고 달아난 놈도 하나 있었는데 낚시꾼은 그놈을 보지 못했으니 안심하고 8파운드로 쳤다. 그 밖에 저마다 2파운드가 넘는 것도 있는 농어와 메기, 피라미, 치빈이나 로치라고도 부르는 황어(*Leuciscus pulchellus*), 아주 드문 브림 몇 마리, 장어 두어 마리가 잡혔는데, 장어 하나는 4파운드였다. 내가 이렇게 꼼꼼히 적는 것은 물고기의 무게가 대개 그 물고기가 이름을 떨칠 유일한 자격이기 때문이고, 이곳에서 내가 들어 본 장어는 이것들뿐이기 때문이다. 또 길이 5인치쯤에 옆구리는 은빛이고 등은 초록빛이 도는, 생김새가 황어 비슷한 작은 물고기도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이것을 여기 적는 것은 주로 내 사실을 전설에 잇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이 호수에는 물고기가 그리 많지 않다. 강꼬치고기는 많지는 않아도 이 호수의 으뜸 자랑거리다. 나는 얼음 위에 적어도 세 종류의 강꼬치고기가 한꺼번에 놓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하나는 길고 납작하며 강철빛으로 강에서 잡히는 것과 가장 닮았고, 하나는 초록빛이 어리는 밝은 금빛에 몸이 유난히 높아 이곳에서 가장 흔하며, 또 하나는 금빛에 생김새는 앞의 것과 같지만 옆구리에 작은 짙은 갈색이나 검은 점이 흩뿌려져 있고 희미한 핏빛 점이 몇 개 섞여 있어 송어와 무척 닮았다. 이것에는 *reticulatus*(그물무늬)라는 종명이 맞지 않는다. 오히려 *guttatus*(점박이)라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살이 무척 단단한 물고기여서 크기로 보아 짐작하는 것보다 무게가 더 나간다. 피라미와

메기와 농어도, 아니 이 호수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물이 더 맑은 만큼 강이나 다른 대부분의 호수에 사는 것들보다 훨씬 깨끗하고 잘생기고 살이 단단해서 쉽게 가려낼 수 있다. 아마 많은 어류학자가 이 가운데 몇몇을 새 변종으로 삼을 것이다. 또 깨끗한 개구리와 거북 무리와 민물조개 몇이 산다. 사향쥐와 밍크가 호숫가에 자취를 남기고, 이따금 떠돌이 늪거북이 찾아온다. 때로 아침에 배를 밀어 띄우다가 밤새 배 밑에 숨어 있던 큰 늪거북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봄과 가을에는 오리와 기러기가 자주 찾아오고, 흰배제비(*Hirundo bicolor*)가 수면을 스치며 날고, 점박이도요(*Totanus macularius*)가 여름 내내 돌 많은 기슭을 따라 "까딱까딱" 걷는다. 나는 물 위로 뻗은 스트로브잣나무에 앉은 물수리를 놀라게 해 날려 보낸 적도 있다. 그러나 이 호수가 페어헤이븐처럼 갈매기의 날갯바람에 더럽혀진 적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기껏해야 해마다 아비 한 마리를 참아 줄 뿐이다. 지금 이곳을 드나드는 웬만한 짐승은 이것이 전부다.

잔잔한 날 배에서 보면, 물 깊이가 8~10피트인 모래 많은 동쪽 기슭 가까이와 호수의 다른 몇 곳에, 지름 6피트쯤에 높이 1피트쯤 되는 둥근 무더기들이 보인다. 달걀보다 작은 돌로 쌓은 것인데 둘레는 온통 맨모래다. 처음에는 원주민들이 무슨 목적으로 얼음 위에 그것을 쌓았고 얼음이 녹자 바닥으로 가라앉은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너무 고르고, 몇몇은 누가 봐도 너무 새것이다. 강에서 보는 것과 비슷하지만, 이곳에는 서커도 칠성장어도 없으니 어떤 물고기가 그것을 만들었는지 나는 모른다. 어쩌면 황어의 둥지일지도 모른다. 이 무더기들은 바닥에 기분 좋은 신비를 더해 준다.

기슭은 단조롭지 않을 만큼 들쭉날쭉하다. 내 마음의 눈에는 깊은 만이 파고든 서쪽 기슭과, 더 우뚝한 북쪽 기슭과, 아름답게 물결무늬를 그린 남쪽 기슭이 선하다. 남쪽 기슭에서는 곶들이 잇달아 서로 겹쳐서

그 사이에 아직 아무도 탐험하지 않은 후미가 있을 듯하다. 물가에서 바로 솟아오르는 언덕들에 둘러싸인 작은 호수 한가운데서 볼 때만큼 숲이 좋은 테두리를 갖추고 또렷이 아름다운 때는 없다. 숲이 비치는 물은 그럴 때 가장 좋은 앞경치가 될 뿐 아니라, 굽이진 기슭으로 숲에 가장 자연스럽고 보기 좋은 경계를 지어 주기 때문이다. 도끼로 한 자락을 베어 냈거나 경작지가 맞닿은 곳과 달리, 그곳 숲 가장자리에는 날것도 모자람도 없다. 나무들은 물 쪽으로 넉넉히 뻗을 자리가 있어서 저마다 가장 힘찬 가지를 그쪽으로 내뻗는다. 거기서 자연은 천 가장자리처럼 올이 풀리지 않는 가두리를 짜 놓았고, 눈은 물가의 낮은 관목에서 가장 높은 나무까지 알맞은 층계를 밟아 올라간다. 사람 손이 간 자취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물은 천 년 전에 그랬듯이 기슭을 씻는다.

호수는 풍경의 이목구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표정이 풍부한 것이다. 그것은 대지의 눈이다. 그 눈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기 본성의 깊이를 잰다. 물가에 자라는 물가 나무들은 그 눈을 두른 가느다란 속눈썹이고, 둘레의 숲 우거진 언덕과 절벽은 그 위로 드리운 눈썹이다.

잔잔한 9월 오후, 엷은 안개로 맞은편 기슭선이 흐릿할 때 호수 동쪽 끝의 매끄러운 모래톱에 서 보고서, 나는 "유리 같은 호수의 수면"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알았다. 고개를 거꾸로 하고 보면 수면은 골짜기를 가로질러 팽팽히 걸린 가장 고운 거미줄 한 가닥 같고, 먼 소나무 숲을 배경으로 반짝이며 대기의 한 켜를 다른 켜와 갈라놓는다. 그 밑으로 걸어서 맞은편 언덕까지 젖지 않고 건너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위를 스치는 제비들이 거기 내려앉을 수 있을 것만 같다. 실제로 제비들은 이따금 실수라도 한 듯 이 선 아래로 뛰어들었다가 착각에서 깨어난다. 호수 너머 서쪽을 바라볼 때는 두 손을 다 써서 진짜 해와 물에 비친 해로부터 눈을 가려야 한다. 둘이 똑같이 밝기 때문이다. 그 둘 사이로

수면을 꼼꼼히 살펴보면 수면은 말 그대로 유리처럼 매끄럽다. 다만 온 수면에 고르게 흩어진 소금쟁이들이 햇빛 속에서 움직이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운 반짝임을 일으키는 곳이나, 어쩌다 오리가 깃을 다듬는 곳이나, 앞서 말했듯이 제비가 수면에 닿을 만큼 낮게 스치는 곳은 예외다. 멀리서 물고기 한 마리가 공중에 3~4피트 활을 그리면 솟아오른 자리에서 한 번, 물에 떨어진 자리에서 또 한 번 번쩍인다. 때로는 은빛 활 전체가 드러난다. 또는 여기저기 엉겅퀴 솜털이 수면에 떠 있다가 물고기가 그것을 덮치면 다시 보조개가 진다. 수면은 식었으나 아직 굳지 않은 녹은 유리 같고, 그 안의 몇 안 되는 티끌은 유리 속의 흠처럼 깨끗하고 아름답다. 보이지 않는 거미줄로, 물의 님프들이 친 방책으로 나머지와 갈라놓은 듯이 한결 더 매끄럽고 짙은 물이 그 위에 머문 것도 흔히 알아볼 수 있다. 언덕 꼭대기에서 보면 거의 어느 곳에서나 물고기가 뛰는 것이 보인다. 강꼬치고기나 피라미 한 마리라도 이 매끄러운 수면에서 벌레를 낚아채면 반드시 호수 전체의 평형이 눈에 띄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 단순한 사실이 얼마나 공들여 널리 알려지는지 놀랍다. 물고기 살인도 드러나게 마련이어서, 멀리 떨어진 내 횃대에서도 지름이 6로드나 되는 둥근 물결을 가려볼 수 있다. ¼마일 밖에서 쉬지 않고 매끄러운 수면을 나아가는 물매암이(*Gyrinus*)도 알아볼 수 있다. 물매암이는 물을 살짝 갈아엎어, 벌어지는 두 선으로 둘러싸인 눈에 띄는 잔물결을 일으키지만, 소금쟁이는 눈에 띄는 잔물결 하나 없이 미끄러지기 때문이다. 수면이 꽤 일렁일 때는 소금쟁이도 물매암이도 없지만, 잔잔한 날에는 저마다 항구를 떠나 짧게 툭툭 밀어 가며 모험하듯 기슭에서 미끄러져 나와 마침내 수면을 온통 덮는 듯하다. 햇볕의 따스함이 한껏 고마운 가을의 맑은 날, 이런 높은 곳의 그루터기에 앉아 호수를 내려다보며, 비친 하늘과 나무들 사이로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수면에 쉼 없이 새겨지는 보조개 동그라미를 살피는

것은 마음을 달래 주는 일이다. 이 드넓은 수면에서는 무슨 흔들림이 일어나도 곧 이렇게 부드럽게 다독여져 가라앉는다. 물 담긴 꽃병을 흔들면 떨리는 동그라미들이 가장자리로 밀려가고 다시 모든 것이 잔잔해지는 것과 같다. 물고기 한 마리가 뛰거나 벌레 한 마리가 호수에 떨어져도 그 소식은 이렇게 동그라미 보조개로, 아름다운 선으로 전해지니, 마치 샘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 같고, 호수의 생명이 부드럽게 맥박 치는 것 같고, 그 가슴이 들먹이는 것 같다. 기쁨의 떨림과 아픔의 떨림을 가려낼 수 없다. 호수의 현상들은 얼마나 평화로운가! 사람이 지은 것들도 다시 봄날처럼 빛난다. 그렇다, 한낮이 기운 지금도 잎새 하나, 잔가지 하나, 돌 하나, 거미줄 하나까지 봄날 아침 이슬에 덮였을 때처럼 반짝인다. 노나 벌레가 움직일 때마다 빛이 번쩍이고, 노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 메아리는 얼마나 감미로운가!

9월이나 10월의 이런 날, 월든은 완벽한 숲의 거울이다. 둘레에 박힌 돌들은 더 적고 더 드문 것이기라도 한 듯 내 눈에 귀하다. 땅 위에 호수만큼 아름답고 맑으면서 그토록 큰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늘 물. 울타리가 필요 없다. 민족들이 오고 가도 호수를 더럽히지 못한다. 그것은 돌로도 깰 수 없는 거울이고, 수은이 결코 닳아 없어지지 않는 거울이며, 자연이 늘 금박을 손보아 주는 거울이다. 어떤 폭풍도 어떤 먼지도 늘 새로운 그 면을 흐리게 하지 못한다. 그것은 앞에 놓인 모든 더러움이 가라앉는 거울이고, 해가 뽀얀 솔, 곧 이 가벼운 먼지떨이로 쓸고 털어 주는 거울이며, 거기에 내쉰 입김을 남겨 두지 않고 제 입김을 구름으로 띄워 수면 위 높이 떠다니게 하고는 다시 그 품에 비추는 거울이다.

너른 물은 공기 속에 있는 기운을 드러낸다. 물은 끊임없이 위에서 새 생명과 움직임을 받는다. 그 본성은 땅과 하늘 사이에 있다. 땅에서는 풀과 나무만 일렁이지만, 물은 그 자체가 바람에 잔물결을 일으킨다.

나는 빛줄기나 빛 조각을 보고 산들바람이 어디로 물을 가로질러 달려가는지 안다. 우리가 물의 표면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어쩌면 우리는 마침내 이렇게 공기의 표면을 내려다보며, 그보다 더 미묘한 기운이 어디로 그 위를 쓸고 지나가는지 알아보게 될 것이다.

소금쟁이와 물매암이는 매서운 서리가 내린 10월 하순에 마침내 사라진다. 그때부터 11월까지는 대개 잔잔한 날이면 수면에 잔물결을 일으킬 것이 하나도 없다. 며칠 이어진 폭풍우가 끝나 잠잠해진 어느 11월 오후, 하늘은 아직 온통 구름에 덮이고 공기에는 안개가 가득했는데, 나는 호수가 유난히 매끄러워 수면을 가려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호수는 이제 10월의 밝은 빛깔이 아니라 둘레 언덕의 칙칙한 11월 빛깔을 비추고 있었다. 될 수 있는 대로 살며시 지나갔는데도 내 배가 일으킨 가느다란 물결은 거의 눈길이 닿는 데까지 퍼져서 비친 그림자들에 이랑 진 무늬를 입혔다. 그런데 수면을 바라보다가 나는 멀리 여기저기서 희미한 반짝임을 보았다. 서리를 피한 소금쟁이들이 거기 모였는지, 아니면 수면이 하도 매끄러워서 바닥에서 샘이 솟는 곳이 드러났는지 싶었다. 그런 곳 하나로 살며시 노를 저어 가보니, 놀랍게도 나는 길이 5인치쯤 되는 작은 농어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초록 물속에서 짙은 청동빛을 띤 농어들은 그곳에서 장난치며 끊임없이 수면으로 올라와 보조개를 짓고, 때로는 수면에 물방울을 남겼다. 구름을 비추는, 그렇게 투명하고 바닥 없는 듯한 물에서 나는 기구를 타고 공중을 떠가는 듯했고, 농어들이 헤엄치는 모습은 일종의 비행이나 날개를 펴고 떠 있는 모습처럼 느껴졌다. 마치 촘촘한 새 떼가 돛 같은 지느러미를 사방에 펼치고 내 높이 바로 아래 오른쪽과 왼쪽으로 지나가는 것 같았다. 호수에는 이런 무리가 많았는데, 겨울이 넓은 천창에 얼음 덧문을 닫기 전 짧은 철을 한껏 살리는 듯했고, 때로는

수면을 산들바람이 스치거나 빗방울이 몇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내가 무심코 다가가 놀라게 하면, 누가 잎 무성한 가지로 물을 내리친 듯 꼬리로 갑자기 첨벙 물결을 일으키고는 순식간에 깊은 곳으로 숨었다. 마침내 바람이 일고 안개가 짙어지고 물결이 달리기 시작하자, 농어들은 전보다 훨씬 높이, 몸을 반쯤 물 밖으로 내밀며 뛰어올라, 길이 3인치의 검은 점 백 개가 한꺼번에 수면 위로 솟았다. 어느 해에는 12월 5일까지도 수면에 보조개가 지는 것을 보았는데, 공기에 안개가 가득해서 곧 비가 세차게 쏟아지겠거니 싶어 서둘러 노를 잡고 집으로 저어 갔다. 뺨에는 한 방울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빗줄기가 벌써 빠르게 굵어지는 듯해서 흠뻑 젖을 각오를 했다. 그런데 보조개가 갑자기 멎었다. 보조개는 농어들이 낸 것이었고, 농어들은 내 노 소리에 놀라 깊은 곳으로 달아났다. 농어 무리가 흐릿하게 사라져 가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나는 끝내 젖지 않은 오후를 보냈다.

거의 예순 해 전, 호수가 둘레 숲으로 어둑하던 시절에 이곳을 자주 찾던 한 노인은, 그때는 이따금 호수 전체가 오리와 다른 물새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둘레에 독수리도 많았다고 내게 말한다. 그는 이곳에 낚시하러 왔고, 기슭에서 찾은 낡은 통나무배를 썼다. 그 배는 스트로브잣나무 통나무 두 개를 파내어 나무못으로 이어 붙이고 양 끝을 반듯하게 잘라 낸 것이었다. 무척 투박했지만 여러 해를 버티다가 물을 먹고 아마 바닥으로 가라앉았을 것이다. 그는 그 배가 누구 것인지 몰랐다. 배는 호수의 것이었다. 그는 히코리 껍질 오리를 엮어 닻줄을 만들곤 했다. 독립 혁명 전에 호숫가에 살던 늙은 옹기장이가 언젠가 그에게, 바닥에 쇠 궤짝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궤짝은 때로 기슭까지 떠올라 오지만, 다가가면 다시 깊은 물로 물러나 사라진다고 했다. 나는 그 낡은 통나무배 이야기를 듣고 기뻤다. 그 배는 같은 재료로 만들었지만 더 우아하게 지은 원주민의 배를 대신한

것이었다. 원주민의 배는 처음에는 물가에 선 나무였다가 이를테면 물에 쓰러져 한 세대 동안 거기 떠 있었을 테니, 호수에 가장 알맞은 배였다. 처음 이 깊은 물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바닥에 큰 통나무가 많이 흐릿하게 누워 있던 것이 기억난다. 예전에 바람에 쓰러졌거나, 나무가 더 쌌던 시절 마지막으로 벌목할 때 얼음 위에 버려진 것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다.

내가 처음 월든에서 배를 저었을 때, 호수는 빽빽하고 높은 소나무와 떡갈나무 숲에 온통 둘러싸여 있었고, 몇몇 후미에서는 포도덩굴이 물가의 나무들을 타고 올라 배가 그 밑으로 지나갈 수 있는 정자를 이루었다. 기슭을 이루는 언덕들은 무척 가파르고 그 위의 숲은 그때 무척 높아서, 서쪽 끝에서 내려다보면 호수는 숲에서 벌어지는 어떤 구경거리를 위한 원형 극장처럼 보였다. 젊은 시절 나는 여름날 오전이면 배를 한가운데로 저어 가서 의자 위에 가로로 드러누워, 서풍이 이끄는 대로 수면을 떠다니며 눈을 뜬 채 꿈꾸다가, 배가 모래에 닿는 기척에 정신이 들면 내 운명이 나를 어느 기슭으로 떠밀었나 보려고 몸을 일으키곤 하면서 여러 시간을 보냈다. 빈둥거리는 것이 가장 매력 있고 가장 생산적인 일이던 날들이었다. 하루에서 가장 값진 때를 그렇게 보내고 싶어서 나는 많은 오전을 몰래 빠져나왔다. 나는 돈으로는 아니어도 햇빛 비치는 시간과 여름날로는 부자였고, 그것을 아낌없이 썼기 때문이다. 그 시간을 일터나 교사의 책상에서 더 허비하지 않은 것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그 기슭을 떠난 뒤로 나무꾼들은 기슭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고, 이제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숲의 회랑을 거닐며 이따금 트인 틈으로 물을 바라보는 일은 더는 없을 것이다. 나의 무사 여신이 이제부터 입을 다문다 해도 용서받을 만하다. 숲을 베어 버렸는데 어떻게 새들이 노래하기를 바라겠는가?

이제 바닥의 나무줄기도, 낡은 통나무배도, 둘레의 어두운 숲도 사라졌다. 그리고 호수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호수에 가서 멱을 감거나 물을 마시기는커녕, 적어도 갠지스강만큼은 신성해야 할 그 물을 관으로 마을까지 끌어다 설거지를 할 궁리를 하고 있다! 꼭지를 돌리거나 마개를 뽑아 그들의 월든을 얻겠다는 것이다! 귀를 찢는 울음소리가 온 읍에 들리는 저 악마 같은 철마는 발굽으로 보일링 샘을 흐려 놓았고, 월든 기슭의 숲을 모조리 뜯어 먹어 치운 것도 바로 그놈이다. 돈에 팔린 그리스인들이 들여온, 뱃속에 천 명을 품은 저 트로이 목마! 깊은 절개지에서 그놈을 맞아 그 부어오른 역병 덩어리의 갈비뼈 사이로 복수의 창을 찔러 넣을 이 나라의 투사, 무어 언덕의 무어는 어디 있는가?

그런데도 내가 알아 온 모든 인물 가운데 아마 월든이 가장 오래 낡지 않고 그 순수를 가장 잘 지킨다. 많은 사람이 월든에 견주어졌지만 그 영예를 누릴 만한 사람은 드물다. 나무꾼들이 이 기슭을 헐벗기고 저 기슭을 헐벗겼고,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 곁에 돼지우리를 지었으며, 철도가 그 가장자리를 침범했고, 얼음 장수들이 한 번 그 거죽을 걷어 갔지만, 월든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내 젊은 눈이 처음 닿았던 그 물이다. 변한 것은 모두 내 쪽이다. 그토록 잔물결이 일었어도 주름 하나 영영 남지 않았다. 월든은 늘 젊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제비가 옛날처럼 수면에서 벌레를 낚으려는 듯 물을 스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늘 밤 다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마치 스무 해 넘게 거의 날마다 보아 오지 않았다는 듯이. 아니, 여기 월든이 있구나, 여러 해 전 내가 찾아낸 바로 그 숲속 호수가. 지난겨울 숲을 베어 낸 기슭에 또 다른 숲이 여느 때처럼 힘차게 돋아나고, 그때 수면으로 솟아오르던 그 생각이 지금도 똑같이 솟아오른다. 월든은 그 자신과 그것을 지은 창조주에게, 그리고 어쩌면 내게도, 여전히 똑같은 물의 기쁨이고 행복이다. 이것은 분명

간사함이라고는 없는 어느 용감한 사람이 한 일이다! 그는 이 물을 손으로 둥글게 빚고, 생각 속에서 깊게 파고 맑게 거르고, 유언으로 콩코드에 물려주었다. 그 얼굴을 보니 월든에도 같은 생각이 비친다. 나는 이렇게 말할 뻔한다. 월든, 너냐?

한 줄 시를 꾸미려고
내가 지어낸 꿈이 아니다.
나는 월든에 사는 것보다
신과 하늘에 더 가까이 갈 수 없다.
나는 그 돌 많은 기슭이고,
그 위를 지나는 산들바람이다.
내 손바닥 우묵한 곳에
그 물과 모래가 있고,
그 가장 깊은 곳은
내 생각 속 높이 놓여 있다.

기차는 한 번도 멈추어 월든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기관사와 화부와 제동수, 그리고 정기권을 끊어 월든을 자주 보는 승객들이 그 광경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상상한다. 기관사는 밤에도, 아니 그의 본성은, 낮 동안 적어도 한 번은 고요와 순수의 이 광경을 보았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단 한 번 보더라도 그 광경은 스테이트 거리와 기관차의 검댕을 씻어 내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떤 이는 이 호수를 "신의 물방울"이라고 부르자고 한다.

나는 월든에 눈에 보이는 들목도 날목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그보다 높은 플린트 호수와, 그쪽에서 이어지는 작은 호수 사슬로 멀리 간접으로 이어져 있고, 다른 쪽으로는 그보다 낮은 콩코드강과 비슷한 호수 사슬로 곧바로 뚜렷이 이어져 있다. 어느 다른 지질 시대에는 월든이 그 사슬을 거쳐 흘렀을지도 모르고, 그럴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조금만 파내면 다시 그리로 흐르게 만들 수도 있다. 숲속의 은자처럼 그토록 오래 삼가고 엄격하게 살아서 그토록 놀라운 순수를 얻었다면, 비교적 맑지 않은 플린트 호수의 물이 월든에 섞이거나 월든이 바다 물결에 그 단맛을 허비하러 간다면 누가 아쉬워하지 않겠는가?

◆

링컨에 있는 플린트 호수, 또는 샌디 호수는 우리의 가장 큰 호수이자 내해로, 월든에서 동쪽으로 1마일쯤 떨어져 있다. 넓이가 197에이커라고 하니 월든보다 훨씬 크고 물고기도 더 많지만, 비교적 얕고 그리 맑지도 않다. 숲을 지나 그리로 걸어가는 것이 종종 내 휴식이었다. 바람이 뺨에 마음껏 부는 것을 느끼고, 물결이 달리는 것을 보고, 뱃사람의 삶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갈 만했다. 가을이면 바람 부는 날 그곳에 밤을 주우러 갔는데, 밤이 물에 떨어져 내 발치로 밀려왔다. 어느 날은 사초 우거진 기슭을 따라 살금살금 걷다가, 싱싱한 물보라를 얼굴에 맞으며 썩어 가는 배의 잔해와 마주쳤다. 옆판은 사라지고 골풀 사이에 납작한 바닥의 자국만 겨우 남아 있었는데도, 배의 꼴은 잎맥까지 남은 큰 수련 잎이 썩은 것처럼 또렷했다. 바닷가에서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난파선만큼이나 인상 깊은 잔해였고, 그만큼 좋은 교훈을 담고 있었다. 지금쯤은 한낱 썩은 풀 흙이 되어 호숫가와 구별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 사이로 골풀과 붓꽃이 솟아났을 것이다. 나는 이 호수 북쪽 끝의 모래 바닥에 진 물결 자국을 즐겨 바라보곤 했다. 물에 눌려 다져진 그 자국은 물을 건너는 사람의 발에 단단하고 딱딱했다. 그 자국을 따라 물결치는 선으로 한 줄씩 늘어서 자란 골풀도 즐겨 바라보았는데, 마치 물결이 심어 놓은 듯 줄 뒤에 줄을 이루었다. 그곳에서 나는 또 고운 풀이나

뿌리, 아마도 곡정초로 된 듯한 진기한 공을 꽤 많이 보았다. 지름이 ½인치에서 4인치까지였고 완전한 구형이었다. 이 공들은 모래 바닥 얕은 물에서 이리저리 쓸려 다니다가 때로 기슭으로 밀려 올라온다. 속까지 풀로 되어 있거나 한가운데에 모래가 조금 들어 있다. 처음 보면 조약돌처럼 물결의 작용으로 생겼다고 말하겠지만, 가장 작은 것도 ½인치 길이의 똑같이 거친 재료로 되어 있고, 한 해 가운데 한 철에만 생긴다. 게다가 물결은 이미 단단해진 재료를 짓기보다는 닳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 공들은 마르면 언제까지나 꼴을 지킨다.

플린트 호수라니! 우리의 이름 짓기가 이토록 가난하다. 하늘 물에 맞닿은 농장을 가지고서 그 기슭을 무자비하게 헐벗긴, 더럽고 어리석은 농부가 무슨 권리로 이 호수에 제 이름을 붙였단 말인가? 부싯돌(flint)에서도 껍질을 벗겨 낼 구두쇠, 제 뻔뻔한 놋쇠 낯짝을 비추어 볼 수 있는 1달러짜리 은화나 반짝이는 1센트짜리 동전의 번들거리는 면을 더 사랑한 자, 호수에 내려앉은 야생 오리조차 무단 침입자로 여긴 자, 하르피이아처럼 움켜쥐는 버릇이 오래되어 손가락이 굽고 뼈만 남은 발톱이 된 자. 그러니 이 이름은 나를 위해 붙인 것이 아니다. 나는 그를 보거나 그의 소식을 들으러 그곳에 가지 않는다. 그는 호수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고, 거기서 멱을 감은 적도, 그것을 사랑한 적도, 지켜 준 적도, 좋은 말 한마디 해 준 적도, 신이 그것을 지어 준 데 감사한 적도 없다. 차라리 그 안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나, 그곳을 드나드는 들새나 네발짐승이나, 그 기슭에 자라는 들꽃이나, 그 호수의 내력에 제 내력의 실이 엮여 든 어느 야생의 사람이나 아이의 이름을 따서 짓게 하라. 같은 생각을 하는 이웃이나 주 의회가 건네준 증서 말고는 호수에 대한 아무 권리도 내세울 수 없는 자, 호수의 돈 가치만 생각한 자, 그가 있어서 어쩌면 온 기슭이 저주를 받았을 자, 둘레의 땅을 메마르게 했고 할 수만 있으면 안의 물까지 말려 버렸을 자, 그곳이 영국 건초 밭이나

크랜베리 풀밭이 아닌 것만 아쉬워한 자, 그의 눈에는 참으로 호수를 구해 줄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 바닥의 진흙을 팔려고 물을 빼 버렸을 자, 그런 자의 이름을 따서는 짓지 말라. 호수는 그의 방앗간을 돌려 주지 않았고, 호수를 바라보는 것은 그에게 아무 *특권*도 아니었다. 나는 그의 노동을, 모든 것에 값이 매겨진 그의 농장을 존경하지 않는다. 그는 무엇이든 받을 수만 있으면 풍경도, 제 신도 시장에 내다 팔 사람이고, 지금도 제 신을 *찾아* 시장에 간다. 그의 농장에서는 아무것도 거저 자라지 않고, 밭은 곡식을, 풀밭은 꽃을,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고 달러만 맺는다. 그는 제 열매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지 않고, 그의 열매는 달러로 바뀌기 전에는 그에게 익은 것이 아니다. 참된 부를 누리는 가난을 내게 달라. 농부들은 가난할수록, 곧 가난한 농부일수록 내게는 존경스럽고 흥미롭다. 모범 농장이라니! 집은 거름 더미 위의 버섯처럼 서 있고, 사람과 말과 소와 돼지의 방이 치운 것이든 안 치운 것이든 모두 다닥다닥 붙어 있다! 사람으로 가득 채운 농장! 거름과 버터밀크 냄새가 진동하는 커다란 기름얼룩! 사람의 심장과 뇌를 거름으로 주어 아주 잘 가꾼 곳! 교회 묘지에 감자를 기르기라도 하는 듯이! 모범 농장이란 그런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풍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들에 사람 이름을 붙여야 한다면, 가장 고귀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의 이름만 붙이게 하라. 우리의 호수들이 적어도 이카로스 바다만큼은 참된 이름을 얻게 하라. 그 바다에서는 "아직도 기슭이" "용감한 시도를 메아리친다".

◆

크지 않은 구스 호수는 플린트 호수로 가는 길에 있다. 콩코드강이 넓어진 페어헤이븐은 넓이가 70에이커쯤 된다고 하며 남서쪽으로 1마일

거리에 있다. 넓이 40에이커쯤 되는 화이트 호수는 페어헤이븐 너머 1½마일에 있다. 이것이 나의 호수 지방이다. 이 호수들이 콩코드강과 함께 나의 물 이용 특권이고, 밤이나 낮이나 해마다 해마다 내가 가져가는 곡식을 빻아 준다.

나무꾼들과 철도와 나 자신이 월든을 더럽힌 뒤로, 우리의 모든 호수 가운데 가장 아름답지는 않을지라도 가장 마음을 끄는 호수, 숲의 보석은 아마 화이트 호수일 것이다. 물이 남달리 맑아서 붙었든 모래 빛깔에서 왔든, 흔해 빠져서 초라한 이름이다. 그러나 이 점에서도 다른 점에서도 화이트 호수는 월든의 작은 쌍둥이다. 둘이 하도 닮아서 땅 밑으로 이어져 있음에 틀림없다고 말할 정도다. 똑같이 돌 많은 기슭이 있고 물빛도 같다. 월든에서처럼,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 숲 사이로 바닥의 반사가 물들일 만큼 얕은 만을 내려다보면, 그 물은 안개 낀 듯한 푸르스름한 초록, 곧 청회색을 띤다. 여러 해 전 나는 사포를 만들 모래를 수레로 실어 오려고 그곳에 다니곤 했고, 그 뒤로도 줄곧 찾아가고 있다. 그곳을 자주 찾는 어떤 이는 '초록 호수'라고 부르자고 한다. 아마 다음과 같은 일 때문에 '노란소나무 호수'라고 불러도 될 것이다. 열다섯 해쯤 전에는 기슭에서 여러 로드 떨어진 깊은 물 위로 리기다소나무 한 그루의 꼭대기가 솟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근방에서는 노란소나무라고 부르는 종류였지만 따로 갈라진 종은 아니다. 호수가 내려앉았고 이 나무는 예전에 그곳에 서 있던 원시림의 한 그루라고 여기는 사람까지 있었다. 알아보니 1792년에 이미, 매사추세츠 역사 협회의 『논집』에 실린 「콩코드 읍 지지(地誌)」에서 콩코드 시민인 지은이는 월든과 화이트 호수를 이야기한 뒤 이렇게 덧붙였다. "뒤의 호수 한가운데에서는 물이 아주 낮을 때 지금 선 자리에서 자란 듯이 보이는 나무 한 그루를 볼 수 있는데, 뿌리는 수면 아래 50피트에 있다. 이 나무의 꼭대기는 부러져 나갔고, 그 자리의

지름은 14인치다." 1849년 봄 나는 서드베리에서 이 호수에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열 해나 열다섯 해 전에 이 나무를 끌어낸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했다. 그가 기억하기로 나무는 기슭에서 12~15로드 떨어진, 물 깊이 30~40피트 되는 곳에 서 있었다. 겨울이었고, 그는 오전에 얼음을 떠내다가 오후에는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그 오래된 노란소나무를 끌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얼음에 기슭 쪽으로 물길을 톱질해 내고, 소를 부려 나무를 넘기고 끌어 얼음 위로 올렸다. 그런데 일을 얼마 하지도 않아서 나무가 거꾸로 서 있었음을 알고 놀랐다. 가지 그루터기는 아래를 향했고 가는 끝은 모래 바닥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굵은 쪽 지름이 1피트쯤이어서 그는 좋은 통나무감을 얻으리라 기대했지만, 나무는 하도 썩어서 땔감으로나, 그것도 겨우 쓸 만했다. 그때 그의 헛간에는 그 나무가 조금 남아 있었다. 밑동에는 도끼 자국과 딱따구리 자국이 있었다. 그는 그것이 기슭에 서 있던 죽은 나무였는데 마침내 바람에 호수로 쓰러졌고, 우듬지가 물을 먹은 뒤에도 밑동은 아직 마르고 가벼워서 떠내려가다가 거꾸로 가라앉았으리라고 생각했다. 여든 살인 그의 아버지도 그 나무가 거기 없던 때를 기억하지 못했다. 지금도 꽤 큰 통나무 몇 개가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수면이 일렁여서 거대한 물뱀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 호수는 배에 더럽혀진 일이 드물다. 낚시꾼을 꼴 만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진흙이 있어야 자라는 흰 수련이나 흔한 창포 대신, 맑은 물에 푸른붓꽃(*Iris versicolor*)이 드문드문 자라서 기슭 둘레 돌 바닥에서 솟아오르고, 6월이면 벌새가 찾아온다. 푸르스름한 잎과 꽃의 빛깔, 특히 물에 비친 그 그림자의 빛깔은 청회색 물과 남달리 잘 어울린다.

화이트 호수와 월든은 땅 위의 큰 수정이고 빛의 호수다. 이 호수들이 영원히 얼어붙고 움켜쥘 만큼 작다면, 어쩌면 노예들이 보석처럼 날라 가서 황제의 머리를 꾸몄을 것이다. 그러나 액체이고 넓으며 우리와 우리 뒤를 이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맡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호수들을 하찮게 여기고 코이누르 다이아몬드를 쫓아다닌다. 이 호수들은 시장 가치를 지니기에는 너무 맑다. 거름 한 점 담고 있지 않다. 우리의 삶보다 얼마나 더 아름답고, 우리의 성품보다 얼마나 더 투명한가! 우리는 이 호수들에게서 비천함을 배운 적이 없다. 농부의 집 앞, 그의 오리들이 헤엄치는 웅덩이보다 얼마나 더 아름다운가! 이곳에는 깨끗한 야생 오리들이 온다. 자연에는 그 값을 알아주는 사람 주민이 하나도 없다. 새들은 깃털과 노랫소리로 꽃들과 어우러지는데, 어느 젊은이나 처녀가 자연의 무성한 야생의 아름다움과 어우러지는가? 자연은 사람들이 사는 읍에서 멀리 떨어져 홀로일 때 가장 번성한다. 하늘을 말하다니! 너희는 땅을 욕되게 한다.

---

1. Cænobites(함께 모여 사는 수도사)는 「See, no bites(봐, 입질이 없어)」와 소리가 같다.

2. 이 책의 온도는 모두 화씨다. 물은 화씨 32도에서 언다.

베이커 농장

이따금 나는 소나무 숲으로 느긋이 거닐러 갔다. 소나무 숲은 신전처럼, 또는 바다에 뜬 함대처럼, 물결치는 가지로 돛을 한껏 올리고 빛에 일렁이며 서 있었는데, 하도 부드럽고 푸르고 그늘져서 드루이드들이라도 떡갈나무를 버리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또는 플린트 호수 너머의 삼나무 숲으로 갔다. 그곳의 나무들은 서리 앉은 듯한 푸른 열매에 덮여 점점 더 높이 뾰족하게 솟아 발할라 앞에 세워도 어울릴 만했고, 땅바닥을 기는 노간주나무는 열매가 가득 달린 화환으로 땅을 덮었다. 또는 흰가문비나무에서 송라 이끼가 꽃줄처럼 늘어지고, 늪 신들의 둥근 탁자인 독버섯이 땅을 덮고, 더 아름다운 버섯들이 나비나 조개껍데기처럼, 식물로 된 고둥처럼 그루터기를 꾸미는 늪으로 갔다. 그곳에는 늪진달래와 층층나무가 자라고, 붉은오리나무 열매가 도깨비의 눈처럼 빛나고, 노박덩굴은 가장 단단한 나무까지 감아 홈을 파고 으스러뜨리며, 야생 호랑가시나무 열매는 그 아름다움으로 보는 이에게 집을 잊게 하고, 사람이 맛보기에는 너무 고운, 이름 모를 다른 야생의 금단의 열매들이 그의 눈을 부시게 하고 그를 꾄다. 나는 어느 학자를 찾아가는 대신 이 근방에 드문 종류의 특정한 나무들을 여러 번 찾아갔다. 그 나무들은 어느 목초지 한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숲이나 늪 깊은 곳에, 또는 언덕 꼭대기에 서 있었다. 이를테면 지름이 2피트나 되는 멋진 표본이 몇 그루 있는 검은자작나무, 그 사촌으로 헐렁한 금빛 조끼를 입었고

검은자작나무처럼 향기로운 노랑자작나무, 줄기가 그토록 말끔하고 이끼가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 놓아 구석구석 완벽한 너도밤나무가 그렇다. 너도밤나무는 여기저기 흩어진 몇 그루를 빼면 읍 안에 제법 큰 나무들이 선 작은 숲이 하나 남아 있을 뿐인데, 예전에 그 근처에서 너도밤나무 열매로 비둘기를 꾀어 잡았고 그 비둘기들이 이 숲을 심었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이 나무를 쪼갤 때 은빛 나뭇결이 반짝이는 것은 볼 만하다. 또 피나무, 서어나무, 잘 자란 것이 한 그루밖에 없는 가짜 느릅나무 곧 팽나무(*Celtis occidentalis*), 그리고 더 높은 돛대 같은 소나무, 지붕널을 켤 만한 나무, 숲 한가운데 탑처럼 선, 여느 것보다 더 완벽한 솔송나무, 그 밖에도 꼽을 수 있는 나무가 많다. 이것들이 내가 여름에도 겨울에도 찾아간 성소였다.

한번은 우연히 무지개 아치의 바로 발치에 선 적이 있었다. 무지개는 대기의 아래층을 가득 채우고 둘레의 풀과 나뭇잎을 물들였으며, 나는 색유리를 통해 보는 듯이 눈이 부셨다. 그것은 무지개 빛의 호수였고, 나는 잠시 그 안에서 돌고래처럼 살았다. 더 오래 이어졌다면 내 일과 삶까지 물들였을지도 모른다. 철둑길을 걸을 때면 나는 내 그림자 둘레의 빛무리를 보고 놀라곤 했고, 내가 선택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기꺼이 상상해 보곤 했다. 나를 찾아온 어떤 사람은 자기 앞을 걷던 아일랜드 사람 몇의 그림자에는 빛무리가 없었으며, 그런 표지를 받는 것은 토박이뿐이라고 단언했다. 벤베누토 첼리니는 회고록에서, 산탄젤로성에 갇혀 있는 동안 어떤 무서운 꿈인지 환영인지를 본 뒤로 이탈리아에 있든 프랑스에 있든 아침저녁으로 그의 머리 그림자 위에 찬란한 빛이 나타났고, 풀이 이슬에 젖어 있을 때 특히 뚜렷했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아마 내가 말한 것과 같은 현상일 것이다. 이 현상은 특히 아침에 보이지만 다른 때에도, 심지어 달빛 아래에서도 보인다. 늘 있는 현상인데도 대개는 눈여겨보지 않으며, 첼리니처럼 쉽게 흥분하는

상상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것만으로도 미신의 바탕이 되기에 넉넉했을 것이다. 게다가 그는 그것을 아주 적은 사람에게만 보여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누군가 자기를 조금이라도 눈여겨본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표지를 받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

어느 오후 나는 변변찮은 채소 끼니를 보태려고 숲을 지나 페어헤이븐으로 낚시를 하러 나섰다. 내 길은 베이커 농장에 딸린 플레전트 풀밭을 지났다. 베이커 농장은 그 뒤로 어느 시인이 노래한 은신처인데,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한다.

"네 들머리는 상냥한 들판,
이끼 낀 과수 몇 그루가
붉은 시냇물에 얼마간 내어 주었네,
미끄러지듯 헤엄치는 사향쥐가 맡아 놓은 물,
그리고 재빠른 송어가
이리저리 내닫는 물을."

월든에 가기 전에 나는 그곳에서 살아 볼까 생각했다. 나는 사과를 "슬쩍"하고, 시내를 뛰어넘고, 사향쥐와 송어를 놀라게 했다. 그날은 내 앞에 끝없이 길게 펼쳐질 것만 같은 오후,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타고난 삶의 큰 몫이 담길 수 있는 그런 오후였다. 내가 나섰을 때 이미 절반이 지나 있었는데도 그랬다. 가는 길에 소나기가 쏟아져서 나는 소나무 아래 반 시간 동안 서서 머리 위에 가지를 쌓고 손수건을 헛간 지붕 삼아 써야 했다. 마침내 허리까지 물에 들어서서 물옥잠 너머로 낚싯줄을 한 번 던졌을 때, 나는 갑자기 구름 그늘 속에 들어와 있었고, 천둥이 어찌나 힘주어 울리기 시작했는지 나는 그 소리를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무장하지 않은 가련한 낚시꾼 하나를 쫓아내려고 저렇게 갈라진 번개까지 쓰다니 신들은 꽤나 의기양양하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비를 피하려고 가장 가까운 움막으로 서둘러 갔다. 그 움막은 어느 길에서나 반 마일 떨어져 있었지만 그만큼 호수에는 더 가까웠고,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 한 시인이 지었다,
다 채운 세월 속에서,
보라, 보잘것없는 오두막 하나
허물어짐을 향해 키를 잡은 것을."

무사 여신은 이렇게 꾸며 낸다. 그러나 내가 알고 보니 그 안에는 이제 아일랜드 사람 존 필드와 그 아내와 아이 여럿이 살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일을 거들다가 이제 비를 피해 아버지 곁에서 늪지에서 뛰어온 얼굴 넓적한 사내아이부터, 주름지고 무녀 같고 머리가 원뿔처럼 뾰족한 갓난아기까지 있었다. 그 아기는 귀족의 궁전에서처럼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축축함과 굶주림 한가운데의 제 집에서 갓난아기의 특권을 누리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낯선 사람을 내다보았다. 자기가 존 필드의 가난하고 굶주린 꼬마가 아니라 고귀한 가문의 마지막 자손이자 세상의 희망이요 뭇사람이 우러르는 별이 아닌지 알지 못하는 채였다. 바깥에 소나기가 퍼붓고 천둥이 치는 동안 우리는 지붕에서 가장 덜 새는 곳 아래에 함께 앉아 있었다. 그의 가족을 아메리카로 실어 온 배가 지어지기도 전에 나는 옛날 그곳에 여러 번 앉아 있곤 했다. 존 필드는 보아하니 정직하고 부지런하지만 변통성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아내도 그 높다란 화덕의 깊숙한 곳에서 그토록 많은 끼니를 줄곧 지어 낸 것을 보면 용감한 사람이었다. 동그랗고 기름진 얼굴에 가슴을 드러낸 채, 아직도 언젠가는 형편이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었고, 한

손에는 늘 자루걸레를 들고 있었지만 그 효과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비를 피해 이곳에 들어온 닭들도 식구처럼 방 안을 뽐내며 거닐었는데, 내 생각에 너무 사람이 되어 버려서 구워 먹기에는 좋지 않을 것 같았다. 닭들은 서서 내 눈을 들여다보거나 무슨 뜻이 있다는 듯이 내 신을 쪼았다. 그동안 집주인은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웃 농부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늪 일"을 하는지, 1에이커에 10달러와 거름 준 땅을 한 해 동안 쓰는 조건으로 삽이나 늪 괭이로 풀밭을 뒤집는다고 했다. 그사이 얼굴 넓적한 그의 어린 아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형편없는 거래를 했는지 모른 채 아버지 곁에서 즐겁게 일했다. 나는 내 경험으로 그를 도우려 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그의 가장 가까운 이웃 가운데 하나이며, 여기 낚시하러 와서 빈둥거리는 사람처럼 보이는 나도 그처럼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단단하고 환하고 깨끗한 집에 사는데, 그 집은 그의 집 같은 폐가의 한 해 집세 정도밖에 들지 않았으며, 그도 마음만 먹으면 한두 달 만에 자기만의 궁전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차도 커피도 버터도 우유도 생고기도 먹지 않으니 그것을 얻으려고 일할 필요가 없다고, 또 힘들게 일하지 않으니 힘들게 먹을 필요도 없어서 먹을거리에 드는 돈이 아주 적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차와 커피와 버터와 우유와 쇠고기부터 시작하니 그 값을 치르려고 힘들게 일해야 하고, 힘들게 일하고 나면 몸이 축난 것을 메우려고 또 힘들게 먹어야 한다. 그러니 결국 피장파장이다. 아니, 피장파장보다 더 나쁘다. 그는 불만스러웠고 덤으로 삶까지 허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는 아메리카에 온 것을 이득으로 셈했다. 여기서는 날마다 차와 커피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참된 아메리카는 이런 것들 없이 지낼 수 있는 삶의 길을 마음대로 좇을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쓰는 데서 직접 간접으로 생겨나는 노예제와 전쟁과 그 밖의 쓸데없는 비용을 떠받치라고 국가가 강요하려 들지 않는

나라다. 나는 일부러 그가 철학자이거나 철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에게 이야기했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시작한 결과로 땅 위의 모든 풀밭이 야생 상태로 남겨진다면 나는 기쁠 것이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꾸는 데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알아내려고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아아! 아일랜드 사람을 가꾸는 일은 일종의 도덕의 늪 괭이를 들고 덤벼야 하는 사업이다. 나는 그에게, 그가 늪일을 그토록 힘들게 하니 두꺼운 장화와 튼튼한 옷이 필요하지만 그것들도 곧 더러워지고 해어지는 데 비해, 나는 가벼운 신과 얇은 옷을 입으며 그것은 그 절반 값도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신사처럼 차려입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실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한두 시간 만에, 노동이 아니라 놀이 삼아 이틀 동안 먹을 만큼 물고기를 잡거나 일주일을 먹고살 만큼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그와 그 식구가 단순하게 산다면 여름에는 다 같이 재미 삼아 허클베리를 따러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존은 이 말에 한숨을 쉬었고, 그의 아내는 허리에 손을 얹고 나를 빤히 보았다. 둘 다 그런 길을 시작할 만한 밑천이, 아니면 그 길을 끝까지 해낼 만한 셈속이 자기들에게 있는지 궁금해하는 듯했다. 그들에게 그것은 추측 항법으로 배를 모는 일이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항구에 닿을지 그들은 또렷이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지금도 그들 나름으로 삶과 맞대면하여 이를 악물고 손톱을 세워 용감하게 맞붙고 있을 것이다. 삶의 육중한 기둥을 날카로운 쐐기 하나로 쪼개어 하나씩 무찌를 재주가 없으니, 엉겅퀴를 다루듯 거칠게 다룰 생각만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압도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한다. 존 필드는, 아아! 셈법 없이 살다가 그렇게 실패한다.

"낚시는 하세요?" 내가 물었다. "아, 그럼요, 쉴 때면 이따금 한 끼 거리는 잡지요. 좋은 농어를 잡아요." "미끼는 뭘 쓰세요?" "지렁이로 피라미를 잡아서 그걸로 농어를 낚아요." "지금 가 보는 게 좋겠어요,

존." 그의 아내가 반짝이는, 기대에 찬 얼굴로 말했다. 그러나 존은 망설였다.

이제 소나기가 그쳤고 동쪽 숲 위에 뜬 무지개가 맑은 저녁을 약속했으므로 나는 작별을 고했다. 밖에 나와서 나는 마실 물을 청했다. 우물 바닥을 한번 보고 이 집 살피기를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아! 거기에는 여울과 모래 수렁이 있고, 게다가 두레박줄은 끊어졌고 두레박은 건져 올릴 수 없었다. 그사이 알맞은 부엌 그릇이 골라졌고, 물은 증류라도 한 듯했으며, 의논과 오랜 지체 끝에 그 물이 목마른 사람에게 건네졌다. 아직 식지도, 가라앉지도 않은 물이었다. 이런 묽은 죽이 여기서는 목숨을 이어 주는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솜씨 좋게 아랫물을 끌어당겨 티끌을 막으며 참된 환대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가장 힘차게 들이켰다. 예의가 걸린 이런 경우에 나는 까다롭게 굴지 않는다.

비가 그친 뒤 아일랜드 사람의 지붕을 떠나 다시 호수로 걸음을 돌리면서, 외진 풀밭과 진창과 늪 웅덩이, 쓸쓸하고 거친 곳을 헤치며 강꼬치고기를 잡으려고 서두르는 일이 학교와 대학까지 다닌 나에게는 잠깐 하찮아 보였다. 그러나 무지개를 어깨 위에 지고 붉게 물들어 가는 서쪽을 향해 언덕을 달려 내려갈 때, 씻긴 공기를 타고 어디서인지 모를 희미한 방울 소리 몇 가닥이 귀에 실려 오자, 나의 선한 정령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날마다 멀리 널리 가서 물고기를 낚고 사냥하라, 더 멀리 더 널리. 그리고 의심 없이 수많은 시냇가와 화롯가에서 쉬라. 젊은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새벽이 오기 전에 근심 없이 일어나 모험을 찾으라. 한낮은 다른 호숫가에서 맞고, 밤은 어디서 닥치든 집처럼 맞으라. 이보다 넓은 들판은 없고, 여기서 벌일 수 있는 것보다 값진 놀이는 없다. 결코 영국 건초가 되지 않을 이 사초와 고사리처럼, 네 본성을 따라 야생으로 자라라. 천둥은 울게 두라. 농부들의 작물을

망치겠다고 을러댄들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너에게 온 볼일은 그것이 아니다. 그들이 수레와 헛간으로 달아날 때 너는 구름 아래로 몸을 피하라. 생계를 꾸리는 일을 너의 생업으로 삼지 말고 너의 놀이로 삼으라. 땅을 즐기되 소유하지는 말라. 사람들은 진취의 기상과 믿음이 모자라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며, 사고팔면서 농노처럼 삶을 보낸다.

오, 베이커 농장이여!

"가장 풍성한 요소가
조그만 순진한 햇살인 풍경."……

"아무도 흥청대러 달려오지 않네,
가로대 울타리를 두른 너의 풀밭으로."……

"너는 아무와도 다투지 않고,
물음에 얽혀 당혹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처음 보았을 때나 지금이나 온순하게,
수수한 적갈색 겉옷을 걸치고 있네."……

"오라, 사랑하는 이들이여,
미워하는 이들이여,
거룩한 비둘기의 자녀들이여,
나라의 가이 포크스여,[1]
음모일랑 걸어 두라,
나무들의 질긴 서까래에!"

사람들은 밤이면 고분고분 바로 옆 밭이나 거리에서만 집으로 돌아온다. 그곳에는 집안의 메아리가 떠돌고, 그들의 삶은 제 숨을 되풀이해 들이쉬느라 시들어 간다. 아침저녁 그들의 그림자는 그들이

날마다 걷는 걸음보다 더 멀리 뻗는다. 우리는 날마다 먼 데서, 모험과 위험과 발견에서 새로운 경험과 인품을 지니고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내가 호수에 닿기도 전에 어떤 새로운 충동에 이끌려 존 필드가 마음을 바꾸어 이날 해 지기 전에 "늪 일"을 놓고 나와 있었다. 그러나 가련한 그 사람은 내가 물고기를 한 꿰미 그럴듯하게 잡는 동안 지느러미 두어 개를 건드렸을 뿐이었고, 그것이 자기 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배에서 자리를 바꾸자 운도 자리를 바꾸었다. 가련한 존 필드! 이 글을 읽고 나아질 것이 아니라면 그가 이 글을 읽지 않기를 바란다. 그는 이 원시의 새 나라에서 옛 나라에서 물려받은 낡은 수를 써서 살려고, 피라미로 농어를 잡으려고 한다. 그것이 이따금 좋은 미끼라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 지평선은 온통 자기 것인데도 그는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하게 태어나 아일랜드에서 물려받은 가난 또는 가난한 삶과 아담의 할머니와 늪 같은 생활 습관을 지닌 채, 그도 그의 자손도 이 세상에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물을 헤치며 늪을 짓밟고 다니는 그들의 물갈퀴 달린 발뒤꿈치에 날개 달린 신(*talaria*)이 돋기 전에는.

---

1. 가이 포크스: 1605년 런던 의사당을 화약으로 날리려다 붙잡힌 사람.

더 높은 법칙

물고기 한 꿰미를 들고 낚싯대를 끌며 숲을 지나 집으로 돌아오는데, 날이 이미 아주 어두웠다. 그때 우드척 한 마리가 내 앞길을 살금살금 가로지르는 것이 언뜻 보였고, 나는 야만스러운 기쁨에 이상하게 몸이 떨리며 그놈을 붙잡아 날로 먹어 치우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느꼈다. 그때 배가 고팠던 것은 아니다. 그놈이 나타내는 야생에 굶주렸을 뿐이다. 그러나 호숫가에 사는 동안 한두 번은, 반쯤 굶은 사냥개처럼 이상하게 넋을 놓고 숲을 헤매며 먹어 치울 만한 사냥감 고기를 찾고 있는 나를 발견했는데, 그때는 어떤 고기도 나에게 지나치게 야만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야생의 광경이 까닭 모르게 낯익어져 있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 내 안에서 더 높은, 이른바 영적인 삶을 향한 본능과, 원시적이고 거칠고 야만스러운 삶을 향한 또 다른 본능을 발견했고, 지금도 발견한다. 그리고 나는 둘 다 공경한다. 나는 선한 것 못지않게 야생을 사랑한다. 낚시에 깃든 야생과 모험 때문에 나는 지금도 낚시가 마음에 든다. 나는 이따금 삶을 거칠게 움켜쥐고 짐승처럼 하루를 보내고 싶다. 아주 어렸을 때 자연과 가장 가까이 사귀게 된 것은 아마 이 일과 사냥 덕분일 것이다. 낚시와 사냥은 그 나이에는 달리 사귈 일이 거의 없을 풍경 속으로 우리를 일찍부터 데려가서 붙잡아 둔다. 어부와 사냥꾼과 나무꾼처럼 들과 숲에서 평생을 보내며 남다른 뜻에서 그 자신이 자연의 일부가 된 사람들은, 하던 일을 잠시 쉬는 틈에 자연을 관찰하기에 더 좋은 마음 상태에 있을 때가 많다.

기대를 품고 자연에 다가가는 철학자나 시인보다도 그렇다. 자연은 그들에게 제 모습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초원에 간 나그네는 저절로 사냥꾼이 되고, 미주리강과 컬럼비아강의 상류에서는 덫 사냥꾼이, 세인트메리 폭포에서는 어부가 되지만, 그저 나그네이기만 한 사람은 남에게서 반쯤만 배우니 믿을 만한 전거가 되지 못한다. 과학이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든 본능으로든 이미 아는 것을 보고할 때 우리는 가장 흥미를 느낀다. 그것만이 참된 *인문*(humanity), 곧 사람의 경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양키에게는 놀이가 적다고 단언하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다. 그들은 양키에게 공휴일이 그리 많지 않고, 영국에서처럼 어른과 아이가 갖가지 경기를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냥과 낚시 같은, 더 원시적이지만 홀로 즐기는 놀이가 아직 그런 경기에 자리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또래의 뉴잉글랜드 소년은 거의 모두 열 살에서 열네 살 사이에 새총을 어깨에 메었다. 그리고 그의 사냥터와 낚시터는 영국 귀족의 사냥 금렵지처럼 한정되지 않았고, 야만인의 사냥터보다도 더 끝이 없었다. 그러니 그가 공유지에 남아 노는 일이 더 잦지 않았던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인정이 늘어서가 아니라 사냥감이 줄어서다. 왜냐하면 사냥꾼이야말로 아마 사냥당하는 짐승의 가장 큰 벗일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주의 협회도 예외가 아니다.

게다가 호숫가에 있을 때 나는 이따금 끼니를 바꾸어 보려고 물고기를 보태고 싶었다. 나는 실제로 최초의 어부들과 같은 필요에서 낚시를 했다. 내가 그에 맞서 불러낼 수 있었던 인정은 모두 꾸며 낸 것이었고, 내 감정보다는 내 철학에 관련된 것이었다. 지금은 낚시만 말한다. 새 사냥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다르게 느꼈고, 숲으로 가기 전에 총을 팔았다. 내가 남보다 인정이 덜해서가 아니라, 내 감정이 크게 움직이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말이다. 나는 물고기도 지렁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이것은 버릇이었다. 새 사냥으로 말하자면, 총을 들고 다닌 마지막 몇 해 동안 내 핑계는 조류학을 공부한다는 것이었고, 나는 새롭거나 드문 새만 찾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보다 더 섬세하게 조류학을 공부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그 길은 새의 습성에 훨씬 더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그 까닭 하나만으로도 나는 기꺼이 총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인정의 이유로 드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이를 대신할 만큼 값진 놀이가 있는지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내 벗들 가운데 몇이 자기 아들에게 사냥을 하게 해야 하느냐고 걱정스레 물었을 때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것이 내 교육의 가장 좋은 부분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떠올리며, 아이들을 사냥꾼으로 *만들라*고 했다. 처음에는 그저 사냥을 즐기는 사람이더라도, 될 수 있다면 마침내 위대한 사냥꾼이 되어 이 황야에서든 어느 초목의 황야에서든 자기에게 맞을 만큼 큰 사냥감을 찾지 못하게 하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이자 사냥꾼이 되게 하라고 했다. 여기까지는 나도 초서의 수녀와 같은 의견이다. 그 수녀는

> "사냥꾼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글귀에
> 털 뽑힌 암탉 한 마리 값도 쳐주지 않았네."[1]

개인의 역사에도 종족의 역사에서처럼, 알곤킨족이 부른 대로 사냥꾼이 "가장 뛰어난 사람"인 시기가 있다. 총을 한 번도 쏘아 보지 못한 소년을 우리는 딱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그 소년은 조금도 더 인정이 많지 않으며, 그의 교육은 안타깝게도 소홀히 되었을 뿐이다. 이것이 이 일에 열중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내 대답이었고, 나는 그들이 머지않아 그 일에서 자라 나오리라 믿었다. 소년 시절의 생각 없는 나이를 지난 인정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와 같은 조건으로 목숨을 지닌

생물을 함부로 죽이지 않을 것이다. 막다른 곳에 몰린 산토끼는 아이처럼 운다. 어머니들이여, 경고하건대 내 동정심은 흔히 하는 *인간*애적인 구별을 언제나 따르지는 않는다.

젊은이가 숲에, 그리고 자기 안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에 처음 발을 들이는 길은 대개 이렇다. 그는 처음에는 사냥꾼과 어부로서 그리로 가지만, 마침내 그 안에 더 나은 삶의 씨앗이 있다면 시인으로든 박물학자로든 자기에게 맞는 대상을 알아보고 총과 낚싯대를 뒤에 두고 떠난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점에서 아직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젊다. 어떤 나라에서는 사냥하는 목사가 드물지 않은 광경이다. 그런 사람은 좋은 양치기 개는 될지 몰라도 선한 목자와는 거리가 멀다. 내가 아는 한 나무 베기나 얼음 자르기 같은 일을 빼면, 읍의 아버지든 아이든 내 동료 시민 누구라도 월든 호수에 반나절을 꼬박 붙들어 둔 뚜렷한 일은, 딱 한 번의 예외를 빼면 낚시뿐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놀랐다. 그들은 그동안 내내 호수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도 물고기를 길게 한 꿰미 잡지 못하면 대개 운이 좋았다거나 시간을 들인 만큼 보상을 받았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낚시라는 앙금이 바닥에 가라앉아 그들의 목적이 맑아지기까지 천 번을 그곳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정화 과정은 틀림없이 그동안 내내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 주지사와 그의 참사회는 어렸을 때 그곳에 낚시하러 갔으므로 호수를 희미하게 기억하지만, 이제는 너무 늙고 위엄이 있어 낚시를 가지 않으니 영영 그 호수를 다시는 알지 못한다. 그래도 그들조차 마침내 천국에 가기를 기대한다. 주 의회가 호수를 돌아본다면 그것은 주로 거기서 쓸 낚싯바늘의 수를 정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들은 주 의회를 미끼로 꿰어 호수 자체를 낚을, 바늘 중의 바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처럼 문명 사회에서도 태아 같은 사람은 사냥꾼 단계를 거쳐 자란다.

요 몇 해 나는 낚시를 하면 자존심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거듭 깨달았다. 몇 번이고 다시 해 보았다. 나는 낚시에 솜씨가 있고, 내 동료 여럿처럼 낚시를 향한 어떤 본능도 있어서 그것이 이따금 되살아나지만, 낚시를 마치고 나면 언제나 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으리라고 느낀다. 내 생각이 틀리지는 않았다고 본다. 그것은 희미한 암시이지만 아침의 첫 빛줄기도 그렇다. 내 안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창조물의 낮은 계층에 속하는 이 본능이 있다. 그런데도 나는 인정이나 지혜가 더 늘지 않았는데도 해마다 어부의 모습을 덜 띠게 되었고, 지금은 전혀 어부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황야에서 산다면 다시 진지하게 어부와 사냥꾼이 되고 싶은 유혹을 받으리라는 것을 안다. 게다가 이 먹을거리와 모든 고기에는 본디 어딘가 불결한 데가 있다. 나는 집안일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날마다 단정하고 점잖은 모습을 하고 집을 향기롭게 하며 온갖 고약한 냄새와 꼴을 없애려는, 그토록 품이 많이 드는 애씀이 어디서 오는지 알기 시작했다. 나는 내 손으로 백정과 설거지꾼과 요리사 노릇을 했고, 요리를 받는 신사 노릇까지 했으므로, 남달리 빠짐없는 경험에서 말할 수 있다. 내 경우에 동물성 먹을거리에 대한 실제의 반대 이유는 그 불결함이었다. 게다가 물고기를 잡아 손질하고 요리해 먹고 나면 그것이 나를 본질적으로 먹여 주지 않은 것 같았다. 그것은 하찮고 쓸데없었으며 얻는 것보다 드는 것이 더 많았으니, 빵 조금이나 감자 몇 알이면 수고와 더러움을 덜 들이고도 그만큼 해냈을 것이다. 내 동시대인 여럿처럼 나는 여러 해 동안 동물성 먹을거리나 차나 커피 따위를 거의 먹지 않았다. 그것들에서 무슨 나쁜 결과를 찾아냈다기보다는 그것들이 내 상상력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물성 먹을거리에 대한 거부감은 경험의 결과가 아니라 본능이다. 여러모로 낮게 살고 거칠게 먹는 것이 더 아름다워 보였다. 그리고 나는 실제로 그렇게 산 적은 없지만 내 상상력을 흡족하게 할 만큼은 그 길로

나아갔다. 자신의 더 높은 능력, 시적인 능력을 가장 좋은 상태로 지키려고 애쓴 사람은 누구나 동물성 먹을거리와, 어떤 종류의 것이든 많이 먹는 일을 삼가는 쪽으로 각별히 기울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곤충학자들이 밝힌 의미심장한 사실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커비와 스펜스의 책에서 찾았다. "어떤 곤충은 완전한 상태가 되면 먹는 기관을 갖추고도 그것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일반 법칙"으로 내세운다. "이 상태의 곤충은 거의 모두 애벌레 때보다 훨씬 적게 먹는다. 게걸스러운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면…… 그리고 먹보 구더기가 파리가 되면" 꿀이나 다른 단 즙 한두 방울로 만족한다. 나비의 날개 밑에 있는 배는 아직도 애벌레를 나타낸다. 이것이 벌레를 먹는 그의 운명을 꾀는 맛있는 한 점이다. 게걸스럽게 먹는 사람은 애벌레 상태의 사람이다. 그리고 온 국민이 그 상태에 있는 나라들, 공상도 상상력도 없이 거대한 배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나라들이 있다.

상상력을 거스르지 않을 만큼 단순하고 깨끗한 먹을거리를 장만하고 요리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나는 몸을 먹일 때 상상력도 먹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은 같은 식탁에 앉아야 한다. 그래도 아마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열매를 절제하며 먹는다면 식욕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가장 값진 일을 방해받을 일도 없지만, 접시에 양념을 하나 더 넣어 보라. 그것이 여러분을 중독시킬 것이다. 기름진 요리로 살 만한 가치는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날마다 남이 차려 주는 것과 똑같은 저녁을, 그것이 고기든 채소든, 제 손으로 차리다가 들키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달라지기 전까지 우리는 문명화되지 않았고, 신사 숙녀라 해도 참된 남자와 여자가 아니다. 이것은 분명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일러 준다. 왜 상상력이 고기와 기름과 화해하려 들지 않는지 묻는 것은 헛된 일일지 모른다. 상상력이 화해하지 않는다는 것만은 나는 확신한다. 사람이 육식 동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치욕이 아닌가?

사실 사람은 상당 부분 다른 동물을 잡아먹으며 살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산다. 그러나 그것은 비참한 길이다. 토끼를 덫으로 잡거나 새끼 양을 잡아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더 순진하고 건전한 먹을거리에만 머물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인류의 은인으로 여겨질 것이다. 내 실천이 어떻든, 야만 부족들이 더 문명화된 이들과 만나자 서로를 잡아먹기를 그만두었듯이, 차츰 나아가는 인류가 동물을 먹기를 그만두는 것은 틀림없이 인류의 운명의 한 부분이라고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자기 정령이 들려주는 가장 희미하지만 끊임없는 암시, 틀림없이 참된 그 암시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를 어떤 극단으로, 아니면 광기로까지 이끌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가 더 굳세고 성실해질수록 그의 길은 그쪽으로 나 있다. 건강한 사람 하나가 느끼는, 아무리 희미해도 확고한 반대가 마침내는 인류의 논증과 관습을 이긴다. 자기 정령을 따르다가 길을 잘못 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결과가 몸이 약해지는 것이라 해도, 그것은 더 높은 원리에 맞는 삶이었으니 아마 누구도 그 결과를 후회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낮과 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삶이 꽃과 향긋한 풀처럼 향기를 내뿜으며, 더 탄력 있고 더 별빛 같고 더 불멸에 가까워진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성공이다. 온 자연이 여러분을 축하하며, 여러분은 매 순간 스스로를 축복할 까닭이 있다. 가장 큰 이득과 가치는 제대로 평가받는 데서 가장 멀리 있다. 우리는 그것이 있기나 한지 쉽게 의심하게 되고, 곧 그것을 잊는다. 그것이 가장 높은 실재다. 아마 가장 놀랍고 가장 실재하는 사실은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결코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내 나날의 삶이 거두는 참된 수확은 아침이나 저녁의 빛깔처럼 어딘지 손에 잡히지 않고 말로 그릴 수 없다. 그것은 붙잡은 별 먼지 한 줌, 내가 움켜쥔 무지개 한 조각이다.

그렇지만 나로 말하면 남달리 까다로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필요하다면 쥐 튀김도 이따금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아편 먹는 사람의 천국보다 자연의 하늘을 더 좋아하는 것과 같은 까닭으로, 나는 그토록 오래 물을 마셔 온 것이 기쁘다. 나는 언제나 맑은 정신으로 있고 싶은데, 취함에는 끝없는 등급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물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오직 하나의 마실 것이라고 믿으며, 포도주는 그리 고귀한 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침의 희망을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저녁의 희망을 차 한 잔으로 깨뜨려 버리는 일을 생각해 보라! 아, 그런 것들에 끌릴 때 나는 얼마나 낮게 떨어지는가! 음악조차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다. 겉보기에 이렇게 사소한 원인들이 그리스와 로마를 무너뜨렸고, 영국과 아메리카도 무너뜨릴 것이다. 온갖 취함 가운데 자기가 들이쉬는 공기에 취하기를 마다할 사람이 누구인가? 거친 노동을 오래 계속하는 일에 대해 내가 찾은 가장 심각한 반대 이유는, 그 노동이 나까지 거칠게 먹고 마시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지금 나는 이런 점에서 다소 덜 까다롭다. 나는 식탁에 신앙을 덜 가지고 가고, 식사 기도도 드리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전보다 지혜로워져서가 아니라,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안타까워도 해가 갈수록 더 거칠고 무심해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시에 대해 그렇게 믿듯이, 이런 물음은 아마 젊을 때만 품는 것인지도 모른다. 내 실천은 "어디에도 없고", 내 의견은 여기 있다. 그렇지만 나는 『베다』가 "무소부재한 지고의 존재를 참되게 믿는 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할 때, 곧 자기 먹을거리가 무엇인지, 누가 그것을 장만하는지 따져 물을 의무가 없다고 할 때 가리키는 그 특권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로 나 자신을 여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어느 힌두 주석가가 말했듯이, 그들의 경우에도 베단타가 이 특권을 "곤궁할 때"로 한정한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2]

식욕이 아무 몫도 하지 않은 먹을거리에서 말할 수 없는 만족을 얻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대개 거친 감각인 미각 덕분에 정신의 지각을 얻었다는 것, 입맛을 통해 영감을 받았다는 것, 어느 언덕에서 먹은 장과 몇 알이 내 정령을 먹여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나는 가슴이 떨렸다. 증자는 말한다. "마음이 제 주인이 되지 못하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3] 자기 먹을거리의 참맛을 가리는 사람은 결코 대식가가 될 수 없고, 가리지 못하는 사람은 대식가일 수밖에 없다. 청교도도 시 참사회원이 자라 요리에 덤비는 것만큼이나 게걸스러운 식욕으로 흑빵 껍질에 덤빌 수 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먹을거리가 아니라 그것을 먹는 식욕이다. 문제는 질도 양도 아니고 관능의 맛에 빠지는 데 있다. 먹는 것이 우리 안의 짐승을 지탱하거나 우리 영의 삶에 영감을 주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는 벌레들의 먹이가 될 때가 그렇다. 사냥꾼이 늪거북과 사향쥐와 그 밖의 그런 야만스러운 별미를 즐긴다면, 귀부인은 송아지 발로 만든 젤리나 바다 건너온 정어리를 즐기니 둘은 피장파장이다. 그는 물방앗간 저수지로 가고, 그 여자는 저장 단지로 간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시며 이 끈적끈적하고 짐승 같은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의 삶 전체는 놀랄 만큼 도덕적이다. 덕과 악덕 사이에는 한순간의 휴전도 없다. 선은 결코 망하지 않는 유일한 투자다. 세상을 둘러싸고 떨리는 하프의 음악 속에서 우리를 전율케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고집하는 가락이다. 하프는 우주 보험 회사의 떠돌이 외판원이어서 그 회사의 약관을 권하고, 우리의 작은 선은 우리가 내는 보험료의 전부다. 젊은이는 마침내 무심해지지만 우주의 법칙은 무심하지 않으며, 언제까지나 가장 예민한 사람의 편에 선다. 모든 산들바람에 귀를 기울여 꾸짖음을 들으라. 꾸짖음은 틀림없이 거기

있으며, 그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우리가 현 하나를 건드리거나 음전 하나를 움직이기만 해도 그 매혹적인 교훈이 우리를 꿰뚫는다. 성가신 소음도 멀리 떨어져서 들으면 우리 삶의 비천함을 꼬집는 당당하고 달콤한 풍자처럼, 음악으로 들리는 일이 많다.

우리는 우리 안에 짐승이 있음을 의식한다. 그 짐승은 우리의 더 높은 본성이 잠드는 만큼 깨어난다. 그것은 파충류 같고 관능적이며, 살아 있고 건강할 때에도 우리 몸에 깃들어 사는 벌레들처럼 아마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에게서 물러날 수는 있어도 그 본성을 바꿀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그 나름의 건강을 누릴지도 모른다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면서도 순수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두렵다. 요전 날 나는 하얗고 튼튼한 이와 엄니가 그대로 박힌 돼지 아래턱뼈 하나를 주웠는데, 그것을 보니 영의 건강과는 다른 동물의 건강과 활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짐승은 절제와 순수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성공했다. 맹자는 말한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아주 작다. 뭇사람은 그것을 금세 잃고, 군자는 그것을 조심스레 간직한다."[4] 우리가 순수에 이른다면 어떤 삶이 생겨날지 누가 알겠는가? 내게 순수를 가르쳐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을 안다면 나는 당장 그를 찾아 나설 것이다. "정념과 몸의 바깥 감각을 다스리는 것과 선한 행위는, 마음이 신에게 다가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된다고 『베다』는 밝힌다." 그러나 영은 한동안 몸의 모든 지체와 기능에 스며들어 그것을 다스릴 수 있고, 꼴로는 가장 거친 관능인 것을 순수와 헌신으로 바꿀 수 있다. 생식의 힘은 우리가 방종할 때는 흩어져 우리를 불결하게 하지만, 우리가 삼갈 때는 우리에게 활력과 영감을 준다. 정결은 사람의 꽃핌이고, 천재나 영웅다움이나 거룩함 같은 것들은 그 뒤에 맺히는 갖가지 열매일 뿐이다. 순수의 물길이 열리면 사람은 곧장 신에게로 흘러간다. 우리의 순수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의 불순은 우리를

떨어뜨리기를 번갈아 한다. 자기 안의 짐승이 나날이 죽어 가고 신성한 존재가 자리 잡아 가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복되다. 자기와 맺어진 열등하고 짐승 같은 본성 때문에 부끄러워할 까닭이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우리가 파우누스나 사티로스 같은 신이나 반신일 뿐이 아닌가 두렵다. 짐승과 맺어진 신성, 식욕의 피조물 말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치욕이 아닌가 두렵다.

"자기 짐승들에게 마땅한 자리를 정해 주고
제 마음의 숲을 개간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
이 말과 염소와 늑대와 온갖 짐승을 부릴 줄 알고,
그 나머지 모두에게 스스로 나귀가 되지 않는 사람은!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돼지 떼일 뿐 아니라,
돼지 떼를 홀려 미친 듯 곤두박질치게 하고
더 나쁘게 만든 그 마귀들이기도 하다."[5]

모든 관능은 여러 꼴을 띠지만 하나이고, 모든 순수도 하나다. 사람이 관능적으로 먹든, 마시든, 동침하든, 잠을 자든 마찬가지다. 그것들은 한 가지 식욕일 뿐이어서, 어떤 사람이 그 가운데 어느 하나를 하는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대단한 관능주의자인지 알 수 있다. 불순한 사람은 순수와 함께 서 있을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다. 굴의 한 어귀에서 공격을 받은 파충류는 다른 어귀로 고개를 내민다. 정결하려면 절제해야 한다. 정결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자기가 정결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는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덕에 대해 들어 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들은 소문에 맞추어 말할 뿐이다. 애써 노력하는 데서 지혜와 순수가 오고, 게으름에서 무지와 관능이 온다. 학생에게 관능은 굼뜬 마음의 버릇이다. 불결한 사람은 어디서나 게으른 사람, 난롯가에 앉아 있는 사람, 해가 엎드려 누운 그를 비추는 사람, 지치지도

않았으면서 쉬는 사람이다. 불결함과 모든 죄를 피하려면 열심히 일하라. 그것이 마구간 치우는 일이라 해도. 본성은 이겨 내기 어렵지만 이겨 내야 한다. 이교도보다 더 순수하지 않고, 더 자기를 버리지 않고, 더 경건하지 않다면, 그리스도교도라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나는 이교라 여겨지는 종교 체계를 많이 아는데, 그 가르침은 읽는 사람을 부끄러움으로 가득 채우고 새로운 노력을 하도록 다그친다. 그 노력이 그저 의식을 치르는 일이라 해도 그렇다.

나는 이런 것들을 말하기를 망설인다. 그러나 그것은 주제 때문이 아니다. 내 *말*이 얼마나 외설스럽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 불순을 드러내지 않고는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관능의 한 가지 꼴에 대해서는 부끄러움 없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면서 다른 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우리는 하도 타락해서 사람 본성의 필요한 기능에 대해 단순하게 말하지 못한다. 더 이른 시대 어떤 나라에서는 모든 기능을 공경스럽게 이야기했고 법으로 다스렸다. 힌두의 입법자에게는 아무리 근대의 취향에 거슬리더라도 지나치게 사소한 것이 없었다.[6] 그는 먹는 법, 마시는 법, 동침하는 법, 똥과 오줌을 누는 법 따위를 가르치며 비천한 것을 높이고, 이런 것들을 사소한 일이라 부르며 거짓으로 핑계를 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해, 순전히 자기만의 양식으로, 몸이라 불리는 신전을 짓는 건축가다. 그 대신 대리석을 망치로 두드린다고 해서 그 일을 피할 수는 없다. 우리는 모두 조각가이자 화가이며, 우리의 재료는 우리 자신의 살과 피와 뼈다. 어떤 고귀함이든 당장 사람의 이목구비를 다듬기 시작하고, 어떤 비천함이나 관능이든 그것을 짐승처럼 만들기 시작한다.

농부 존이 9월 어느 저녁,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문간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얼마간 일에 쏠려 있었다. 몸을 씻고 나서 그는

지성을 지닌 자기를 되살리려고 앉았다. 꽤 서늘한 저녁이어서 이웃 몇은 서리가 내릴까 걱정하고 있었다. 그가 생각의 흐름을 따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누군가 피리를 부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그의 기분과 어우러졌다. 그는 여전히 일을 생각했지만, 그 생각의 골자는, 일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자기가 마음에 없이 일을 계획하고 궁리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와는 거의 상관이 없다는 데 있었다. 그것은 끊임없이 떨어져 나가는 살갗의 비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피리 소리는 그가 일하는 곳과는 다른 세계에서 그의 귀에 와닿았고, 그의 안에서 잠자던 어떤 능력들에게 할 일을 일러 주었다. 피리 소리가 그가 사는 거리와 마을과 나라를 부드럽게 지워 버리자 어떤 목소리가 그에게 말했다. 영광스러운 삶이 너에게 가능한데 왜 여기 머물며 이 비천하고 고된 삶을 사는가? 저 별들은 이곳 말고 다른 들판 위에서도 반짝인다. 그러나 어떻게 이 처지에서 벗어나 정말로 그리로 옮겨 갈 수 있는가? 그가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은 어떤 새로운 금욕을 실천하는 것, 마음을 몸 안으로 내려보내 몸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점점 더 공경하며 대하는 것뿐이었다.

---

1. 초서, 『캔터베리 이야기』 총서시의 수도사 대목. 소로는 수도사를 「수녀」로 적었다.

2. 베단타: 『베다』 끝에 붙은 『우파니샤드』에 바탕을 둔 인도 철학.

3. 『대학』 전 7장.

4. 『맹자』 「이루 하」 편.

5. 존 던(1572~1631)의 시 「에드워드 허버트 경에게」.

6. 마누: 『마누 법전』을 지었다는 인도 신화의 입법자.

짐승 이웃

이따금 낚시를 함께 다니는 동무가 있었다. 그는 읍 반대편에서 마을을 가로질러 내 집까지 왔는데, 끼니를 낚는 일은 그것을 먹는 일만큼이나 어울려 노는 일이었다.

은자. 세상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세 시간째 스위트펀 위로 매미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군. 비둘기들은 다들 홰에서 잠들었는지 날갯짓 하나 없어. 방금 숲 너머에서 울린 게 농가의 점심 나팔이었나? 일꾼들이 소금에 절여 삶은 쇠고기와 사과술과 옥수수빵을 먹으러 들어오겠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제 몸을 들볶을까? 먹지 않는 자는 일할 필요도 없는데. 얼마나 거두었으려나. 보스 짖는 소리에 도무지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없는 그런 데서 누가 살겠나? 게다가 아, 그 살림살이! 이렇게 맑은 날 악마의 문손잡이를 반짝반짝 닦고 악마의 통을 박박 문질러야 한다니! 집 같은 건 아예 두지 않는 게 낫지. 이를테면 속 빈 나무 하나쯤. 그러고는 아침 방문이니 만찬회니! 딱따구리 하나 두드리고 갈 뿐이야. 아, 거기는 사람이 우글거려. 볕도 너무 뜨겁고. 내가 보기엔 다들 삶 속으로 너무 깊숙이 태어났어. 나한테는 샘에서 길어 온 물이 있고 선반에는 흑빵 한 덩이가 있지. 쉿!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군. 제대로 얻어먹지 못한 마을 사냥개가 사냥 본능에 끌려 들어왔나? 아니면 이 숲에 들어왔다는 그 길 잃은 돼지일까? 비 온 뒤에 그 발자국을 본 적이 있는데. 빠르게 다가오는군. 내 옻나무와 들장미가 떨고 있어. 아니, 시인 양반, 자넨가? 오늘 세상은 마음에 드나?

시인. 저 구름 좀 보게, 어떻게 걸려 있는지! 오늘 본 것 가운데 저게 제일 굉장하군. 옛 그림에도 저런 건 없고 외국 땅에도 없어. 스페인 앞바다에 나갔을 때라면 모를까. 저게 진짜 지중해 하늘이지. 나도 생계를 꾸려야 하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 낚시나 갈까 했네. 시인에게는 그게 진짜 생업이야. 내가 배운 일이라고는 그것뿐이고. 자, 가세.

은자. 그 말은 못 뿌리치겠군. 내 흑빵도 곧 떨어질 테고. 곧 기꺼이 같이 가겠네만, 지금 막 진지한 명상 하나를 마무리하는 참이야. 거의 끝에 다 온 것 같아. 그러니 잠깐만 혼자 있게 해 주게. 그래도 늦어지지 않게 그동안 자네는 미끼를 파 두게. 이 근방은 땅에 거름을 준 적이 없어서 지렁이 구경하기가 어렵다네. 그 종족은 거의 멸종했지. 입맛이 너무 당기지만 않으면 미끼 파는 재미가 고기 낚는 재미와 거의 맞먹는데, 오늘은 그 재미를 자네 혼자 다 누리게. 저 아래 고추나물이 흔들리는 땅콩 덤불 사이에 삽을 꽂아 보게. 김매듯이 풀뿌리 사이를 잘 살피면 뗏장 세 장을 뒤집을 때마다 지렁이 한 마리는 틀림없이 나올 걸세. 더 멀리 가 보고 싶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짓은 아니야. 내가 겪어 보니 좋은 미끼는 거의 거리의 제곱에 맞추어 늘어나더군.

은자 혼자. 가만있자, 어디까지 했더라? 아마 거의 이런 마음이었지. 세상이 대략 이런 각도로 놓여 있었어. 천국으로 갈까, 낚시하러 갈까? 이 명상을 곧 끝내 버리면 이렇게 달콤한 기회가 또 올까? 나는 평생 그 어느 때보다 사물의 정수 속으로 녹아들 뻔했는데. 생각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군. 그게 소용이 있다면 휘파람이라도 불어 불러들이련만. 생각이 먼저 우리에게 무언가를 내밀 때 "생각해 보지" 하고 미루는 게 현명한 일일까? 내 생각은 아무 자취도 남기지 않았고, 나는 그 길을 다시 찾을 수가 없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몹시 흐릿한 날이었어. 공자의 그 세 문장을 한번 읊어 볼까. 그러면 그

상태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지. 그게 울적함이었는지 막 움트던 황홀이었는지도 모르겠어. 비망. 같은 종류의 기회는 언제나 단 한 번뿐이다.

시인. 어떤가, 은자 양반, 너무 이른가? 온전한 놈으로 꼭 열세 마리 잡았네. 그 밖에 성치 않거나 덜 자란 놈도 몇 있지만 그건 잔챙이 고기한테 쓰면 되지. 바늘을 그리 많이 가리지 않으니까. 마을 지렁이들은 너무 크단 말이야. 피라미가 꼬챙이는 건드리지도 않고 한 마리로 한 끼를 때울 정도라니까.

은자. 그럼 됐네, 가세. 콩코드강으로 갈까? 물이 너무 불지만 않았으면 거기 재미가 쏠쏠하지.

◆

우리가 바라보는 바로 이 사물들이 왜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가? 마치 이 틈새는 생쥐가 아니면 아무것도 메울 수 없었다는 듯이, 사람은 왜 하필 이런 종의 짐승들을 이웃으로 두었는가? 내가 보기에 필페이 상회[1]는 짐승을 가장 잘 써먹었다. 짐승은 모두 어떤 뜻에서는 짐 나르는 짐승, 우리 생각의 얼마쯤을 실어 나르도록 지어진 짐승이기 때문이다.

내 집에 드나들던 생쥐는 이 나라에 들여왔다고들 하는 흔한 생쥐가 아니라, 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야생의 토박이 종이었다. 한 마리를 이름난 박물학자에게 보냈더니 그가 무척 흥미로워했다. 내가 집을 짓고 있을 때 이 생쥐 한 마리가 집 밑에 둥지를 틀었는데, 마루널을 두 겹째 깔고 대팻밥을 쓸어 내기도 전부터 점심때면 꼬박꼬박 나와서 내 발치의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곤 했다. 아마 사람을 그때 처음 보았을 것이다. 생쥐는 곧 아주 허물없어져서 내 신발 위를 달려 지나가고 옷을 타고 오르곤 했다. 몸놀림이 다람쥐를 닮아서 다람쥐처럼 짧게 몇 번씩

솟구치며 방의 벽을 쉽사리 타고 올랐다. 마침내 어느 날 내가 작업대에 팔꿈치를 괴고 있는데, 생쥐는 내 옷을 타고 올라와 소매를 따라 달리더니 내 점심을 싼 종이 둘레를 빙빙 돌았고, 나는 종이를 바짝 끌어안고 이리저리 피하며 생쥐와 까꿍 놀이를 했다. 그러다 마침내 내가 치즈 한 조각을 엄지와 검지 사이에 쥐고 가만히 있자, 생쥐는 다가와 내 손바닥에 앉아서 그것을 갉아 먹고는 파리처럼 얼굴과 앞발을 닦고 걸어가 버렸다.

곧 피비딱새 한 마리가 내 헛간에 둥지를 틀었고, 개똥지빠귀 한 마리는 몸을 지키려고 집에 기대어 자란 소나무에 둥지를 지었다. 6월에는 그토록 수줍은 새인 자고새(*Tetrao umbellus*)가 새끼들을 데리고 집 뒤 숲에서 집 앞으로 내 창 앞을 지나갔는데, 암탉처럼 꼬꼬 소리를 내며 새끼들을 부르는 몸짓 하나하나가 제가 숲의 암탉임을 보여 주었다. 사람이 다가가면 새끼들은 어미의 신호에 따라 회오리바람에 쓸려 가듯 갑자기 흩어지는데, 마른 잎과 잔가지를 어찌나 똑같이 닮았는지 많은 길손이 새끼들 한가운데 발을 들여놓고서, 어미 새가 푸드득 날아오르는 소리와 애타게 부르며 야옹거리는 소리를 듣거나 길손의 눈길을 끌려고 날개를 질질 끄는 모습을 보면서도 새끼들이 바로 곁에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다. 어미는 이따금 사람 앞에서 깃털을 흐트러뜨린 채 뒹굴고 빙빙 돌아서, 잠깐 동안은 그게 무슨 짐승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다. 새끼들은 꼼짝 않고 납작 웅크리고서 흔히 머리를 나뭇잎 밑에 들이밀고 멀리서 내리는 어미의 지시에만 귀를 기울이며, 사람이 다가가도 다시 달아나 제 자리를 드러내는 일이 없다. 밟을 수도 있고, 일 분 동안 눈길을 주고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나는 그럴 때 새끼들을 펼친 손바닥에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그래도 그것들은 어미와 본능을 따라 겁내지도 떨지도 않고 거기 웅크리고 있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이 본능은 어찌나 완벽한지, 한번은 새끼들을 다시

나뭇잎 위에 놓아 주다가 하나가 잘못해서 옆으로 넘어졌는데, 십 분 뒤에 보니 다른 새끼들과 함께 정확히 그 자세 그대로 있었다. 이 새끼들은 대부분의 새 새끼처럼 깃도 나지 않은 핏덩이가 아니라 병아리보다도 더 온전히 자랐고 일찍 깨친다. 뜨인 채 고요한 그 눈에 담긴, 놀랍도록 어른스러우면서도 천진한 표정은 무척 오래 기억에 남는다. 온갖 지성이 거기 비치는 듯하다. 그 눈은 어린것의 순수함만이 아니라 경험으로 맑아진 지혜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 눈은 새와 함께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눈이 비추는 하늘과 나이가 같다. 숲은 이런 보석을 다시 내놓지 않는다. 길손이 이토록 맑은 우물을 들여다볼 일은 흔치 않다. 무지하거나 무모한 사냥꾼은 흔히 이런 때 어미를 쏘아 버려서, 이 순진한 것들이 어슬렁거리는 짐승이나 새의 먹이가 되거나 저희가 그토록 닮은 썩어 가는 낙엽 속에 차츰 섞여 들게 내버려 둔다. 암탉이 품어 깐 새끼들은 무슨 기척만 있으면 곧바로 흩어져 그대로 사라진다고 한다. 다시 불러 모으는 어미의 소리를 끝내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내 암탉이고 병아리였다.

숲에는 숨어 지내기는 해도 야생으로 자유롭게 살면서 읍 가까이에서 여전히 제 목숨을 이어 가는, 사냥꾼만 눈치채는 생물이 놀랄 만큼 많다. 수달은 여기서 얼마나 숨어서 잘 사는지! 수달은 길이가 4피트, 어린 사내아이만큼 자라는데도 어쩌면 사람 눈에 한 번도 띄지 않는다. 전에 나는 내 집이 지어진 자리 뒤의 숲에서 너구리를 보았고, 밤이면 아마 그 낑낑대는 소리도 여전히 들었던 것 같다. 나는 대개 씨를 심고 나서 한낮에 한두 시간 그늘에서 쉬며 점심을 먹고, 내 밭에서 반 마일 떨어진 브리스터 언덕 밑에서 스며 나와 늪 하나와 개울 하나의 근원이 되는 샘가에서 책을 조금 읽었다. 그리로 가려면 어린 리기다소나무가 빽빽한 풀 덮인 우묵한 땅을 몇 차례 내려가 늪 둘레의 더 큰 숲으로 들어가야 했다. 거기 아주 외지고 그늘진 곳, 가지를 넓게 펼친 스트로브잣나무

밑에는 앉을 만한 깨끗하고 단단한 잔디밭이 그때까지도 남아 있었다. 나는 샘을 파내어 맑은 회색 물이 고이는 우물을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물을 흐리지 않고 한 통 가득 떠낼 수 있었고, 호수 물이 가장 따뜻해지는 한여름이면 물을 길으러 거의 날마다 그리로 갔다. 멧도요도 새끼들을 데리고 그리로 와서 진흙 속 벌레를 찾아 부리로 쑤셨는데, 어미는 새끼들 위로 겨우 1피트 높이로 날며 둑을 따라 내려가고 새끼들은 그 밑에서 떼 지어 달렸다. 그러다 마침내 나를 알아보면 어미는 새끼들을 두고 내 둘레를 빙빙 돌며 4, 5피트 안까지 점점 다가왔고, 날개와 다리가 부러진 시늉을 하며 내 주의를 끌어 새끼들을 빼돌리려 했다. 그때 새끼들은 이미 어미가 이른 대로 가냘프고 가는 소리로 삐삐 울며 한 줄로 늪을 지나 행군을 시작한 뒤였다. 어미 새는 보이지 않는데 새끼들 삐삐 우는 소리만 들릴 때도 있었다. 거기서는 멧비둘기들이 샘 위에 앉아 있거나 내 머리 위 부드러운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에서 가지로 푸드덕거리며 옮겨 다녔고, 가장 가까운 가지를 타고 쪼르르 내려오는 붉은다람쥐는 유난히 사람을 따르고 호기심이 많았다. 숲속 마음에 드는 자리에 오래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거기 사는 것들이 저마다 차례로 모습을 드러낸다.

나는 이보다 덜 평화로운 일들도 목격했다. 어느 날 장작더미, 아니 그루터기 더미로 나갔다가 큰 개미 두 마리가 서로 맹렬하게 싸우는 것을 보았는데, 한 마리는 붉었고 다른 한 마리는 그보다 훨씬 커서 길이가 거의 반 인치나 되는 검은 개미였다. 일단 맞붙자 둘은 결코 놓지 않고 나뭇조각 위에서 쉴 새 없이 버둥거리고 엎치락뒤치락 뒹굴었다. 더 둘러보니 놀랍게도 나뭇조각마다 그런 싸움꾼들로 덮여 있었다. 그것은 일대일 결투(*duellum*)가 아니라 전쟁(*bellum*), 두 개미 종족 사이의 전쟁이었고, 붉은 개미가 늘 검은 개미에 맞섰으며, 흔히 붉은 개미 둘이 검은 개미 하나와 붙었다. 이 미르미돈 군단이 내 장작 마당의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뒤덮었고, 땅에는 벌써 죽은 것과 죽어 가는 것이 붉은 개미 검은 개미 할 것 없이 널려 있었다. 그것은 내가 이제껏 목격한 단 하나의 전투, 전투가 한창일 때 내가 밟아 본 단 하나의 전장이었다. 서로를 몰살하는 전쟁, 한쪽에는 붉은 공화파, 다른 쪽에는 검은 제국파. 사방에서 그들은 죽기 살기로 싸웠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사람의 병사들도 그토록 굳세게 싸운 적은 없었다. 나는 나뭇조각들 사이 볕 드는 작은 골짜기에서 서로 단단히 끌어안은 한 쌍을 지켜보았는데, 한낮인 지금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아니면 목숨이 꺼질 때까지 싸울 기세였다. 몸집 작은 붉은 투사는 바이스처럼 적의 앞머리에 들러붙어, 그 싸움터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내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적의 더듬이 하나를 뿌리께에서 갉아 대고 있었다. 다른 더듬이는 이미 떨어져 나가게 만든 뒤였다. 그동안 힘센 검은 개미는 붉은 개미를 이쪽저쪽으로 내동댕이쳤고, 가까이 들여다보니 벌써 그의 팔다리 여럿을 떼어 낸 뒤였다. 그들은 불도그보다 더 끈질기게 싸웠다. 어느 쪽도 물러설 기미를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함성은 분명 "이기지 못하면 죽음을"이었다. 그사이 붉은 개미 한 마리가 홀로 이 골짜기의 비탈을 따라 다가왔는데, 몹시 흥분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이미 제 적을 해치웠거나 아직 싸움에 끼지 않았을 텐데, 팔다리가 하나도 축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마 뒤쪽이었을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방패를 들고 돌아오든지 방패에 실려 돌아오든지 하라고 일러 두었다. 아니, 어쩌면 그는 따로 떨어져 분노를 키우다가 이제 제 파트로클로스의 원수를 갚거나 그를 구하러 온 어느 아킬레우스였는지도 모른다. 그는 멀리서 이 고르지 못한 싸움을 보았고 (검은 개미가 붉은 개미보다 거의 두 배는 컸다),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싸우는 둘에게서 반 인치 떨어진 곳에 자세를 잡고 섰다. 그러고는 틈을 노리다가 검은 전사에게 덤벼들어 그의 오른쪽 앞다리 뿌리께부터

작전을 시작했고, 적에게는 제 팔다리 가운데 어느 것을 고를지 맡겨 두었다. 그리하여 셋이 목숨을 걸고 한 덩어리로 묶였으니, 마치 다른 어떤 자물쇠나 접착제도 부끄럽게 만드는 새로운 끌어당김이 발명된 듯했다. 이쯤 되자 그들이 저마다 군악대를 어느 높직한 나뭇조각 위에 세워 두고 그동안 국가를 연주하게 해서 굼뜬 자를 북돋우고 죽어 가는 투사들을 격려하고 있다 해도 나는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나 자신도 마치 그들이 사람이기라도 한 듯 얼마쯤 흥분했다. 생각하면 할수록 차이는 줄어든다. 그리고 미국의 역사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콩코드의 역사에는, 거기 나선 수로 보나 드러난 애국심과 영웅심으로 보나 이 싸움과 잠시라도 견줄 만한 싸움은 분명 기록되어 있지 않다. 수로 보나 살육으로 보나 그것은 아우스터리츠였고 드레스덴이었다. 콩코드 전투![2] 애국파 쪽에서 둘이 죽고 루서 블랜처드가 다쳤다! 그런데 여기서는 개미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버트릭이었고("쏘라! 제발 쏘라!"), 수천 마리가 데이비스와 호스머의 운명을 나누었다. 거기에는 돈 받고 싸우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나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 못지않게 원칙을 위해 싸웠지 차에 붙는 3펜스 세금을 피하려고 싸운 게 아니라는 데 의심이 없으며, 이 전투의 결과는 그 일에 관계된 이들에게 적어도 벙커힐 전투의 결과만큼은 중요하고 기억할 만할 것이다.

나는 내가 특히 자세히 그린 셋이 버둥거리던 나뭇조각을 집어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 결말을 보려고 창턱 위에 놓고 큰 유리컵을 엎어 씌웠다. 처음 말한 붉은 개미에게 현미경을 대어 보니, 그는 적의 남은 더듬이마저 끊어 놓고 이제 가까운 앞다리를 부지런히 갉아 대고 있었지만, 그 자신의 가슴은 다 찢겨 나가 거기 있는 급소를 검은 전사의 턱 앞에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검은 전사의 흉갑은 붉은 개미가 뚫기에는 너무 두꺼운 듯했다. 고통받는 붉은 개미의 검붉은 홍옥 같은 눈은 전쟁만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나움으로 번득였다. 그들은 유리컵

밑에서 반 시간을 더 버둥거렸고, 다시 보았을 때 검은 병사는 적들의 머리를 몸통에서 끊어 낸 뒤였는데, 아직 살아 있는 머리들은 안장 앞머리에 매단 끔찍한 전리품처럼 그의 양옆에 대롱대롱 매달려 여전히 어느 때보다 단단히 붙어 있는 듯했다. 그는 더듬이도 없고 다리라고는 한 짝 토막만 남은 데다 상처가 몇 군데인지도 모를 몸으로 힘없이 버둥거리며 그 머리들을 떼어 내려 애썼고, 반 시간이 더 지나서야 마침내 해냈다. 내가 유리컵을 들어 올리자 그는 그 불구의 몸으로 창턱을 넘어 가 버렸다. 그가 마침내 그 싸움에서 살아남아 어느 앵발리드 같은 상이군인 요양원에서 남은 날을 보냈는지는 나도 모른다. 다만 그 뒤로 그의 근면은 별로 쓸모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어느 편이 이겼는지도,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끝내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날 남은 하루 내내, 마치 내 집 문 앞에서 사람의 전투를, 그 몸부림과 사나움과 살육을 목격하고 감정이 들끓고 할퀴인 듯한 기분이었다.

커비와 스펜스는 개미들의 전투가 오래전부터 이름났고 그 날짜까지 기록되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목격한 듯한 근대 저자는 위베르 하나뿐이라고 말한다. 그들에 따르면 "아이네아스 실비우스는 배나무 줄기에서 큰 종과 작은 종이 몹시 끈질기게 벌인 한 전투를 아주 자세히 서술한 뒤에" 이렇게 덧붙인다. "이 싸움은 에우게니우스 4세의 교황 재위 중에, 이름난 법률가 니콜라우스 피스토리엔시스가 보는 앞에서 벌어졌는데, 그는 전투의 전말을 더없이 충실하게 전했다." 큰 개미와 작은 개미 사이의 비슷한 교전을 올라우스 마그누스도 기록했는데, 거기서는 이긴 작은 개미들이 제 병사들의 주검은 묻어 주고 거인 적들의 주검은 새의 먹이로 버려두었다고 한다. 이 일은 폭군 크리스티안 2세가 스웨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일어났다. 내가 목격한

전투는 포크 대통령 시절, 웹스터의 도망 노예법[3]이 통과되기 다섯 해 전에 벌어졌다.

지하 식료품 가게에서 진흙거북이나 쫓는 게 고작인 보스라는 마을 개가 여럿, 주인 몰래 숲에 들어와 그 육중한 엉덩이를 놀리며 옛 여우 굴과 우드척 굴에 코를 대 보았지만 헛일이었다. 어쩌면 숲을 날렵하게 누비며 아직도 숲속 주민들에게 타고난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찮은 똥개 한 마리에게 이끌려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다 길잡이보다 한참 뒤처져서는, 살펴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린 작은 다람쥐를 향해 개의 탈을 쓴 황소처럼 짖어 대고, 다시 그 무게로 덤불을 휘며 느릿느릿 뛰어가서는 길 잃은 날쥐 족속 하나를 쫓고 있다고 상상한다. 한번은 고양이 한 마리가 호수의 돌 많은 기슭을 따라 걷는 것을 보고 놀랐다. 고양이는 집에서 그렇게 멀리까지 돌아다니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놀란 것은 서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평생 깔개 위에 누워 지낸 더없이 집고양이다운 고양이도 숲에서는 아주 제집처럼 굴고, 그 은밀하고 살금살금한 거동으로 정식 주민들보다 더 토박이임을 보여 준다. 한번은 딸기를 따다가 숲에서 새끼 고양이들을 거느린 어미 고양이를 만났는데, 아주 야생이 되어 있었고 새끼들도 모두 어미처럼 등을 세우고 나를 향해 사납게 캭캭거렸다. 내가 숲에 살기 몇 해 전, 호수에서 가장 가까운 링컨의 농가 가운데 하나인 길리언 베이커 씨네에 이른바 "날개 달린 고양이"가 있었다. 1842년 6월 그 고양이를 보러 찾아갔을 때 고양이는 늘 하던 대로 숲으로 사냥을 나가고 없었다(나는 그것이 수컷인지 암컷인지 확실히 몰라서 흔히 하는 대로 암컷으로 친다). 그러나 안주인 말로는, 그 고양이가 한 해 남짓 전 4월에 이 근처에 나타났다가 마침내 집 안으로 들였다고 했다. 털빛은 짙은 갈색이 도는 회색에 목에 흰 반점이 있고 발이 희며, 여우처럼 숱 많은 큰 꼬리가 있었다. 겨울이면 털이 두툼하게 자라 옆구리를 따라

납작하게 펼쳐지면서 길이 10인치나 12인치, 너비 2½인치의 띠를 이루고 턱 밑에는 토시처럼 자랐는데, 윗면은 헐겁고 아랫면은 펠트처럼 엉겨 있다가 봄이면 이 덧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갔다고 했다. 그들은 그 고양이의 "날개" 한 쌍을 내게 주었고, 나는 지금도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 거기에 막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날다람쥐나 다른 야생 동물의 피가 섞인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럴 법도 하다. 박물학자들에 따르면 담비와 집고양이 사이에서 번식력 있는 잡종이 났다고 하기 때문이다. 내가 고양이를 길렀다면 바로 이런 고양이가 제격이었을 것이다. 시인이 타는 말에도 날개가 있는데, 시인의 고양이라고 날개가 없어야 할 까닭이 어디 있는가?

가을이면 아비(*Colymbus glacialis*)가 여느 해처럼 털갈이를 하고 멱을 감으러 호수에 와서, 내가 일어나기도 전에 그 야생의 웃음소리로 숲을 울렸다. 아비가 왔다는 소문이 돌면 밀댐의 사냥꾼들이 모두 경계 태세에 들어가 경마차를 타거나 걸어서, 둘씩 셋씩, 특허 받은 소총과 원뿔 탄환과 망원경을 들고 온다. 그들은 가을 낙엽처럼 바스락거리며 숲을 헤치고 오는데, 아비 한 마리에 사람이 적어도 열이다. 어떤 이들은 호수 이쪽에, 어떤 이들은 저쪽에 자리를 잡는다. 가엾은 새가 어디에나 한꺼번에 있을 수는 없으니, 여기서 잠기면 저기서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친절한 10월의 바람이 일어 나뭇잎을 바스락거리게 하고 수면에 잔물결을 일으키면, 적들이 망원경으로 호수를 샅샅이 훑고 총소리로 숲을 울려 대도 아비는 소리도 모습도 찾을 길이 없다. 물결은 너그럽게 일어나 성난 듯 부서지며 모든 물새의 편을 들고, 우리 사냥꾼들은 읍으로, 가게로, 하다 만 일로 퇴각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뜻을 이루는 일도 너무 잦았다. 이른 아침 물 한 통 길으러 가면 나는 이 위풍당당한 새가 몇 로드 앞에서 내 집 앞 작은 만을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자주 보았다. 그가 어떻게 몸을 놀리는지 보려고 배를 타고

따라잡으려 하면, 그는 물속으로 잠겨 감쪽같이 사라져서 어떤 때는 해가 기울 무렵에야 다시 눈에 띄었다. 그러나 물 위에서라면 내가 그를 당하고도 남았다. 그는 대개 비가 올 때 떠났다.

아주 고요한 10월 어느 오후, 북쪽 기슭을 따라 노를 저어 가던 때였다. 아비들은 바로 그런 날이면 박주가리 솜털처럼 호수에 내려앉는다. 호수 위를 둘러보며 아비를 찾았지만 헛일이었는데, 갑자기 한 마리가 내 몇 로드 앞에서 기슭을 떠나 호수 가운데로 미끄러져 나가다가 야생의 웃음을 터뜨려 제 자리를 드러냈다. 내가 노를 저어 쫓자 그는 잠겼지만, 다시 떠올랐을 때 나는 전보다 가까이 있었다. 그는 다시 잠겼는데 이번에는 내가 그가 갈 방향을 잘못 짚어서, 그가 떠올랐을 때 우리는 50로드나 떨어져 있었다. 그 틈을 벌려 놓는 데 내가 한몫했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길고 크게 웃었는데, 이번에는 전보다 웃을 까닭이 더 있었다. 그가 어찌나 교활하게 몸을 놀리는지 나는 그의 여섯 로드 안으로도 다가갈 수 없었다. 수면에 떠오를 때마다 그는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물과 땅을 침착하게 살폈고, 물이 가장 넓게 펼쳐져 있고 배에서 가장 먼 곳에 떠오를 수 있도록 길을 고르는 듯했다. 그가 얼마나 빨리 마음을 정하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지 놀라울 정도였다. 그는 곧장 나를 호수의 가장 넓은 곳으로 끌고 갔고, 거기서 그를 몰아낼 수가 없었다. 그가 제 머릿속으로 한 가지를 생각하는 동안 나는 내 머릿속으로 그의 생각을 알아맞히려 애썼다. 그것은 호수의 매끄러운 수면 위에서 벌어진, 사람 대 아비의 멋진 놀이였다. 갑자기 상대의 말이 판 밑으로 사라지면, 문제는 그의 말이 다시 나타날 곳에 가장 가까이 내 말을 놓는 것이다. 어떤 때 그는 배 바로 밑을 지나간 듯 뜻밖에도 내 맞은편에서 떠올랐다. 그는 숨이 어찌나 길고 지칠 줄 모르는지 가장 멀리 헤엄쳐 간 뒤에도 곧바로 다시 뛰어들었고, 그러면 깊은 호수의 매끄러운 수면 밑 어디쯤을 그가 물고기처럼 내달리고

있을지 어떤 꾀로도 짐작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호수의 가장 깊은 바닥까지 다녀올 시간도 능력도 있었기 때문이다. 뉴욕의 호수들에서는 송어를 잡으려고 놓은 낚싯바늘에 아비가 수면 밑 80피트에서 걸린 적이 있다고 한다. 월든은 그보다 더 깊지만. 다른 세계에서 온 이 어설픈 손님이 제 떼 사이를 내달리는 것을 보고 물고기들은 얼마나 놀랄까! 그런데도 그는 물 위에서처럼 물속에서도 제 길을 확실히 아는 듯했고, 거기서 훨씬 더 빨리 헤엄쳤다. 한두 번은 그가 수면 가까이 올라와 정찰하려고 머리만 내밀었다가 곧바로 다시 잠기는 자리에 이는 잔물결을 보았다. 나는 그가 어디서 떠오를지 계산하려 애쓰느니 노를 놓고 쉬며 그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편이 낫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한쪽 수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면 거듭거듭 뒤에서 그 이 세상 것 같지 않은 웃음소리가 들려와 나를 깜짝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꾀를 부려 놓고 왜 그는 떠오르는 순간마다 어김없이 그 큰 웃음소리로 제 자리를 드러냈을까? 그 흰 가슴만으로도 충분히 들키지 않았을까? 과연 얼간이 소리를 들을 만한 새로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가 떠오를 때면 대개 물 튀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로도 그를 찾아냈다. 그러나 한 시간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생생해 보였고, 여전히 기꺼이 잠겼으며, 처음보다 더 멀리 헤엄쳤다. 그가 수면에 떠올라 깃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가슴으로 그토록 태연히 미끄러져 가고, 모든 일은 물밑에서 물갈퀴 달린 발이 다 하는 모습은 놀라웠다. 그의 평소 울음은 이 악마 같은 웃음이었지만 물새 소리 같은 데가 조금 있었다. 그러나 이따금, 나를 가장 감쪽같이 따돌리고 멀찍이 떠올랐을 때면 길게 끄는, 이 세상 것 같지 않은 울부짖음을 내었는데, 아마 어떤 새보다도 늑대 소리에 더 가까웠을 것이다. 짐승이 주둥이를 땅에 대고 작정한 듯 길게 울부짖을 때처럼. 이것이 그의 아비 울음이었다. 아마 여기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야생의 소리일 것이며, 숲을 멀리 널리

울렸다. 나는 그가 제 재주를 믿고 내 애쓰는 꼴을 비웃느라 웃는다고 결론지었다. 그 무렵 하늘은 흐렸지만 호수가 워낙 잔잔해서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도 그가 수면을 깨는 자리가 보였다. 그의 흰 가슴, 고요한 공기, 잔잔한 물이 모두 그에게 불리했다. 마침내 50로드 떨어진 곳에 떠오른 그가 아비들의 신에게 도와 달라고 비는 듯 그 긴 울부짖음을 한 번 내자, 곧바로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수면에 잔물결을 일으키고 온 하늘을 안개 같은 비로 채웠다. 나는 마치 아비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그의 신이 나에게 노한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그가 거친 물결 위로 멀리 사라져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가을날이면 나는 몇 시간이고 오리들이 사냥꾼에게서 멀리 떨어져 꾀 있게 이리저리 뱃머리를 틀며 호수 가운데를 지키는 것을 지켜보았다. 루이지애나의 늪지 물길에서라면 그런 재주를 부릴 필요가 덜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날아오를 때면 오리들은 이따금 꽤 높이 떠서 하늘의 검은 티끌처럼 호수 위를 빙빙 돌았는데, 그 높이에서는 다른 호수들과 강까지 쉽게 내다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 내가 벌써 오래전에 그리로 가 버렸겠거니 생각할 즈음이면, 4분의 1마일을 비스듬히 날아내려와 아무도 없는 먼 곳에 내려앉곤 했다. 그러나 월든 한가운데 떠 있으면서 안전 말고 무엇을 얻었는지는 나도 모른다. 나와 같은 까닭으로 그 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

1. 필페이: 인도 우화집 『판차탄트라』를 지었다고 전하는 비드파이. 짐승 우화의 대명사처럼 쓰였다.

2. 콩코드 전투: 1775년 4월 19일 콩코드 노스 다리에서 벌어진 미국 독립 전쟁의 첫 싸움. 벙커힐 전투는 같은 해 6월이다.

3. 1850년의 도망 노예법. 대니얼 웹스터가 앞장서 지지했다.

집 데우기

10월에 나는 강가 풀밭으로 포도를 따러 가서, 먹을거리로서보다 아름다움과 향기로 더 값진 송이들을 한 짐 지고 왔다. 거기서 나는 크랜베리도 따지는 않고 감탄만 했다. 풀밭 풀에 매달린 작은 밀랍 보석, 진주처럼 윤나는 붉은 그 열매를 농부는 흉한 갈퀴로 긁어 따서 매끄럽던 풀밭을 엉클어 놓고, 오직 부셸과 달러로만 생각 없이 재어, 그 풀밭의 전리품을 보스턴과 뉴욕에 판다. 그곳의 자연 애호가들 입맛을 채우려고 *짓이겨져* 잼이 될 운명이다. 도살꾼들이 찢기고 축 늘어진 풀은 아랑곳없이 대초원의 풀숲에서 들소 혀를 긁어모으는 것도 이와 같다. 매자나무의 눈부신 열매도 내 눈의 양식이 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땅 임자와 길손들이 보고 지나친 야생 사과를 약한 불에 익혀 먹으려고 조금 모아 두었다. 밤이 익자 나는 겨울에 먹으려고 반 부셸을 쟁여 두었다. 그 무렵 어깨에 자루를 메고 손에는 밤송이를 깔 막대기를 들고(나는 늘 서리가 내리기를 기다리지는 않았다),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붉은다람쥐와 어치 들의 요란한 꾸지람 속에서 그때는 끝없이 펼쳐져 있던 링컨의 밤나무 숲을 누비는 일은 무척 신났다. 그 숲은 지금 철도 밑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 나는 이따금 다람쥐와 어치가 반쯤 먹다 둔 밤을 훔치기도 했는데, 그것들이 골라 둔 밤송이에는 틀림없이 실한 알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따금 나무에 올라가 흔들기도 했다. 밤나무는 내 집 뒤에도 자랐는데, 집을 거의 다 덮을 만큼 큰 나무 하나는 꽃이 피면 온 이웃에 향기를 풍기는

꽃다발이었지만, 열매는 대부분 다람쥐와 어치가 차지했다. 어치는 이른 아침 떼 지어 와서 밤이 떨어지기도 전에 송이에서 알을 빼 갔으므로, 나는 이 나무들을 그것들에게 내주고 온통 밤나무로만 이루어진 더 먼 숲을 찾아갔다. 이 밤은 있는 만큼은 빵을 대신하기에 넉넉했다. 아마 다른 대용품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날 미끼로 쓸 지렁이를 파다가 나는 줄기에 줄줄이 달린 땅콩(*Apios tuberosa*)을 찾아냈다. 원주민의 감자, 일종의 전설 속 열매인 이것을, 나는 어린 시절에 정말로 캐어 먹었다고 말하고 다녔으면서도 꿈을 꾼 게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하던 참이었다. 그 뒤로 다른 풀 줄기에 기대어 핀 쭈글쭈글한 붉은 벨벳 같은 꽃을 자주 보았지만 그것이 같은 식물인 줄은 몰랐다. 경작이 이 식물을 거의 씨를 말려 버렸다. 맛은 들큼해서 서리 맞은 감자 맛과 무척 비슷한데, 내가 먹어 보니 구운 것보다 삶은 것이 나았다. 이 덩이뿌리는 자연이 언젠가 여기서 제 자식들을 길러 소박하게 먹이겠다는 희미한 약속처럼 보였다. 살진 소와 물결치는 곡식밭의 시대인 요즘, 한때 어느 원주민 부족의 토템이었던 이 보잘것없는 뿌리는 아주 잊혔거나 꽃 피우는 덩굴로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야생의 자연이 다시 한번 이곳을 다스리게 해 보라. 그러면 연하고 호사스러운 영국 곡물들은 아마 수많은 적 앞에서 사라질 것이고,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까마귀가 마지막 옥수수 씨앗까지 남서쪽에 있다는 원주민의 신의 큰 옥수수밭으로 도로 물어 갈지 모른다. 까마귀가 옥수수를 바로 거기서 물어 왔다고들 하니까. 그러나 지금은 거의 씨가 마른 이 땅콩은 서리와 야생에도 아랑곳없이 되살아나 번성하고, 제가 토박이임을 입증하며, 사냥하는 부족의 먹을거리로서 지녔던 옛 중요성과 위엄을 되찾을지 모른다. 원주민의 어느 케레스나 미네르바가 그것을 처음 찾아내 사람에게 내려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시의 시대가

열리면 그 잎과 줄줄이 달린 알이 우리의 예술 작품에 새겨질지도 모른다.

9월 1일에 이미 나는 호수 건너편, 물가에 내민 곶 끝에서 사시나무 세 그루의 흰 줄기가 갈라져 나가는 바로 밑에, 작은 단풍나무 두세 그루가 진홍빛으로 물든 것을 보았다. 아, 그 빛깔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던가! 그리고 한 주 한 주 지나며 나무마다 제 성품이 차츰 드러났고, 나무는 호수의 매끄러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에 감탄했다. 날마다 아침이면 이 화랑의 관리인이 벽에 걸린 옛 그림을 떼어 내고, 더 눈부시거나 더 어울리는 빛깔로 돋보이는 새 그림을 걸었다.

10월이면 말벌들이 겨울 숙영지라도 찾아오듯 수천 마리씩 내 거처로 몰려와 안쪽 창과 머리 위 벽에 자리를 잡았고, 이따금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만들었다. 날마다 아침, 말벌들이 추위에 굳어 있을 때 나는 그 가운데 몇 마리를 쓸어 냈지만 굳이 애써 몰아내려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것들이 내 집을 머물 만한 피난처로 여겨 준 것이 칭찬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그것들은 나와 한 이부자리에서 잤지만 나를 크게 괴롭힌 적은 없었고, 겨울과 말할 수 없는 추위를 피해 내가 모르는 어느 틈새로인가 차츰 사라졌다.

11월에 마침내 겨울 숙영지로 들어가기 전까지 나는 말벌처럼 월든의 북동쪽 기슭을 찾아가곤 했다. 리기다소나무 숲과 돌 많은 기슭에서 되비치는 햇볕이 그곳을 호수의 난롯가로 만들어 주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이 지핀 불보다 햇볕에 몸을 데우는 편이 훨씬 즐겁고 몸에도 좋다. 나는 그렇게, 떠나간 사냥꾼처럼 여름이 남겨 둔 아직 빨갛게 타는 잉걸불에 몸을 데웠다.

◆

굴뚝을 쌓을 때가 되자 나는 벽돌 쌓기를 공부했다. 내 벽돌은 헌 벽돌이라 흙손으로 긁어 닦아야 했으므로, 나는 벽돌과 흙손의 성질에 관해 여느 사람보다 많이 배웠다. 벽돌에 붙은 회반죽은 쉰 해 묵은 것인데도 여전히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고들 했다. 그러나 이것은 참이든 아니든 사람들이 즐겨 되풀이하는 말 가운데 하나다. 그런 말 자체가 해가 갈수록 더 굳고 더 단단히 들러붙어서, 아는 체하는 늙은이에게서 그것을 긁어 떼어 내려면 흙손으로 여러 번 내리쳐야 할 것이다. 메소포타미아의 많은 마을이 바빌론의 폐허에서 가져온 아주 질 좋은 헌 벽돌로 지어졌는데, 거기 붙은 접착제는 더 오래되었고 아마 더 단단할 것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나는 그토록 거센 타격을 그렇게 많이 받고도 닳지 않는 강철의 남다른 질김에 놀랐다. 내 벽돌은 전에도 굴뚝에 들어가 있던 것이라 거기서 느부갓네살의 이름을 읽지는 못했지만, 나는 품과 낭비를 덜려고 화덕에 쓰였던 벽돌을 찾을 수 있는 만큼 골라냈고, 화덕 둘레의 벽돌 사이 틈은 호숫가에서 주운 돌로 메웠으며, 회반죽도 같은 곳의 흰 모래로 개었다. 나는 화덕 둘레에서 가장 오래 꾸물거렸다. 그곳이 집에서 가장 생명에 닿은 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나는 어찌나 찬찬히 일했는지, 아침에 땅바닥에서 시작했는데도 밤이 되면 바닥에서 몇 인치 올라온 벽돌 한 켜가 내 베개 노릇을 했다. 그래도 그 때문에 목이 뻣뻣해진 기억은 없다. 내 목이 뻣뻣한 것은 그보다 훨씬 오래된 일이다. 그 무렵 나는 시인 하나를 두 주 동안 먹이고 재웠는데, 그 때문에 자리가 비좁아 애를 먹었다. 내게 칼이 두 자루 있었는데도 그는 제 칼을 가져왔고, 우리는 칼을 흙에 푹 찔러 넣어 닦곤 했다. 그는 밥 짓는 수고도 나와 나누었다. 나는 내 일이 조금씩 반듯하고 단단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며 기뻤고, 일이 더디게 나아간다면 그만큼 오래 견디도록 짜여 있는 셈이라고 생각했다. 굴뚝은 얼마쯤 독립된 구조물이다. 땅을 딛고 서서 집을 뚫고 하늘로 솟는다.

집이 타 버린 뒤에도 때로는 여전히 서 있어서 그 중요함과 독립성을 드러낸다. 이것이 여름이 끝나 갈 무렵이었다. 이제는 11월이었다.

◆

북풍이 벌써 호수를 식히기 시작했지만, 호수가 워낙 깊어서 몇 주 동안 꾸준히 불어야 했다. 저녁에 불을 피우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아직 집에 회반죽을 바르기 전이라 판자 사이에 틈이 많아서 굴뚝이 연기를 유난히 잘 빨아올렸다. 그래도 나는 옹이투성이 거친 갈색 판자에 둘러싸이고 머리 위 높이 껍질이 붙은 서까래가 걸린 그 서늘하고 바람 잘 통하는 방에서 즐거운 저녁을 몇 번 보냈다. 회반죽을 바른 뒤로 내 집은 결코 그때만큼 눈을 즐겁게 하지 못했다. 더 아늑해졌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람이 사는 방은 어느 것이나 머리 위에 얼마쯤 어둑한 곳이 생길 만큼 높아서, 저녁이면 서까래 둘레에서 너울대는 그림자들이 놀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형상은 벽화나 그 밖의 가장 값비싼 세간보다 공상과 상상을 더 즐겁게 한다. 내 집을 거처로만이 아니라 몸을 데우는 데도 쓰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나는 그 집에 살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나는 장작이 화덕 바닥에 닿지 않도록 떠받칠 낡은 장작 받침쇠 한 쌍을 구해 두었는데, 내가 쌓은 굴뚝 뒷벽에 그을음이 앉는 것을 보니 흐뭇했고, 나는 여느 때보다 더 떳떳하고 더 흐뭇하게 불을 쑤셨다. 내 거처는 작아서 그 안에 메아리 하나 들이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방이 하나뿐이고 이웃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더 넓어 보였다. 집의 매력이 모두 한 방에 모여 있었다. 그 방이 부엌이고 침실이고 응접실이고 거실이었다. 부모나 자식, 주인이나 하인이 집에 살면서 누리는 만족이 무엇이든 나는 그것을 모두 누렸다. 카토는 가장(*patremfamilias*)이라면 시골 별장에 이런 것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cellam oleariam, vinariam, dolia multa, uti lubeat caritatem expectare, et rei, et virtuti, et gloriae erit). 곧 "기름 광과 포도주 광, 많은 술독이 있어서 궂은 때가 오기를 즐겁게 기다릴 수 있어야 하니, 그것이 그의 이익과 덕과 영광이 될 것이다." 내 지하 저장고에는 감자 한 통, 바구미가 든 완두콩 2쿼트쯤이 있었고, 선반에는 쌀 조금, 당밀 한 단지, 그리고 호밀 가루와 옥수수 가루가 1펙씩 있었다.

나는 이따금 황금시대에 서 있을 더 크고 사람 많은 집을 꿈꾼다. 오래가는 재료로 짓고 겉치레 장식은 하나도 없으면서 여전히 방 하나로만 된 집, 천장도 회반죽도 없이 드러난 서까래와 중도리가 머리 위에 일종의 낮은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넓고 투박하고 튼실한 원시의 큰 방이다. 비와 눈을 막기에 쓸모 있고, 문지방을 넘으며 옛 왕조의 쓰러진 사투르누스에게 예를 올리고 나면 대공과 사공이 우뚝 서서 경의를 받는 곳. 지붕을 보려면 장대 끝에 횃불을 매달아 쳐들어야 하는 동굴 같은 집. 어떤 이는 화덕 안에, 어떤 이는 창문 오목한 데에, 어떤 이는 긴 의자에, 어떤 이는 큰 방 이쪽 끝에, 어떤 이는 저쪽 끝에 살고, 원한다면 어떤 이는 거미들과 함께 서까래 위 높은 데에 살아도 되는 곳. 바깥문을 열면 벌써 들어와 있고 그것으로 격식은 끝나는 집. 지친 길손이 더 길을 갈 필요 없이 씻고 먹고 이야기하고 잘 수 있는 곳. 폭풍 치는 밤이면 닿기만 해도 반가울 피난처, 집의 본질은 모두 갖추었으되 살림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는 곳. 그 집의 보물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사람이 써야 할 물건은 모두 제 못에 걸려 있는 곳. 부엌이자 식료품 광이자 응접실이자 침실이자 곳간이자 다락인 곳. 통이나 사다리처럼 꼭 있어야 할 물건, 찬장처럼 편리한 물건이 눈에 보이고, 냄비 끓는 소리가 들리고, 저녁을 익히는 불과 빵을 굽는 화덕에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며, 꼭 필요한 세간과 연장이 가장 큰 장식인 곳. 빨래를 밖에 내지 않고 불도 끄지 않으며 안주인도 내몰지 않는 곳, 요리하는 이가 지하

저장고로 내려가려 할 때 들창 위에서 비켜 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해서, 굳이 발을 굴러 보지 않고도 발밑 땅이 단단한지 비었는지 알게 되는 곳. 안이 새 둥지처럼 훤히 열려 드러나 있어서, 앞문으로 들어가 뒷문으로 나가는 동안 그 집 식구 누군가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집. 손님이 된다는 것이 그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 자유를 받는 일이지, 그 집의 8분의 7에서 조심스레 따돌려져 어느 방 하나에 갇힌 채 거기서 편히 지내라는 말을 듣는 일, 곧 독방에 갇히는 일이 아닌 곳. 요즘 주인은 손님을 *자기* 화롯가에 들이지 않고, 석공을 시켜 제 집 복도 어딘가에 손님용 화롯가를 따로 쌓게 한다. 그러니 손님 대접이란 손님을 될 수 있는 한 멀리 *붙들어 두는* 기술이다. 요리를 두고는 마치 주인이 손님을 독살할 속셈이라도 있는 듯 비밀이 많다. 나는 여러 사람의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있고 법에 따라 쫓겨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집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그린 것과 같은 집에서 소박하게 사는 왕과 왕비라면, 가는 길이 맞을 때 헌 옷차림으로 찾아갈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혹시라도 요즘 궁전에 붙들리게 된다면,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은 뒷걸음질로 물러나오는 법뿐일 것이다.

우리의 삶이 응접실 말의 상징들에서 그토록 멀리 떨어져 흘러가고, 그 은유와 비유는 말하자면 미끄럼 통로와 음식 승강기를 거쳐 그토록 멀리서 끌어와야 하니, 응접실 말 자체가 기운을 다 잃고 완전히 *입방아*로 타락해 버릴 것만 같다. 바꾸어 말하면 응접실이 부엌과 작업장에서 너무 멀다. 저녁 식사조차 대개는 저녁 식사의 비유일 뿐이다. 마치 야만인만이 자연과 진리 가까이 살아서 거기서 비유를 빌려 올 수 있다는 듯이. 멀리 북서부 준주나 맨섬에 사는 학자가 부엌에서는 무엇이 점잖은 말인지 어찌 알겠는가?

그러나 내 손님 가운데 남아서 나와 함께 급히 쑨 옥수수 죽(hasty-pudding)을 먹을 만큼 대담한 사람은 한둘뿐이었다. 그 고비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 그들은 마치 그 일이 집을 뿌리째 흔들기라도 할 듯 오히려 급히 물러났다. 그래도 집은 급히 쑨 죽을 수없이 견디고 서 있었다.

나는 날이 얼어붙을 때까지 회반죽을 바르지 않았다. 그 일을 하려고 호수 맞은편 기슭에서 더 희고 깨끗한 모래를 배로 실어 왔는데, 그런 탈것이라면 필요할 때 훨씬 멀리까지라도 가고 싶어졌을 것이다. 그사이 내 집은 사방이 땅에 닿도록 지붕널로 덮여 있었다. 욋가지를 박을 때 나는 못 하나하나를 망치질 한 번에 쑥 박아 넣을 수 있어서 기뻤고, 반죽판의 회반죽을 깔끔하고 재빠르게 벽으로 옮겨 바르는 것이 내 소망이었다. 나는 어느 잘난 체하는 사내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는 한때 좋은 옷을 차려입고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일꾼들에게 훈수를 두곤 했다. 어느 날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 주겠다고 나선 그는 소맷부리를 걷어 올리고 미장이의 반죽판을 움켜쥐고는 흙손에 무사히 반죽을 떠 얹은 다음, 머리 위 욋가지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그쪽으로 대담하게 손을 휘둘렀다. 그리고 그 즉시, 완전히 체면을 구기며, 반죽을 고스란히 주름 장식 달린 제 가슴팍에 받았다. 나는 추위를 그토록 확실히 막아 주고 보기 좋게 마무리되는 회반죽 바르기가 얼마나 알뜰하고 편리한지 새삼 감탄했고, 미장이가 당하기 쉬운 갖가지 사고도 알게 되었다. 내가 반죽을 미처 고르기도 전에 그 물기를 다 빨아들이는 벽돌이 얼마나 목말라하는지, 새 화덕에 세례를 주는 데 물이 몇 통이나 드는지 보고 나는 놀랐다. 나는 그 전 겨울에 실험 삼아 우리 강에서 나는 민물조개(*Unio fluviatilis*) 껍데기를 구워 석회를 조금 만들어 보았기 때문에, 내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알았다. 마음만 있었다면 1, 2마일 안에서 좋은 석회암을 구해 손수 구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

그사이 호수는 가장 그늘지고 얕은 작은 만에서부터 살얼음이 덮였다. 호수 전체가 얼기 며칠, 아니 몇 주 전이었다. 첫 얼음은 단단하고 검고 투명해서 유난히 흥미롭고 완벽하며, 얕은 곳의 바닥을 살펴볼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를 준다. 두께가 겨우 1인치인 얼음 위에 물 위의 소금쟁이처럼 길게 엎드려, 겨우 2, 3인치 떨어진 바닥을 유리 뒤의 그림처럼 느긋하게 살펴볼 수 있고, 그때는 물도 늘 잔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래에는 어떤 생물이 돌아다니다가 제 발자국을 되짚어 간 고랑이 많고, 난파선 잔해 대신 흰 석영 알갱이로 지은 날도래 애벌레 집이 흩어져 있다. 고랑 속에서도 그 집이 몇 개 보이니 아마 그것들이 고랑을 냈을 것이다. 그것들이 내기에는 고랑이 깊고 넓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대상은 얼음 그 자체다. 다만 그것을 살펴보려면 가장 이른 기회를 살려야 한다. 얼음이 언 다음 날 아침에 가까이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얼음 속에 있는 듯 보이던 거품이 대부분 얼음 아랫면에 붙어 있고, 바닥에서 거품이 쉴 새 없이 더 올라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동안 얼음은 아직 비교적 단단하고 검다. 다시 말해 얼음을 통해 물이 보인다. 이 거품들은 지름이 80분의 1인치에서 8분의 1인치로 무척 맑고 아름다워서, 얼음 너머로 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볼 수 있다. 1제곱인치에 서른 개에서 마흔 개쯤 있을 것이다. 얼음 속에도 벌써 길이가 반 인치쯤 되는, 좁고 길쭉하게 곧추선 거품이 꼭짓점을 위로 한 뾰족한 원뿔 꼴로 들어 있다. 얼음이 아주 갓 얼었다면 그보다는 아주 작은 공 모양 거품들이 염주알처럼 하나 위에 하나씩 곧게 늘어선 것이 더 흔하다. 그러나 얼음 속의 이 거품들은 얼음 밑의 거품만큼 많지도 뚜렷하지도 않다. 나는 이따금 얼음의 세기를 시험해 보려고 돌을 던지곤 했는데, 얼음을 뚫고 들어간 돌은 공기를 끌고 들어가서 얼음 밑에 아주 크고 뚜렷한 흰 거품을 만들었다. 어느 날 마흔여덟 시간 뒤에 같은 자리에 가 보니, 그 큰 거품들은 여전히 온전했다. 얼음 덩이

가장자리의 이음매로 똑똑히 볼 수 있었듯이 얼음이 1인치 더 얼었는데도 그랬다. 그러나 지난 이틀이 늦가을의 때아닌 봄날처럼 무척 따뜻했던 탓에, 얼음은 이제 물의 짙은 초록빛과 바닥을 보여 주는 투명한 얼음이 아니라 불투명하고 희끄무레하거나 잿빛이었으며, 두께는 두 배인데도 전보다 별로 단단하지 않았다. 공기 거품들이 이 열기에 크게 부풀어 서로 엉겨 붙으면서 고른 꼴을 잃었기 때문이다. 거품들은 더는 하나 위에 하나씩 곧게 늘어서 있지 않고, 흔히 자루에서 쏟아 낸 은화처럼 서로 겹쳐 있거나, 얇게 갈라진 틈을 차지한 듯 얇은 조각 모양이었다. 얼음의 아름다움은 사라졌고, 바닥을 살펴보기에도 너무 늦었다. 내 큰 거품들이 새 얼음에 대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나는 중간 크기 거품 하나가 든 얼음 덩이를 깨어 내어 뒤집어 보았다. 새 얼음은 거품 둘레와 밑에 얼어서, 거품은 두 얼음 사이에 끼어 있었다. 거품은 온전히 아래 얼음 속에 있되 위 얼음에 바짝 붙어 있었고, 납작하거나 어쩌면 살짝 렌즈 꼴이었으며, 가장자리가 둥글고 깊이 4분의 1인치에 지름 4인치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품 바로 밑의 얼음이 엎어 놓은 접시 꼴로 아주 고르게 녹아, 가운데가 8분의 5인치 높이까지 파여 있었고, 물과 거품 사이에는 두께가 8분의 1인치도 안 되는 얇은 칸막이만 남아 있었다. 여러 곳에서는 이 칸막이 속의 작은 거품들이 아래로 터져 나가 있었으니, 지름이 1피트나 되는 가장 큰 거품들 밑에는 아마 얼음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나는 처음에 얼음 아랫면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던 수없이 많은 작은 거품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얼음 속에 얼어 들어갔고, 저마다 제 크기만큼 아래 얼음에 대고 볼록렌즈처럼 작용해 얼음을 녹이고 삭게 했으리라고 추론했다. 이것들이 얼음이 쩡쩡 갈라지고 우우 울게 하는 데 한몫하는 작은 공기총이다.

◆

내가 회반죽 바르기를 막 끝냈을 때 마침내 겨울이 제대로 들어섰고, 바람은 그때까지 허락을 받지 못했다는 듯 집 둘레에서 울부짖기 시작했다. 땅이 눈으로 덮인 뒤에도 밤마다 기러기들이 어둠 속에서 끼룩끼룩 울고 날개 소리를 휘휘 내며 무겁게 날아와서, 어떤 무리는 월든에 내려앉고 어떤 무리는 숲 위로 낮게 페어헤이븐 쪽으로 날아가 멕시코로 향했다. 몇 번은 밤 열 시나 열한 시에 마을에서 돌아오다가, 내 거처 뒤 작은 웅덩이 곁 숲의 마른 잎 위로 먹이를 찾아 올라온 기러기 떼, 아니면 오리 떼가 걷는 소리를 들었고, 그것들이 서둘러 떠날 때 우두머리가 희미하게 끼룩거리거나 꽥꽥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1845년에 월든은 12월 22일 밤에 처음으로 온통 얼어붙었다. 플린트 호수와 다른 더 얕은 호수들과 강은 열흘이나 그 이상 앞서 얼어 있었다. 1846년에는 16일, 1849년에는 31일쯤, 1850년에는 12월 27일쯤, 1852년에는 1월 5일, 1853년에는 12월 31일이었다. 눈은 이미 11월 25일부터 땅을 덮고 있었고, 갑자기 겨울 풍경으로 나를 에워쌌다. 나는 껍데기 속으로 더 깊이 움츠러들어, 집 안에서도 가슴속에서도 불을 환하게 지피려고 애썼다. 이제 내 바깥일은 숲에서 죽은 나무를 모아 손에 들거나 어깨에 메고, 때로는 죽은 소나무를 양 겨드랑이에 하나씩 끼고 헛간까지 끌고 오는 일이었다. 한창때를 다 지낸 낡은 숲 울타리 하나는 내게 큰 횡재였다. 나는 그것을 불카누스에게 바쳤다. 경계의 신 테르미누스를 섬기기에는 이미 늦었기 때문이다. 방금 눈 속에 나가 그 저녁을 익힐 땔감을 사냥해 온, 아니, 훔쳐 왔다고 해도 좋을 사람의 저녁 식사는 얼마나 더 흥미로운 일인가! 그의 빵과 고기는 달다. 우리 읍들 대부분의 숲에는 온갖 섶나무와 버려진 나무가 많은 불을 지피고도 남을 만큼 있지만 지금은 아무도 데우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그것이 어린나무가 자라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호수에 떠다니는 나무도 있었다. 그 여름에 나는 철도를 놓을 때 아일랜드 사람들이 껍질째 서로 핀을 박아 묶어 둔 리기다소나무 통나무 뗏목 하나를 찾아냈다. 나는 이것을 얼마쯤 기슭으로 끌어 올려 두었다. 두 해 동안 물에 잠겼다가 여섯 달 동안 높은 데 올라와 있었는데도 썩은 데 하나 없이 멀쩡했다. 다만 물을 너무 먹어 말릴 수가 없었다. 어느 겨울날 나는 이것을 한 토막씩 호수 건너로 거의 반 마일이나 미끄러뜨리며 놀았다. 길이 15피트 통나무 한쪽 끝을 어깨에 메고 다른 쪽 끝은 얼음에 댄 채 스케이트를 지치며 뒤따라가기도 했고, 통나무 몇 개를 자작나무 가지로 한데 묶은 다음 끝에 갈고리가 달린 더 긴 자작나무나 오리나무로 끌고 건너기도 했다. 그것들은 물을 흠뻑 먹어 거의 납처럼 무거웠지만 오래 탈 뿐 아니라 무척 뜨거운 불을 냈다. 아니, 마치 송진이 물에 갇혀 등잔에서처럼 더 오래 타기라도 하는 듯, 물에 불었기 때문에 더 잘 탄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길핀[1]은 잉글랜드 숲 언저리 주민들에 관한 글에서 "무단 침입자들의 잠식과 그렇게 숲 언저리에 세운 집과 울타리"는 "옛 삼림법에서 큰 폐해로 여겨져, 짐승을 겁주고 숲을 해친다(*ad terrorem ferarum, ad nocumentum forestae*) 하여 불법 점유(*purprestures*)라는 이름 아래 엄하게 처벌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사냥꾼이나 나무꾼보다, 아니 내가 숲의 수석 감독관이라도 되는 듯이, 사냥감과 푸른 숲을 지키는 데 마음을 썼다. 숲 한 자락이라도 타 버리면, 내가 실수로 태운 것이라 해도, 나는 땅 임자들보다 더 오래가고 더 달랠 길 없는 슬픔으로 슬퍼했다. 아니, 땅 임자들이 손수 숲을 베어 낼 때도 슬퍼했다. 우리 농부들이 숲을 벨 때, 옛 로마 사람들이 신성한 숲을 솎아 내거나 그 안에 빛을 들일 때(*lucum conlucare*) 느꼈던 그 외경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다시 말해 숲이 어느 신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믿는다면 좋겠다. 로마 사람은 속죄의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빌었다. 이 숲이 바쳐진 신이시여, 남신이시든 여신이시든, 저와 제 집안과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운운.

이 시대에, 이 새로운 나라에서도 나무를 아직 이토록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 값어치는 금보다 더 오래가고 더 두루 통한다. 우리가 그 숱한 발견과 발명을 해냈는데도 장작더미를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없다. 나무는 우리의 색슨과 노르만 조상에게 그랬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귀하다. 그들이 나무로 활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나무로 총 개머리판을 만든다. 서른 해도 더 전에 미쇼는 뉴욕과 필라델피아의 땔나무 값이 "파리의 가장 좋은 나무 값과 거의 맞먹고 때로는 넘어선다. 이 거대한 수도는 해마다 30만 코드가 넘는 나무를 쓰고, 300마일 둘레가 경작된 들판으로 에워싸여 있는데도 그렇다"고 말한다. 이 읍에서 나무 값은 거의 꾸준히 오르고 있어서, 문제는 올해 값이 지난해보다 얼마나 더 오르느냐뿐이다. 다른 볼일 없이 몸소 숲에 오는 기술공과 장사꾼들은 어김없이 나무 경매에 나타나고, 나무꾼 뒤에서 이삭줍기를 하는 특권에 비싼 값을 치르기까지 한다. 사람들이 땔감과 온갖 기술의 재료를 찾아 숲으로 간 지는 벌써 오래다. 뉴잉글랜드 사람과 뉴네덜란드 사람, 파리 사람과 켈트 사람, 농부와 로빈 후드, 구디 블레이크와 해리 길이 다 그랬다. 세상 대부분의 곳에서 왕자와 농민, 학자와 야만인이 모두 똑같이, 몸을 데우고 먹을 것을 익히려면 아직도 숲에서 나무 몇 개비가 있어야 한다. 나도 그것 없이는 지낼 수 없었다.

사람은 누구나 제 장작더미를 일종의 애정을 품고 바라본다. 나는 내 장작더미를 창 앞에 두기를 좋아하고, 즐거운 일을 떠올리게 해 주는 나뭇조각은 많을수록 좋다. 내게는 아무도 제 것이라 하지 않는 낡은 도끼가 한 자루 있었는데, 나는 겨울날 틈틈이 집의 볕 드는 쪽에서

그것으로 콩밭에서 캐낸 그루터기들을 가지고 놀았다. 내가 밭을 갈 때 쟁기 소를 몰던 사람이 예언한 대로, 그루터기는 나를 두 번 데워 주었다. 한 번은 쪼갤 때, 또 한 번은 불 속에 있을 때. 그러니 어떤 땔감도 이보다 더 많은 열을 낼 수는 없었다. 도끼는 마을 대장장이에게 가져가 "벼리라"는 충고를 들었지만, 나는 대장장이를 건너뛰고 숲에서 구한 히코리 자루를 끼워 그럭저럭 쓰게 만들었다. 날은 무뎠을지 몰라도 자루만은 곧게 박혔다.

송진 밴 소나무 몇 토막은 큰 보물이었다. 이런 불의 양식이 아직도 땅속 깊이 얼마나 많이 감추어져 있는지 떠올려 보면 흥미롭다. 지난 몇 해 동안 나는 전에 리기다소나무 숲이 서 있던 어느 헐벗은 산비탈을 자주 탐사하러 가서 송진 밴 소나무 뿌리를 캐내곤 했다. 그것은 거의 썩지 않는다. 적어도 서른 해, 마흔 해 묵은 그루터기도 속은 여전히 멀쩡하다. 겉재목은 모두 부엽토가 되어 버렸지만. 두꺼운 껍질 비늘이 심에서 4, 5인치 떨어진 곳에 땅과 높이를 맞춘 고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도끼와 삽으로 이 광맥을 파 들어가, 쇠기름처럼, 아니 금맥이라도 만난 듯 누런 골수 같은 저장물을 땅속 깊이까지 따라간다. 그러나 대개 나는 눈이 오기 전에 헛간에 쟁여 둔 숲의 마른 잎으로 불을 붙였다. 생 히코리를 잘게 쪼개면 나무꾼이 숲에 야영할 때 쓰는 불쏘시개가 된다. 나도 가끔 그것을 조금 얻었다. 지평선 너머에서 마을 사람들이 불을 지필 때면 나도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깃발로 월든 골짜기의 여러 야생 주민에게 내가 깨어 있음을 알렸다.

가벼운 날개의 연기, 이카로스의 새여,
솟아오르다 제 깃을 녹이는 그대,
노래 없는 종다리, 새벽의 전령이여,
마을들 위를 둥지 삼아 맴도는 그대.
아니면 떠나가는 꿈이여, 한밤 환영의
어렴풋한 형체여, 옷자락을 걷어 모으는 그대.
밤이면 별을 가리고, 낮이면
빛을 흐리고 해를 지워 버리는 그대.
가거라, 나의 향이여, 이 화덕에서 위로 올라
신들에게 이 맑은 불꽃을 용서해 달라 빌어 다오.

갓 벤 단단한 생나무는 조금밖에 쓰지 않았지만 어느 나무보다 쓸모가 좋았다. 나는 겨울날 오후 산책을 나갈 때면 이따금 불을 잘 지펴 두고 나갔는데, 서너 시간 뒤에 돌아와 보면 불은 여전히 살아서 빨갛게 타고 있었다. 내가 나가 있어도 내 집은 비어 있지 않았다. 마치 쾌활한 살림꾼을 남겨 두고 나간 것 같았다. 거기에는 나와 불이 함께 살았다. 그리고 대개 내 살림꾼은 믿음직했다. 그러나 어느 날 장작을 패다가, 혹시 집에 불이 나지 않았는지 창으로 한번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일로 특별히 마음을 졸였던 기억은 그때뿐이다. 그래서 들여다보았더니 불똥 하나가 침대에 옮아붙어 있었고, 나는 들어가서 손바닥만 한 자리가 탔을 때 불을 껐다. 그러나 내 집은 아주 볕 바르고 바람 막힌 곳에 있었고 지붕도 무척 낮아서, 거의 어느 겨울날이든 한낮에 불을 꺼뜨려도 괜찮았다.

두더지들이 내 지하 저장고에 둥지를 틀고 감자를 세 알에 하나꼴로 갉아 먹었으며, 회반죽을 바르고 남은 털과 갈색 종이로 거기다 아늑한 잠자리까지 만들었다. 가장 야생인 짐승도 사람 못지않게 안락과 따뜻함을 사랑하며, 그것들이 겨울을 나는 것은 오로지 그 둘을

마련하는 데 그토록 마음을 쓰기 때문이다. 내 벗들 가운데 몇은 마치 내가 일부러 얼어 죽으려고 숲에 들어가기라도 하는 듯 말했다. 짐승은 바람 막힌 곳에 잠자리 하나를 마련해 제 몸으로 데울 뿐이다. 그러나 불을 찾아낸 사람은 널찍한 방에 공기를 얼마쯤 가두어 제 몸의 열을 빼앗기는 대신 그 공기를 데우고, 그것을 잠자리로 삼아 그 안에서 더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고 돌아다니며, 겨울 한복판에서 일종의 여름을 지키고, 창으로 빛까지 들이고 등잔으로 낮을 늘인다. 이렇게 사람은 본능보다 한두 걸음 더 나아가 예술을 위한 시간을 조금 남긴다. 몹시 거센 바람을 오래 맞고 나면 온몸이 굳어 가기 시작했지만, 내 집의 포근한 공기 속에 닿으면 나는 곧 기운을 되찾고 목숨을 늘였다. 그러나 가장 호사스러운 집에 사는 사람이라도 이 점에서는 내세울 것이 별로 없으며, 인류가 결국 어떻게 멸망할지 우리가 굳이 애써 따져 볼 것도 없다. 북쪽에서 조금 더 매서운 바람만 불어도 언제든 그들의 목숨 줄을 쉽사리 끊을 수 있을 테니까. 우리는 계속 추운 금요일이니 큰 눈이니 하는 날을 기점으로 날짜를 헤아린다. 그러나 조금만 더 추운 금요일, 조금만 더 큰 눈이 오면 지구 위의 사람살이에 마침표가 찍힐 것이다.

이듬해 겨울에는 숲이 내 것이 아니었으므로 절약하려고 작은 요리용 난로를 썼다. 그러나 그것은 터놓은 화덕만큼 불을 잘 간직하지 못했다. 그때부터 요리는 대개 시적인 과정이 아니라 한낱 화학적인 과정이 되었다. 난로의 시대인 요즘, 우리가 원주민들이 하듯 잿속에 감자를 묻어 구워 먹곤 했다는 사실은 곧 잊힐 것이다. 난로는 자리를 차지하고 집 안에 냄새를 풍길 뿐 아니라 불을 감추어서, 나는 동무 하나를 잃은 듯한 기분이었다. 불 속에서는 언제나 얼굴 하나를 볼 수 있다. 일하는 사람은 저녁에 불을 들여다보며 낮 동안 생각에 쌓인 찌꺼기와 흙먼지를 걸러 낸다. 그러나 나는 더는 앉아서 불을 들여다볼 수 없었고, 어느 시인의 꼭 들어맞는 말이 새로운 힘으로 되살아났다.

"밝은 불꽃이여, 결코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다오,
삶을 비추어 보이는 그대의 다정하고 살가운 공감을.
내 희망 말고 무엇이 그토록 밝게 솟구쳤던가?
내 운수 말고 무엇이 그토록 깊이 밤 속으로 가라앉았던가?
그대는 왜 우리의 화덕과 방에서 쫓겨났는가,
모두가 반기고 모두가 사랑하는 그대가?
그토록 둔한 우리네 삶의 평범한 빛에 견주면
그대의 존재는 너무 꿈같았던가?
그대의 밝은 빛은 우리와 마음 맞는 영혼들과
신비로운 이야기를 나누었던가? 너무 대담한 비밀을?[2]

그래, 우리는 안전하고 튼튼하다, 이제 우리는
어렴풋한 그림자 하나 너울대지 않는 화덕 곁에 앉았으니.
거기서는 무엇 하나 기쁘게도 슬프게도 하지 않고, 불은
손과 발을 데울 뿐 그보다 더 바라는 것이 없다.
빈틈없이 쌓아 올린 그 실용의 더미 곁에서
지금 이때는 앉아 잠들 수 있고,
어렴풋한 옛날에서 걸어 나와 고르지 않은
옛 장작불 빛 곁에서 우리와 이야기하던 유령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

1. 윌리엄 길핀(1724~1804): 그림 같은 풍경을 글로 다룬 영국의 목사.

2. 엘런 스터지스 후퍼(1812~1848)의 시 「장작불」. 1840년 10월 『다이얼』에 실렸다.

옛 주민과 겨울 방문객

나는 즐거운 눈보라를 몇 번 견뎌 냈고, 밖에서는 눈이 사납게 휘몰아치고 부엉이 울음마저 잦아든 동안 난롯가에서 흐뭇한 겨울 저녁을 몇 번 보냈다. 여러 주 동안 나는 산책길에서, 이따금 나무를 베어 썰매로 마을까지 끌고 가러 오는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날씨가 숲의 가장 깊은 눈 속에 길을 내도록 나를 거들었다. 내가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바람이 떡갈나무 잎을 내 발자국 속으로 불어 넣었고, 잎은 거기 박혀 햇살을 빨아들여 눈을 녹여서 내 발이 디딜 자리를 마련해 주었을 뿐 아니라, 밤이면 그 검은 줄이 내 길잡이가 되었다. 사람과 어울리고 싶으면 나는 이 숲의 옛 주민들을 불러낼 수밖에 없었다. 내 읍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기억하기로는, 내 집 가까이 난 길은 한때 주민들의 웃음소리와 수다로 떠들썩했고, 길가의 숲에는 여기저기 그들의 작은 뜰과 집이 새겨지고 점점이 박혀 있었다. 그때는 숲이 지금보다 훨씬 빽빽하게 길을 에워싸고 있었는데도 그랬다. 내 기억에도 몇몇 곳에서는 소나무가 경마차 양쪽을 한꺼번에 긁을 정도였고, 혼자 걸어서 이 길로 링컨까지 가야 했던 여자와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길을 갔고 곧잘 꽤 먼 거리를 달음박질쳤다. 대개는 이웃 마을로 가거나 나무꾼의 수레가 다니는 보잘것없는 길이었지만, 한때는 그 다채로움으로 지금보다 길손을 더 즐겁게 했고 그의 기억에도 더 오래 남았다. 지금은 마을에서 숲까지 단단한 탁 트인 들판이 펼쳐져 있는 그곳을, 그때 길은 통나무를 깐 바닥 위로 단풍나무

늪을 지나 이어졌는데, 그 통나무의 남은 조각들이 틀림없이 지금도 스트래턴 농장, 지금의 구빈원 농장에서 브리스터 언덕까지 이어지는 먼지투성이 큰길 밑에 깔려 있을 것이다.

내 콩밭 동쪽, 길 건너편에는 콩코드 마을의 신사 덩컨 잉그러햄 나리의 노예였던 케이토 잉그러햄이 살았다. 잉그러햄 나리는 제 노예에게 집을 지어 주고 월든 숲에 살아도 좋다고 허락했다. 케이토, 그러나 우티카의 카토가 아니라 콩코드의 케이토다. 어떤 이들은 그가 기니 출신 흑인이었다고 한다. 그가 늙어서 쓸 때까지 자라도록 두었던 호두나무 사이의 작은 밭뙈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몇 있지만, 그 나무들은 결국 더 젊고 더 흰 투기꾼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그 투기꾼도 지금은 그만큼 좁은 집에 들어 있다. 반쯤 지워진 케이토의 집터 구덩이는 아직 남아 있지만, 소나무가 둘러서 길손의 눈에서 가리고 있어서 아는 이가 드물다. 지금 그 구덩이는 옻나무(*Rhus glabra*)로 가득하고, 가장 일찍 피는 미역취의 하나(*Solidago stricta*)가 거기 무성하게 자란다.

여기, 내 밭 바로 모퉁이, 읍에 더 가까운 곳에는 흑인 여자 질파의 작은 집이 있었다. 질파는 거기서 읍 사람들에게 아마 실을 자아 주었고, 목소리가 크고 유난해서 날카로운 노랫소리로 월든 숲을 울리곤 했다. 마침내 1812년 전쟁 때 질파가 집을 비운 사이, 가석방된 영국군 포로들이 그 집에 불을 질러 고양이와 개와 닭이 모두 함께 타 죽었다. 질파는 고된 삶을 살았고, 얼마쯤 사람답지 못한 삶이었다. 이 숲을 자주 드나들던 한 노인은 어느 한낮 그 집 앞을 지나다가 질파가 부글부글 끓는 냄비 위로 몸을 숙이고 "다 뼈다귀야, 뼈다귀!"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기억한다. 나는 거기 떡갈나무 덤불 사이에서 벽돌을 본 적이 있다.

길을 따라 내려가 오른편, 브리스터 언덕에는 한때 커밍스 지주의 노예였던 "손재주 좋은 흑인" 브리스터 프리먼이 살았다. 브리스터가 심고 가꾼 사과나무가 아직 거기 자란다. 지금은 크고 늙은 나무지만 그 열매는 내 입에 여전히 야생의 맛이고 사과술감이다. 얼마 전 나는 링컨의 옛 묘지 한쪽 귀퉁이, 콩코드에서 퇴각하다 쓰러진 영국 척탄병 몇의 이름 없는 무덤 가까이에서 그의 묘비명을 읽었다. 거기서 그는 "시피오 브리스터"라고 불렸고(아프리카의 스키피오라고 불릴 자격이 얼마쯤은 있었다), "유색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마치 그가 변색되기라도 한 듯이. 비석은 또 그가 언제 죽었는지를 눈에 띄게 힘주어 알려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살았던 적이 있음을 내게 에둘러 알리는 방법일 뿐이었다. 그와 함께 그의 손님 잘 대접하는 아내 펜다가 살았다. 펜다는 점을 쳐 주었지만 기분 좋게 쳐 주었고, 크고 둥글고 검었다. 밤의 어떤 자식보다도 검어서, 그 전에도 그 뒤에도 콩코드 하늘에 떠오른 적이 없는 그런 거무스름한 천체였다.

언덕을 더 내려가 왼편, 숲속 옛길 가에는 스트래턴 집안이 살던 어느 집터의 자취가 있다. 그 집안의 과수원은 한때 브리스터 언덕 비탈을 온통 덮었지만 오래전에 리기다소나무에 밀려 죽고 그루터기 몇만 남았는데, 그 늙은 뿌리가 아직도 마을의 잘 자라는 나무 여럿에게 야생 대목을 대어 준다.

읍 쪽으로 더 가까이 가면 길 맞은편, 숲 바로 가장자리에 브리드가 살던 자리가 나온다. 옛 신화에 이름이 또렷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뉴잉글랜드의 삶에서 눈에 띄고 기막힌 역할을 해 왔고, 어느 신화 속 인물 못지않게 언젠가 제 전기가 쓰일 만한 악마 하나가 장난을 쳐서 이름난 땅이다. 그 악마는 처음에는 친구나 일꾼의 탈을 쓰고 와서는 이윽고 온 식구를 털고 죽인다. 그 이름은 뉴잉글랜드 럼이다. 그러나 여기서 벌어진 비극을 역사가 아직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세월이

얼마쯤 끼어들어 그 비극을 누그러뜨리고 거기 푸른 빛을 입히게 하자. 가장 흐릿하고 미심쩍은 전승에 따르면 한때 여기 주막이 있었다고 한다. 길손의 마실 것에 물을 타고 그의 말을 시원하게 해 준 우물도 같은 우물이다. 그때 여기서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소식을 듣고 전하고, 다시 제 갈 길을 갔다.

브리드의 움막은 오래 비어 있었는데도 겨우 열두 해 전까지 서 있었다. 크기는 내 집만 했다. 내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어느 선거일 밤에 장난꾸러기 사내아이들이 거기 불을 질렀다. 그때 나는 마을 가장자리에 살았는데, 마침 대버넌트의 『곤디버트』[1]에 빠져 정신을 잃은 참이었다. 무기력증에 시달리던 그 겨울이었다. 그런데 나는 이 무기력증을 집안 내림병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차머스가 엮은 『영국 시인 전집』을 건너뛰지 않고 읽으려 한 탓으로 보아야 할지 끝내 몰랐다. 내게는 면도하다가도 잠드는 숙부가 한 분 있는데, 그는 일요일이면 깨어 있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지하 저장고에서 감자 싹을 따야 한다. 그 시집은 카이사르가 네르비족을 쳐부수듯 내 신경을 아주 꺾어 놓았다. 내가 막 그 책 위에 머리를 떨군 참에 불이 났다는 종이 울렸고, 소방 펌프차들이 그쪽으로 허둥지둥 굴러갔으며, 어른과 사내아이들이 뒤죽박죽 무리 지어 앞장섰는데 나는 개울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맨 앞쪽에 있었다. 전에도 불난 데로 달려가 본 우리는 숲 너머 멀리 남쪽, 헛간이나 가게나 살림집, 아니면 그것들 전부에 불이 났다고 생각했다. "베이커네 헛간이야." 누군가 외쳤다. "코드먼 집이야." 다른 누군가 우겼다. 그때 지붕이라도 무너지는 듯 숲 위로 새 불똥이 솟아올랐고, 우리는 모두 "콩코드여, 구하러 가자!" 하고 외쳤다. 수레들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무거운 짐을 싣고 쏜살같이 지나갔는데, 그 가운데는 아마 아무리 멀어도 가야만 하는 보험 회사 대리인도 있었을 것이다. 이따금 뒤에서 소방 펌프차의 종이 더 느리게, 더 확실하게

딸랑거렸다. 그리고 나중에 쑥덕거린 바에 따르면, 맨 꽁무니에는 불을 지르고 불이야 하고 알린 자들이 따라왔다.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관념론자들처럼 감각의 증거를 물리치며 계속 달려가다가, 길모퉁이를 돌자 담 너머에서 불이 탁탁 튀는 소리가 들리고 그 열기가 실제로 느껴져서야 아뿔싸! 우리가 바로 거기 와 있음을 깨달았다. 불이 바로 코앞에 있으니 오히려 우리의 열기가 식었다. 처음에는 개구리 웅덩이 하나를 통째로 퍼부을까 생각했지만, 이미 너무 타 버렸고 너무 하찮은 집이라 그냥 타게 두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는 펌프차 둘레에 서서 서로 밀치락달치락하며 확성 나팔로 제 생각을 떠들거나, 낮은 목소리로 배스컴네 가게를 비롯해 세상이 겪은 큰 불들을 들먹였다.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제때 우리 "물통"을 끌고 거기 가 있고 곁에 개구리 웅덩이가 가득 차 있기만 했다면, 세상 끝에 닥친다는 그 마지막 큰 불도 또 한 번의 홍수로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우리는 아무 해코지도 하지 않고 물러나 잠과 『곤디버트』로 돌아갔다. 그러나 『곤디버트』라면, 재치를 영혼의 화약이라고 한 서문의 그 대목만은 빼 두고 싶다. "그러나 원주민이 화약을 모르듯 대부분의 사람은 재치를 모른다."

이튿날 밤 같은 시각쯤 우연히 들판을 가로질러 그쪽으로 걸어가다가, 그 자리에서 낮게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어둠 속에서 다가가 보니, 내가 아는 한 그 집안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그 집안의 미덕과 악덕을 모두 물려받은, 이번 불에 마음을 쓴 단 한 사람이 엎드려 집터 구덩이 담 너머로 아직 연기를 피우는 밑바닥의 재를 들여다보며 늘 그러듯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는 온종일 멀리 강가 풀밭에서 일하다가, 제 것이라 부를 수 있는 첫 짐을 살려 아버지들의 집, 제 어린 시절의 집을 찾아온 참이었다. 그는 늘 땅에 엎드린 채 사방에서 자리를 바꾸어 가며 차례로 구덩이를 들여다보았다. 마치 거기 돌 틈에 그가

기억하는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기라도 한 듯이. 거기에는 벽돌과 재 더미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집이 사라졌으니 그는 남은 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해지는 공감에 위로를 받았는지, 어둠이 허락하는 만큼 우물을 덮어 둔 자리를 내게 보여 주었다. 고맙게도 우물은 결코 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담 둘레를 더듬어, 제 아버지가 베어다 세운 두레박 장대를 찾았다. 무거운 쪽 끝에 짐을 매달던 쇠갈고리나 꺾쇠를 손으로 더듬었다. 이제 그가 매달릴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그것이 흔해 빠진 "장대"가 아니라는 것을 내게 납득시키려는 듯했다. 나도 그것을 만져 보았고, 지금도 거의 날마다 산책길에 그것을 눈여겨본다. 거기에 한 집안의 역사가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다시 왼편, 지금은 탁 트인 들판의 담가에 우물과 라일락 덤불이 보이는 곳에는 너팅과 르그로스가 살았다. 그러나 링컨 쪽으로 돌아가 보자.

이들 누구보다 더 숲속, 길이 호수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곳에는 옹기장이 와이먼이 무단으로 눌러살면서 읍 사람들에게 질그릇을 대주었고, 자손을 남겨 제 뒤를 잇게 했다. 그들도 세상 재물은 넉넉하지 않아서, 사는 동안 남의 너그러움에 기대어 땅을 썼다. 보안관이 세금을 걷으러 거기 자주 왔지만 헛걸음이었고, 내가 그의 장부에서 읽은 대로, 손을 댈 만한 것이 달리 아무것도 없어서 형식상 "나뭇조각 하나를 압류했다". 한여름 어느 날 내가 김을 매고 있는데, 옹기를 한 짐 싣고 장에 가던 사람이 내 밭 앞에 말을 세우고 젊은 와이먼의 소식을 물었다. 그는 오래전에 와이먼에게서 물레를 산 적이 있어서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성경에서 옹기장이의 진흙과 물레 이야기를 읽은 적은 있지만, 우리가 쓰는 그릇이 그 시절부터 깨지지 않고 고스란히 내려온 것이 아니라거나 어딘가에서 박처럼 나무에 열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흙을 빚는 기술이 내 이웃에서도 행해졌다는 말을 듣고 기뻤다.

나보다 앞서 이 숲에 마지막으로 산 사람은 와이먼의 셋집을 차지한 아일랜드 사람 휴 코일이었다(그 이름의 철자를 제대로 꼬아 적었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그를 코일 대령이라고 불렀다. 소문에는 그가 워털루에서 싸운 병사였다고 했다. 그가 살아 있었다면 나는 그에게 그 싸움들을 다시 한번 치르게 했을 것이다. 여기서 그의 생업은 도랑 파기였다. 나폴레옹은 세인트헬레나로 갔고 코일은 월든 숲으로 왔다. 내가 그에 관해 아는 것은 모두 비극적이다. 그는 세상 구경을 한 사람처럼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고, 듣는 사람이 다 받아 내기 어려울 만큼 점잖은 말을 늘어놓을 줄 알았다. 그는 손발이 떨리는 섬망에 시달려서 한여름에도 외투를 입었고 얼굴은 진홍빛이었다. 그는 내가 숲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브리스터 언덕 기슭의 길에서 죽었으므로 나는 그를 이웃으로 기억하지는 못한다. 그의 집이 헐리기 전, 그의 동무들이 "불길한 성"이라 하여 피하던 무렵에 나는 그 집을 찾아가 보았다. 높직한 판자 침대 위에는 그가 입던 낡은 옷이 마치 그 자신인 양 몸에 길든 꼴로 웅크린 채 놓여 있었다. 화덕 위에는 샘가에서 깨진 항아리 대신 부러진 담뱃대가 놓여 있었다. 샘가의 항아리는 결코 그의 죽음을 나타내는 상징이 될 수 없었다. 그는 브리스터 샘 이야기는 들었어도 그 샘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내게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바닥에는 더러워진 카드, 다이아몬드와 스페이드와 하트의 킹들이 흩어져 있었다. 유산 관리인이 잡지 못한 검은 닭 한 마리는 밤처럼 검고 밤처럼 조용하게, 꼬꼬 소리 하나 없이 여우를 기다리며 여전히 옆방에 홰를 틀었다. 집 뒤에는 텃밭의 흐릿한 윤곽이 있었다. 씨는 뿌렸지만 그 무시무시한 떨림 발작 탓에 첫 김매기도 못 한 밭이었는데, 이제 거둘 때였다. 밭에는 돼지풀과 도깨비바늘이 우거져 있었고, 열매라고는 내

옷에 들러붙은 도깨비바늘뿐이었다. 집 뒷벽에는 우드척 가죽 하나가 갓 펼쳐 널려 있었다. 그의 마지막 워털루에서 얻은 전리품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제 따뜻한 모자도 벙어리장갑도 더는 필요 없을 것이다.

지금은 땅에 팬 자국 하나만이 이 집들이 있던 자리를 알려 준다. 묻힌 집터 돌이 있고, 볕 드는 풀밭에는 딸기와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개암나무 덤불과 옻나무가 자란다. 굴뚝 구석이던 자리는 리기다소나무나 옹이진 떡갈나무가 차지하고, 문간 디딤돌이 있던 자리에는 어쩌면 향기로운 검은자작나무가 흔들린다. 때로는 한때 샘물이 스며 나오던 우물 자국이 보이는데, 지금은 메마르고 눈물 없는 풀뿐이다. 아니면 그 집안의 마지막 사람이 떠날 때 뗏장 밑에 넓적한 돌로 깊이 덮어 두어서 먼 훗날에야 드러날 것이다. 우물을 덮는 일,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겠는가! 그와 함께 눈물의 우물이 열릴 테니. 버려진 여우 굴 같은 이 집터 자국, 이 옛 구멍들이 한때 사람살이의 들썩임과 북적임이 있고 "운명, 자유의지, 절대적 예지"가 이런저런 꼴과 사투리로 번갈아 논의되던 곳에 남은 전부다. 그러나 그들이 내린 결론에 관해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고작 "케이토와 브리스터는 양털을 뽑았다"는 것뿐이다. 그것은 더 이름난 철학 학파들의 역사만큼이나 교훈적이다.

문과 상인방과 문지방이 사라진 지 한 세대가 지난 뒤에도 생기 넘치는 라일락은 여전히 자라, 봄마다 향기로운 꽃을 피워 생각에 잠긴 길손이 꺾어 가게 한다. 한때 아이들 손이 앞뜰 꽃밭에 심고 가꾼 라일락이 지금은 외딴 목초지의 담가에 서서 새로 솟아나는 숲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그 혈통의 마지막, 그 집안의 유일한 생존자다. 그 거무스름한 아이들은 집 그늘의 땅에 꽂고 날마다 물을 준, 눈이라고는 두 개뿐인 그 가냘픈 꺾꽂이 가지가 그렇게 뿌리를 내려 저희보다 오래 살고, 저를 그늘지게 하던 집 뒤편에 자리를 잡고, 어른의 뜰과

과수원으로 자라서, 저희가 자라고 죽은 지 반세기 뒤에 외로운 나그네에게 저희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려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 첫봄처럼 곱게 꽃 피고 향기롭게 냄새 풍기며. 나는 아직도 여리고 점잖고 쾌활한 그 라일락 빛깔을 눈여겨본다.

그런데 더 큰 무엇의 싹이었던 이 작은 마을은 콩코드가 제 땅을 지키는 동안 왜 시들어 버렸을까? 타고난 이점이 없었던가? 이를테면 물을 쓸 권리 말이다. 아니, 깊은 월든 호수와 시원한 브리스터 샘이 있었다. 이 물을 실컷, 몸에 좋게 들이켤 권리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제 술잔을 묽히는 데 말고는 그 권리를 살리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목마른 족속이었다. 바구니와 마구간 비와 돗자리를 만들고, 옥수수를 볶고, 아마 실을 잣고, 옹기를 빚는 일이 여기서 번창하여 광야를 장미처럼 꽃피게 하고, 많은 자손이 조상의 땅을 물려받을 수는 없었을까? 메마른 흙은 적어도 저지대의 타락만은 막아 주었을 것이다. 아아! 이 사람 주민들의 기억이 풍경의 아름다움을 얼마나 조금밖에 더해 주지 못하는가! 어쩌면 자연은 다시 한번 해 볼 것이다. 이번에는 나를 첫 정착민으로, 지난봄에 세운 내 집을 이 작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으로 삼아서.

내가 차지한 자리에 누가 집을 지은 적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더 오래된 도시 터에 세운 도시, 폐허를 재료로 삼고 묘지를 뜰로 삼은 도시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거기서는 흙이 하얗게 바래고 저주를 받았으니, 그래야 할 때가 오기 전에 땅 자체가 망할 것이다. 나는 이런 회상으로 숲에 다시 사람을 채우고 스스로 잠을 달랬다.

◆

이 철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드물었다. 눈이 가장 깊이 쌓였을 때는 한 주나 두 주씩 아무 나그네도 감히 내 집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거기서 들쥐처럼, 또는 먹이 없이도 눈 더미에 묻혀 오래 살아남았다고들 하는 소나 닭처럼 아늑하게 살았다. 아니면 우리 주의 서턴읍에 살았던 어느 초기 정착민의 식구처럼. 그가 집을 비운 사이 1717년의 큰 눈이 그의 오두막을 완전히 덮어 버렸는데, 어느 원주민이 굴뚝의 입김이 눈 더미에 낸 구멍만 보고 그 집을 찾아내어 식구들을 구했다. 그러나 나를 걱정해 주는 우호적인 원주민은 없었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집주인이 집에 있었으니까. 큰 눈! 그 이야기는 들어도 얼마나 즐거운가! 그때 농부들은 소를 끌고 숲과 늪에 갈 수가 없어서 제 집 앞의 그늘 나무를 베어야 했고, 눈 껍질이 더 단단해지자 늪의 나무를 베었는데, 이듬해 봄에 보니 땅에서 10피트 높이에서 베어져 있었다.

눈이 가장 깊을 때 큰길에서 내 집까지 반 마일쯤 되는 내 길을 그린다면, 점과 점 사이가 넓게 벌어진 구불구불한 점선이 되었을 것이다. 날씨가 고른 한 주 동안 나는 오갈 때마다 꼭 같은 걸음 수로 꼭 같은 보폭으로 걸었다. 분할 컴퍼스처럼 정확하게, 찬찬히 내 깊은 발자국을 다시 디뎠다. 겨울은 우리를 이런 판에 박힌 일로 줄여 놓는다. 그래도 그 발자국은 자주 하늘 그대로의 파란빛으로 차 있었다. 그러나 어떤 날씨도 내 산책, 아니 바깥나들이를 아주 가로막지는 못했다. 나는 너도밤나무나 노랑자작나무, 또는 소나무 가운데 오랜 벗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가장 깊은 눈을 헤치며 8마일이나 10마일을 걸어가는 일이 잦았다. 그때는 얼음과 눈이 소나무 가지를 축 늘어뜨리고 꼭대기를 뾰족하게 다듬어서 소나무를 전나무로 바꾸어 놓았다. 평지에도 눈이 거의 2피트나 쌓였을 때 가장 높은 언덕 꼭대기까지 눈을 헤치며 걸어 올라가,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내 머리 위로 눈보라를 한 차례씩 흔들어 떨어뜨렸다. 사냥꾼들이 겨울 숙영지로 들어가 버린 뒤에는 때로 손과

무릎으로 기고 허우적거리며 그리로 가기도 했다. 어느 오후 나는 대낮에 스트로브잣나무의 아래쪽 죽은 가지 하나에, 줄기 바로 곁에 앉아 있는 줄무늬올빼미(*Strix nebulosa*)를 1로드도 안 되는 거리에서 지켜보며 즐거워했다. 내가 움직이며 발로 눈을 뽀드득 밟으면 그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나를 똑똑히 보지는 못했다. 내가 가장 큰 소리를 내면 그는 목을 길게 빼고 목깃을 세우고 눈을 크게 떴지만, 곧 눈꺼풀이 다시 내려앉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가 그렇게 고양이처럼, 날개 달린 고양이의 형제처럼 눈을 반쯤 뜨고 앉아 있는 것을 반 시간 지켜보고 나니 나도 졸음이 밀려왔다. 그의 눈꺼풀 사이에는 좁은 틈 하나만 남아 있었고, 그는 그 틈으로 나와 반도 같은 관계를 이어 갔다. 그렇게 반쯤 감은 눈으로 꿈나라에서 내다보며, 제 환상을 가로막는 흐릿한 물체나 티끌인 나를 알아보려고 애썼다. 마침내 소리가 더 커지거나 내가 더 가까이 다가가면 그는 불안해져서, 꿈이 방해받은 것이 못마땅하다는 듯 횃대 위에서 느릿느릿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가 몸을 날려 생각지도 못하게 넓게 날개를 펴고 소나무 사이로 날아갈 때, 나는 그 날개에서 아주 작은 소리 하나 들을 수 없었다. 그렇게 그는 눈보다는 소나무 가지가 가까이 있음을 섬세하게 느끼는 감각에 이끌려, 말하자면 예민한 깃털로 어스름 속 길을 더듬어 가며 새 횃대를 찾았고, 거기서 제 날이 밝아 오기를 평화롭게 기다릴 것이다.

철도를 놓으려고 풀밭을 가로질러 쌓은 긴 둑길을 걸어갈 때면 나는 사납게 몰아치고 살을 에는 바람을 자주 만났다. 거기만큼 바람이 마음껏 노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리가 내 한쪽 뺨을 치면, 이교도인 나는 다른 쪽 뺨마저 돌려 대었다. 브리스터 언덕에서 오는 마찻길도 별로 나을 게 없었다. 나는 탁 트인 넓은 들판의 눈이 모두 월든 길의 담 사이에 쌓이고, 반 시간이면 마지막 길손의 발자국이

지워질 때에도, 우호적인 원주민처럼 여전히 읍에 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돌아올 때면 새 눈 더미가 생겨 있어서, 나는 그 속을 허우적거리며 지나왔다. 부지런한 북서풍이 길의 날카로운 모퉁이를 돌며 가루눈을 쌓아 놓은 곳에는 토끼 발자국 하나, 들쥐가 찍은 잔글씨, 작은 활자 하나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한겨울에도 어느 따뜻하고 봄기운 도는 늪을 찾아내지 못한 적이 드물었다. 거기서는 풀과 앉은부채가 늘 푸르게 여전히 돋아나고, 더 억센 새 한 마리가 이따금 봄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이따금, 눈이 왔는데도, 저녁에 산책에서 돌아오다 보면 내 문에서 시작된 나무꾼의 깊은 발자국을 가로지르게 되었고, 화덕 위에는 그가 깎아 낸 나뭇조각 더미가 있고 집 안은 그의 담배 냄새로 가득했다. 또 일요일 오후, 내가 마침 집에 있으면 머리 좋은 농부 한 사람이 눈을 뽀드득 밟고 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멀리서 숲을 지나 내 집을 찾아와 정다운 "한담"을 나누곤 했다. 그는 그 직업에서 드물게 "제 농장 위에 선 사람"이었고, 교수 가운 대신 작업복을 걸쳤으며, 제 헛간 마당에서 거름 한 짐을 실어 내는 것만큼이나 기꺼이 교회나 국가에서 교훈을 뽑아낼 줄 알았다. 우리는 사람들이 춥고 상쾌한 날씨에 큰 불 둘레에 맑은 머리로 둘러앉던 거칠고 소박한 시절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다른 후식이 떨어지면, 영리한 다람쥐들이 오래전에 버린 견과를 여럿 깨물어 우리 이를 시험했다. 껍데기가 가장 두꺼운 것은 대개 속이 비었기 때문이다.

가장 깊은 눈과 가장 음산한 폭풍을 뚫고 가장 먼 곳에서 내 거처로 온 사람은 한 시인이었다. 농부나 사냥꾼, 병사나 기자, 심지어 철학자라도 겁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은 무엇도 가로막지 못한다. 순수한 사랑이 그를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가 언제 오고 언제 갈지 누가 알겠는가? 그는 의사들이 잠든 때에도 아무 때나 볼일이 생겨 밖으로

나간다. 우리는 그 작은 집을 왁자한 웃음으로 울리고 진지한 이야기의 웅얼거림으로 메아리치게 하여, 월든 골짜기에 그동안의 긴 침묵을 벌충해 주었다. 그에 견주면 브로드웨이도 조용하고 텅 빈 거리였다. 알맞은 간격을 두고 웃음의 예포가 꼬박꼬박 터졌는데, 방금 한 농담 때문이라 해도 좋고 곧 나올 농담 때문이라 해도 좋았다. 우리는 묽은 죽 한 그릇을 앞에 두고 "갓 찧은" 인생 이론을 여럿 지어냈다. 그 죽은 흥겨운 자리의 이점과 철학에 필요한 맑은 머리를 함께 갖추어 주었다.

호숫가에서 보낸 마지막 겨울에 반가운 손님이 또 한 사람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는 한때 마을을 지나 눈과 비와 어둠을 뚫고 와서, 나무들 사이로 내 등불이 보일 때까지 걸어와 나와 함께 긴 겨울 저녁을 몇 번 보냈다. 마지막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코네티컷이 그를 세상에 내놓았다. 그는 처음에는 코네티컷의 물건을 팔러 다녔고, 나중에는 그의 말대로 제 머리를 팔러 다녔다. 그는 지금도 그것을 팔러 다닌다. 신을 일깨우고 사람을 부끄럽게 하며, 견과가 알맹이만 맺듯 열매라고는 제 머리만 맺는다. 나는 그가 살아 있는 누구보다 믿음이 깊은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의 말과 태도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나은 세상을 전제하며, 그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맨 마지막까지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다. 그는 지금 이 시대에 아무것도 걸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비교적 무시당해도, 그의 날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이 짐작도 못 한 법칙들이 효력을 내고, 가장과 통치자 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러 올 것이다.

"고요함을 보지 못하다니 얼마나 눈먼 것인가!"

사람의 참된 벗이요, 인류의 진보에 거의 하나뿐인 벗이다. 올드 모탈리티[2], 아니 차라리 죽지 않는 불멸이라 하자.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인내와 믿음으로, 사람의 몸에 새겨진 형상, 곧 사람들이 그 이지러지고 기울어진 기념비일 뿐인 신의 형상을 뚜렷이 드러낸다. 그는 손님 잘

맞는 지성으로 아이와 거지, 미친 이와 학자를 끌어안고, 모든 이의 생각을 대접하며, 대개는 거기에 얼마쯤의 너비와 품위를 더해 준다. 나는 그가 세상의 큰길가에 대상 숙소를 차려서 온 나라의 철학자들이 묵어 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판에는 이렇게 써 붙이고. "사람은 묵어 가되 그 짐승은 사절. 여유와 고요한 마음을 지니고 바른 길을 간절히 찾는 이는 들어오라." 그는 내가 우연히 알게 된 누구보다 정신이 온전하고 괴벽이 가장 적은 사람일 것이다. 어제와 내일이 한결같다. 예전에 우리는 함께 느긋이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세상을 말끔히 등 뒤로 밀쳐 두었다. 그는 세상의 어떤 제도에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으로 태어난(*ingenuus*)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돌아서든 하늘과 땅이 맞닿은 듯 보였다. 그가 풍경의 아름다움을 더해 주었기 때문이다. 파란 옷을 입은 사람,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지붕은 그의 고요함을 비추는, 둥글게 덮인 하늘이다. 나는 그가 어떻게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연이 그를 놓아줄 수 없을 테니까.

우리는 저마다 잘 마른 생각의 지붕널을 몇 장씩 가지고 앉아 칼을 시험해 보며 그것을 깎았고, 호박 소나무의 맑고 노르스름한 결에 감탄했다. 우리는 어찌나 부드럽고 경건하게 물을 건너고, 어찌나 매끄럽게 함께 노를 저었는지, 생각의 물고기들은 개울에서 놀라 달아나지도 않고 둑 위의 어떤 낚시꾼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서쪽 하늘을 떠가는 구름처럼, 이따금 거기 생겼다 흩어지는 자개빛 구름 떼처럼 장엄하게 오갔다. 거기서 우리는 일했다. 신화를 고쳐 쓰고, 여기저기 우화를 다듬고, 땅이 마땅한 주춧돌을 대 주지 못하는 공중누각을 지었다. 위대한 바라보는 이여! 위대한 기다리는 이여! 그와 나누는 이야기는 뉴잉글랜드의 천일야화였다. 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은자와 철학자,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그 옛 정착민, 우리

셋이서. 그 이야기는 내 작은 집을 부풀리고 뒤틀어 놓았다. 둥근 1인치마다 대기압보다 몇 파운드나 더 무게가 실렸는지는 감히 말하지 못하겠다. 집은 이음매가 벌어져서, 그 때문에 새는 데를 막으려고 나중에 무딘 이야기를 잔뜩 쑤셔 넣어야 했다. 그러나 그런 뱃밥이라면 나는 이미 넉넉히 뜯어 두었다.

또 한 사람, 마을에 있는 그의 집에서 오래 기억에 남을 "알찬 시간"을 함께 보냈고 이따금 나를 들여다보러 온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거기서 나와 어울린 사람은 더 없었다.

거기서도 다른 어디에서처럼 나는 이따금 결코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렸다. 『비슈누 푸라나』[3]는 말한다. "집주인은 해 질 녘에 소 한 마리 젖을 짤 동안, 원한다면 더 오래, 제 뜰에 머물며 손님이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나는 손님 대접의 이 의무를 자주 다했고, 소 한 떼의 젖을 다 짤 만큼 오래 기다렸지만, 읍에서 다가오는 그 사람은 보지 못했다.

---

1. 윌리엄 대버넌트(1606~1668)의 미완 서사시(1651).

2. 울드 모탈리티: 월터 스콧의 같은 이름 소설에서, 순교자들의 비석을 닦고 다시 새기며 떠돈 노인.

3. 『비슈누 푸라나』: 비슈누를 섬기는 인도의 옛 경전.

겨울 동물

호수들이 단단히 얼어붙자 여러 곳으로 가는 새롭고 더 짧은 길이 생겼을 뿐 아니라, 얼음 위에서 둘레의 낯익은 풍경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눈 덮인 플린트 호수를 건널 때, 전에 그 위에서 노를 저어 다니고 스케이트를 지친 적이 많은데도 호수는 뜻밖에 넓고 낯설어서 나는 배핀만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서 본 기억이 없는 눈 덮인 평원 끝에서 링컨의 언덕들이 나를 둘러싸고 솟아 있었고, 얼음 위로 얼마나 먼지 가늠할 수 없는 곳에서 늑대 같은 개들을 데리고 느릿느릿 돌아다니는 어부들은 물개잡이나 에스키모처럼 보였으며, 안개 낀 날에는 전설 속 짐승처럼 어렴풋이 솟아 보여서 거인인지 난쟁이인지 알 수가 없었다. 저녁에 링컨으로 강연하러 갈 때 나는 이 길을 택했는데, 내 움막에서 강연장까지 길 하나 밟지 않고 집 한 채 지나지 않았다. 가는 길에 있는 구스 호수에는 사향쥐 한 무리가 살면서 얼음 위로 제 오두막을 높이 쌓아 올렸지만, 내가 건널 때는 밖에 나와 있는 놈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월든은 다른 호수들처럼 대개 눈이 없거나 얕고 띄엄띄엄한 눈 더미만 있어서, 다른 곳에는 평지에도 눈이 거의 2피트나 쌓이고 마을 사람들이 제 거리에 갇혀 있을 때에도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내 마당이었다. 거기서 나는 마을 거리에서 멀리, 아주 드문드문 들리는 썰매 방울 소리에서도 멀리 떨어져, 떡갈나무 숲과 눈에 휘거나 고드름을 곤두세운 엄숙한 소나무들이 굽어보는, 잘 다져진 드넓은 무스의 겨울 마당에서처럼 미끄럼을 타고 스케이트를 지쳤다.

겨울밤, 그리고 겨울 낮에도 자주, 나는 아득히 먼 곳에서 부엉이의 쓸쓸하지만 가락 고운 울음을 들었다. 얼어붙은 땅을 알맞은 채로 퉁기면 날 듯한 소리, 바로 월든 숲의 토박이말(*lingua vernacula*)이었다. 나는 마침내 그 소리에 아주 익숙해졌지만 그 새가 울고 있는 모습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겨울 저녁에 문을 열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일이 드물었다. *후 후 후, 후러, 후* 하고 낭랑하게 울렸는데, 처음 세 음절은 얼마쯤 *하우 더 두*, 곧 "안녕하시오" 하는 소리처럼 힘이 들어갔다. 어떤 때는 *후, 후* 하고만 울었다. 초겨울 어느 밤, 호수가 다 얼기 전, 아홉 시쯤 나는 기러기 한 마리가 크게 끼룩거리는 소리에 놀라 문간으로 나갔다가, 기러기 떼가 내 집 위로 낮게 날아갈 때 숲에 이는 폭풍 같은 날개 소리를 들었다. 기러기들은 내 불빛 때문에 내려앉기를 단념한 듯 호수 위를 지나 페어헤이븐 쪽으로 갔고, 그 함대 사령관은 내내 고른 박자로 끼룩거렸다. 그때 갑자기 바로 가까이에서 틀림없는 수리부엉이 한 마리가, 내가 숲의 주민에게서 들어 본 가장 거칠고 엄청난 목소리로 기러기에게 고른 간격을 두고 응수했다. 마치 토박이가 더 넓은 음역과 더 큰 성량을 보여 주어 허드슨만에서 온 이 침입자의 정체를 드러내고 망신을 주어, *부후* 하고 야유하며 콩코드의 지평선 밖으로 쫓아내기로 작정한 듯했다. 내게 바쳐진 이 밤중에 성채를 놀라게 하다니 무슨 짓이냐? 내가 이런 시각에 졸다가 들킬 줄 아느냐? 나라고 너만 한 허파와 후두가 없는 줄 아느냐? *부후, 부후, 부후!* 그것은 내가 들어 본 가장 오싹한 불협화음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도 귀가 밝은 사람이라면 거기서 이 들판이 일찍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화음(concord)의 요소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나는 콩코드의 그 구석에서 나와 한 이불을 덮는 큰 짝인 호수의 얼음이 우우 우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잠자리가 편치 않아 몸을 뒤척이고 싶은 듯, 속에 가스가 차서 괴로워하며 꿈을 꾸는 듯했다.

아니면 누가 내 문에 수레를 들이받기라도 한 듯 서리에 땅이 쩍 갈라지는 소리에 잠을 깨었고, 아침이면 땅에서 길이 4분의 1마일, 너비 3분의 1인치의 금을 찾아내곤 했다.

달 밝은 밤이면 이따금 여우들이 자고새나 다른 사냥감을 찾아 눈 껍질 위를 돌아다니며 숲의 개처럼 거칠고 귀신같이 짖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어떤 걱정에 시달리거나, 말로 나타낼 길을 찾거나, 빛을 향해, 온전한 개가 되어 거리를 마음껏 달리려고 몸부림치는 듯했다. 여러 세대를 셈에 넣는다면,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 사이에서도 문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내게 그들은 아직 방어 자세로 서서 제 변신을 기다리는, 굴을 파는 원시의 사람처럼 보였다. 이따금 한 마리가 내 불빛에 끌려 창 가까이 와서는 내게 여우다운 저주를 짖어 대고 물러갔다.

대개는 붉은다람쥐(*Sciurus Hudsonius*)가 마치 그러라고 숲에서 보내기라도 한 듯 지붕 위를 달리고 집 벽을 오르내리며 새벽에 나를 깨웠다. 그 겨울 동안 나는 덜 익은 단옥수수 반 부셸을 문 앞 눈 껍질 위에 던져 놓고, 그것에 꾀여 온 갖가지 짐승의 몸짓을 지켜보며 즐거워했다. 해 질 녘과 밤에는 토끼들이 꼬박꼬박 와서 실컷 먹었다. 붉은다람쥐들은 온종일 오가며 그 재주로 나를 무척 즐겁게 해 주었다. 한 마리가 처음에는 떡갈나무 덤불 사이로 조심스레 다가오곤 했는데, 바람에 날리는 잎처럼 눈 껍질 위를 멈칫멈칫 달려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몇 걸음, 놀라운 속도로 기운을 마구 쓰며 내기라도 건 듯 제 "종종걸음 발"로 기막히게 서두르다가, 다음에는 저쪽으로 또 그만큼 갔지만 한 번에 반 로드 넘게 나아가는 법은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우스꽝스러운 얼굴로 멈추어 서서는 하지 않아도 될 공중제비를 넘곤 했다. 마치 온 우주의 눈이 자기에게 쏠려 있기라도 한 듯이. 다람쥐의 몸짓은 숲의 가장 외진 구석에서도 춤추는 소녀의 몸짓만큼이나

구경꾼이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다람쥐는 그렇게 멈칫거리고 두리번거리느라 그 거리를 다 걸어가고도 남을 만큼 시간을 허비했다. 나는 다람쥐가 걷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다 눈 깜짝할 새에 어린 리기다소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시계태엽을 감듯 찍찍거리며 상상 속 구경꾼들을 모두 꾸짖고, 혼잣말을 하는 동시에 온 우주에 대고 떠들었는데, 그 까닭은 내가 알아낼 수 없었고 다람쥐 자신도 몰랐을 것이다. 마침내 옥수수에 다다르면 알맞은 이삭 하나를 골라서, 똑같이 종잡을 수 없는 삼각법의 걸음으로 깡충거리며 내 창 앞 장작더미의 맨 위 장작으로 가서 거기서 내 얼굴을 빤히 보았다. 그러고는 거기 몇 시간이고 앉아서 이따금 새 이삭을 가져다 먹으며, 처음에는 게걸스럽게 갉아 먹고 반쯤 드러난 속대를 여기저기 내던졌다. 그러다 마침내 더 까다로워져서 먹을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며 낟알 속만 맛보았는데, 한 발로 장작 위에 균형을 잡아 들고 있던 이삭이 건성으로 쥔 손아귀에서 빠져 땅으로 떨어지면, 마치 그것이 살아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듯 우스꽝스럽게 망설이는 얼굴로 내려다보았다. 그것을 다시 가져올지, 새것을 가져올지, 아니면 떠나 버릴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옥수수 생각을 하다가 바람결에 무슨 기척이 실려 오나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그렇게 이 건방진 꼬마는 오전 한나절에 이삭을 여럿 버려 놓았다. 마침내 저보다 꽤 큰, 더 길고 통통한 이삭 하나를 움켜쥐고 솜씨 좋게 균형을 잡아서는, 물소를 문 호랑이처럼 그것을 끌고 숲으로 떠났다. 똑같이 갈지자로, 자주 멈추면서, 이삭이 저한테 너무 무거운 듯 버둥거리며 끌고 가다가 줄곧 떨어뜨렸는데, 떨어지는 이삭은 수직과 수평 사이의 대각선을 그렸다. 어떻게든 해내고야 말겠다는 기세였다. 유난히 경박하고 변덕스러운 녀석이었다. 그렇게 다람쥐는 그것을 끌고 제 사는 곳으로 가서, 어쩌면 40로드나 50로드 떨어진 소나무

꼭대기까지 날라 갔고, 나중에 나는 숲 여기저기에 흩어진 속대를 찾아내곤 했다.

마침내 어치들이 온다. 8분의 1마일 밖에서 조심스레 다가올 때부터 그 귀에 거슬리는 비명이 한참 들려온다. 어치들은 살금살금 몰래 나무에서 나무로 옮겨 가며 점점 다가와서 다람쥐가 떨어뜨린 낟알을 주워 먹는다. 그러고는 리기다소나무 가지에 앉아, 목구멍에 너무 커서 목이 메는 낟알을 서둘러 삼키려다가 몹시 애쓴 끝에 도로 게워 내고, 부리로 거듭 쪼아 그것을 깨뜨리려고 한 시간이나 보낸다. 그들은 누가 보아도 도둑이어서 나는 그들을 별로 존중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람쥐들은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마치 제 것을 가져가기라도 하는 듯 일에 달려들었다.

그사이 박새들도 떼 지어 왔다. 박새들은 다람쥐가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가장 가까운 잔가지로 날아가서는 발톱 밑에 끼우고, 나무껍질 속 벌레라도 되는 듯 그 작은 부리로 콕콕 쪼아서 가느다란 목구멍에 넘어갈 만큼 잘게 만들었다. 이 박새의 작은 무리가 날마다 와서 내 장작더미에서, 또는 문 앞의 부스러기에서 끼니를 찾아 먹었는데, 풀 속에서 고드름이 딸랑거리는 듯한 희미하고 팔랑거리는 혀짤배기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경쾌하게 *데이 데이 데이* 하고 울었고, 더 드물게는 봄 같은 날 숲 가장자리에서 가늘고 여름 같은 *피-비* 소리를 냈다. 그것들은 어찌나 허물없어졌는지, 마침내 한 마리는 내가 안고 들어가던 장작 한 아름 위에 내려앉아 겁도 없이 장작을 쪼았다. 한번은 마을의 어느 텃밭에서 김을 매는데 참새 한 마리가 잠깐 내 어깨에 내려앉은 적이 있는데, 나는 그 일로 내가 달 수 있었을 어떤 견장보다도 더 영예를 얻었다고 느꼈다. 다람쥐들도 마침내 아주 허물없어져서, 내 신발이 가장 가까운 길일 때는 이따금 그 위를 밟고 지나갔다.

땅이 아직 다 덮이지 않았을 때, 그리고 다시 겨울이 끝나 갈 무렵 남쪽 비탈과 장작더미 둘레의 눈이 녹았을 때는 자고새들이 아침저녁으로 숲에서 나와 거기서 먹이를 찾았다. 숲에서는 어느 쪽으로 걷든 자고새가 푸드득 날개를 울리며 날아올라, 높은 마른 잎과 잔가지에서 눈을 털어 내리고, 그 눈은 햇살 속으로 금가루처럼 체에 쳐져 내려온다. 이 씩씩한 새는 겨울에도 겁먹지 않기 때문이다. 자고새는 눈 더미에 덮이는 일이 잦고, "이따금 날다가 부드러운 눈 속으로 곤두박질쳐 들어가서 하루 이틀 숨어 지낸다"고 한다. 나는 탁 트인 땅에서도 자고새를 날려 보곤 했는데, 해 질 녘에 숲에서 나와 야생 사과나무의 "싹을 따 먹던" 참이었다. 자고새는 저녁마다 꼬박꼬박 정해진 나무를 찾아오고, 꾀 많은 사냥꾼은 거기서 기다린다. 그래서 숲에 붙은 먼 과수원들은 적잖이 해를 입는다. 어쨌든 자고새가 먹이를 얻는다니 나는 기쁘다. 자고새는 새싹과 약초 물로 사는, 자연이 몸소 기르는 새다.

어두운 겨울 아침이나 짧은 겨울 오후에 나는 이따금 사냥개 한 떼가 사냥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사냥 소리와 깨갱거림으로 온 숲을 누비는 소리와, 이따금 사냥 나팔 소리를 들었다. 그 뒤에 사람이 있다는 증거였다. 숲은 다시 울린다. 그러나 호수의 탁 트인 평면으로 뛰쳐나오는 여우도 없고, 제 악타이온[1]을 쫓는 개 떼도 없다. 그리고 저녁이면 아마 사냥꾼들이 전리품으로 여우 꼬리 하나를 썰매 뒤에 끌며 주막을 찾아 돌아가는 것이 보일 것이다. 그들 말로는, 여우가 얼어붙은 땅속에 가만히 있으면 무사할 것이고, 또 곧장 한 줄로 달아나면 어떤 여우 사냥개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우는 추격자들을 멀리 따돌린 뒤에 멈추어 쉬며 그들이 따라올 때까지 귀를 기울이고, 달아날 때는 빙 돌아서 제 옛 소굴로 가는데, 거기서 사냥꾼들이 기다린다. 그러나 이따금 여우는 담 위로 몇 로드나 달리다가 한쪽으로

멀리 뛰어내리기도 하고, 물이 제 냄새를 붙잡아 두지 못한다는 것도 아는 듯하다. 한 사냥꾼이 내게 들려준 바로는, 언젠가 얼음이 얕은 물웅덩이로 덮여 있을 때 사냥개들에게 쫓긴 여우 한 마리가 월든으로 뛰쳐나와 얼마쯤 건너가다가 같은 기슭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얼마 안 되어 사냥개들이 왔지만 여기서 냄새를 놓쳤다. 이따금 저희끼리 사냥하는 한 떼가 내 문 앞을 지나 집 둘레를 빙빙 돌며, 나에게는 아랑곳없이 깨갱거리고 짖어 댔다. 마치 일종의 광기에 사로잡혀서 무엇도 그 추격에서 그들을 돌려놓을 수 없는 듯했다. 그렇게 그들은 여우의 새 자취를 만날 때까지 빙빙 돈다. 영리한 사냥개라면 이것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버리기 때문이다. 어느 날 렉싱턴에서 한 사람이 내 움막에 와서, 발자국이 큼직하고 한 주 동안 혼자 사냥을 다닌 제 사냥개의 행방을 물었다. 그러나 내가 무슨 말을 해 주어도 그는 별로 알게 된 것이 없었던 듯하다. 내가 그의 물음에 대답하려 할 때마다 그는 "여기서 뭘 하시오?" 하고 물으며 내 말을 끊었기 때문이다. 그는 개를 잃었지만 사람을 찾았다.

말에 능청맞은 맛이 있는 늙은 사냥꾼 한 사람이 해마다 물이 가장 따뜻할 때 월든에 멱을 감으러 한 번씩 왔고, 그럴 때면 나를 들여다보곤 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렇다. 여러 해 전 어느 오후 그는 총을 들고 월든 숲을 한 바퀴 돌러 나갔다. 웨이랜드 길을 걷는데 사냥개들 소리가 다가오더니, 이윽고 여우 한 마리가 담을 넘어 길로 뛰어들었다가 생각처럼 빠르게 맞은편 담을 넘어 길 밖으로 뛰어나갔고, 그의 날랜 총알은 여우를 스치지도 못했다. 얼마쯤 뒤에서 늙은 암캐 한 마리와 새끼 세 마리가 저희끼리 사냥에 나서 힘껏 뒤쫓아 오더니 다시 숲으로 사라졌다. 오후 늦게 그가 월든 남쪽 빽빽한 숲에서 쉬고 있는데, 멀리 페어헤이븐 쪽에서 여전히 여우를 쫓는 사냥개들 소리가 들렸다. 개들은 계속 다가왔고, 온 숲을 울리는 그 짖는 소리가 이번에는 웰

풀밭에서, 다음에는 베이커 농장에서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그는 오랫동안 가만히 서서 사냥꾼의 귀에 그토록 달콤한 그 음악을 들었다. 그때 갑자기 여우가 나타났다. 여우는 엄숙한 숲길 사이를 느긋하게 내닫는 걸음으로 누볐는데, 그 소리는 공감하듯 바스락거리는 나뭇잎에 묻혔다. 날래고 소리 없이, 빙 도는 길을 지키며 추격자들을 멀리 따돌린 채로. 그리고 숲 한가운데 바위 위로 뛰어올라 사냥꾼에게 등을 돌리고 꼿꼿이 앉아 귀를 기울였다. 잠깐 동안 연민이 사냥꾼의 팔을 붙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 기분이었고, 생각이 생각을 뒤따르듯 재빨리 그의 총이 겨누어졌다. *탕!* 여우는 바위 위에서 굴러떨어져 땅바닥에 죽어 누웠다. 사냥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사냥개들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개들은 여전히 다가왔고, 이제는 가까운 숲의 모든 길이 그 귀신 들린 듯한 울부짖음으로 울렸다. 마침내 늙은 암캐가 주둥이를 땅에 대고 무엇에 홀린 듯 허공을 덥석덥석 물며 뛰어나와 곧장 바위로 달려갔다. 그러나 죽은 여우를 보더니 놀라서 말문이 막힌 듯 갑자기 짖기를 그치고, 말없이 여우 둘레를 빙빙 돌았다. 새끼들도 하나씩 도착했는데, 어미처럼 그 수수께끼 앞에서 숙연해져 입을 다물었다. 그때 사냥꾼이 앞으로 나와 그들 한가운데 섰고, 수수께끼는 풀렸다. 개들은 그가 여우 가죽을 벗기는 동안 말없이 기다렸고, 한동안 여우 꼬리를 따라다니다가 마침내 다시 숲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웨스턴의 한 지주가 그 콩코드 사냥꾼의 오두막에 찾아와 제 사냥개들의 행방을 물었고, 개들이 한 주 동안 웨스턴 숲에서부터 저희끼리 사냥을 다녔다고 이야기했다. 콩코드 사냥꾼은 아는 대로 이야기하고 그에게 여우 가죽을 주겠다고 했지만, 웨스턴 사람은 사양하고 떠났다. 그는 그날 밤 개들을 찾지 못했지만, 이튿날 개들이 강을 건너가 어느 농가에서 하룻밤 묵었고, 거기서 잘 얻어먹고 이른 아침에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내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사냥꾼은 샘 너팅이라는 사람을 기억했다. 너팅은 페어헤이븐 바위 벼랑에서 곰을 사냥해 그 가죽을 콩코드 마을에서 럼과 바꾸곤 했는데, 거기서 무스를 본 적도 있다고 그에게 말하기까지 했다. 너팅에게는 버고인이라는 이름난 여우 사냥개가 있었는데(너팅은 그 이름을 "부긴"이라고 발음했다), 내게 이야기를 들려준 사냥꾼이 곧잘 빌려 가곤 했다. 이 읍의 옛 장사꾼으로서 대위이자 읍 서기이자 주 의원이기도 했던 사람의 "막장부"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기입을 찾아냈다. 1742/3년 1월 18일, "존 멜븐, 대변. 회색여우 한 마리로. 0파운드 2실링 3펜스." 지금 이곳에는 회색여우가 없다. 그리고 그의 원장에는 1743년 2월 7일, 히즈카이아 스트래턴이 "고양이 가죽 반 장으로. 0파운드 1실링 4½펜스"의 신용을 얻었다고 적혀 있다. 물론 들고양이다. 스트래턴은 옛 프랑스 전쟁 때 하사관이었으니, 그보다 덜 고귀한 짐승을 잡아서는 신용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사슴 가죽에도 신용이 매겨져 있는데, 사슴 가죽은 날마다 팔렸다. 어떤 사람은 이 근방에서 마지막으로 잡힌 사슴의 뿔을 아직 간직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제 숙부가 나섰던 사냥의 자초지종을 내게 들려주었다. 예전에 이곳 사냥꾼들은 수도 많고 흥겨운 패거리였다. 나는 수척한 니므롯 한 사람을 잘 기억한다. 그는 길가의 나뭇잎 하나를 따서 거기에 가락을 불었는데, 내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어떤 사냥 나팔보다도 더 야생적이고 더 가락이 고왔다.

달이 뜬 한밤에 나는 이따금 숲을 어슬렁거리는 사냥개들을 길에서 만났다. 개들은 겁이라도 먹은 듯 슬그머니 내 길을 비켜, 내가 지나갈 때까지 덤불 속에 말없이 서 있었다.

다람쥐와 들쥐가 내가 쟁여 둔 견과를 두고 다투었다. 내 집 둘레에는 지름 1인치에서 4인치까지의 리기다소나무가 수십 그루 있었는데, 그 전 겨울에 쥐들이 갉아 놓은 것이었다. 쥐들에게는 노르웨이의 겨울이었다.

눈이 오래 깊이 쌓여서, 쥐들은 다른 먹이에 소나무 껍질을 듬뿍 섞어 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 나무들은 껍질이 줄기를 한 바퀴 빙 돌아 다 갉혔는데도 한여름에는 살아서 무성해 보였고, 그 가운데 많은 나무가 1피트나 자랐다. 그러나 겨울을 한 번 더 나고 나서는 그런 나무가 하나도 빠짐없이 죽었다. 쥐 한 마리가 이렇게 소나무 한 그루를 통째로 제 저녁거리로 차지하고, 위아래로가 아니라 빙 둘러 갉아 먹도록 허락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이 나무들은 빽빽하게 자라기 마련이니 솎아 내려면 어쩌면 그래야 하는지도 모른다.

산토끼(*Lepus Americanus*)들은 무척 허물없었다. 한 마리는 겨우내 내 집 밑에 잠자리를 두었는데, 나와는 마룻바닥 하나를 사이에 두었을 뿐이었다. 녀석은 아침마다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허둥지둥 달아나며 서두르는 바람에 마루 장선에 머리를 쿵, 쿵, 쿵 부딪쳐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산토끼들은 해 질 녘이면 내 문 둘레에 와서 내가 내던진 감자 껍질을 갉아 먹곤 했는데, 털빛이 땅빛과 워낙 비슷해서 가만히 있으면 거의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따금 어스름 속에서 내 창 밑에 꼼짝 않고 앉아 있는 한 마리를 놓쳤다가 다시 찾았다가 했다. 저녁에 내가 문을 열면 녀석들은 찍 소리를 내며 깡충 뛰어 달아났다. 가까이서 보면 녀석들은 그저 가엾은 마음만 들게 했다. 어느 저녁 한 마리가 내게서 두 걸음 떨어진 문 옆에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무서워 떨면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여위고 뼈만 앙상하며, 귀는 너덜너덜하고 코는 뾰족하고, 꼬리는 빈약하고 발은 가느다란, 가엾고 조그만 것이었다. 자연이 더는 더 고귀한 혈통을 품고 있지 못하고 마지막 발끝으로 간신히 서 있는 것만 같았다. 그 커다란 눈은 어리고 병들어 보였고, 거의 수종에 걸린 듯했다. 내가 한 걸음 내딛자, 보라, 녀석은 몸과 다리를 우아하게 쭉 펴고 눈 껍질 위를 탄력 있게 튀어오르며 달아나더니 곧 나와 저 사이에 숲을 두었다. 야생의 자유로운

사냥감이 제 기운과 자연의 위엄을 내세우는 모습이었다. 그 가냘픔에는 까닭이 있었다. 그것이 녀석의 본성이었다. (*Lepus*는 *levipes,* 곧 "가벼운 발"에서 왔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토끼와 자고새가 없는 고장이란 무엇인가? 그것들은 가장 소박하고 가장 토박이다운 짐승 산물이다. 옛날에도 지금처럼 알려진 오래되고 존귀한 가문이며, 자연의 빛깔과 바탕 그대로여서 나뭇잎과 땅에, 그리고 서로에게 가장 가깝다. 날개가 달렸거나 다리가 달렸거나 할 뿐이다. 토끼나 자고새가 휙 달아날 때 우리는 야생 짐승을 보았다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는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만큼이나 으레 있으려니 하는, 자연스러운 것을 보았을 뿐이다. 자고새와 토끼는 어떤 혁명이 일어나든 땅의 참된 토박이로서 여전히 틀림없이 번성할 것이다. 숲이 베여 나가도 새로 돋는 움과 덤불이 그것들을 숨겨 주니, 오히려 어느 때보다 수가 늘어난다. 산토끼 한 마리 먹여 살리지 못하는 고장이라면 참으로 가난한 고장임에 틀림없다. 우리 숲에는 둘 다 넘쳐 나고, 늪마다 그 둘레에는 자고새나 토끼가 다니는 길이 보이는데, 그 길에는 잔가지 울타리와 말총 올가미가 늘어서 있고 어느 소 치는 아이가 그것을 돌본다.

---

1. 악타이온: 사냥하다 아르테미스의 알몸을 보고 사슴이 되어 제 사냥개들에게 찢겨 죽은 사냥꾼.

겨울 호수

고요한 겨울밤을 보내고 깨어났을 때, 나는 누가 내게 무슨 물음을 던졌고 나는 잠결에 거기 답하려고 헛되이 애쓰고 있었던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그러나 거기에는 모든 피조물이 그 안에서 사는 동트는 자연이 있었고, 자연은 평온하고 흡족한 얼굴로 내 넓은 창을 들여다보고 있었으며, *자연의* 입술에는 아무 물음도 없었다. 나는 답이 이미 나온 물음 쪽으로, 자연과 햇빛 쪽으로 깨어났다. 어린 소나무가 점점이 박힌 땅 위에 깊이 쌓인 눈과, 내 집이 놓인 언덕의 비탈까지도 "앞으로!" 하고 말하는 듯했다. 자연은 물음을 던지지 않고, 우리 죽을 인간이 던지는 물음에 답하지도 않는다. 자연은 오래전에 마음을 정했다. "오 왕자여, 우리의 눈은 이 우주의 놀랍고도 갖가지인 장관을 감탄하며 바라보고 그것을 영혼에 전한다. 밤은 틀림없이 이 영광스러운 창조물의 한 부분을 가린다. 그러나 낮이 와서 땅에서 하늘의 평원에까지 뻗은 이 위대한 작품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인다."

그다음은 아침 일이다. 먼저 나는 도끼와 들통을 들고, 꿈이 아니라면, 물을 찾으러 간다. 눈 내린 추운 밤을 지내고 나면 물을 찾는 데 점지팡이가 필요했다. 해마다 겨울이면, 숨결 하나에도 그토록 예민하게 흔들리고 빛과 그림자를 낱낱이 비추던 호수의 출렁이는 액체 수면이 1피트나 1½피트 깊이까지 단단해져서 가장 무거운 수레와 말도 버텨 내고, 어쩌면 눈이 그만큼 두껍게 덮여 여느 평평한 들판과 가릴 수 없게

된다. 둘레 언덕의 마멋들처럼 호수는 눈꺼풀을 감고 석 달이나 그 이상 잠에 든다. 언덕에 둘러싸인 목장에라도 선 듯 눈 덮인 벌판에 서서, 나는 먼저 1피트의 눈을, 다음에는 1피트의 얼음을 뚫고 발아래에 창을 낸다. 거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며 물고기들의 고요한 응접실을 내려다보면, 간유리 창으로 들어오는 듯 부드러워진 빛이 가득하고, 바닥에는 여름과 똑같이 밝은 모래가 깔려 있다. 그곳에는 호박빛 저녁 하늘처럼 물결 없는 평온이 늘 다스리고, 그것은 그곳 주민들의 서늘하고 고른 기질에 걸맞다. 하늘은 우리 머리 위에만이 아니라 발아래에도 있다.

이른 아침, 모든 것이 서리에 바삭바삭할 때, 사람들이 낚시 릴과 단출한 도시락을 들고 와서 눈 덮인 벌판 밑으로 가는 낚싯줄을 드리워 강꼬치고기와 농어를 잡는다. 야생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본능에 따라 읍 사람들과는 다른 유행을 따르고 다른 권위를 믿으며, 오가는 발걸음으로 읍과 읍을 꿰매어, 그러지 않으면 뜯어졌을 자리를 잇는다. 그들은 질긴 방한 외투를 입고 기슭의 마른 떡갈나무 잎 위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데, 도시 사람이 인공의 지식에 밝은 만큼 자연의 지식에 밝다. 그들은 책과 상의해 본 적이 없고, 한 일에 비하면 아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것도 훨씬 적다.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들 한다. 여기 다 자란 농어를 미끼로 강꼬치고기를 낚는 사람이 있다. 그의 들통을 들여다보면 여름 호수를 들여다보는 듯 놀랍다. 마치 그가 집에 여름을 가두어 두었거나, 여름이 어디로 물러가 있는지 아는 것 같다. 대체 한겨울에 이것들을 어떻게 잡았을까? 아, 땅이 얼고 나서 썩은 통나무에서 굼벵이를 꺼내 그것으로 잡았단다. 그의 삶 자체가 박물학자의 연구가 닿는 것보다 더 깊이 자연 속으로 흘러간다. 그 자신이 박물학자의 연구 대상이다. 박물학자는 벌레를 찾느라 칼로 이끼와 나무껍질을 살살 들추지만, 이 사람은 도끼로

통나무를 고갱이까지 쪼개서 이끼와 나무껍질이 사방으로 튄다. 그는 나무껍질을 벗겨 생계를 꾸린다. 이런 사람에게는 낚시할 권리가 얼마간 있고, 나는 자연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좋아한다. 농어는 굼벵이를 삼키고, 강꼬치고기는 농어를 삼키고, 낚시하는 사람은 강꼬치고기를 삼킨다. 그렇게 존재의 사다리에 난 틈이 모두 메워진다.

안개 낀 날 호수를 한 바퀴 돌다 보면, 어떤 투박한 낚시꾼이 쓴 원시적인 방법이 이따금 우스웠다. 그는 서로 4~5로드씩, 기슭에서도 그만큼씩 떨어진 얼음의 좁은 구멍들 위에 오리나무 가지를 걸쳐 놓고, 낚싯줄이 끌려 들어가지 않게 줄 끝을 막대기에 묶은 다음, 늘어진 줄을 얼음 위 1피트 남짓한 높이의 오리나무 잔가지에 걸치고 거기에 마른 떡갈나무 잎을 하나 매어 두었다. 잎이 끌려 내려가면 입질이 왔다는 표시였다. 호수를 반 바퀴쯤 돌아가는 동안 이 오리나무들이 고른 간격으로 안개 속에 어렴풋이 드러났다.

아, 월든의 강꼬치고기여! 그 물고기들이 얼음 위에 누워 있거나, 낚시꾼이 얼음에 작은 구멍을 내어 물을 들인 우물 속에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늘 그 드문 아름다움에 놀란다. 거리에, 아니 숲에도 하도 낯설어서 전설 속 물고기 같고, 우리 콩코드 생활에는 아라비아만큼이나 낯설다. 그들은 눈부시고 초월적인 아름다움을 지녀서, 우리 거리에서 이름을 떠들썩하게 날리는 송장 같은 대구나 해덕과는 아득히 떨어져 있다. 소나무처럼 초록도 아니고, 돌처럼 잿빛도 아니고, 하늘처럼 푸르지도 않다. 그러나 내 눈에는 꽃이나 보석처럼, 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드문 빛깔을 띠고 있어서, 마치 월든 물의 진주이거나, 동물이 된 핵이나 결정 같다. 물론 그들은 겉도 속도 온통 월든이다. 그 자신이 동물계의 작은 월든들, 곧 발도파(Waldenses)다.[1] 이 물고기가 여기서 잡힌다는 것이 놀랍다. 월든 길을 오가는 덜컹거리는 짐수레와 마차와 딸랑거리는

썰매 아래 저 깊은 곳, 이 깊고 너른 샘 속에서 이 커다란 금빛과 에메랄드빛 물고기가 헤엄친다니. 나는 어느 시장에서도 이런 종류를 본 적이 없다. 시장에 나온다면 모든 사람의 눈길을 끌 것이다. 그들은 몇 번 경련하듯 몸을 비틀고는 쉽게 물의 넋을 내놓는다. 때가 되기도 전에 하늘의 엷은 공기 속으로 옮겨 간 인간처럼.

◆

오래전에 잃어버린 월든 호수의 바닥을 되찾고 싶어서, 나는 1846년 초 얼음이 풀리기 전에 나침반과 측량 사슬과 측심줄로 호수를 꼼꼼히 측량했다. 이 호수의 바닥에 대해서는, 아니 바닥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 이야기들 자체는 분명 아무 바닥도, 아무 근거도 없었다. 사람들이 깊이를 재 보는 수고도 하지 않고 호수에 바닥이 없다고 얼마나 오래 믿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나는 이 근방에서 한 번 걷는 길에 그런 '바닥 없는 호수'를 두 군데나 찾아가 보았다. 많은 사람이 월든은 지구 반대편까지 꿰뚫고 나가 있다고 믿어 왔다. 얼음 위에 오래 엎드려 그 속기 쉬운 매질을 내려다본 어떤 이들은, 게다가 어쩌면 눈물까지 글썽이며, 가슴에 감기가 들까 봐 서둘러 결론을 내리고는 "건초 한 수레를 몰아넣을 수 있을 만한" 큰 구멍들을 보았다. 몰아넣을 사람만 있다면 말이다. 틀림없이 스틱스강의 근원이자 이 근방에서 저승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을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56파운드 추"와 1인치 굵기 밧줄을 수레 한가득 싣고 마을에서 내려왔지만 끝내 바닥을 찾지 못했다. "56파운드 추"가 도중에 쉬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참으로 잴 수 없는 저 자신의 놀라워하는 역량을 재 보려고 헛되이 밧줄을 풀어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독자들에게 장담할 수 있다. 월든에는 적당히 단단한 바닥이 있고, 그

깊이는 남다르기는 해도 터무니없지는 않다. 나는 대구 낚싯줄과 1½파운드쯤 되는 돌로 쉽게 깊이를 쟀는데, 돌이 바닥을 떠나는 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물이 돌 밑으로 들어와 나를 거들기 전까지는 훨씬 세게 당겨야 했기 때문이다. 가장 깊은 곳은 꼭 102피트였다. 그 뒤로 물이 5피트 불었으니 그것을 더하면 107피트다. 이렇게 작은 넓이에 비하면 놀라운 깊이다. 그런데도 상상력은 그 가운데 1인치도 덜어 낼 수 없다. 모든 호수가 얕다면 어떻겠는가?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되돌아와 미치지 않겠는가? 나는 이 호수가 하나의 상징이 되도록 깊고 맑게 지어진 것이 고맙다. 사람들이 무한을 믿는 한, 어떤 호수들은 바닥이 없다고 여겨질 것이다.

어느 공장 주인은 내가 잰 깊이를 듣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둑을 다루어 본 경험으로 보아 모래는 그렇게 가파른 각도로 쌓여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가장 깊은 호수도 넓이에 견주면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만큼 깊지 않고, 물을 다 빼더라도 그리 대단한 골짜기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호수는 언덕 사이에 놓인 잔 같은 것이 아니다. 넓이에 비해 이토록 유난히 깊은 이 호수도 한가운데를 수직으로 자른 단면은 얕은 접시보다 깊지 않다. 대부분의 호수는 물을 빼고 나면 우리가 흔히 보는 것보다 더 우묵하지 않은 풀밭을 남길 것이다. 풍경에 관한 모든 일에 그토록 훌륭하고 대개 그토록 정확한 윌리엄 길핀은 스코틀랜드의 파인호 머리에 서서, 그 호수를 "깊이 60~70패덤,[2] 너비 4마일의 바닷물 만"이라고 묘사하는데, 길이는 50마일쯤이고 산에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대홍수의 굉음 직후, 아니 그 호수를 생기게 한 자연의 격변이 무엇이었든 그 직후에, 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전에 그것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틈으로 보였겠는가!

"부풀어 오른 언덕들이 솟은 만큼 낮게
넓고 깊은 우묵한 바닥이 꺼져 내려,
물을 담는 너른 침상이 되었네."[3]

그러나 파인호의 가장 짧은 지름을 써서 이 비율을 월든에 대어 보면, 앞서 보았듯이 이미 수직 단면이 얕은 접시 같을 뿐인 월든보다 파인호는 네 배나 얕아 보일 것이다. 물을 뺀 파인호의 틈이 더한다는 공포는 이쯤 해 두자. 굽이굽이 옥수수밭이 펼쳐진 수많은 웃음 짓는 골짜기가 물이 빠져나간 바로 그런 "소름 끼치는 틈"을 차지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다만 이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에게 납득시키려면 지질학자의 통찰과 멀리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호기심 많은 눈은 지평선의 낮은 언덕들에서 원시 호수의 기슭을 흔히 알아볼 수 있고, 그 내력을 숨기는 데에는 그 뒤에 벌판이 솟아오를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길 닦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알듯이, 우묵한 곳을 찾기는 소나기가 지나간 뒤 웅덩이를 보는 것이 가장 쉽다. 요컨대 상상력은 아주 조금만 고삐를 풀어 주어도 자연이 가는 것보다 더 깊이 잠기고 더 높이 솟는다. 그러니 아마 바다의 깊이도 그 넓이에 견주면 아주 보잘것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얼음을 뚫고 깊이를 재다 보니, 얼지 않는 항구를 측량할 때보다 바닥의 생김새를 더 정확히 알아낼 수 있었고, 나는 그 바닥이 대체로 고른 데 놀랐다. 가장 깊은 곳에는 햇볕과 바람과 쟁기에 드러난 거의 어느 밭보다도 더 평평한 땅이 몇 에이커 펼쳐져 있다. 한번은 아무렇게나 고른 선을 따라가 보니 30로드 사이에 깊이가 1피트도 달라지지 않았다. 대체로 한가운데 가까이에서는 어느 방향으로든 100피트마다 깊이가 얼마나 달라질지 3~4인치 안에서 미리 셈해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잔잔한 모래 호수에도 깊고 위험한 구멍이 있다고 말하는 버릇이 든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조건에서 물은 울퉁불퉁한

곳을 모두 고르게 펴 놓는다. 바닥이 고르고, 그 바닥이 기슭과 이웃 언덕들의 줄기에 맞아떨어지는 것이 하도 완벽해서, 멀리 있는 곶 하나가 호수를 가로질러 측심값에 제 모습을 드러냈고, 맞은편 기슭을 살펴보면 그 곶의 방향을 정할 수 있었다. 곶은 모래톱이 되고, 벌판은 여울이 되고, 골짜기와 협곡은 깊은 물과 물길이 된다.

1인치에 10로드 축척으로 호수 지도를 그리고 모두 백 곳이 넘는 측심값을 적어 넣은 뒤, 나는 이런 놀라운 일치를 알아차렸다. 가장 깊은 곳을 나타내는 숫자가 보아하니 지도 한가운데 있는 듯해서, 지도 위에 자를 세로로, 이어서 가로로 대어 보았더니, 놀랍게도 가장 긴 선과 가장 넓은 선이 가장 깊은 곳에서 *정확히* 만났다. 한가운데가 거의 평평하고, 호수의 윤곽이 전혀 고르지 않으며, 가장 긴 길이와 가장 넓은 너비를 후미 속까지 들어가 쟀는데도 그랬다. 그래서 나는 혼잣말을 했다. 이 실마리가 호수나 웅덩이의 가장 깊은 곳만이 아니라 바다의 가장 깊은 곳으로도 이끌어 주지 않으리라고 누가 알겠는가? 골짜기의 반대로 여기는 산의 높이에도 이것이 규칙이 아닐까? 언덕이 가장 좁은 곳에서 가장 높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후미 다섯 가운데 셋, 곧 측심한 후미 모두에서 어귀를 가로질러 모래톱이 있고 안쪽은 물이 더 깊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니 만은 땅 안으로 물이 수평으로만이 아니라 수직으로도 넓어진 곳이 되어 하나의 웅덩이나 따로 떨어진 호수를 이루는 경향이 있었고, 두 곶의 방향이 모래톱의 줄기를 보여 주었다. 바닷가의 항구마다 어귀에 모래톱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후미의 어귀가 길이에 비해 넓을수록, 모래톱 위의 물은 웅덩이 안의 물에 비해 깊었다. 그러니 후미의 길이와 너비와 둘레 기슭의 성질이 주어지면, 모든 경우에 맞는 공식을 세울 만한 요소가 거의 다 갖추어지는 셈이다.

이 경험으로 수면의 윤곽과 기슭의 성질만 보고 호수의 가장 깊은 곳을 얼마나 가깝게 알아맞힐 수 있는지 보려고, 나는 넓이가 41에이커쯤이고 이 호수처럼 섬도 없고 눈에 보이는 들목도 날목도 없는 화이트 호수의 평면도를 그렸다. 가장 넓은 선이 가장 좁은 선, 곧 마주 보는 두 곶이 서로 다가들고 마주 보는 두 만이 물러난 곳에 아주 가까이 떨어졌으므로, 나는 이 좁은 선에서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가장 긴 선 위에 있는 한 점을 가장 깊은 곳이라고 과감히 표시해 보았다. 가장 깊은 곳은 그 점에서 100피트 안, 내가 기울었던 방향으로 조금 더 간 곳에서 찾아졌고, 깊이는 겨우 1피트 더 깊은 60피트였다. 물론 냇물이 호수를 꿰뚫고 흐르거나 호수 안에 섬이 있다면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질 것이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모두 안다면, 그 자리의 개별적인 결과를 모두 끌어내는 데에는 사실 하나, 곧 실제 현상 하나의 기술만 있으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법칙을 몇 개밖에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결과는 틀어진다. 물론 자연에 무슨 혼란이나 불규칙이 있어서가 아니라, 셈에 꼭 필요한 요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 법칙과 조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대개 우리가 알아챈 경우에만 갇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겉으로는 서로 부딪치는 듯하지만 실은 한데 어울리는 훨씬 더 많은 법칙에서 나오는 조화는 더욱 놀랍다. 개별 법칙은 우리의 관점과 같다. 나그네에게 산의 윤곽이 걸음마다 달라지듯이. 산은 오직 한 꼴이지만 옆모습은 한없이 많다. 쪼개거나 꿰뚫어도 그 전체는 파악되지 않는다.

내가 호수에서 살펴본 것은 윤리에서도 다르지 않다. 그것은 평균의 법칙이다. 두 지름의 이런 규칙은 우리를 태양계의 해로, 사람 안의 심장으로 이끌어 줄 뿐 아니라, 한 사람의 날마다의 개별 행동과 그의 후미와 어귀로 밀려드는 삶의 물결을 모두 모아 그 길이와 너비를

가로질러 선을 긋게 한다. 그 선들이 만나는 곳이 그 사람 됨됨이의 높이나 깊이일 것이다. 어쩌면 그의 기슭이 어느 쪽으로 뻗었는지, 이웃한 땅이나 형편이 어떤지만 알면 그의 깊이와 숨은 바닥을 짐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가 산 같은 형편에 둘러싸여 있다면, 곧 봉우리들이 그를 굽어보며 그 품에 비치는 아킬레우스 같은 기슭에 둘러싸여 있다면, 그것은 그 안에 그만한 깊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낮고 밋밋한 기슭은 그쪽에서는 그가 얕다는 증거다. 우리 몸에서도 툭 불거진 이마는 그만한 생각의 깊이로 떨어져 내려가며 그 깊이를 가리킨다. 또 우리의 후미마다, 곧 개별적인 성향마다 어귀를 가로질러 모래톱이 있다. 그 성향 하나하나가 한 철 동안 우리의 항구여서, 우리는 거기 붙들려 얼마간 뭍에 갇힌다. 이런 성향은 대개 변덕이 아니고, 그 꼴과 크기와 방향은 기슭의 곶들, 곧 융기의 오래된 축이 정한다. 폭풍이나 조수나 해류로 이 모래톱이 차츰 높아지거나 물이 줄어 모래톱이 수면까지 닿으면, 처음에는 생각 하나가 깃든 기슭의 후미에 지나지 않던 것이 바다에서 끊긴 따로 떨어진 호수가 되고, 생각은 그 안에서 제 조건을 확보한다. 짠물에서 민물로 바뀌어 단물 바다나 죽은 바다나 늪이 될지도 모른다. 사람이 하나하나 이 삶에 올 때마다 그런 모래톱이 어딘가에서 수면 위로 솟았다고 짐작해도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는 하도 서툰 뱃사람이라서, 우리의 생각은 대개 항구 없는 해안 앞바다를 오락가락하거나, 시의 만에 굽이진 물가나 기웃거리거나, 누구나 드나드는 입항지로 키를 돌려 과학의 건선거에 들어간다. 거기서 생각은 이 세상에 맞게 다시 손질될 뿐이고, 그것을 저만의 것으로 만들어 줄 자연의 해류는 하나도 함께 흐르지 않는다.

월든의 들목이나 날목으로 말하면, 비와 눈과 증발 말고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다만 온도계와 측심줄이 있으면 그런 곳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물이 호수로 흘러드는 곳은 아마 여름에 가장 차갑고

겨울에 가장 따뜻할 테니까. 1846~1847년에 얼음 장수들이 이곳에서 일할 때, 어느 날 기슭으로 보낸 얼음덩이들을 거기서 쌓던 사람들이 받지 않은 일이 있었다. 두께가 모자라서 다른 덩이들과 나란히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음 자르는 사람들은 좁은 한 곳의 얼음이 다른 곳보다 2~3인치 얇다는 것을 알아냈고, 거기에 들목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또 다른 곳에서 호수가 언덕 밑으로 새어 이웃 풀밭으로 빠져나간다고 여긴 "새는 구멍"을 내게 보여 주었는데, 그것을 보여 주려고 나를 얼음덩이에 태워 밀어냈다. 그것은 물 10피트 아래의 작은 구멍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고약한 구멍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호수를 땜질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장담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이는 그런 "새는 구멍"이 발견되면, 풀밭과 이어져 있는지는 구멍 어귀에 색가루나 톱밥을 갖다 놓고 풀밭의 샘에 거름망을 씌워 물살에 실려 온 알갱이를 걸러 내면 밝힐 수 있으리라고 일러 주었다.

내가 측량하는 동안 두께 16인치의 얼음이 가벼운 바람에 물처럼 일렁였다. 얼음 위에서는 수준기를 쓸 수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슭에서 1로드 떨어진 곳에서, 뭍에 놓은 수준기로 얼음 위에 세운 눈금 막대를 겨누어 보니 얼음의 가장 큰 흔들림은 ¾인치였다. 얼음이 기슭에 단단히 붙어 있는 듯이 보였는데도 그랬다. 한가운데서는 아마 더 컸을 것이다. 우리의 기구가 충분히 섬세하다면 지구의 껍질에서도 일렁임을 알아챌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수준기의 다리 둘을 기슭에 두고 하나를 얼음 위에 두고서 얼음 쪽 너머로 겨누었더니, 얼음이 거의 무한히 작은 만큼만 오르내려도 호수 건너편 나무에서는 몇 피트씩 차이가 났다. 측심하려고 구멍을 뚫기 시작했을 때, 깊이 쌓인 눈이 얼음을 그만큼 내리눌러 얼음 위에 물이 3~4인치 고여 있었다. 그런데 물은 곧장 이 구멍들로 흘러들기 시작해서 이틀 동안 깊은 물줄기를 이루며 흘렀고, 사방의 얼음을 닳게 하여, 호수 표면을 말리는

데 주로는 아니어도 크게 이바지했다. 물이 흘러들면서 얼음을 들어 올려 띄웠기 때문이다. 이것은 배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 물을 빼내는 일과 좀 비슷했다. 그런 구멍들이 얼어붙고, 이어서 비가 오고, 마침내 다시 얼어 온 수면에 새 매끄러운 얼음이 덮이면, 얼음 속은 거미줄 비슷한 검은 무늬로 아름답게 얼룩진다. 얼음 장미꽃이라고 부를 만한 그 무늬는 사방에서 한가운데로 흘러든 물이 닳게 한 물길이 만든 것이다. 또 이따금 얼음이 얕은 웅덩이로 덮였을 때면 내 그림자가 둘로 보였다. 하나가 다른 하나의 머리 위에 서서, 하나는 얼음 위에, 다른 하나는 나무나 산비탈에 비쳤다.

◆

아직 추운 1월이라 눈과 얼음이 두껍고 단단할 때, 앞을 내다보는 여관 주인이 마을에서 와서 여름 음료를 식힐 얼음을 떠 간다. 1월에 벌써 7월의 더위와 갈증을 내다보다니, 감탄스러울 만큼, 아니 애처로울 만큼 지혜롭다. 두꺼운 외투와 벙어리장갑을 끼고서! 대비하지 못한 것이 그토록 많은데도. 어쩌면 그는 다음 세상에서 여름 음료를 식혀 줄 보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쌓아 두지 않는지도 모른다. 그는 단단한 호수를 자르고 톱질해서 물고기들의 집 지붕을 벗기고, 그들의 원소이자 공기 자체를 장작처럼 사슬과 말뚝으로 단단히 묶어 알맞게 차가운 겨울 공기를 뚫고 겨울 같은 지하 저장고로 실어 가서 거기서 여름을 떠받치게 한다. 멀리서 그것이 거리를 지나 실려 가는 것을 보면 굳어 버린 하늘빛 같다. 이 얼음 자르는 사람들은 농담과 장난이 넘치는 유쾌한 족속이어서, 내가 그들 사이에 가면 구덩이 톱질처럼 한 사람은 위에서, 한 사람은 밑에서 켜자며 나더러 밑에 서라고 권하곤 했다.

1846~1847년 겨울 어느 아침, 히페르보레오스 혈통의 사내 백 명이 볼품없어 보이는 농기구를 기차 여러 칸에 싣고 우리 호수로 덮쳐 내려왔다. 썰매, 쟁기, 파종 수레, 뗏장 칼, 삽, 톱, 갈퀴가 있었고, 저마다 『뉴잉글랜드 파머』나 『컬티베이터』에도 나오지 않는 양끝이 뾰족한 창 장대로 무장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겨울 호밀을 뿌리러 왔는지, 아니면 최근 아이슬란드에서 들여온 다른 곡식을 뿌리러 왔는지 알 수 없었다. 거름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들도 나처럼 흙이 깊고 묵을 만큼 묵었다고 여기고 땅을 겉갈이하려는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들 말로는 뒤에 숨은 어느 신사 농부가 이미 50만 달러에 이른다는 제 돈을 두 배로 불리고 싶어 한다고 했다. 그런데 제 달러 한 닢 한 닢을 또 한 닢으로 덮으려고, 그는 혹독한 겨울 한복판에 월든 호수의 하나뿐인 외투를, 아니 살가죽 자체를 벗겨 갔다. 그들은 곧장 일에 달려들어, 이곳을 모범 농장으로 만들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 훌륭한 질서로 쟁기질하고, 써레질하고, 땅을 고르고, 고랑을 냈다. 그러나 그들이 고랑에 어떤 씨앗을 떨어뜨리는지 보려고 내가 눈을 부릅뜨고 있을 때, 내 곁의 한 패거리가 갑자기 묘하게 홱 잡아채는 몸짓으로 처녀지의 흙 자체를 모래까지, 아니 물까지 깨끗이 갈고리로 걸어 올리기 시작했다. 그곳은 샘이 많은 흙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거기 있던 굳은 땅을 모조리 걸어 올려 썰매에 싣고 끌어갔다. 그제야 나는 그들이 늪에서 토탄을 떠내는 것이 틀림없다고 짐작했다. 그렇게 그들은 날마다 기관차의 묘한 비명 소리와 함께, 내가 보기에는 북극 지방의 어느 곳에서 와서 그곳으로 돌아갔다. 북극 눈새 떼처럼. 그러나 이따금 월든 노파가 앙갚음을 했다. 말을 몰고 뒤따라 걷던 일꾼 하나가 땅의 갈라진 틈으로 미끄러져 타르타로스 쪽으로 빠졌고, 그전에는 그토록 용감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의 9분의 1밖에 안 되는 꼴이 되어 체열을 거의 다 잃고는 기꺼이 내 집으로 피신해 와서 난로에도 얼마간 덕이 있음을 인정했다.

또 이따금 언 흙이 쟁기 날에서 쇳조각을 떼어 갔고, 쟁기가 고랑에 박혀 버려 잘라 내야 할 때도 있었다.

곧이곧대로 말하면, 양키 감독들을 거느린 아일랜드 사람 백 명이 얼음을 떠내려고 날마다 케임브리지에서 왔다. 그들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잘 알려진 솜씨로 얼음을 덩이로 갈랐다. 덩이는 썰매로 기슭까지 실려 와서 얼음 단으로 재빨리 끌어 올려졌고, 말이 부리는 쇠갈고리와 도르래로 들어 올려져 밀가루 통만큼이나 어김없이 더미 위에 놓였다. 거기서 덩이들은 나란히, 줄 위에 줄을 이루며 고르게 놓여, 마치 구름을 꿰뚫으려고 설계한 오벨리스크의 단단한 밑바탕을 이루는 듯했다. 그들 말로는 일이 잘되는 날이면 1,000톤을 떠낼 수 있는데, 그것이 1에이커쯤에서 나는 양이라고 했다. 썰매가 같은 길로 지나다니느라 얼음에도 굳은 땅에서처럼 깊은 바퀴 자국과 "요람 구덩이"가 패었고, 말들은 어김없이 들통처럼 속을 파낸 얼음덩이에 담긴 귀리를 먹었다. 그들은 이렇게 얼음덩이를 한데에 쌓아 한쪽 높이 35피트, 가로세로 6~7로드의 더미를 만들고, 바깥 켜 사이에 건초를 끼워 공기를 막았다. 바람은 아무리 차가워도 틈을 찾아 지나가기만 하면 큰 구멍을 닳게 해서 군데군데 가느다란 받침이나 기둥만 남기고 마침내 더미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처음에 그 더미는 거대한 푸른 요새나 발할라 같았다. 그러나 그들이 거친 풀밭 건초를 틈마다 쑤셔 넣기 시작하고 그 건초가 서리와 고드름에 덮이자, 하늘빛 도는 대리석으로 지은, 이끼 낀 백발의 거룩한 폐허처럼 보였다. 달력에 나오는 저 노인, 겨울의 거처, 마치 우리와 함께 여름잠을 잘 작정이라도 한 듯한 그 노인의 판잣집이었다. 그들은 이 가운데 25퍼센트도 목적지에 닿지 못하고, 2~3퍼센트는 기차 안에서 버려지리라고 셈했다. 그런데 이 더미의 더 많은 몫은 뜻한 것과 다른 운명을 맞았다. 얼음에 여느 때보다 공기가 많이 들어 있어 기대만큼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서였는지, 다른

무슨 까닭이 있어서였는지, 그 얼음은 끝내 시장에 가지 못했다. 1846~1847년 겨울에 만들어져 1만 톤이 든다고 어림된 이 더미는 마침내 건초와 판자로 덮였다. 이듬해 7월에 지붕이 벗겨지고 일부는 실려 갔으며 나머지는 햇볕에 드러난 채로 남았는데도, 그 더미는 그해 여름과 다음 겨울을 버티고 1848년 9월에야 다 녹았다. 그렇게 호수는 그 대부분을 되찾았다.

물처럼 월든의 얼음도 가까이서 보면 초록빛이 돌지만 멀리서 보면 아름답게 푸르러서, ¼마일 밖에서도 강의 하얀 얼음이나 어떤 호수들의 그저 초록빛 도는 얼음과 쉽게 가려낼 수 있다. 이따금 그 큰 얼음덩이 하나가 얼음 장수의 썰매에서 마을 거리로 미끄러져 떨어지면, 커다란 에메랄드처럼 한 주 동안 거기 놓여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눈길을 끈다. 나는 월든의 어떤 부분이 물일 때는 초록이다가 얼면 같은 자리에서 보아도 푸르게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이 호수 둘레의 우묵한 곳들은 겨울에 이따금 호수 물과 좀 비슷한 초록빛 물로 차 있다가 다음 날이면 푸르게 얼어 있다. 아마 물과 얼음의 푸른빛은 그 안에 든 빛과 공기 덕분이고, 가장 투명한 것이 가장 푸를 것이다. 얼음은 사색하기에 흥미로운 대상이다. 그들 말로는 프레시 호수의 얼음 창고에 다섯 해 묵은 얼음이 있는데 여전히 좋다고 했다. 왜 물 한 들통은 곧 썩는데 얼면 영원히 싱싱할까? 흔히들 이것이 애정과 지성의 차이라고 한다.

그렇게 열엿새 동안 나는 창밖으로 백 명의 사람이 바쁜 농부들처럼 말과 수레와 온갖 농기구를 갖추고 일하는 것을 보았다. 달력 첫 장에서 보는 그림 같은 광경이었다. 내다볼 때마다 나는 종다리와 추수꾼들의 우화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같은 것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모두 떠났다. 앞으로 서른 날만 더 지나면 나는 아마 같은 창으로 그곳의 맑은 바다 빛 초록 월든 물이 구름과 나무를 비추며 고독 속에서 제 김을

피워 올리는 것을 바라볼 것이고, 거기 사람이 서 있었던 자취는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백 명이 마음 놓고 일하던 곳에서, 어쩌면 아비 한 마리가 홀로 자맥질하고 깃을 다듬으며 웃는 소리를 듣게 되거나, 외로운 낚시꾼 하나가 물에 뜬 나뭇잎 같은 배에서 물결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찌는 듯한 찰스턴과 뉴올리언스, 마드라스와 봄베이와 캘커타의 주민들이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셈이다. 아침이면 나는 『바가바드기타』의 엄청나고 우주 생성을 다룬 철학에 내 지성을 씻는다. 그 책이 지어진 뒤로 신들의 해가 여러 번 흘렀고, 그 책에 견주면 우리의 근대 세계와 그 문학은 왜소하고 하찮아 보인다. 그 숭고함이 우리의 생각과 하도 멀어서, 나는 그 철학을 지금보다 앞선 어떤 존재 상태에 돌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책을 내려놓고 물을 길으러 우물에 가면, 보라! 거기서 나는 브라흐마와 비슈누와 인드라의 사제인 브라만의 하인을 만난다. 그 브라만은 지금도 갠지스강 가의 사원에 앉아 『베다』를 읽거나, 빵 껍질과 물 항아리를 곁에 두고 나무뿌리 곁에 머문다. 나는 주인을 위해 물을 길으러 온 그의 하인을 만나고, 우리의 두레박은 이를테면 같은 우물 안에서 서로 부딪친다. 맑은 월든 물이 갠지스강의 거룩한 물과 섞인다. 순풍을 타고 그 물은 전설의 섬 아틀란티스와 헤스페리데스가 있던 자리를 지나 한노의 항해 길을 돌고, 테르나테와 티도레와 페르시아만 어귀를 떠 지나서 인도양의 열대 바람 속에 녹아, 알렉산드로스가 이름만 들었던 항구들에 닿는다.

---

1. 발도파: 12세기 리옹의 발데스에게서 비롯한 그리스도교 일파. 영어 이름 Waldenses가 「월든들」처럼 들린다.

2. 패덤: 물 깊이를 재는 단위, 6피트(약 1.8미터).

3. 밀턴, 『실낙원』 제7권. 창조 때 물이 모여 바다가 되는 대목.

봄

얼음 자르는 사람들이 넓은 자리를 터놓으면 흔히 호수는 얼음이 더 일찍 풀린다. 추운 날씨에도 바람에 일렁이는 물이 둘레의 얼음을 닳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해 월든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월든은 곧 헌 옷 대신 두꺼운 새 옷을 얻어 입었기 때문이다. 이 호수는 이 근방의 다른 호수들만큼 일찍 얼음이 풀리는 법이 없다. 더 깊기도 하고, 얼음을 녹이거나 닳게 할 냇물이 꿰뚫고 흐르지도 않기 때문이다. 나는 겨울 동안 이 호수가 열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호수들에 그토록 혹독한 시련을 안긴 1852~1853년 겨울도 예외가 아니었다. 월든은 대개 4월 초하루 무렵, 플린트 호수나 페어헤이븐보다 한 주나 열흘 늦게 열리는데, 얼기 시작했던 북쪽 기슭과 얕은 곳부터 녹기 시작한다. 덧없는 기온 변화에 가장 덜 흔들리기 때문에, 계절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갔는지를 이 근방의 어느 물보다도 잘 보여 준다. 3월에 며칠 이어지는 매서운 추위는 앞의 호수들이 열리는 것을 크게 늦출 수 있지만, 월든의 수온은 거의 끊임없이 오른다. 1847년 3월 6일 월든 한가운데에 꽂은 온도계는 화씨 32도, 곧 어는점을 가리켰고, 기슭 가까이에서는 33도였다. 같은 날 플린트 호수 한가운데에서는 32도, 기슭에서 12로드 떨어진 얕은 물, 두께 1피트 얼음 밑에서는 36도였다. 플린트 호수에서 깊은 물과 얕은 물의 온도가 3½도 차이 나는 것과, 그 호수의 상당 부분이 비교적 얕다는 사실은 그 호수가 왜 월든보다 그토록 일찍 풀리는지를 보여 준다. 이때 가장 얕은 곳의 얼음은

한가운데보다 몇 인치 얇았다. 한겨울에는 한가운데가 가장 따뜻하고 얼음도 거기가 가장 얇았다. 여름에 호숫가를 걸어서 물을 건너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깊이가 3~4인치밖에 안 되는 기슭 바로 곁의 물이 조금 떨어진 곳보다 얼마나 더 따뜻한지, 그리고 깊은 곳에서는 수면이 바닥 근처보다 얼마나 더 따뜻한지 틀림없이 느꼈을 것이다. 봄에 해는 공기와 땅의 기온을 높여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열이 1피트 남짓한 얼음을 뚫고 들어가 얕은 물에서는 바닥에서 되비치므로, 물을 데우고 얼음의 아랫면을 녹이는 한편 위에서는 더 곧바로 녹여서, 얼음을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그 안에 든 공기 방울을 위아래로 늘어나게 하여 얼음이 온통 벌집처럼 숭숭 뚫리게 하고, 마침내 봄비 한 번에 얼음은 갑자기 사라진다. 얼음에도 나무처럼 결이 있어서, 얼음덩이가 썩기 시작하거나 "벌집이 되면", 곧 벌집 꼴을 띠면, 그 덩이가 어떤 자세로 놓여 있든 공기 구멍은 본디 수면이었던 면과 직각을 이룬다. 수면 가까이 바위나 통나무가 솟아 있는 곳은 그 위의 얼음이 훨씬 얇고, 이 되비치는 열에 아예 녹아 버리는 일이 잦다. 또 들은 바로는 케임브리지에서 얕은 나무 웅덩이에 물을 얼리는 실험을 했는데, 찬 공기가 밑으로 돌아 양면에 닿을 수 있었는데도 바닥에서 되비친 햇볕이 그 이점을 넘어서고도 남았다고 한다. 한겨울에 따뜻한 비가 내려 월든의 눈 얼음을 녹이고 한가운데에 단단하고 검은, 또는 투명한 얼음을 남기면, 기슭 둘레에는 이 되비치는 열 때문에 너비 1로드 남짓한, 더 두껍기는 하지만 썩은 흰 얼음 띠가 생긴다. 또 앞서 말했듯이 얼음 속의 공기 방울들은 그 자체가 볼록 렌즈 구실을 해서 그 아래 얼음을 녹인다.

한 해의 현상이 호수에서는 날마다 작은 규모로 일어난다. 대체로 아침마다 얕은 물은 깊은 물보다 빨리 데워진다. 결국에는 그만큼 따뜻해지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그리고 저녁마다 아침이 될 때까지 더

빨리 식는다. 하루는 한 해의 축소판이다. 밤은 겨울이고, 아침과 저녁은 봄과 가을이며, 한낮은 여름이다. 얼음이 갈라지고 쿵쿵 울리는 것은 기온이 바뀐다는 표시다. 1850년 2월 24일, 추운 밤이 지난 어느 상쾌한 아침, 하루를 보내려고 플린트 호수에 간 나는 도끼머리로 얼음을 치자 둘레 여러 로드에 걸쳐 징처럼, 아니 팽팽한 북 가죽을 친 듯이 울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놀랐다. 호수는 해가 뜨고 한 시간쯤 지나 언덕 너머에서 비스듬히 비치는 햇살의 기운을 느끼자 쿵쿵 울리기 시작했다. 잠에서 깨는 사람처럼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했고, 그 소란은 점점 커져서 서너 시간 이어졌다. 한낮에는 잠깐 낮잠을 잤고, 저녁 무렵 해가 기운을 거두어 갈 때 다시 한 번 울렸다. 날씨가 알맞은 때면 호수는 아주 규칙적으로 저녁 대포를 쏜다. 그러나 한낮에는 금이 잔뜩 가 있고 공기의 탄력도 덜해서 울림을 완전히 잃었고, 아마 그때는 얼음을 내리쳐도 물고기나 사향쥐가 기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낚시꾼들 말로는 "호수의 천둥"이 물고기를 놀라게 해서 입질을 못 하게 한다고 한다. 호수가 저녁마다 천둥을 치지는 않고, 언제 천둥을 칠지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날씨의 차이를 느끼지 못해도 호수는 느낀다. 그렇게 크고 차갑고 가죽 두꺼운 것이 그토록 예민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그런데도 호수에는 제 법칙이 있어서, 봄에 싹이 틀 때만큼이나 어김없이, 그래야 할 때면 그 법칙에 천둥으로 복종한다. 땅은 온통 살아 있고 젖꼭지 같은 돌기로 덮여 있다. 가장 큰 호수도 관속의 수은 방울만큼 대기의 변화에 예민하다.

숲에 살러 오면서 끌린 것 하나는 봄이 오는 것을 지켜볼 여유와 기회가 있으리라는 점이었다. 호수의 얼음이 마침내 벌집처럼 숭숭 뚫리기 시작하고, 걸어가면 뒤꿈치가 박힌다. 안개와 비와 한결 따뜻해진 해가 차츰 눈을 녹이고, 낮은 눈에 띄게 길어졌다. 이제 큰불은 필요 없으니 장작더미에 더 보태지 않고도 겨울을 날 수 있겠다는 것이

보인다. 나는 봄의 첫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고 귀와 눈을 곤두세운다. 막 날아온 어느 새의 우연한 노랫소리나, 저장해 둔 먹이가 이제 거의 바닥났을 줄무늬다람쥐의 짹짹 소리를 들으려고, 아니면 우드척이 겨울 굴에서 모험 삼아 나오는 것을 보려고. 3월 13일, 파랑지빠귀와 노래참새와 붉은어깨검정새 소리를 들은 뒤에도 얼음은 아직 두께가 1피트 가까이 되었다. 날씨가 따뜻해져도 얼음은 물에 눈에 띄게 닳지도 않았고, 강에서처럼 깨져 떠내려가지도 않았다. 기슭 둘레로는 너비 ½로드쯤 완전히 녹았지만 한가운데는 벌집처럼 숭숭 뚫리고 물에 흠뻑 젖었을 뿐이어서, 두께가 6인치일 때도 발이 쑥 빠질 정도였다. 그러다 따뜻한 비가 오고 안개가 낀 다음 날 저녁쯤이면 얼음은 아마 감쪽같이 사라졌을 것이다. 안개와 함께 모두 떠나, 귀신에게 홀린 듯 사라졌다. 어느 해에는 얼음이 다 사라지기 겨우 닷새 전에 한가운데를 걸어서 건넜다. 1845년에 월든이 처음 완전히 열린 날은 4월 1일이었고, 1846년에는 3월 25일, 1847년에는 4월 8일, 1851년에는 3월 28일, 1852년에는 4월 18일, 1853년에는 3월 23일, 1854년에는 4월 7일 무렵이었다.

강과 호수의 얼음이 풀리고 날씨가 자리를 잡는 일과 이어진 일은 무엇이든, 이토록 극단적인 기후에 사는 우리에게는 각별히 흥미롭다. 따뜻한 날이 오면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밤에 얼음이 대포 소리만큼 큰 소리로 깜짝 놀랄 만큼 쩡 갈라지는 것을 듣는다. 마치 얼음 족쇄가 끝에서 끝까지 찢어지는 듯하다. 그리고 며칠 안에 얼음이 빠르게 떠나가는 것을 본다. 그렇게 악어가 땅을 뒤흔들며 진흙에서 나온다. 자연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아 온 한 노인이 있다. 그는 자연이 하는 일을 모두 속속들이 아는 듯해서, 마치 자기가 어렸을 때 자연을 조선대에 올려놓고 용골 놓는 일을 거들기라도 한 것 같다. 그는 다 자라서 므두셀라만큼 오래 산다 해도 자연에 대한 지식을 더 얻기는 어려울

사람이다. 나는 그가 자연이 하는 어떤 일에 놀라워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 그와 자연 사이에는 아무 비밀도 없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노인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는 이렇다. 어느 봄날 그는 총과 배를 챙겨 오리를 상대로 사냥이나 좀 할 생각을 했다. 풀밭에는 아직 얼음이 있었지만 강에서는 다 빠져나갔으므로, 그는 자기가 사는 서드베리에서 페어헤이븐 호수까지 막힘 없이 배를 타고 내려갔는데, 뜻밖에도 호수는 거의 다 단단한 얼음 벌판으로 덮여 있었다. 따뜻한 날이었으므로 그는 그토록 큰 얼음 덩어리가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오리가 보이지 않자 그는 호수 안에 있는 섬의 북쪽, 곧 뒤쪽에 배를 숨기고 남쪽 덤불에 몸을 숨겨 오리를 기다렸다. 기슭에서 3~4로드까지는 얼음이 녹아 있었고, 그 안쪽에는 오리가 좋아하는, 바닥이 진흙인 매끄럽고 따뜻한 물이 펼쳐져 있었으므로, 그는 곧 몇 마리 오리라 여겼다. 한 시간쯤 거기 꼼짝 않고 누워 있었을 때 그는 낮고 무척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이제껏 들어 본 어떤 소리와도 다르게 유난히 장엄하고 인상 깊은 소리였는데, 마치 온 세상을 울릴 잊지 못할 끝맺음이라도 지으려는 듯 차츰 부풀고 커지는, 음울하게 몰아치며 으르렁대는 소리였다. 그것이 대번에 커다란 새 떼가 그곳에 내려앉으려고 날아드는 소리처럼 들려서, 그는 총을 움켜쥐고 흥분하여 허둥지둥 일어섰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가 거기 누워 있는 동안 얼음 덩어리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기슭으로 떠밀려 왔고, 그가 들은 소리는 얼음 가장자리가 기슭에 갈리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살살 갉히고 부스러져 나갔지만, 마침내 얼음은 들고일어나서 멈추어 서기까지 그 잔해를 섬을 따라 꽤 높이 흩뿌렸다.

마침내 햇살이 알맞은 각도에 이르고, 따뜻한 바람이 안개와 비를 불러와 눈 더미를 녹이고, 해가 안개를 흩으며 향을 피우듯 김이 오르는 적갈색과 흰색의 얼룩진 풍경에 미소를 짓는다. 그 사이로 나그네는 이

작은 섬에서 저 작은 섬으로 길을 골라 디디며, 겨울의 피를 핏줄 가득 담아 실어 가는 천 갈래 개울과 시내의 딸랑거리는 음악에 힘을 얻는다.

마을로 가는 길에 지나는 철로의 깊은 절개지 비탈을 따라, 녹는 모래와 진흙이 흘러내리며 짓는 꼴을 바라보는 것만큼 나를 기쁘게 한 현상은 드물다. 이만한 규모로는 그리 흔하지 않은 현상이지만, 철도가 생긴 뒤로 알맞은 재료로 된 갓 드러난 비탈의 수는 크게 늘었을 것이다. 재료는 온갖 굵기에 갖가지 짙은 빛깔을 띤 모래였고, 대개 진흙이 조금 섞여 있었다. 봄에 서리가 땅에서 빠져나올 때면, 아니 겨울에도 날이 풀리는 날이면, 모래가 용암처럼 비탈을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때로는 눈을 뚫고 터져 나와 전에는 모래가 보이지 않던 곳까지 넘쳐흐른다. 수없는 작은 물줄기가 서로 겹치고 얽히며 일종의 잡종을 보여 주는데, 그것은 반은 물살의 법칙을, 반은 식물의 법칙을 따른다. 흘러내리면서 그것은 즙 많은 잎이나 덩굴의 꼴을 띠고, 깊이 1피트 남짓한 걸쭉한 잔가지 더미를 이루어, 내려다보면 어떤 지의류의 잘게 갈라지고 엽으로 나뉘고 비늘처럼 겹친 엽상체를 닮았다. 또는 산호를, 표범의 발이나 새의 발을, 뇌나 허파나 창자를, 온갖 배설물을 떠올리게 한다. 그것은 참으로 *그로테스크한* 식물이고, 그 꼴과 빛깔은 청동으로 본뜬 것을 우리가 보곤 하는 바로 그것이다. 아칸서스나 치커리, 담쟁이, 포도덩굴, 그 밖의 어떤 식물의 잎보다 더 오래되고 더 전형적인 일종의 건축 장식 잎인 셈인데, 어쩌면 어떤 사정에서는 앞날의 지질학자들에게 수수께끼가 될 운명인지도 모른다. 절개지 전체는 종유석이 늘어진 동굴을 열어젖혀 햇빛에 드러낸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모래의 갖가지 빛깔은 유난히 풍성하고 보기 좋아서, 여러 쇠 빛깔, 곧 갈색, 잿빛, 누르스름한 빛, 불그스름한 빛을 두루 아우른다. 흘러내리는 덩어리가 비탈 아래 도랑에 이르면 더 납작하게 퍼져 *가닥*이 되고, 따로따로 흐르던 물줄기는 반원통 꼴을 잃고 차츰 더 납작하고 넓어지며 물기가

많아지는 만큼 한데 어울려 흐르다가, 마침내 거의 평평한 *모래*를 이룬다. 그 모래는 여전히 갖가지로 아름답게 빛깔이 어리고, 거기서 본디의 식물 꼴을 더듬어 볼 수 있다. 마침내 물속에 들어가면 강어귀 앞에 생기는 것과 같은 *모래톱*으로 바뀌고, 식물의 꼴은 바닥의 물결 자국 속으로 사라진다.

높이 20~40피트의 비탈 전체가 한쪽이나 양쪽으로 ¼마일에 걸쳐 이런 잎, 곧 모래가 터져 나온 덩어리로 덮이는 일도 있는데, 그것이 봄날 하루의 산물이다. 이 모래 잎을 놀랍게 하는 것은 이처럼 갑자기 생겨난다는 점이다. 한쪽에는 움직임 없는 비탈이 있고(해는 먼저 한쪽에만 비치니까), 다른 쪽에는 한 시간 만에 지어진 이 무성한 잎이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묘한 뜻에서 세상과 나를 지은 예술가의 작업실에 서 있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힌다. 그가 아직도 일하고 있는 곳에, 이 비탈에서 장난치며 넘치는 힘으로 새 도안을 사방에 흩뿌리고 있는 곳에 내가 와 있는 것만 같다. 지구의 내장에 더 가까이 다가간 듯한 느낌이 든다. 이 모래 넘침은 동물 몸의 내장과도 같은 잎 꼴의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모래 속에서조차 식물 잎이 미리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땅이 안으로 그 생각을 그토록 애써 품고 있으니, 밖으로 잎이 되어 나타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원자들은 이미 이 법칙을 배웠고 그것으로 아이를 뱄다. 위에 매달린 잎은 여기서 제 원형을 본다. *안으로는*, 지구에서든 동물의 몸에서든, 그것은 축축하고 두툼한 *엽*(lobe)이다. 이 말은 특히 간과 허파와 지방의 겹에 잘 들어맞는다(γείβω, *labor*, *lapsus*, 아래로 흐르거나 미끄러지다, 미끄러짐. λοβός, *globus*, lobe, globe. 또 lap, flap 그 밖의 많은 낱말). *밖으로는* 마르고 얇은 *잎*(leaf)이다. 마치 *f*와 *v*가 눌려서 마른 *b*인 것처럼. *lobe*의 어근은 *lb*로, *b*의 부드러운 덩어리(홑엽이면 b, 겹엽이면 B)를 그 뒤의 유음 *l*이 앞으로 밀어 낸다. globe, 곧 *glb*에서는

목구멍소리 *g*가 목구멍의 용량을 뜻에 보탠다. 새의 깃털과 날개는 더욱 마르고 얇은 잎이다. 이렇게 우리는 땅속의 굼뜬 굼벵이에서 하늘하늘 나풀대는 나비로 넘어간다. 지구 자체도 끊임없이 제 자신을 넘어서고 옮겨 가며, 제 궤도에서 날개를 단다. 얼음조차 섬세한 결정의 잎으로 시작한다. 마치 물풀의 잎이 물의 거울에 찍어 놓은 틀 속으로 흘러들어간 것처럼. 나무 전체도 잎 하나일 뿐이고, 강은 그 사이의 땅을 잎살로 삼은 더 거대한 잎이며, 읍과 도시는 그 잎겨드랑이에 슨 벌레알이다.

해가 물러가면 모래는 흐름을 멈추지만, 아침이면 물줄기들이 다시 흐르기 시작해서 가지를 치고 또 쳐서 무수한 물줄기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어쩌면 혈관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는 셈이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먼저 녹는 덩어리에서 손가락 끝마디처럼 물방울 꼴의 끝을 단, 무르게 풀린 모래 줄기 하나가 앞으로 나와서 천천히 더듬더듬 아래로 길을 찾는 것이 보인다. 마침내 해가 더 높이 떠서 열과 물기가 늘어나면, 가장 묽은 부분이 가장 굼뜬 부분도 따르는 법칙을 따르려고 애쓰며 굼뜬 부분에서 떨어져 나와 그 안에 구불구불한 물길, 곧 동맥을 낸다. 그 안에서 작은 은빛 물줄기가 걸쭉한 잎이나 가지의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번개처럼 번득이며 흐르다가 이따금 모래에 삼켜지는 것이 보인다. 모래가 흐르면서 그 덩어리가 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를 써서 물길의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짓고 얼마나 빠르면서도 완벽하게 스스로를 조직하는지 놀랍다. 강의 근원이 바로 이렇다. 물이 가라앉히는 규산질 속에 아마 뼈대가 있고, 그보다 더 고운 흙과 유기물 속에 살의 섬유나 세포 조직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란 녹는 진흙 덩어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사람 손가락의 끝마디는 얼어붙은 물방울일 뿐이다. 손가락과 발가락은 녹는 몸의 덩어리에서 저만큼 흘러나온 것이다. 더 다사로운 하늘 아래라면 사람의 몸이 어디까지 퍼지고

흘러나갈지 누가 알겠는가? 손은 엽과 잎맥을 갖춘, *손바닥*처럼 펼쳐진 종려 잎이 아닌가? 귀는, 엉뚱한 상상이지만, 머리 옆에 붙은 엽, 곧 물방울을 단 지의류 석이(*Umbilicaria*)라 할 수 있다. 입술(*labium*, *labor*에서 왔을까?)은 동굴 같은 입의 양옆에서 늘어지거나 미끄러져 내린다. 코는 누가 봐도 얼어붙은 물방울이거나 종유석이다. 턱은 그보다 더 큰 물방울, 얼굴에서 흘러내린 물이 한데 모여 떨어지는 곳이다. 뺨은 이마에서 얼굴의 골짜기로 미끄러져 내리다가 광대뼈에 막혀 퍼진다. 식물 잎의 둥근 엽 하나하나도 크든 작든 두툼한, 이제는 머뭇거리는 물방울이다. 엽은 잎의 손가락이다. 잎은 엽의 수만큼 여러 방향으로 흐르려 하고, 열이나 다른 다사로운 기운이 더 있었다면 더 멀리 흘러갔을 것이다.

그러니 이 산비탈 하나가 자연이 하는 모든 일의 원리를 보여 주는 듯했다. 이 땅의 창조주는 잎 하나에 특허를 냈을 뿐이다. 어느 샹폴리옹이 우리를 위해 이 상형 문자를 풀어 주어, 우리가 마침내 새 잎을 펼치고 삶의 새 장을 넘기게 해 줄 것인가? 이 현상은 내게 포도밭의 무성함과 기름짐보다 더 신이 난다. 사실 그 성질은 좀 배설물 같고, 마치 지구를 뒤집어 안을 밖으로 내놓은 듯 간과 허파와 창자 더미가 끝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자연에게도 애가, 곧 창자와 애틋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그 점에서 자연은 다시 인류의 어머니다. 이것은 땅에서 빠져나오는 서리다. 이것이 봄이다. 그것은 초록과 꽃의 봄에 앞서 온다. 신화가 정형시에 앞서 오듯이. 겨울의 탁한 기운과 체증을 이보다 더 잘 씻어 내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것을 보면 대지가 아직 포대기에 싸여 있으면서 사방으로 아기 손가락을 내뻗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가장 벗어진 이마에서도 새 곱슬머리가 돋는다. 무기물이란 없다. 이 잎 꼴의 더미들은 용광로의 쇠똥처럼 비탈을 따라 늘어서서, 자연이 안에서 "한창 불을 때고 있음"을

보여 준다. 땅은 지질학자와 골동품 연구가가 주로 연구할, 책장처럼 켜켜이 쌓인 죽은 역사의 한 조각이 아니라, 꽃과 열매에 앞서는 나뭇잎처럼 살아 있는 시다. 화석이 된 땅이 아니라 살아 있는 땅이고, 그 거대한 중심의 생명에 견주면 모든 동물과 식물의 생명은 기생하는 것일 뿐이다. 땅의 진통은 무덤에서 우리의 허물을 들어 올릴 것이다. 여러분이 쇠붙이를 녹여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틀에 부어 보아도, 그것은 이 녹은 땅이 흘러나가 짓는 꼴만큼 나를 설레게 하지 못할 것이다. 땅만이 아니라 그 위에 세운 제도들도 옹기장이 손에 든 진흙처럼 빚을 수 있다.

머지않아 이 비탈만이 아니라 모든 언덕과 벌판과 모든 우묵한 곳에서, 서리는 굴에서 나오는 겨울잠 자던 네발짐승처럼 땅에서 빠져나와, 음악과 함께 바다를 찾아가거나 구름이 되어 다른 기후로 옮겨 간다. 부드럽게 달래는 해빙(Thaw)은 망치를 든 토르(Thor)보다 힘이 세다. 하나는 녹이고, 다른 하나는 산산이 부술 뿐이다.

땅이 군데군데 눈을 벗고 따뜻한 날 며칠이 땅거죽을 얼마간 말렸을 때, 막 고개를 내미는 갓난 한 해의 여린 첫 신호를 겨울을 견뎌 낸 시든 풀들의 의젓한 아름다움과 견주어 보는 것은 즐거웠다. 떡쑥, 미역취, 핀위드, 그리고 우아한 들풀들은 마치 그때에야 아름다움이 무르익는 듯 여름보다도 더 눈에 띄고 흥미로운 때가 많았다. 황새풀, 부들, 우단담배풀, 고추나물, 하드핵, 터리풀, 그 밖에 줄기가 억센 식물들도 있었다. 맨 먼저 온 새들을 먹이는, 바닥나지 않은 곡식 창고이자, 홀로 된 자연이 입는 적어도 점잖은 상복이다. 나는 특히 양털풀의 활처럼 휘고 볏단 같은 이삭에 끌린다. 그것은 겨울의 기억 속으로 여름을 되살려 오고, 예술이 즐겨 본뜨는 꼴 가운데 하나이며, 식물계에서 이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원형과 맺는 관계가 천문학과 같다. 그것은 그리스나 이집트보다 오래된 옛 양식이다. 겨울의 현상 가운데 많은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정함과 부서질 듯한 섬세함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이 임금이 거칠고 사나운 폭군이라는 말을 듣는 데 익숙하지만, 그는 연인의 다정함으로 여름의 머리채를 꾸민다.

봄이 다가오자 붉은다람쥐들이 한 번에 두 마리씩 내 집 밑으로, 내가 앉아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바로 발밑으로 들어와서, 이제껏 들어 본 가운데 가장 괴상하게 킥킥대고 짹짹대고 목청으로 빙글빙글 재주를 부리고 꾸르륵대는 소리를 그칠 줄 몰랐다. 내가 발을 구르면 녀석들은 미친 장난에 두려움도 존경도 다 잊은 듯 더 크게 짹짹댈 뿐이었고, 인류더러 막아 볼 테면 막아 보라는 듯했다. 안 되지, 안 돼. 치커리, 치커리. 녀석들은 내 논변에 완전히 귀를 막았거나 그 힘을 알아듣지 못했고, 막을 도리가 없는 욕설을 줄줄이 퍼부었다.

봄의 첫 참새! 어느 때보다도 앳된 희망으로 시작하는 한 해! 군데군데 눈을 벗고 촉촉한 들판 위로 파랑지빠귀와 노래참새와 붉은어깨검정새가 지저귀는 희미한 은빛 노랫소리는 마치 겨울의 마지막 눈송이들이 떨어지며 딸랑대는 것 같다! 이런 때 역사니 연대기니 전승이니 하는 것들이, 글로 적은 모든 계시가 다 무엇인가? 시냇물은 봄에게 성탄 송가와 돌림노래를 부른다. 풀밭 위를 낮게 미끄러지는 개구리매는 벌써 깨어나는 첫 미끈한 생명을 찾는다. 녹는 눈이 가라앉는 소리가 골짜기마다 들리고, 호수에서는 얼음이 빠르게 녹는다. 풀은 봄 들불처럼 산비탈에 확 타오른다(et primitus oritur herba imbribus primoribus evocata, 첫비에 불려 나와 풀이 처음 돋는다). 마치 땅이 돌아오는 해를 맞으려고 안의 열기를 내보내는 것 같다. 그 불꽃의 빛깔은 노랑이 아니라 초록이다. 영원한 젊음의 상징인 풀잎은 기다란 초록 리본처럼 뗏장에서 여름으로 흘러나간다. 서리에 막히기는 하지만 곧 다시 밀고 나가며, 아래의 싱싱한 생명으로 지난해 건초의 창끝을 들어 올린다. 풀잎은 샘물이 땅에서 스며 나오듯 꾸준히

자란다. 사실 풀은 샘물과 거의 한가지다. 한창 자라는 6월에 시냇물이 마르면 풀잎이 그 물길이 되고, 해마다 가축 떼는 이 마르지 않는 초록 시내에서 물을 마시며, 풀 베는 사람은 일찌감치 거기서 가축들의 겨울 양식을 길어 간다. 그렇게 우리 인간의 삶도 뿌리까지 시들었다가 다시 영원을 향해 초록 잎을 내민다.

월든이 빠르게 녹고 있다. 북쪽과 서쪽 기슭을 따라 너비 2로드의 물길이 났고, 동쪽 끝에서는 그보다 더 넓다. 커다란 얼음 벌판 하나가 본체에서 갈라져 떨어져 나갔다. 기슭 덤불에서 노래참새 한 마리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린다. *올릿, 올릿, 올릿, 칩, 칩, 칩, 체 차르, 체 위스, 위스, 위스*. 녀석도 얼음을 깨뜨리는 일을 거드는 중이다. 기슭의 곡선에 얼마간 들어맞으면서도 그보다 더 고른, 얼음 가장자리의 크게 휘어지는 곡선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음은 얼마 전의 매섭지만 잠깐이던 추위 탓에 유난히 단단하고, 궁전 마룻바닥처럼 온통 물결무늬가 졌다. 그러나 바람은 불투명한 그 얼음 위를 헛되이 동쪽으로 미끄러지다가 그 너머 살아 있는 수면에 닿는다. 햇빛에 반짝이는 이 물의 리본을 바라보는 것은 근사하다. 기쁨과 젊음이 가득한 호수의 맨얼굴은 그 안의 물고기들과 기슭의 모래들의 기쁨을 말하는 듯하고, 마치 온 호수가 한 마리 날쌘 물고기인 듯 황어의 비늘에서 나는 듯한 은빛 윤기를 띤다. 겨울과 봄은 이렇게 다르다. 월든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이번 봄에는 얼음이 더 차분하게 풀렸다.

폭풍과 겨울에서 맑고 온화한 날씨로, 어둡고 굼뜬 시간에서 밝고 탄력 있는 시간으로 바뀌는 것은 모든 것이 알리는 잊지 못할 고비다. 그 고비는 마침내 한순간에 오는 듯하다. 저녁이 가까웠고 겨울 구름이 아직 드리워 있었으며 처마에서는 진눈깨비 섞인 비가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갑자기 빛이 밀려들어 내 집을 가득 채웠다. 창밖을

내다보니, 보라! 어제 차가운 잿빛 얼음이 있던 자리에 투명한 호수가 벌써 여름 저녁처럼 고요하고 희망에 차서 누워 있었다. 머리 위로는 그런 하늘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호수는 여름 저녁 하늘을 품에 비추고 있었다. 마치 먼 어느 지평선과 소식을 주고받기라도 하는 듯이. 멀리서 개똥지빠귀 소리가 들렸다. 몇천 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인 듯싶었고, 앞으로 몇천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할 소리, 옛날과 똑같이 감미롭고 힘찬 노래였다. 오, 뉴잉글랜드 여름날 끝의 저녁 개똥지빠귀여! 녀석이 앉은 가지를 내가 찾아낼 수만 있다면! 내 말은 *그 새*를, 그리고 *그 가지*를 찾고 싶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것은 *Turdus migratorius*가 아니다. 그토록 오래 축 처져 있던 내 집 둘레의 리기다소나무와 관목참나무들이 갑자기 저마다의 성격을 되찾아, 비에 말끔히 씻기고 되살아난 듯 더 밝고 더 푸르고 더 꼿꼿하고 생기 있어 보였다. 나는 이제 비가 더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숲의 어느 잔가지를 보든, 아니 바로 우리 집 장작더미를 보든, 그 겨울이 지나갔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날이 더 어두워지자 숲 위로 낮게 나는 기러기들이 끼룩대는 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남쪽 호수들에서 늦게 도착한 지친 나그네들이 마침내 거리낌 없이 투덜대며 서로 위로하는 것 같았다. 문간에 서 있으니 날갯소리가 휙휙 들렸다. 그런데 내 집 쪽으로 몰려오던 기러기들은 갑자기 내 불빛을 보고는 떠들썩하던 소리를 죽이고 방향을 돌려 호수에 내려앉았다. 그래서 나는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숲에서 첫 봄밤을 보냈다.

아침에 나는 문간에서 안개 너머로 기러기들을 지켜보았다. 50로드 떨어진 호수 한가운데에 떠 있는 기러기들이 하도 크고 시끌벅적해서, 월든이 그들을 즐겁게 하려고 만든 인공 호수처럼 보였다. 그러나 내가 기슭에 서자 기러기들은 지휘관의 신호에 따라 크게 날개를 치며 곧바로 날아올랐고, 대열을 갖추고는 내 머리 위를 한 바퀴 돌았다. 스물아홉

마리였다. 그러고는 우두머리가 이따금 고르게 끼룩 하고 우는 가운데 캐나다를 향해 곧장 나아갔다. 더 진흙투성이인 웅덩이에서 아침 끼니를 해결할 셈이었을 것이다. 같은 때 오리 "한 무리"도 날아올라 더 시끄러운 사촌들의 뒤를 따라 북쪽으로 길을 잡았다.

한 주 동안 나는 안개 낀 아침마다 외톨이 기러기 한 마리가 짝을 찾아 맴돌며 더듬더듬 끼룩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숲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생명의 소리로 여전히 숲을 채웠다. 4월에는 비둘기들이 다시 작은 떼를 지어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이 보였고, 때가 되자 내 개간지 위로 자줏빛제비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읍에 내 몫까지 돌아올 만큼 그 새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았으므로, 나는 녀석들이 백인이 오기 전 속이 빈 나무에 살던 오랜 족속이라고 상상했다. 거의 모든 기후에서 거북과 개구리는 이 계절의 선구자이자 전령이다. 그리고 새들은 노래하며 반짝이는 깃털로 날고, 식물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바람이 분다. 극의 이 작은 흔들림을 바로잡고 자연의 평형을 지키려고.

어느 계절이든 제 차례가 오면 가장 좋아 보이듯이, 봄이 오는 것은 혼돈에서 질서 있는 세계가 지어지고 황금시대가 이루어지는 일과 같다.[1]

> "Eurus ad Auroram Nabathaeaque regna recessit,
> Persidaque, et radiis juga subdita matutinis."

"동풍은 아우로라와 나바테아 왕국으로,
페르시아로, 아침 햇살 아래 놓인 산등성이로 물러갔다.
……
사람이 태어났다. 만물을 지은 저 장인,
더 나은 세상의 근원이 신성한 씨앗에서 사람을 지었는지,
아니면 갓 생겨나 높은 에테르에서 막 갈라져 나온
땅이 같은 피붙이인 하늘의 씨앗을 얼마간 간직하고 있었는지."

부드러운 비가 한 번만 내려도 풀은 몇 갑절 더 푸르러진다. 그렇게 더 나은 생각이 밀려들면 우리의 앞날도 밝아진다. 우리가 늘 현재에 살면서, 풀이 제 위에 떨어지는 가장 가벼운 이슬의 영향까지 고백하듯,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우연을 살려 쓴다면, 그리고 지난 기회를 놓친 것을 속죄하느라, 우리가 의무를 다한다고 부르는 일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축복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봄인데도 겨울에서 꾸물거린다. 상쾌한 봄날 아침에는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런 날은 악덕과 맺은 휴전이다. 이런 해가 타오르는 동안에는 가장 악한 죄인도 돌아올 수 있다. 우리 자신이 되찾은 순수를 통해 우리는 이웃의 순수를 알아본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웃을 도둑이나 주정뱅이나 호색한으로 알고 그저 가엾게 여기거나 업신여기며 세상에 절망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봄날 첫 아침에 해가 밝고 따뜻하게 비치며 세상을 새로 짓고, 우리는 그 이웃이 어떤 평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만난다. 그리고 그의 지치고 방탕했던 핏줄이 고요한 기쁨으로 부풀어 새날을 축복하며 갓난아기의 순수로 봄의 기운을 느끼는 것을 보면, 그의 허물은 모두 잊힌다. 그의 둘레에는 선의의 기운이 감돌 뿐 아니라, 어쩌면 갓 태어난 본능처럼 맹목적이고 헛되게나마 드러날 길을 더듬는 거룩함의 향기까지 있고, 짧은 한 시간 동안 남쪽 산비탈은 천박한 농담에 메아리치지 않는다. 그의 옹이 진 껍질에서 순진하고

고운 새순이 터져 나와 가장 어린 식물처럼 여리고 싱싱하게 또 한 해의 삶을 살아 보려고 채비하는 것이 보인다. 그 사람마저 그의 주인의 기쁨에 들어갔다. 간수는 왜 감옥 문을 열어 두지 않는가? 판사는 왜 그의 사건을 기각하지 않는가? 설교자는 왜 회중을 돌려보내지 않는가! 그들이 신이 주는 암시에 따르지 않고, 신이 모든 이에게 거저 베푸는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고요하고 은혜로운 아침의 숨결 속에서 날마다 선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면, 사람은 덕을 사랑하고 악덕을 미워하는 점에서 베어 낸 숲의 새싹처럼 사람의 본디 본성에 조금 다가간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루 사이에 저지르는 악은 다시 돋기 시작한 덕의 싹이 자라지 못하게 막고 그 싹을 없애 버린다.

"덕의 싹이 이렇게 여러 번 자라지 못하게 막히고 나면, 저녁의 은혜로운 숨결로는 그 싹을 지키기에 모자란다. 저녁의 숨결로 더는 그 싹을 지킬 수 없게 되면, 사람의 본성은 짐승의 본성과 그리 다르지 않게 된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본성이 짐승의 본성과 같은 것을 보고, 그에게 타고난 이성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여긴다. 그것이 사람의 참되고 타고난 마음이겠는가?"[2]

"맨 먼저 황금시대가 지어졌다. 그 시대는 복수하는 이 없이도
법 없이 저절로 신의와 올바름을 아꼈다.
벌도 두려움도 없었고, 매달아 놓은 놋쇠판에서
으르는 말을 읽는 일도 없었으며, 탄원하는 무리가
재판관의 말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복수하는 이 없이도 안전했다.
산에서 베어 낸 소나무가 아직
낯선 세상을 보러 출렁이는 물결로 내려가지 않았고,
죽을 인간은 저희 기슭 말고는 어떤 기슭도 알지 못했다.
……
영원한 봄이 있었고, 잔잔한 서풍이 따뜻한
입김으로 씨 없이 태어난 꽃들을 어루만졌다."

4월 29일, 나인에이커 코너 다리 근처 강둑에서 사향쥐들이 숨어 사는 출렁이는 풀과 버드나무 뿌리를 딛고 서서 낚시를 하다가, 나는 사내아이들이 손가락으로 놀리는 딱딱이 소리 비슷한 묘하게 달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들어 보니 밤매처럼 무척 가냘프고 우아한 매 한 마리가, 물결처럼 솟아오르기와 1~2로드씩 거듭 곤두박질치기를 번갈아 하면서, 햇빛에 공단 리본처럼, 아니 조개껍데기의 진줏빛 안쪽처럼 번쩍이는 날개 밑면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니 매사냥이, 그리고 그 놀이에 얽힌 고귀함과 시가 떠올랐다. 내가 보기에 그 새는 쇠황조롱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았지만, 이름은 아무래도 좋다. 그것은 내가 이제껏 본 가장 하늘다운 비행이었다. 나비처럼 그저 팔랑거리지도 않았고 더 큰 매들처럼 솟구치지도 않았으며, 공기의 들판에서 당당한 자신감으로 노닐었다. 묘하게 킥킥대는 소리를 내며 거듭거듭 솟아올랐다가는 연처럼 뒤집히고 또 뒤집히며 자유롭고 아름다운 낙하를 되풀이했고, 높이서 곤두박질친 몸을 추스르고 나서는 굳은 땅에 한 번도 발을 디딘 적이

없는 듯이 다시 날았다. 그 새는 우주에 동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거기서 홀로 노닐면서, 그것과 함께 노니는 아침과 에테르 말고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은 듯했다. 그 새는 외롭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아래의 온 땅을 외롭게 만들었다. 그것을 깐 어미는, 그 친족은, 하늘에 있는 그 아비는 어디 있었을까? 공기의 주민인 그 새는 언젠가 바위 벼랑 틈에서 깬 알 하나로만 땅과 이어져 있는 듯했다. 아니면 그 태어난 둥지는 구름 한 모퉁이에 무지개 자투리와 노을 하늘로 짜고, 땅에서 걷어 올린 한여름의 부드러운 아지랑이로 안을 댄 것이었을까? 이제 그 새의 둥지는 어느 벼랑 같은 구름이다.

그 밖에도 나는 금빛과 은빛과 밝은 구릿빛 물고기를 드물게 한 꿰미 잡았는데, 보석을 꿰어 놓은 것 같았다. 아! 숱한 봄날 첫 아침에 나는 풀 더미에서 풀 더미로, 버드나무 뿌리에서 버드나무 뿌리로 뛰어 건너며 그 풀밭 깊숙이 들어갔다. 그때 야생의 강 골짜기와 숲은 하도 맑고 밝은 빛에 잠겨 있어서, 어떤 이들이 생각하듯 죽은 이들이 무덤에서 잠들어 있다면 그들도 깨웠을 것이다. 불멸에 대한 증거로 이보다 더 강한 것은 필요 없다. 그런 빛 속에서는 만물이 살아야 한다. 오 죽음아, 그때 너의 독침은 어디 있었느냐? 오 무덤아, 그때 너의 승리는 어디 있었느냐?

둘레에 아무도 탐험하지 않은 숲과 풀밭이 없다면 우리의 마을 생활은 고여 썩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야생이라는 강장제가 필요하다. 이따금 알락해오라기와 뜸부기가 숨어 있는 늪을 헤치며 걷고 도요새가 웅웅 우는 소리를 들어야 하며, 더 야생이고 더 외로운 어떤 새만이 둥지를 짓고 밍크가 배를 땅에 바싹 대고 기어 다니는 곳에서 속삭이는 사초의 냄새를 맡아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탐험하고 배우려고 열심인 바로 그때, 모든 것이 신비롭고 탐험할 수 없기를, 땅과 바다가 한없이 야생으로 남아 우리가 측량하지도 깊이를 재지도 못하기를, 잴 수 없으니 재지 못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자연에 결코 물리지 않는다.

우리는 마르지 않는 활력과 거대한 거인의 면모를 보며 새로워져야 한다. 난파선이 있는 바닷가를, 살아 있는 나무와 썩어 가는 나무가 어우러진 황야를, 천둥 구름을, 세 주나 이어져 큰물을 내는 비를 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넘어서지는 것을, 우리가 한 번도 거닐지 않는 곳에서 어떤 생명이 자유로이 풀을 뜯는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를 메스껍게 하고 맥 빠지게 하는 썩은 고기를 독수리가 먹고 그 끼니에서 건강과 힘을 얻는 것을 보면 우리는 기운이 난다. 내 집으로 오는 길가 우묵한 곳에 죽은 말이 한 마리 있어서, 특히 공기가 무거운 밤에는 이따금 길을 돌아가야 했지만, 그것이 자연의 왕성한 식욕과 범할 수 없는 건강을 확신시켜 주었으니 그것으로 보상은 충분했다. 나는 자연에 생명이 하도 넘쳐서 무수한 생명이 희생되고 서로 잡아먹게 내버려 두어도 괜찮은 것을, 여린 생명체들이 그토록 태연히 과육처럼 짓눌려 사라질 수 있는 것을 보기 좋아한다. 왜가리가 꿀꺽 삼키는 올챙이들, 길에서 거북과 두꺼비가 깔려 죽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살과 피가 비처럼 쏟아졌다는 것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이 받는 인상은 온 세상의 순수다. 독은 결국 독이 아니고, 어떤 상처도 치명적이지 않다. 연민은 매우 버티기 어려운 바탕이다. 연민은 재빨라야 한다. 그 호소는 판에 박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5월 초, 호수 둘레의 소나무 숲 사이에서 막 잎을 내기 시작한 떡갈나무와 히코리와 단풍나무와 그 밖의 나무들은, 특히 흐린 날이면, 마치 해가 안개를 뚫고 나와 여기저기 산비탈에 희미하게 비치는 듯 풍경에 햇빛 같은 밝음을 주었다. 5월 3일인가 4일에 나는 호수에서 아비 한 마리를 보았고, 그달 첫 주에는 쏙독새와 갈색지빠귀와 비리지빠귀와 숲피위와 토히새와 다른 새들의 소리를 들었다. 숲지빠귀 소리는 그보다 훨씬 전에 들었다. 피비딱새는 벌써 다시 찾아와서, 내

집이 제 마음에 들 만큼 동굴 같은지 보려고 문과 창을 들여다보았다. 녀석은 집 안팎을 살피는 동안 발톱을 오므린 채 윙윙대는 날개로 몸을 띄우고 있었는데, 마치 공기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다. 곧 리기다소나무의 유황 같은 꽃가루가 호수와 기슭의 돌과 썩은 나무를 덮어, 한 통은 모을 수 있을 정도였다. 이것이 우리가 듣는 "유황 비"다. 칼리다사의 희곡 『샤쿤탈라』에서도 우리는 "연꽃의 금빛 가루로 노랗게 물든 시냇물"을 읽는다.[3] 그렇게 계절은 굴러 여름으로 들어갔다. 사람이 점점 더 높이 자란 풀숲으로 거닐어 들어가듯이.

이렇게 숲에서 보낸 나의 첫해의 삶이 끝났다. 둘째 해도 그와 비슷했다. 나는 마침내 1847년 9월 6일에 월든을 떠났다.

---

1. 다음 라틴어 두 행은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 제1권. 그 뒤의 시와 아래의 황금시대 시는 같은 책의 대목을 소로가 영어로 옮긴 것이다.

2. 『맹자』 「고자 상」 편.

3. 칼리다사: 5세기 무렵 인도의 시인·극작가. 『샤쿤탈라』는 그의 희곡.

맺음말

병든 사람에게 의사들은 공기와 풍경을 바꾸어 보라고 현명하게 권한다. 고맙게도 여기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다. 칠엽수는 뉴잉글랜드에서 자라지 않고, 흉내지빠귀 소리도 여기서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기러기는 우리보다 더 세계인이어서, 캐나다에서 아침을 먹고 오하이오에서 점심을 들고 남쪽 어느 늪 물길에서 밤을 나려고 깃을 고른다. 들소조차 어느 정도는 계절과 발을 맞추어, 옐로스톤 가에서 더 푸르고 더 달콤한 풀이 기다릴 때까지만 콜로라도의 풀밭을 뜯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농장의 나무 울타리를 허물고 돌담을 쌓으면 그때부터 우리 삶에 경계가 그어지고 운명이 정해진다고 생각한다. 읍 서기로 뽑히기라도 하면, 참 딱하게도 이번 여름에는 티에라델푸에고, 곧 '불의 땅'에 갈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옥 불의 땅에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우주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넓다.

그러니 우리는 진기한 것을 찾는 승객처럼 우리 배의 고물 난간 너머를 더 자주 내다보아야 하고, 뱃밥이나 뜯는 멍청한 선원처럼 항해하지 말아야 한다. 지구 반대편은 우리와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의 집일 뿐이다. 우리의 항해는 대권 항해에 지나지 않고, 의사들은 살갗의 병만 처방한다. 어떤 사람은 기린을 쫓으러 남아프리카로 서둘러 가지만, 그가 정말로 쫓고 싶은 사냥감이 그것은 아닐 것이다. 묻건대,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이 얼마나 오래 기린을 사냥하겠는가? 도요새나

멧도요도 드문 재미를 줄지 모르지만, 나는 자기 자신을 쏘아 맞히는 쪽이 더 고귀한 사냥이라고 믿는다.

"눈을 곧장 안으로 돌리라, 그러면
네 마음속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천 개의 땅을 찾으리라. 그곳을 여행하여
집 안 지리학의 대가가 되라."[1]

아프리카는, 서부는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 자신의 내륙이야말로 지도 위의 흰 공백이 아닌가? 막상 발견되고 나면 그 해안처럼 검은 것으로 드러날지라도. 우리가 찾으려는 것이 나일강이나 니제르강이나 미시시피강의 발원지인가, 이 대륙을 돌아 나가는 북서 항로인가? 이런 것들이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인가? 길을 잃은 사람이 프랭클린 하나뿐이어서 그 아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그를 찾는가? 그리넬 씨는 자기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아는가?[2] 차라리 여러분 자신의 강과 바다를 탐험하는 멍고 파크가 되고, 루이스와 클라크가 되고, 프로비셔가 되라. 여러분 자신의 더 높은 위도를 탐험하라. 필요하다면 통조림 고기를 배마다 가득 싣고 가서 버티고, 빈 깡통은 하늘 높이 쌓아 표지로 삼으라. 통조림 고기는 그저 고기를 보존하려고 생겨났는가? 아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새 대륙과 새 세계 전체를 찾아가는 콜럼버스가 되어 장사의 뱃길이 아니라 생각의 뱃길을 열라. 사람은 저마다 한 왕국의 주인이며, 그 곁에 서면 차르의 지상 제국은 얼음이 남기고 간 둔덕 같은 하찮은 나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자기를 존중할 줄 모르면서 애국자가 되어 더 큰 것을 더 작은 것에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제 무덤이 될 흙은 사랑하면서, 그 흙을 아직도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정신에는 아무 공감도 없다. 애국심은 그들 머릿속에 든 구더기다. 온갖 허세를 부리고 큰돈을 들인 그 남태평양 탐험대는 무엇을

뜻했는가? 도덕의 세계에도 대륙과 바다가 있고 사람은 저마다 그 바다의 지협이거나 후미인데도 아직 스스로 탐험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홀로 자기 존재의 사사로운 바다, 그 대서양과 태평양을 탐험하기보다는 오백 명의 어른과 소년의 도움을 받으며 정부의 배를 타고 추위와 폭풍과 식인종을 헤치며 수천 마일을 항해하는 편이 더 쉽다는 것을 에둘러 인정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rret, et extremos alter scrutetur Iberos.
Plus habet hic vitae, plus habet ille viae."

그들은 떠돌며 낯선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이나 살피라 하라.
나에게는 신이 더 많고, 그들에게는 길이 더 많다.[3]

잔지바르의 고양이 수를 세려고 세상을 한 바퀴 도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 그래도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라도 하라. 그러다 보면 마침내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시머스 구멍"을 찾을지도 모른다.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과 포르투갈, 황금 해안과 노예 해안이 모두 이 사사로운 바다를 마주하고 있지만, 그 어느 나라의 배도 육지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나아가 본 적이 없다. 그 바다가 인도로 곧장 가는 길인데도 말이다. 모든 나라 말을 할 줄 알고 모든 민족의 풍습을 따르고 싶다면, 어떤 나그네보다 멀리 여행하고 모든 풍토에 귀화하고 스핑크스가 바위에 머리를 찧게 만들고 싶다면, 옛 철학자의 가르침을 따라 너 자신을 탐험하라. 여기에는 눈과 담력이 있어야 한다. 전쟁에 나가는 것은 패배자와 탈영병, 달아나서 입대하는 겁쟁이들뿐이다. 이제 저 가장 먼 서쪽 길로 떠나라. 그 길은 미시시피나 태평양에서 멈추지 않고, 낡아 버린 중국이나 일본으로 이끌지도 않으며, 이 구에 닿는 접선처럼 곧장, 여름에도 겨울에도, 낮에도 밤에도 이어져 해가 지고 달이 지고 마침내 지구마저 지는 곳까지 나아간다.

미라보는 "사회의 가장 신성한 법에 정면으로 맞서는 데 어느 만큼의 결단이 필요한지 알아보려고" 노상강도 짓을 했다고 한다. 그는 "대열 속에서 싸우는 병사에게는 노상강도에게 필요한 용기의 절반도 필요하지 않다"고, "명예와 종교는 잘 생각하고 굳게 내린 결심을 가로막은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세상 기준으로는 사내다운 말이었지만, 절망적인 짓까지는 아니었다 해도 부질없는 짓이었다. 더 온전한 정신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보다 더 신성한 법에 복종하다가 "사회의 가장 신성한 법"이라 여겨지는 것에 "정면으로 맞서는" 자리에 꽤 자주 서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일부러 길을 벗어나지 않고도 자기의 결단을 시험했을 것이다. 사람이 할 일은 일부러 사회에 맞서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법에 복종하다가 어떤 자세에 놓이게 되든 그 자세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 자세는 의로운 정부를 만나는 일이 혹시 있더라도 그 정부에 맞서는 자세는 결코 아닐 것이다.

나는 숲에 갈 때만큼 좋은 이유로 숲을 떠났다. 아마 나에게는 살아야 할 삶이 몇 개 더 남아 있어서 그 한 가지 삶에 더는 시간을 내줄 수 없다고 느꼈던 것 같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얼마나 저도 모르게 어떤 길에 들어서서 제 발로 다져진 길을 내는지 보면 놀랍다. 거기서 산 지 일주일도 안 되어 내 발은 문에서 호숫가까지 오솔길 하나를 냈고, 그 길을 밟지 않은 지 대여섯 해가 지났는데도 길은 아직 꽤 또렷하다. 유감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길에 들어서서 길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었을지도 모른다. 땅의 겉은 부드러워서 사람의 발자국이 잘 찍힌다. 마음이 다니는 길도 그렇다. 그렇다면 세상의 큰길은 얼마나 닳고 먼지투성이일 것이며, 전통과 순응의 바퀴 자국은 얼마나 깊겠는가! 나는 선실 손님으로 배를 타기보다는 차라리 돛대 앞으로 나가 세상의 갑판에 서고 싶었는데, 거기서야 산들 사이에 비치는

달빛을 가장 잘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나는 갑판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실험으로 적어도 이것을 배웠다. 사람이 자기 꿈의 방향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며 자기가 그려 온 삶을 살려고 애쓰면, 여느 때에는 생각지도 못한 성공을 만나게 된다. 그는 어떤 것들을 뒤에 남기고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을 것이다. 새롭고 보편적이며 더 너그러운 법칙들이 그의 둘레와 그의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거나, 옛 법칙들이 넓어져 더 너그러운 뜻으로 그에게 이롭게 풀이될 것이며, 그는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누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가 자기 삶을 단순하게 하는 만큼 우주의 법칙은 덜 복잡하게 보일 것이고, 고독은 고독이 아니고, 가난은 가난이 아니며, 나약함은 나약함이 아니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공중에 누각을 지었더라도 그 일이 헛수고가 될 까닭은 없다. 누각은 본디 거기 있어야 한다. 이제 그 밑에 주춧돌을 놓으라.

영국과 미국이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사람도 독버섯도 그렇게 자라지 않는다. 마치 그것이 중요하다는 듯이, 그들 말고는 여러분을 알아들을 사람이 넉넉하지 않다는 듯이. 마치 자연이 한 가지 이해만을 거느릴 수 있어서 네발짐승과 함께 새를, 기는 것과 함께 나는 것을 먹여 살리지 못한다는 듯이, 그리고 소 브라이트도 알아듣는 '쉬'와 '워'가 가장 좋은 영어라는 듯이. 마치 어리석음 속에만 안전이 있다는 듯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 표현이 충분히 *도를 넘지*(extra-vagant) 못해서, 내 날마다의 경험이 지닌 좁은 테두리 밖으로 멀리 헤매어 나가지 못해서, 내가 확신하게 된 진리에 걸맞지 못할까 하는 것이다. *도를 넘는다*니! 그것은 어떤 울타리에 갇혀 있느냐에 달렸다. 다른 위도에서 새 풀밭을 찾아 옮겨 가는 들소는, 젖 짤 때 들통을 걷어차고 외양간 울타리를 뛰어넘어

송아지를 쫓아가는 암소처럼 도를 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딘가에서 *테두리 없이* 말하고 싶다. 깨어 있는 순간의 사람이 깨어 있는 순간의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참된 표현의 주춧돌을 놓는 데조차 나는 아무리 부풀려 말해도 모자란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한 가락의 음악을 들은 사람치고 그때부터 영영 자기가 지나치게 말할까 봐 두려워한 사람이 있던가? 미래나 가능한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쪽 앞면을 아주 느슨하고 흐릿하게 두어 윤곽이 희미하고 안개에 싸인 채로 살아야 한다. 우리의 그림자가 해를 향해 저도 모르게 땀을 내뿜는 것을 드러내듯이. 우리 말이 지닌 날아가기 쉬운 진리는, 뒤에 남은 진술이 모자란다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야 한다. 그 진리는 곧바로 *옮겨져* 가고, 글자로 된 기념비만 남는다. 우리의 믿음과 경건을 나타내는 말은 또렷하지 않다. 그래도 그 말은 더 높은 본성에게는 유향처럼 뜻 깊고 향기롭다.

어째서 늘 우리의 가장 무딘 지각에 맞추어 깎아 내리고, 그것을 상식이라 부르며 칭찬하는가? 가장 흔한 상식은 잠든 사람의 감각이고, 그들은 그것을 코 고는 소리로 나타낸다. 때로 우리는 한 배 반의 재치를 지닌 사람을 반편이와 한 부류로 넣고 싶어 하는데, 그들 재치의 3분의 1밖에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일찍 일어나기만 한다면 아침놀에도 흠을 잡을 것이다. 내가 듣기로 "그들은 카비르의 시에 네 가지 다른 뜻, 곧 환영, 정신, 지성, 그리고 『베다』의 겉으로 드러난 가르침이 있다고 주장한다".[4] 그러나 이 세상 이쪽에서는 어떤 사람의 글이 한 가지보다 많은 풀이를 허락하면 불평할 거리가 된다. 영국은 감자 썩음병을 고치려고 애쓰는데, 그보다 훨씬 널리, 훨씬 치명적으로 퍼져 있는 뇌 썩음병을 고치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단 말인가?

내가 모호함의 경지에 이르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점에서 내 글에 월든 얼음이 받은 것보다 더 치명적인 흠이 잡히지

않는다면 나는 자랑스러울 것이다. 남부의 손님들은 얼음이 맑다는 증거인 그 푸른빛을 마치 흙탕물 빛이라도 되는 듯이 마다하고, 희기는 하지만 잡초 맛이 나는 케임브리지 얼음을 더 좋아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맑음은 땅을 감싸는 안개 같은 것이지, 그 너머의 푸른 하늘 같은 것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미국 사람들과 대체로 근대인들이 옛사람들, 아니 엘리자베스 시대 사람들에 견주어도 지적인 난쟁이라고 귀가 따갑게 떠들어 댄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살아 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피그미 종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큰 피그미가 되려 하지 않고 가서 목을 매야 하겠는가? 저마다 자기 일에 마음을 쓰고, 자기가 생겨난 그대로의 존재가 되려고 애쓰라.

우리는 왜 그토록 절박하게 성공을 서두르고, 그토록 절박한 일에 뛰어드는가? 어떤 사람이 동료들과 발을 맞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마 그가 다른 북소리를 듣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듣는 음악이 아무리 느리고 아무리 멀리서 들려오더라도, 그 음악에 맞추어 걷게 하라. 그가 사과나무나 떡갈나무만큼 빨리 여물어야 할 까닭은 없다. 그가 자기의 봄을 여름으로 바꾸어야 하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위해 지어진 사물의 상태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대신 내세울 수 있는 현실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헛된 현실에 부딪혀 난파하지 않으리라. 애써 머리 위에 푸른 유리로 하늘을 세워야 하겠는가? 다 세우고 나면 우리는 그런 것은 없다는 듯이 틀림없이 여전히 저 높은 곳의 참된 하늘을 우러러볼 텐데.

쿠루라는 도시에 완전함을 좇으려는 한 장인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지팡이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완전한 작품에는 시간이 재료로 들어가지만 완전한 작품에는 시간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헤아리고, 그는 속으로 말했다. 평생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

하더라도 이 지팡이는 모든 면에서 완전해야 한다. 그는 곧바로 나무를 구하러 숲으로 갔다. 걸맞지 않은 재료로는 만들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그가 막대를 하나하나 찾아보고는 내버리는 동안 벗들은 하나둘 그를 떠났으니, 그들은 일하다 늙어 죽었지만 그는 한순간도 늙지 않았기 때문이다. 목적의 한결같음과 결단, 그리고 드높은 경건함이 그도 모르게 그에게 늙지 않는 젊음을 주었다. 그가 시간과 타협하지 않았기에 시간은 그의 길을 비켜섰고, 그를 이길 수 없어서 멀찍이 떨어져 한숨만 쉬었다. 모든 면에서 걸맞은 나무를 찾아냈을 때 쿠루는 이미 백발 같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그는 그 폐허의 흙무더기 하나에 앉아 막대의 껍질을 벗겼다. 그가 막대에 알맞은 꼴을 주기도 전에 칸다하르 왕조가 끝났고, 그는 막대 끝으로 그 왕가의 마지막 임금 이름을 모래에 쓰고는 다시 일을 이어 갔다. 지팡이를 매끄럽게 다듬고 윤을 냈을 때 칼파는 더 이상 북극성이 아니었고, 물미를 끼우고 보석으로 꾸민 손잡이를 달기도 전에 브라흐마는 여러 번 깨어났다가 다시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늘어놓고 있는가? 마지막 손질을 끝내자, 그 작품은 놀란 장인의 눈앞에서 갑자기 브라흐마가 지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펼쳐졌다. 그는 지팡이 하나를 만들다가 새로운 체계를, 넉넉하고 아름다운 균형을 갖춘 하나의 세계를 만들었다. 그 세계에서는 옛 도시와 왕조들이 사라졌지만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그는 발치에 아직 싱싱한 대팻밥 더미를 보고, 자기와 자기 작품에게는 그동안 흘렀다는 시간이 환영이었으며, 브라흐마의 머리에서 튄 불꽃 하나가 죽을 운명인 사람의 머리라는 부싯깃에 떨어져 불을 붙이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재료가 순수했고 그의 솜씨가 순수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찌 놀랍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어떤 일에 어떤 겉모습을 씌우든, 결국 진실만큼 우리에게 쓸모 있는 것은 없다. 진실만이 오래 닳지 않는다. 우리는 대개 우리가 있는 곳에 있지 않고 거짓된 자리에 있다. 우리 본성이 한없이 연약한 탓에 어떤 경우를 가정하고는 거기에 우리 자신을 밀어 넣는다. 그래서 한꺼번에 두 경우에 빠져 있고, 빠져나오기는 갑절로 어렵다. 온전한 정신이 드는 순간에 우리는 사실만을, 지금 있는 그대로의 경우만을 본다. 해야 마땅한 말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하라. 어떤 진실이든 꾸며 낸 것보다 낫다. 땜장이 톰 하이드가 교수대에 섰을 때 무슨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을 받았다. "재봉사들한테 전해 주시오." 그가 말했다. "첫 땀을 뜨기 전에 실 끝에 매듭을 짓는 걸 잊지 말라고." 그의 동료가 올린 기도는 잊혔다.

삶이 아무리 비천하더라도 그것을 맞이하고 살아 내라. 피하지 말고, 험한 이름으로 부르지도 말라. 삶은 여러분만큼 나쁘지 않다. 삶은 여러분이 가장 부유할 때 가장 초라해 보인다. 흠을 잡는 사람은 낙원에서도 흠을 잡는다. 가난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라. 구빈원에서도 즐겁고 가슴 설레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얼마쯤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지는 해는 부자의 저택 창에서처럼 구빈원 창에서도 환하게 되비치고, 그 문 앞의 눈도 봄이면 똑같이 일찍 녹는다. 고요한 마음이라면 궁전에서처럼 거기서도 흡족하게 살며 기운 나는 생각을 품을 수 있다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을 나는 알지 못한다. 읍의 가난한 사람들이 내게는 흔히 누구보다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그들은 그저 거리낌 없이 받을 수 있을 만큼 큰 사람들인지도 모른다. 대부분은 자기가 읍의 부조를 받는 처지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수단으로 제 몸을 건사하는 처지보다 낫지 못한 경우가 더 흔하고, 그쪽이 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가난을 뜰의 약초처럼, 세이지처럼 가꾸라. 옷이든 벗이든 새것을 얻으려고 크게

애쓰지 말라. 헌 것을 뒤집어 고쳐 쓰라. 그것들에게로 돌아가라. 사물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변한다. 옷을 팔고 생각은 간직하라. 신께서 여러분에게 벗이 모자라지 않게 돌보실 것이다. 내가 거미처럼 평생 다락방 한구석에 갇혀 지낸다 해도, 생각을 곁에 지니고 있는 한 세상은 내게 똑같이 넓을 것이다. 옛 철학자는 말했다. "세 갈래로 나뉜 군대에서는 장수를 빼앗아 어지럽힐 수 있지만, 가장 비천하고 속된 사람에게서도 그 생각은 빼앗을 수 없다." 발전하려고, 이리저리 휘둘리도록 여러 영향에 자신을 내맡기려고 그토록 안달하며 애쓰지 말라. 그것은 모두 흩어짐이다. 겸손은 어둠처럼 하늘의 빛들을 드러낸다. 가난과 비천함의 그림자가 우리 둘레에 모여들면 "보라! 창조의 세계가 우리 눈앞에 넓어진다". 크로이소스의 재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해도 우리의 목적은 여전히 같아야 하고 우리의 수단도 본질에서 같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일깨움 받는다. 게다가 가난 때문에 활동 범위가 좁아진다면, 이를테면 책과 신문을 살 수 없다면, 여러분은 가장 뜻 깊고 가장 생생한 경험에 갇힐 뿐이다. 가장 많은 당분과 가장 많은 녹말을 내주는 재료를 다룰 수밖에 없다. 가장 단 것은 뼈에 가까운 삶이다. 여러분은 하찮은 일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지켜진다. 더 높은 곳에서 너그러웠다고 해서 더 낮은 곳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다. 넘치는 재물로는 넘치는 것만 살 수 있다. 영혼의 필수품은 하나도 돈으로 살 필요가 없다.

나는 납으로 된 벽 모퉁이에 산다. 그 벽을 부어 만들 때 종 쇠붙이가 조금 섞여 들어갔다. 한낮에 쉬고 있으면 바깥에서 땡그랑거리는 어지러운 소리가 내 귀에 자주 닿는다. 내 동시대 사람들이 내는 소리다. 이웃들은 이름난 신사 숙녀들과 겪은 일이며 저녁 식탁에서 어떤 명사들을 만났는지를 내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나는 『데일리 타임스』에 실린 기사만큼도 그런 일에 흥미가 없다. 흥미와 이야깃거리는 주로

옷차림과 예절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거위는 어떻게 차려 내도 거위다. 그들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영국과 인도 제도, 조지아나 매사추세츠의 아무개 의원 나리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모두 덧없이 스쳐 가는 현상이어서, 나는 마침내 그 맘루크의 베이처럼 그들의 안뜰에서 뛰어내리고 싶어진다. 나는 내 방위를 찾는 것이 즐겁다. 사람들 눈에 띄는 자리에서 허세와 행렬을 부리며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만 있다면 우주를 지은 이와 나란히 걷는 것이 즐겁다. 이 들뜨고 신경이 곤두서고 부산하고 하찮은 19세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기가 지나가는 동안 생각에 잠겨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이 즐겁다. 사람들은 무엇을 기념하고 있는가? 그들은 모두 준비 위원회에 들어 있고, 누군가의 연설을 시시각각 기다린다. 신은 그날의 의장일 뿐이고 웹스터가 그의 연사다. 나는 저울질하고, 가라앉아 자리 잡고, 나를 가장 세게 그리고 가장 정당하게 끌어당기는 것 쪽으로 기우는 것을 사랑한다. 저울대에 매달려 덜 나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를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경우를 받아들이는 것을 사랑한다.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어떤 힘도 나를 막아서지 못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을 사랑한다. 단단한 터를 잡기도 전에 아치를 틀기 시작하는 일은 내게 아무 만족도 주지 않는다. 살얼음 밟고 건너기 놀이는 그만하자. 어디에나 단단한 바닥은 있다. 어느 나그네가 한 소년에게 앞에 있는 늪이 바닥이 단단하냐고 물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소년은 단단하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곧 나그네의 말이 뱃대끈까지 빠져 버렸고, 나그네는 소년에게 말했다. "이 수렁은 바닥이 단단하다고 하지 않았니." 소년이 대답했다. "단단해요. 그런데 아직 반도 안 내려가셨잖아요." 사회의 수렁과 모래 늪도 그렇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닳고 닳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것이 어떤 드문 일치에 이를 때에만 좋다. 나는 그저 윗가지와 회반죽에 어리석게 못을

박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런 짓을 했다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망치를 달라. 그리고 그 밑의 받침목을 더듬어 찾게 하라. 퍼티에 기대지 말라. 못을 끝까지 박고 끝을 꼬부려 단단히 고정해서, 한밤중에 깨어나서도 자기 일을 떠올리며 흡족할 수 있게 하라. 무사 여신을 불러도 부끄럽지 않을 일이 되게 하라. 그래야 신이 여러분을 도우신다. 그래야만 도우신다. 박은 못 하나하나가 우주라는 기계에 박힌 또 하나의 리벳이 되어야 하고, 그 일을 이어 가는 것은 여러분이다.

사랑보다, 돈보다, 명성보다 나에게 진실을 달라. 나는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가 넘치고 굽실거리는 시중꾼이 있는 식탁에 앉았지만, 거기에는 성실함과 진실이 없었기에 그 인정 없는 식탁을 배고픈 채로 떠났다. 그 환대는 얼음과자만큼 차가웠다. 그것들을 얼리는 데 얼음은 필요 없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들은 내게 포도주의 나이와 그 포도를 거둔 해의 명성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갖지 못했고 살 수도 없는, 더 오래되고 더 새롭고 더 순수한 포도주, 더 영광스러운 해에 거둔 포도주를 생각했다. 품위니 집과 정원이니 "접대"니 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임금을 찾아갔지만, 그는 나를 자기 대청에서 기다리게 했고 환대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다. 내 이웃에는 속이 빈 나무에서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몸가짐은 참으로 임금다웠다. 그를 찾아갔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주랑 현관에 앉아, 어떤 일이든 하기만 하면 주제넘은 것이 되어 버릴 게으르고 곰팡내 나는 덕을 닦고 있으려는가? 마치 하루를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고는 사람을 사서 제 감자밭을 매게 하고, 오후에는 계획적인 선의를 품고 나가서 그리스도교인다운 온유와 자선을 베풀겠다는 것과 같다! 인류의 중국식 자만과 고여 썩은 자기만족을 생각해 보라. 이 세대는 자기가 빛나는 혈통의 마지막

자손이라고 조금 우쭐해하는 편이다. 그리고 보스턴과 런던과 파리와 로마에서, 자기의 오랜 내력을 생각하며 예술과 과학과 문학에서 이룬 진보를 흐뭇하게 이야기한다. 『철학회 기록』이 있고, 『위인 공개 추도사』가 있다! 착한 아담이 제 덕을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꼴이다. "그렇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했고, 결코 죽지 않을 거룩한 노래를 불렀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동안에는 그렇다는 말이다. 아시리아의 학회들과 위인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풋내기 철학자이고 실험가인가! 내 독자 가운데 사람의 삶을 온전히 살아 본 이는 아직 하나도 없다. 지금은 인류의 삶에서 겨우 봄의 몇 달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일곱 해 가려움증은 앓아 보았을지 몰라도, 콩코드에서 열일곱 해 매미는 아직 보지 못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지구의 얇은 껍질 한 꺼풀뿐이다. 대부분은 땅 밑으로 6피트를 파 들어가 본 적도, 땅 위로 그만큼 뛰어올라 본 적도 없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 시간의 거의 절반을 곤히 잠들어 지낸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땅의 겉에 확고한 질서를 세워 두었다. 참으로 우리는 깊은 사색가이고, 야심 찬 정신이다! 숲 바닥의 솔잎 사이를 기어가며 내 눈을 피해 숨으려는 벌레 한 마리를 내려다보면서, 나는 저 벌레가 어째서 그런 비천한 생각을 품고 자기에게 은인이 되어 그 족속에게 기운 나는 소식을 전해 줄지도 모르는 나에게서 제 머리를 감추려 하는지 스스로 묻는다. 그럴 때면 나는 사람이라는 벌레인 나를 내려다보고 서 있는 더 큰 은인, 더 큰 지성을 떠올린다.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흘러드는데도, 우리는 믿기지 않을 만큼 따분한 것을 참고 지낸다. 가장 개화했다는 나라들에서 아직도 어떤 설교를 듣고 있는지만 넌지시 말해도 충분하다. 기쁨과 슬픔 같은 말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평범하고 비천한 것을 믿는 동안 콧소리로

부르는 찬송가의 후렴일 뿐이다. 우리는 옷만 갈아입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영 제국은 매우 크고 훌륭하며 미합중국은 일류 강국이라고들 한다. 우리는 사람마다 그 뒤에서 밀물과 썰물이 오르내리고 있어서, 그가 마음속에 품기만 한다면 대영 제국쯤은 나뭇조각처럼 띄워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다음에는 어떤 열일곱 해 매미가 땅에서 나올지 누가 알겠는가? 내가 사는 세계의 정부는 영국 정부처럼 저녁 식사 뒤 포도주를 마시며 나눈 이야기로 짜인 것이 아니다.

우리 안의 생명은 강물과 같다. 올해 그 물은 사람이 일찍이 알던 어느 때보다 높이 불어 메마른 고지대를 덮을지도 모른다. 올해가 바로 우리의 사향쥐를 모조리 물에 빠뜨려 죽일 큰일 나는 해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사는 곳이 늘 마른땅이었던 것은 아니다. 나는 과학이 강물의 범람을 기록하기 시작하기 전, 옛날에 강물이 씻어 내리던 둑을 저 멀리 내륙에서 본다. 뉴잉글랜드를 한 바퀴 돈 이야기를 누구나 들었을 것이다. 어느 농부의 부엌에 처음에는 코네티컷에서, 나중에는 매사추세츠에서 예순 해 동안 놓여 있던 사과나무 탁자의 마른 널빤지에서 힘세고 아름다운 벌레 한 마리가 나왔다는 이야기다. 그 벌레는 그보다도 여러 해 전에 살아 있던 나무에 낳은 알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알 바깥쪽의 나이테를 세어 보고 알았다. 벌레가 갉아 나오는 소리가 몇 주 동안 들렸고, 아마 찻물 단지의 열기에 알이 깨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부활과 불멸에 대한 믿음이 굳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처음에는 푸르게 살아 있던 나무의 겉 목질에 낳은 알이, 그 나무가 차츰 잘 마른 무덤 같은 꼴로 바뀌어 가는 동안 사회의 죽고 메마른 삶 속에서 나뭇결의 동심원 여러 겹 아래 오랜 세월 묻혀 있다가, 어쩌면 잔칫상에 둘러앉은 놀란 인간 가족에게 벌써 여러 해째 갉아 나오는 소리를 들려주다가, 사회의 가장 하찮고 손때 묻은 세간

한가운데에서 뜻밖에 나와 마침내 완전한 여름의 삶을 누리게 될 아름답고 날개 달린 생명이 무엇일지 누가 알겠는가!

존이나 조너선이 이 모든 것을 깨달으리라고 말하지는 않겠다.[5] 그러나 그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결코 밝아 오지 않는 내일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빛은 우리에게 어둠이다. 우리가 깨어 있는 날만이 밝아 온다. 밝아 올 날은 아직 더 있다. 태양은 샛별일 뿐이다.

---

1. 윌리엄 해빙턴(1605~1654)의 시 「존경하는 벗 에드 P. 경에게」. 시집 『카스타라』에 실렸다.

2. 존 프랭클린: 1845년 북극 항로를 찾다 실종된 영국 탐험가. 그리넬은 수색대에 돈을 댄 뉴욕 상인이다.

3. 앞 문단의 라틴어 두 행은 클라우디아누스, 「베로나의 노인」. 이 두 행은 소로가 붙인 영역으로, 끝말 Iberos(이베리아 사람들)를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로 바꾸었다.

4. 카비르(15세기): 인도의 신비주의 시인.

5. 존과 조너선: 존 불과 브라더 조너선. 영국 사람과 미국 사람을 사람처럼 부르는 별칭.

부록: 시민 불복종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다."[1] 나는 이 표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정부가 이 표어대로 더 빠르고 더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싶다. 끝까지 밀고 나가면 이 표어는 마침내 이렇게 된다. 나는 이것도 믿는다. "전혀 다스리지 않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다." 사람들이 그럴 준비를 갖추면, 그들이 갖게 될 정부는 바로 그런 정부일 것이다. 정부는 잘해야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부는 대개, 모든 정부는 이따금 방편 구실을 하지 못한다. 상비군에 맞서 제기된 반론은 많고도 무거우며 마땅히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그 반론은 마침내 상비 정부에도 똑같이 제기될 수 있다. 상비군은 상비 정부의 팔 하나일 뿐이다. 정부 자체도 국민이 자기 뜻을 실행하려고 고른 수단일 뿐인데, 국민이 그것을 통해 행동하기도 전에 그 수단은 똑같이 남용되고 왜곡되기 쉽다. 지금의 멕시코 전쟁을 보라.[2] 비교적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상비 정부를 도구로 삼아 벌인 일이다. 처음부터 물었다면 국민은 이런 조치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미국 정부, 이것은 비록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의 전통이 아니고 무엇인가? 제 몸을 흠 없이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애쓰면서도 순간마다 그 온전함을 조금씩 잃어 가는 전통이 아닌가? 이 정부에는 살아 있는 사람 하나만큼의 생기도 힘도 없다. 사람 하나가 제 뜻대로 그것을 휘게 할 수 있으니까. 국민 자신에게 정부는 일종의 나무총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국민은 자기가 품은 정부라는 관념을

채우려면 이런저런 복잡한 기계를 갖추고 그 소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부는 사람이 제 이익을 위해 얼마나 감쪽같이 속을 수 있는지, 아니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훌륭한 일이라고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정부는 제 발로 길을 비켜 줄 때의 그 민첩함 말고는 스스로 어떤 사업도 북돋운 적이 없다. 나라를 자유롭게 지키는 것은 *정부*가 아니다. 서부에 사람을 정착시키는 것도 *정부*가 아니다. 교육하는 것도 *정부*가 아니다. 이루어진 모든 것은 미국 국민이 타고난 성품이 이루었고, 정부가 이따금 가로막지 않았다면 그 성품은 무언가를 더 이루었을 것이다. 정부란 사람들이 서로를 내버려 두는 데 성공하고 싶어서 마련한 방편이고, 이미 말한 대로 정부가 가장 방편다울 때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정부에게서 가장 많이 내버려진다. 장사와 무역이 고무로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면, 입법자들이 끊임없이 그 앞에 놓는 장애물을 결코 튀어 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입법자들을 그 의도로 얼마쯤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그들이 한 행동의 결과로만 판단한다면, 그들은 철로에 장애물을 놓는 못된 자들과 같은 부류로 묶여 같은 벌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말하자면, 나는 스스로 무정부주의자라 일컫는 사람들과 달리 당장 정부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당장* 더 나은 정부를 달라고 한다. 사람마다 어떤 정부라면 자기가 존경하겠는지 밝히게 하라. 그것이 그런 정부를 얻는 한 걸음이 될 것이다.

결국 권력이 일단 국민의 손에 들어오면 다수가 다스리도록 허락되고 그 다스림이 오래 이어지는 실제 이유는, 다수가 옳을 가능성이 가장 커서도 아니고 그것이 소수에게 가장 공정해 보여서도 아니며, 다수가 물리적으로 가장 힘이 세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일을 다수가 다스리는 정부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정도로라도 정의에 바탕을 둘 수

없다. 옳고 그름을 실제로 정하는 것이 다수가 아니라 양심인 정부, 다수는 편의의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만 정하는 정부는 있을 수 없는가? 시민이 한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자기 양심을 입법자에게 내맡겨야 하는가? 그렇다면 사람마다 양심은 왜 있는가? 나는 우리가 먼저 사람이어야 하고 백성은 그다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을 기르는 것은 옳음에 대한 존경을 기르는 것만큼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유일한 의무는 언제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회사에는 양심이 없다는 말은 꽤 옳다. 그러나 양심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회사는 양심이 있는 회사다. 법은 사람을 조금도 더 의롭게 만든 적이 없다. 오히려 법을 존경하는 탓에 선량한 사람들조차 날마다 불의의 하수인이 된다. 법을 지나치게 존경할 때 흔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결과로, 대령, 대위, 상등병, 졸병, 화약을 나르는 소년병까지 한 줄로 늘어선 병사들이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 놀랄 만큼 질서 정연하게 전쟁터로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자기 뜻을 거슬러, 아니 자기 상식과 양심을 거슬러 행진하니, 그 행군은 참으로 가파르고 가슴이 두근거릴 수밖에 없다. 그들은 자기가 관여한 일이 저주받을 짓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모두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인가? 사람이기는 한가? 아니면 권력을 쥔 어떤 파렴치한 자의 손에 놀아나는 작은 이동식 요새와 탄약고인가? 해군 조선소에 가서 해병 하나를 보라. 미국 정부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 아니 미국 정부가 그 흑마술로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인간성의 그림자이자 흔적일 뿐이고, 산 채로 서서 염습을 받은 사람이며, 말하자면 이미 장송의 예를 갖추고 무기를 든 채 묻힌 사람이다. 그 장례가 이런 것일지라도.

"북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고, 장송곡 한 가락 없었다,
우리가 그의 주검을 성벽으로 서둘러 옮길 때.
병사 하나 작별의 총을 쏘지 않았다,
우리 영웅을 묻은 무덤 위로."[3]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주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기계로서, 제 몸으로 국가를 섬긴다. 그들은 상비군이고 민병대이고 간수이고 순경이고 민간 호송대 같은 것들이다. 대개 그들에게는 판단력이나 도덕 감각을 자유롭게 쓰는 일이 전혀 없다. 그들은 스스로를 나무와 흙과 돌과 같은 수준에 놓으니, 아마 같은 목적에 그만큼 쓸모 있는 나무 인간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허수아비나 흙덩이만큼도 존경받지 못한다. 그들의 값어치는 말이나 개와 같은 종류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조차 흔히 좋은 시민으로 여겨진다. 다른 사람들, 이를테면 대부분의 입법자, 정치가, 법률가, 목사, 관리는 주로 머리로 국가를 섬긴다. 그들은 도덕적 분별을 거의 하지 않으니, *그럴 뜻도 없이* 신만큼이나 악마도 섬기기 쉽다. 아주 적은 사람들, 영웅, 애국자, 순교자, 큰 뜻의 개혁가,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은 양심으로도 국가를 섬기며, 그래서 대개는 국가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은 흔히 국가에게 적으로 취급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사람으로서 쓸모 있으려 할 것이며, "흙"이 되어 "바람을 막으려고 구멍을 메우는" 일에 몸을 맡기지 않고, 그 직분은 적어도 제 주검의 먼지에게 넘길 것이다.

"나는 너무 고귀하게 태어나 남의 소유가 될 수 없고,
남의 손에 놀아나는 아랫사람이 될 수도,
세상 어느 주권 국가의 쓸모 있는
하인이나 도구가 될 수도 없다."[4]

자기를 온전히 동포에게 바치는 사람은 그들 눈에 쓸모없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기를 조금만 바치는 사람은 은인이요 박애주의자라는 말을 듣는다.

오늘날 이 미국 정부에게 사람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마땅한가? 나는 대답한다. 사람은 수치를 무릅쓰지 않고서는 이 정부와 어울릴 수 없다. *노예의* 정부이기도 한 정치 조직을 나는 한순간도 *나의*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혁명의 권리를 인정한다. 곧 정부의 폭정이나 무능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을 때 그 정부에 충성하기를 거부하고 저항할 권리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이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1775년 혁명 때는 그런 경우였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누가 내게, 이 정부는 항구에 들어오는 어떤 외국 물품에 세금을 매기니 나쁜 정부라고 말한다면, 나는 아마 그 일로 법석을 떨지 않을 것이다. 그런 물건 없이도 나는 지낼 수 있으니까. 기계에는 모두 마찰이 있다. 이 마찰은 어쩌면 그 해악을 상쇄할 만큼 이로운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 일로 소란을 피우는 것은 큰 해악이다. 그러나 마찰이 제 기계를 갖게 되고 억압과 강탈이 조직될 때, 나는 말한다, 그런 기계는 더는 두지 말자. 달리 말하면, 자유의 피난처가 되겠다고 나선 나라에서 인구의 6분의 1이 노예이고, 한 나라 전체가 외국 군대에게 부당하게 짓밟혀 정복당하고 군법 아래 놓일 때, 정직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혁명을 하기에 너무 이르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의무를 더 급하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짓밟힌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침략군이 우리 군대라는 사실이다.

도덕 문제에서 많은 사람이 흔히 권위로 삼는 페일리는 「시민 정부에 대한 복종의 의무」라는 장에서 모든 시민적 의무를 편의로 돌린다.[5] 그리고 이렇게 말을 잇는다. "사회 전체의 이익이 그것을 요구하는 한,

곧 기성 정부에 저항하거나 그것을 바꾸려면 공공의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는 한, 기성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 신의 뜻이며…… 그 이상은 아니다…… 이 원리를 받아들이면, 저항의 개별 사례가 정당한지는 한편의 위험과 고통의 양, 다른 한편의 그것을 바로잡을 가능성과 비용을 셈하는 문제로 줄어든다." 이것은 사람마다 스스로 판단할 일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페일리는 편의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개인뿐 아니라 한 국민도 대가가 얼마이든 정의를 행해야 하는 경우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듯하다. 내가 물에 빠진 사람에게서 판자를 부당하게 빼앗았다면, 나 자신이 빠져 죽더라도 그것을 돌려주어야 한다. 페일리에 따르면 이것은 불편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제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 국민은 한 국민으로 존재하기를 그만두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노예를 거느리는 일과 멕시코에 맞선 전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실제로 여러 나라는 페일리와 생각이 같다. 그러나 이 위기에 매사추세츠가 꼭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 "나라의 창녀, 은실 옷 걸친 매춘부,
> 옷자락은 남이 받쳐 들고, 영혼은 진창에 끌고 다닌다."[6]

실제로 말하자면, 매사추세츠에서 개혁을 가로막는 자들은 남부의 정치가 십만 명이 아니라 여기 있는 상인과 농부 십만 명이다. 그들은 인간애보다 상업과 농업에 더 이해관계가 깊고, *대가가 얼마이든* 노예와 멕시코에게 정의를 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나는 먼 곳의 적과 다투지 않는다. 가까이 이곳에 있으면서 먼 곳의 그들과 손잡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그들이 없으면 먼 곳의 적도 아무 해를 끼치지 못할 그런 사람들과 다툰다. 우리는 흔히 대중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아짐이 더딘 것은 소수가 다수보다 별로 더 지혜롭지도 낫지도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만큼 착해지는 것보다는 어딘가에 절대적인 선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온 반죽을 부풀릴 테니까. 노예제와 전쟁에 *의견으로는* 반대하면서도 사실상 그것을 끝내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수천이다. 그들은 스스로 워싱턴과 프랭클린의 자손이라 여기면서도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주저앉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말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 자유의 문제를 자유 무역의 문제 뒤로 미루어 두고, 저녁을 먹은 뒤 멕시코에서 온 최신 소식과 함께 시세표를 조용히 읽다가 어쩌면 둘 다 펼쳐 둔 채 잠들어 버린다. 오늘날 정직한 사람과 애국자의 시세는 얼마인가? 그들은 머뭇거리고 아쉬워하고, 이따금 청원도 한다. 그러나 진지하게, 효과 있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선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해악을 바로잡아 주기를 기다릴 것이다. 그래야 더는 아쉬워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 기껏해야 그들은 옳음이 곁을 지나갈 때 값싼 표 하나와 힘없는 지지, 잘 가라는 인사를 건넬 뿐이다. 덕 있는 사람 하나에 덕의 후원자는 구백구십구 명이다. 그러나 물건의 임시 보관인보다는 진짜 임자를 상대하기가 더 쉽다.

모든 투표는 체커나 백개먼 같은 일종의 노름이다. 도덕의 빛깔이 살짝 감돌 뿐, 옳고 그름을 가지고, 도덕 문제를 가지고 하는 놀이이며, 내기가 자연스레 따라붙는다. 투표하는 사람의 인격은 판돈으로 걸리지 않는다. 나는 어쩌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표를 던질 것이다. 그러나 그 옳음이 이기는 데 내 목숨이 걸려 있지는 않다. 나는 그것을 다수에게 맡겨 둘 생각이 있다. 그러므로 투표의 의무는 결코 편의의 의무를 넘지 않는다. *옳은 쪽에* 표를 던지는 일조차 옳음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그저 옳음이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힘없이 드러내는 일일 뿐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옳음을 우연의 손에 맡겨 두지 않으며, 옳음이 다수의 힘으로 이기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대중의 행동에는 덕이 거의 없다. 다수가 마침내 노예제 폐지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그것은 그들이 노예제에 무관심하기 때문이거나, 그들의 표로 폐지할 노예제가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가 되면 노예는 *그들*뿐일 것이다. 자기의 표로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표만이 노예제 폐지를 앞당길 수 있다.

대통령 후보를 뽑으려고 볼티모어인가 어디선가 전당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린다. 대회는 주로 신문 편집인들과 정치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생각한다.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독립적이고 지성 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그래도 우리는 그의 지혜와 정직함의 덕을 볼 수 있지 않은가? 독립적인 표 몇 장쯤은 믿을 수 있지 않은가? 이 나라에는 전당 대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도 많지 않은가? 그러나 아니다. 이른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곧바로 제자리에서 떠밀려 나가 자기 나라에 절망하는 것을 나는 본다. 그의 나라가 그에게 절망할 까닭이 더 많은데도 말이다. 그는 그렇게 뽑힌 후보 가운데 하나를 *쓸 만한* (available) 유일한 후보라며 냉큼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그 자신이 선동가의 어떤 목적에도 *쓸 만한* 사람임을 증명한다. 그의 표는 돈에 매수되었을지도 모르는 지조 없는 외국인이나 고용된 토박이의 표보다 조금도 더 값지지 않다. 아, *사람*다운 사람이 있었으면! 내 이웃의 말대로, 등에 손을 넣어 뚫고 지나갈 수 없는 뼈가 박힌 사람이 있었으면! 우리 통계는 틀렸다. 인구가 너무 많게 보고되었다. 이 나라에는 1,000제곱마일마다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 하나도 될까 말까다. 미국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착할 만한 아무런 매력도 주지

못하는가? 미국인은 오드펠로로 쪼그라들었다. 무리 짓기 기관은 발달했으나 지성과 쾌활한 자립심은 눈에 띄게 모자란 것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 나와서 맨 먼저, 그리고 가장 마음 쓰는 일이 구빈원이 잘 수리되어 있는지 살피는 것이고, 아직 어엿한 사내의 옷을 법대로 입기도 전에 생길지도 모를 과부와 고아를 돌볼 기금부터 모으는 사람이다. 요컨대 자기를 점잖게 묻어 주겠다고 약속한 상호 보험 회사의 도움으로만 감히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떤 잘못이든, 아무리 엄청난 잘못이라도, 그것을 뿌리 뽑는 데 몸을 바치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의무는 아니다. 그에게는 마음을 쏟을 다른 일이 있어도 괜찮다. 그러나 적어도 그 잘못에서 손을 씻는 것, 그리고 더는 그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실제로 그것을 떠받치지 않는 것은 그의 의무다. 내가 다른 일과 사색에 몸을 바친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의 어깨에 올라앉아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먼저 살펴야 한다. 그도 자기 사색을 할 수 있도록 먼저 그에게서 내려와야 한다. 얼마나 엄청난 모순이 용납되고 있는지 보라. 나는 읍 사람 몇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노예 반란을 진압하러 가거나 멕시코로 행군하라고 나한테 명령해 봤으면 좋겠군. 내가 가나 보라지."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저마다 직접 충성으로, 그래서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돈으로, 대신 갈 사람을 대 주었다. 부당한 전쟁에 나가기를 거부하는 병사는 그 전쟁을 벌이는 부당한 정부를 떠받치기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다. 그 병사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바로 그 행위와 권위의 주인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이다. 마치 국가가 죄를 짓는 동안 자기를 매질할 사람을 고용할 만큼은 뉘우치되, 한순간이라도 죄짓기를 그만둘 만큼은 뉘우치지 않는다는 듯이. 이렇게 질서와 시민 정부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모두 마침내 우리 자신의 비천함에 경의를 바치고 그것을 떠받치게 된다. 죄에 대한 첫 부끄러움이 지나가면 무관심이 찾아온다.

그리고 죄는 부도덕한 것에서 이를테면 *무*도덕한 것이 되어, 우리가 만든 삶에 그리 불필요하지도 않은 것이 된다.

가장 넓고 가장 널리 퍼진 잘못일수록 그것을 떠받치려면 가장 사심 없는 덕이 필요하다. 애국심이라는 덕이 흔히 받기 쉬운 가벼운 비난을 가장 받기 쉬운 것은 고귀한 사람들이다. 정부의 성격과 정책을 못마땅해하면서도 그 정부에 충성과 지지를 바치는 사람들이야말로 틀림없이 정부의 가장 양심적인 지지자이고, 그래서 흔히 개혁을 가장 심각하게 가로막는다. 어떤 사람들은 연방을 해체하고 대통령의 요구를 무시해 달라고 국가에 청원하고 있다. 그들은 왜 스스로 그것을, 그들 자신과 국가 사이의 연합을 해체하고 국고에 제 몫을 내기를 거부하지 않는가? 국가가 연방에 대해 서 있는 관계와 똑같은 관계로 그들이 국가에 대해 서 있지 않은가? 그들이 국가에 저항하지 못하게 막은 그 이유가 바로 국가가 연방에 저항하지 못하게 막지 않았는가?

사람이 어떻게 한낱 의견을 품고 그것을 즐기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의견이라면 *그런* 의견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이웃에게 단 1달러라도 속아서 빼앗긴다면, 여러분은 속았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속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아니 받을 것을 갚아 달라고 그에게 청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곧바로 효과 있는 조치를 취해 그 돈을 모두 되찾고 다시는 속지 않도록 단속한다. 원칙에서 나온 행동, 곧 옳음을 깨닫고 행하는 것은 사물과 관계를 바꾼다. 그것은 본질에서 혁명적이며, 이전에 있던 어떤 것과도 온전히 들어맞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와 교회를 나눌 뿐 아니라 가족도 나눈다. 아니, 그것은 *개인*을 나누어 그 안의 악마적인 것을 신적인 것에서 떼어 낸다.

부당한 법이 있다. 우리는 그 법에 복종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그 법을 고치려고 애쓰면서 고칠 때까지는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곧바로

그 법을 어길 것인가? 이런 정부 아래에서 사람들은 대개 다수를 설득해 그 법을 바꾸게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항했다가는 약이 병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약이 병보다 더 나쁜 *것은* 정부 자신의 잘못이다. *정부*가 그것을 더 나쁘게 만든다. 정부는 왜 개혁을 미리 내다보고 대비하는 데 더 재빠르지 못한가? 왜 자기의 지혜로운 소수를 아끼지 않는가? 왜 다치기도 전에 울부짖으며 저항하는가? 왜 시민들이 깨어 있다가 정부의 잘못을 짚어 내고 정부가 바라는 것보다 더 잘 *행하도록* 북돋우지 않는가? 왜 정부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코페르니쿠스와 루터를 파문하고, 워싱턴과 프랭클린을 반역자라 선언하는가?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유일한 죄는 정부의 권위를 일부러, 그리고 실제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여길 법하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왜 그 죄에 뚜렷하고 알맞으며 균형 잡힌 벌을 정해 두지 않았는가? 재산이 없는 사람이 국가를 위해 9실링을 버는 일을 단 한 번 거부하면, 그는 내가 아는 어떤 법으로도 정해지지 않고 오직 그를 가둔 사람들의 재량으로 정해지는 기간 동안 감옥에 갇힌다. 그러나 그가 국가에게서 9실링의 아흔 배를 훔친다면, 그는 곧 다시 풀려나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

불의가 정부라는 기계에 꼭 따르는 마찰의 한 부분이라면 그냥 두라, 그냥 두라. 어쩌면 닳아서 매끄러워질 것이다. 적어도 기계는 닳아 없어질 것이 틀림없다. 불의가 오로지 그것만을 위한 용수철이나 도르래나 밧줄이나 크랭크를 갖고 있다면, 그때는 약이 병보다 더 나쁘지 않을지 따져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불의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불의의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하는 성질의 것이라면, 나는 말한다, 법을 어기라. 여러분의 삶을 맞마찰로 삼아 그 기계를

멈추게 하라. 내가 할 일은 어떻게든 내가 비난하는 잘못에 내 몸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다.

해악을 바로잡으라고 국가가 마련해 둔 길을 따르는 문제라면, 나는 그런 길을 알지 못한다. 그 길은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러다가는 사람의 일생이 다 가 버린다. 나에게는 돌보아야 할 다른 일이 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주로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든 나쁘든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다. 사람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지사나 주 의회가 나에게 청원할 일이 아니듯이 나도 그들에게 청원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청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나 이 경우에 국가는 아무 길도 마련해 두지 않았다. 국가의 헌법 자체가 해악이다. 이것은 가혹하고 완고하고 화해할 줄 모르는 말로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거나 들을 자격이 있는 유일한 정신을 더없이 친절하게, 깊이 배려하며 대하는 일이다. 더 나은 쪽으로 가는 변화란 모두 그렇다. 몸을 뒤흔드는 탄생과 죽음처럼.

나는 서슴없이 말한다. 스스로 노예제 폐지론자라 일컫는 사람들은 한 표 차의 다수를 이룰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들을 통해 옳음이 이기게 하려 하지 말고, 지금 곧 몸으로나 재산으로나 매사추세츠 정부에 대한 지지를 실제로 거두어들여야 한다. 신이 그들 편에 있다면 그 나머지 한 표를 기다리지 않아도 넉넉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게다가 이웃보다 옳은 사람은 혼자서 이미 다수를 이룬다.

나는 이 미국 정부, 또는 그 대리인인 주 정부를 해마다 한 번, 단 한 번 세금 징수원이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만난다. 나 같은 처지의 사람이 정부를 만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 이것이다.

그때 정부는 또렷이 말한다. 나를 인정하라. 그리고 지금 형편에서 이 점에 관해 정부를 대하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효과 있으며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길, 정부에 대한 여러분의 그 하찮은 만족과 사랑을 표현하는 길은 그때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다. 세금 징수원인 내 점잖은 이웃이야말로 내가 상대해야 할 바로 그 사람이다. 결국 내가 다투는 상대는 양피지 문서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는 스스로 정부의 대리인이 되기를 택했다. 자기가 존경하는 이웃인 나를 이웃이자 선량한 사람으로 대할지, 아니면 미치광이이자 평화를 어지럽히는 자로 대할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기 전에는, 그리고 자기 행동에 걸맞은 더 거칠고 더 성급한 생각이나 말 없이 이웃다움을 가로막는 이 장애를 넘어설 수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는, 그가 정부의 관리로서, 또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무엇이며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제대로 알겠는가? 나는 이것을 잘 안다. 이 매사추세츠주에서 천 명이, 백 명이, 내가 이름을 댈 수 있는 열 명이, 아니 *정직한* 사람 열 명만이라도, 아니 정직한 사람 *단 한* 명이라도 *노예를 거느리기를 그만두고* 이 동업 관계에서 실제로 물러나 그 때문에 군 감옥에 갇힌다면, 그것은 미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되는 일일 것이다. 시작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상관없다. 한번 제대로 한 일은 영원히 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쪽을 더 좋아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한다. 개혁은 수십 개의 신문을 부리지만 사람은 하나도 부리지 못한다. 평의회 의사당에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날을 바치려는 나의 존경하는 이웃, 매사추세츠주의 사절이 캐롤라이나의 감옥으로 위협받는 대신 매사추세츠의 죄수로 주저앉는다면,[7] 노예제의 죄를 자매 주에게 그토록 떠넘기고 싶어 하면서도 지금은 그 자매 주와 다툴 거리로 무례한 대접 하나밖에 찾아내지 못하는 이 매사추세츠주의 주의회는 이듬해 겨울 그 문제를 아주 내버려 두지는 못할 것이다.

누구든 부당하게 가두는 정부 아래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있을 참된 자리 또한 감옥이다. 오늘날 알맞은 자리, 매사추세츠가 더 자유롭고 덜 절망한 정신들을 위해 마련해 둔 유일한 자리는 그 감옥이다. 그들이 이미 자기 원칙으로 스스로 국가 밖에 나와 있듯이, 국가는 제 손으로 그들을 국가 밖으로 내쫓고 문을 걸어 잠근다. 도망 노예와 가석방된 멕시코인 포로와 제 겨레가 당한 부당함을 호소하러 온 원주민은 바로 거기서 그들을 만나야 한다. 국가가 자기 *편*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서는* 사람들을 두는 그 따로 떨어진, 그러나 더 자유롭고 더 명예로운 땅, 노예 주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명예롭게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집이 거기다. 거기서는 자기 영향력이 사라지고, 자기 목소리가 더는 국가의 귀를 괴롭히지 못하며, 성벽 안의 적 노릇을 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리가 오류보다 얼마나 더 강한지, 불의를 조금이라도 몸소 겪어 본 사람이 얼마나 더 웅변적으로, 얼마나 더 효과 있게 불의와 싸울 수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종잇조각 한 장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향력 전부로, 여러분의 표 전부를 던지라. 소수는 다수에게 순응하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다. 그때는 소수조차 아니다. 그러나 온 무게로 가로막을 때 소수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의로운 사람을 모두 감옥에 가두어 두느냐, 아니면 전쟁과 노예제를 그만두느냐 하는 갈림길이라면, 국가는 어느 쪽을 고를지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올해 천 명이 세금 고지서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폭력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조치가 아닐 것이다. 세금을 내서 국가가 폭력을 저지르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런 조치일 것이다. 평화로운 혁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 사실 이것이 그 정의다. 세금 징수원이나 다른 어떤 공무원이, 실제로 한 사람이 그랬듯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이렇다. "정말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직책을 내놓으시오." 백성이 충성을 거부하고

관리가 직책을 내놓을 때, 그때 혁명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피가 흐른다고 해 보자. 양심이 상처를 입을 때에도 일종의 피가 흐르지 않는가? 이 상처로 사람의 참된 사람다움과 불멸이 흘러 나가고, 그는 피를 흘리며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 나는 지금 이 피가 흐르는 것을 본다.

나는 범법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보다 그를 감옥에 가두는 일을 생각해 왔다. 둘 다 같은 목적에 쓰이겠지만, 가장 순수한 옳음을 주장하고 그래서 부패한 국가에게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대개 재산을 모으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국가가 해 주는 일은 비교적 적고, 가벼운 세금조차 터무니없어 보이기 쉽다. 그 돈을 손으로 하는 특별한 노동으로 벌어야 한다면 더욱 그렇다. 돈을 전혀 쓰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 자신도 그에게 돈을 내라고 하기를 망설일 것이다. 그러나 부자는, 얄궂게 견주려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 주는 제도에 팔려 있다. 절대적으로 말하면 돈이 많을수록 덕은 적다. 돈은 사람과 그가 바라는 것 사이에 끼어들어 그것을 대신 얻어 주는데, 돈을 얻는 일은 분명 대단한 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돈은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대답하느라 애써야 했을 많은 물음을 잠재우고, 그 대신 새로 던지는 물음이라고는 어떻게 쓸까 하는 어렵지만 쓸데없는 물음 하나뿐이다. 그렇게 그의 도덕의 땅은 발밑에서 빠져나간다. 이른바 "수단"이 늘어나는 만큼 살아갈 기회는 줄어든다. 부자가 자기 교양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가난했을 때 품었던 계획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헤롯 당원들에게 그들의 처지에 맞게 대답했다.[8] "세금으로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가 말하자 한 사람이 주머니에서 동전 한 닢을 꺼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카이사르가 통용시켜 값어치를 준 돈을 쓴다면, 곧 *여러분이 국가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카이사르의 정부가 주는 이익을 기꺼이 누린다면, 카이사르가 요구할 때 그의 것을 얼마쯤 그에게 돌려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려 드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어느 것이 어느 쪽 것인지 전보다 조금도 더 알지 못한 채 남았다. 그들은 알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

내 이웃 가운데 가장 자유로운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 그들이 문제의 크기와 심각함에 대해, 공공의 평온을 아끼는 마음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 요컨대 그들은 지금 정부의 보호 없이는 지낼 수 없고 정부에 불복종했을 때 재산과 가족에게 닥칠 결과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로서는 내가 국가의 보호에 기댄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국가가 세금 고지서를 내밀 때 내가 국가의 권위를 부정하면, 국가는 곧 내 재산을 모두 가져가 탕진하고 나와 내 아이들을 끝없이 괴롭힐 것이다. 이것은 가혹하다. 이것은 사람이 정직하게 살면서 동시에 겉으로 편안하게 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재산을 모을 보람이 없을 것이다. 모아 봐야 틀림없이 다시 사라질 테니까. 어딘가 집을 빌리거나 무단으로 자리 잡고, 작은 농사만 지어 그것을 곧 먹어치워야 한다. 자기 안에서 살고, 늘 옷을 걷어붙이고 떠날 채비를 한 채 자기에게만 기대야 하며, 일을 많이 벌이지 말아야 한다. 튀르크에서도 모든 면에서 튀르크 정부의 착한 백성이 되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공자는 말했다. "나라가 이성의 원리로 다스려지면 가난과 비참은 부끄러운 일이다. 나라가 이성의 원리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부와 명예가 부끄러운 일이다."[9] 아니다. 내 자유가 위태로운 남부의 어느 먼 항구에서 매사추세츠의 보호를 받고 싶어질 때까지는, 또는 평화로운 사업으로 고향에 재산을 쌓는 일에만 마음을 쏟을 때까지는, 나는 매사추세츠에 충성하기를 거부하고 내 재산과 목숨에 대한 매사추세츠의 권리를 거부할 수 있다. 국가에 복종하는 것보다 불복종의

벌을 받는 쪽이 어느 모로 보나 내게 덜 든다. 복종한다면 나 자신이 덜 값지게 느껴질 것이다.

몇 해 전, 국가는 교회를 대신해 나를 찾아와서, 아버지는 그 설교를 들으러 다녔지만 나는 한 번도 듣지 않은 어느 목사를 부양하는 데 얼마를 내라고 명령했다. "내라." 국가는 말했다. "아니면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나는 내기를 거절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이 그 돈을 대신 내는 게 좋겠다고 여겼다. 나는 왜 교사가 사제를 부양하려고 세금을 내야 하고, 사제는 교사를 부양하려고 세금을 내지 않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국가의 교사가 아니라 자발적인 기부로 생계를 꾸렸으니까. 나는 라이시엄도 교회처럼 세금 고지서를 내밀고 국가가 그 요구를 뒤에서 떠받쳐 주면 왜 안 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읍 행정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나는 몸을 낮추어 대략 이런 진술을 글로 써 주었다. "이 문서로 모든 사람에게 알린다. 나 헨리 소로는 내가 가입하지 않은 어떤 법인 단체의 회원으로도 여겨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것을 나는 읍 서기에게 주었고, 그가 그것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 교회의 회원으로 여겨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안 국가는 그 뒤로 다시는 내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 다만 그때는 원래의 추정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름을 댈 줄 알았다면 나는 그때 내가 한 번도 가입 서명을 한 적이 없는 모든 단체에서 하나하나 탈퇴 서명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단체들의 온전한 목록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랐다.

나는 여섯 해 동안 인두세를 내지 않았다.[10] 그 때문에 한번은 하룻밤 감옥에 갇혔다. 두께가 2~3피트인 단단한 돌벽과, 두께가 1피트인 나무와 쇠로 된 문과, 빛을 걸러 들이는 쇠창살을 바라보며 서 있자니, 나를 가두어 둘 한낱 살과 피와 뼈로만 대하는 그 제도의 어리석음이 가슴을 쳤다. 국가가 마침내 나를 쓸 가장 좋은 길이 이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 내 쓸모를 이용할 생각은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 나는 놀라웠다. 나와 읍 사람들 사이에 돌벽이 있다면, 그들이 나만큼 자유로워지려면 그보다 더 넘거나 부수기 어려운 벽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한순간도 갇혀 있다고 느끼지 않았고, 그 벽은 돌과 회반죽을 크게 낭비한 것으로 보였다. 읍 사람들 가운데 나 혼자만 세금을 낸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들은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분명히 몰랐고, 버릇없이 자란 사람들처럼 굴었다. 위협마다, 인사치레마다 실수가 있었다. 내가 무엇보다 바라는 것이 그 돌벽 저편에 서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토록 부지런히 내 사색에 문을 잠그는 것을 보고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사색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들을 따라 다시 밖으로 나갔고, 위험한 것은 참으로 *그것*뿐이었다. 그들은 내게 닿을 수 없었으니 내 몸을 벌하기로 작정했다. 소년들이 앙심을 품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으면 그 사람의 개를 괴롭히는 것과 꼭 같다. 국가가 반쯤 얼이 빠졌고, 은수저를 지키는 외딴집 여인네처럼 겁이 많으며, 제 편과 적을 가릴 줄 모른다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래서 나는 국가에 남아 있던 존경을 모두 잃었고, 국가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국가는 결코 일부러 사람의 지성이나 도덕 감각을 마주하지 않고, 오직 그의 몸, 그의 감각만을 마주한다. 국가는 더 뛰어난 재치나 정직함으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더 센 물리적 힘으로 무장했다. 나는 억지로 끌려가려고 태어나지 않았다. 나는 내 나름대로 숨을 쉴 것이다. 누가 가장 센지 두고 보자. 무리에게 무슨 힘이 있는가? 나보다 더 높은 법칙에 복종하는 사람들만이 나를 억지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들은 나에게 자기들처럼 되라고 강요한다. 대중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강요했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런 삶이 무슨 삶이겠는가? "돈을 내놓든지 목숨을 내놓든지 하라"고 내게 말하는

정부를 만난다면, 내가 왜 서둘러 돈을 내주어야 하는가? 정부는 큰 곤경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를지도 모른다. 그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스스로를 도와야 한다. 나처럼 하면 된다. 그 일로 훌쩍거릴 가치는 없다. 사회라는 기계가 잘 돌아가는 데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기관사의 아들이 아니다. 도토리와 밤이 나란히 떨어질 때,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길을 비켜 주려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안다. 둘 다 저마다의 법칙에 따라 싹 트고 자라고 할 수 있는 한 무성하게 뻗어 나가다가, 어쩌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그늘로 덮어 죽인다. 식물이 제 본성대로 살 수 없으면 죽는다. 사람도 그렇다.

감옥에서 보낸 그 밤은 꽤 새롭고 흥미로웠다. 내가 들어갔을 때 셔츠 바람의 죄수들은 문간에서 저녁 공기를 쐬며 이야기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간수가 "자, 다들 들어가요, 문 잠글 시간이에요" 하고 말하자 그들은 흩어졌고, 텅 빈 방들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간수는 같은 방을 쓸 사람을 "아주 괜찮은 친구고 사람이 좋다"고 내게 소개했다. 문이 잠기자 그는 모자를 어디에 걸면 되는지, 그곳에서 자기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 주었다. 방은 한 달에 한 번씩 회칠을 했고, 적어도 이 방은 읍에서 가장 희고, 가장 단출하게 꾸며졌고, 아마 가장 깔끔한 방이었을 것이다. 그는 당연히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슨 일로 여기 왔는지 알고 싶어 했다. 내가 이야기해 주자 이번에는 내가 그에게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는지 물었다. 물론 그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여기고서였고, 세상 기준으로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나는 믿는다. "아, 사람들이 내가 헛간에 불을 냈다고 하는데요, 난 절대 안 그랬어요." 그가 말했다. 내가 알아낼 수 있었던 대로라면, 그는 아마 술에 취해 헛간에서 잠자리에 들어 파이프를 피웠고, 그래서 헛간이 타 버렸던 것 같다. 그는 사람 좋다는 평판을 듣고 있었고, 재판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거기서 석 달쯤 지냈으며, 앞으로도 그만큼 더 기다려야 할

형편이었다. 그러나 밥을 공짜로 얻어먹으니 그는 아주 길이 들어 만족했고, 대접을 잘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창 하나를 차지했고 나는 다른 창을 차지했다. 거기 오래 머문다면 주로 하는 일이 창밖을 내다보는 일이 되리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곧 거기 남아 있던 소책자를 모두 읽었고, 예전 죄수들이 어디로 탈옥했는지, 창살 하나를 어디서 톱으로 잘라 냈는지 살펴보았으며, 그 방을 거쳐 간 여러 사람의 내력을 들었다. 여기에도 감옥 담장 밖으로는 결코 퍼져 나가지 않는 역사와 소문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마 이곳은 읍에서 시가 지어지는 유일한 집일 것이다. 그 시들은 나중에 회람 꼴로 인쇄되지만 출판되지는 않는다. 탈옥하려다 들킨 젊은이 몇이 지었다는 꽤 긴 시 목록을 나는 보았다. 그들은 그 시를 노래하며 앙갚음을 했다.

다시는 그를 못 볼까 봐 나는 같은 방 수감자에게서 짜낼 수 있는 만큼 이야기를 짜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내 침대가 어느 것인지 알려 주고는 등불을 끄는 일을 내게 맡겼다.

거기 하룻밤 누워 있는 것은 한 번도 보리라 생각지 못한 먼 나라로 여행하는 것 같았다. 읍의 시계가 시간을 알리는 소리도, 마을의 저녁 소리도 전에는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것 같았다. 우리는 창살 안쪽에 있는 창문을 열어 둔 채 잤으니까. 그것은 내 고향 마을을 중세의 빛 속에서 보는 일이었고, 우리 콩코드는 라인강으로 바뀌었으며, 기사와 성의 환상이 내 앞을 지나갔다. 거리에서 들려오는 것은 옛 성읍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나는 이웃한 마을 여관의 부엌에서 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본의 아니게 보고 듣는 구경꾼이 되었다. 나에게는 아주 새롭고 드문 경험이었다. 내 고향 읍을 더 가까이서 본 셈이었다. 나는 그 읍의 속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 읍의 제도를 본 적이 없었다. 이 읍은 군청 소재지라서, 이것도 그 읍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

가운데 하나였다. 나는 그곳 주민들이 무엇을 하며 사는지 알기 시작했다.

아침이 되자 아침밥이 문에 난 구멍으로 들어왔다. 구멍에 꼭 맞게 만든 길쭉한 네모 양철 그릇에 코코아 1파인트와 흑빵, 쇠숟가락 하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이 그릇을 다시 거두러 왔을 때, 나는 물정을 몰라 먹다 남은 빵을 돌려주려 했다. 그러나 동료가 그것을 낚아채더니 점심이나 저녁으로 남겨 두라고 했다. 곧 그는 이웃 들판에서 건초를 말리는 일을 하러 나갔다. 그는 날마다 거기 가서 한낮이 되어야 돌아왔다. 그래서 그는 내게 잘 가라고 인사하며 나를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감옥에서 나왔을 때, 누군가 끼어들어 그 세금을 대신 냈기 때문인데, 나는 젊어서 들어갔다가 비틀거리는 백발노인이 되어 나온 사람이 본 것 같은 큰 변화가 공유지에 일어났다고는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도 내 눈에는 그 풍경, 읍과 주와 나라 위에 그저 시간만으로는 결코 일으킬 수 없는 큰 변화가 찾아와 있었다. 나는 내가 사는 국가를 더욱 또렷이 보았다. 내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좋은 이웃과 벗으로 어느 만큼 믿을 수 있는지 나는 보았다. 그들의 우정은 여름 날씨에나 통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옳은 일을 하려고 크게 마음먹지도 않았으며, 그들은 편견과 미신으로 중국 사람과 말레이인만큼이나 나와는 다른 족속이었다. 인류를 위해 희생한다면서도 그들은 아무 위험도, 재산의 위험조차 무릅쓰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도둑이 자기들을 대한 그대로 도둑을 대하지 않을 만큼 고귀하지는 못했다. 그러면서도 얼마간의 겉치레 예배와 몇 마디 기도로, 그리고 이따금 곧지만 쓸모없는 어떤 길을 걷는 것으로 자기 영혼을 구하기를 바랐다. 이것은 내 이웃들을 가혹하게 판단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자기 마을에 감옥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를 것이라고 나는 믿으니까.

예전에 우리 마을에는 가난한 빚쟁이가 감옥에서 나오면 아는 사람들이 감옥 창살을 흉내 내어 엇갈려 낀 손가락 사이로 그를 들여다보며 "그래, 잘 지내시오?" 하고 인사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웃들은 나에게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나를, 그다음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내가 먼 여행에서 돌아오기라도 한 듯이. 나는 수선을 맡긴 신을 찾으러 구둣방에 가다가 감옥에 갇혔다. 이튿날 아침 풀려나자 나는 하던 심부름을 마저 하러 가서 수선한 신을 신고, 내가 이끌어 주기를 안달하며 기다리던 허클베리 따기 무리에 끼었다. 그리고 반 시간 뒤에는, 말에 마구를 금세 채웠으니까, 2마일 떨어진 우리 고장에서 가장 높은 언덕 하나의 허클베리 밭 한가운데에 있었다. 거기서는 국가를 어디서도 볼 수 없었다.

이것이 "나의 감옥"의 전말이다.

◆

나는 도로세를 내기를 거부한 적이 없다. 나는 나쁜 백성이 되고 싶은 만큼 좋은 이웃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를 떠받치는 일이라면, 나는 지금 내 몫을 다해 동포들을 가르치고 있다. 내가 세금 내기를 거부하는 것은 세금 고지서의 어느 특정 항목 때문이 아니다. 나는 그저 국가에 충성하기를 거부하고, 국가에서 실제로 물러나 거리를 두고 싶을 뿐이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 1달러가 사람 하나를, 또는 사람을 쏠 총 한 자루를 살 때까지 그 길을 쫓아가고 싶지는 않다. 1달러는 죄가 없다. 그러나 내 충성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쫓아가 보고 싶다. 사실 나는 내 나름대로 조용히 국가에 전쟁을 선포한다. 이런 경우에 흔히 그렇듯, 그러면서도 국가를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국가에게서 얻을 수 있는 만큼 이득을 얻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국가에 공감해서 나에게 요구된 세금을 대신 낸다면, 그들은 자기 경우에 이미 한 일을 되풀이하는 것일 뿐이다. 아니, 그들은 국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불의를 거든다. 세금을 내야 하는 개인에게 잘못된 관심을 기울여 그의 재산을 지켜 주거나 그가 감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세금을 대신 낸다면, 그것은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이 공공의 선을 어느 만큼 방해하도록 두는지 지혜롭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것이 지금의 내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자기 행동이 고집이나 사람들의 의견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마음에 치우치지 않도록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가 하는 일이 오직 자기 자신과 지금 이때에 속하는 일인지 살피게 하라.

나는 이따금 생각한다. 아니, 이 사람들은 뜻은 좋다. 그저 모를 뿐이다. 어떻게 하는지 안다면 더 잘할 것이다. 그런데 왜 이웃들에게 하고 싶지도 않은 대접을 하게 하는 괴로움을 주는가? 그러나 나는 다시 생각한다. 그것은 내가 그들처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종류가 다른 훨씬 더 큰 괴로움을 겪도록 내버려 둘 까닭이 되지 못한다. 또 이따금 나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수백만의 사람이 아무 열기도, 악의도, 어떤 개인적 감정도 없이 고작 몇 실링을 요구하고, 그들의 구성이 그러하니 지금의 요구를 거두거나 바꿀 가능성도 없고, 여러분 쪽에서도 다른 어떤 수백만에게 호소할 가능성이 없다면, 왜 이 압도적인 짐승 같은 힘 앞에 자신을 내놓는가? 여러분은 추위와 굶주림에, 바람과 파도에 이렇게 고집스럽게 저항하지 않는다. 이와 비슷한 천 가지 필연에는 조용히 따른다. 여러분은 불 속에 머리를 들이밀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전적으로 짐승 같은 힘이 아니라 얼마쯤은 사람의 힘으로 여기는 만큼, 그리고 내가 그 수백만과 맺은 관계를 한낱 짐승이나 생명 없는 물건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사람과 맺은 관계로 여기는 만큼, 나는

호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첫째로는 곧바로 그들에게서 그들을 지은 창조주에게, 둘째로는 그들에게서 그들 자신에게. 그러나 내가 일부러 불 속에 머리를 들이민다면, 불에게도 불을 지은 창조주에게도 호소할 길이 없고, 나는 나 자신만을 탓해야 한다.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대할 권리가, 어떤 점에서는 그들과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에 대한 내 요구와 기대에 맞게 대하지 않을 권리가 내게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다면, 나는 착한 무슬림이나 운명론자처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려 애쓰며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에 저항하는 일과 순전히 짐승 같은 힘이나 자연의 힘에 저항하는 일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 나는 이것에는 얼마쯤 효과 있게 저항할 수 있지만, 오르페우스처럼 바위와 나무와 짐승의 본성을 바꾸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나는 누구와도, 어느 나라와도 다투고 싶지 않다. 털끝만 한 차이를 따지거나 세세하게 구별하거나 나를 이웃보다 낫다고 내세우고 싶지 않다. 오히려 나는 이 나라의 법에 따를 핑곗거리를 찾는다고 말해도 좋다. 나는 너무나 기꺼이 그 법에 따르려 한다. 사실 이 점에서는 나 자신을 의심할 까닭이 있다. 해마다 세금 징수원이 돌아올 무렵이면, 나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행위와 입장, 그리고 국민의 정신을 다시 살펴 따를 구실을 찾아내고 싶어지는 나를 본다.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듯 나라를 사랑해야 하며,
어느 때든 나라를 높이는 일에서
우리의 사랑이나 수고를 거두어들인다면,
그 결과를 존중하고, 영혼에게
양심과 신앙의 일을 가르쳐야 한다,
다스리려는 욕심이나 이익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11]

머지않아 국가가 이런 내 일을 내 손에서 모두 거두어 갈 수 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면 나도 동포들보다 나을 것 없는 애국자가 될 것이다. 낮은 곳에서 보면 헌법은 온갖 결점에도 매우 훌륭하고, 법과 법원은 매우 존경할 만하며, 이 매사추세츠주와 이 미국 정부조차 여러 면에서 많은 사람이 그려 보인 대로 고마워할 만한, 매우 훌륭하고 드문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보면 그것들은 내가 그려 보인 그대로이고, 더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에서 보면 그것들이 무엇인지, 아니 바라보거나 생각해 볼 가치라도 있는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정부는 내게 별로 상관이 없고, 나는 정부에 될 수 있는 한 생각을 적게 쏟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조차 내가 정부 아래 사는 순간은 많지 않다. 사람이 생각에 매이지 않고, 공상에 매이지 않고, 상상에 매이지 않아서, *있지 않은* 것이 그에게 오래도록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결코 없다면, 지혜롭지 못한 통치자나 개혁가도 그를 치명적으로 방해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나와 달리 생각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이런 주제나 그와 비슷한 주제를 연구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치가와 입법자는 제도 안에 너무 깊숙이 서 있어서 그것을 한 번도 또렷하게, 맨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그들은 사회를 움직이는 일을 말하지만, 사회 밖에 발 디딜 곳이 없다. 그들은 어떤 경험과 분별을 지닌 사람들일 수도 있고, 틀림없이 교묘하고 쓸모 있기까지 한 제도를 고안해 냈을 것이며, 우리는 그 점을 진심으로 고마워한다. 그러나 그들의 재치와 쓸모는 모두 그리 넓지 않은 어떤 테두리 안에 머문다. 그들은 세상이 정책과 편의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기 쉽다. 웹스터는 결코 정부의 뒤편으로 가 보지 않으니, 정부에 대해 권위 있게 말할 수 없다. 그의 말은 지금

정부에 본질적인 개혁을 꾀하지 않는 입법자들에게는 지혜다. 그러나 사색하는 사람들과 모든 시대를 위해 법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 주제를 한 번도 흘끗 보지조차 않는다. 이 문제에 관한 차분하고 지혜로운 사색으로 그의 정신이 미치는 범위와 그 너그러움의 한계를 금세 드러낼 사람들을 나는 안다. 그래도 대부분의 개혁가가 내세우는 값싼 공언과, 정치가들이 대개 내놓는 더 값싼 지혜와 웅변에 견주면, 그의 말은 거의 유일하게 분별 있고 값진 말이며, 우리는 그가 있음을 하늘에 감사한다. 견주어 보면 그는 언제나 굳세고 독창적이며, 무엇보다 실제적이다. 그러나 그의 자질은 지혜가 아니라 신중함이다. 법률가의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 일관성, 또는 일관된 편의다. 진리는 언제나 스스로와 조화를 이루며, 잘못된 행위와 함께할 수 있는 정의를 드러내는 데 주로 마음을 쓰지 않는다. 그는 이미 그렇게 불려 왔듯이 헌법의 수호자라 불릴 만하다. 그가 칠 수 있는 것은 사실 방어의 주먹뿐이다. 그는 지도자가 아니라 추종자다. 그의 지도자는 1787년의 사람들이다. "나는 여러 주가 연방에 들어온 처음의 약정을 흔들려고 애쓴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애쓸 생각이 없으며, 그런 노력을 지지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지지할 뜻이 없다." 그는 말한다. 헌법이 노예제에 주는 승인을 여전히 생각하며 그는 말한다. "그것이 원래 협약의 일부였으니, 그대로 두자." 그는 남다르게 날카롭고 유능하지만, 어떤 사실을 한낱 정치적 관계에서 떼어 내어 지성이 처리하도록 절대적으로 놓여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이를테면 오늘 여기 미국에서 노예제에 관해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절대적으로, 한 개인으로서 말한다고 공언하며 감히, 아니 어쩔 수 없이 다음과 같은 절망적인 대답을 내놓는다. 거기서 어떤 새롭고 기이한 사회적 의무의 규범을 끌어낼 수 있겠는가? "노예제가 있는 주의 정부들이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지는 그 주들이 자기

유권자에게, 예의와 인간애와 정의의 일반 법칙에, 그리고 신에게 책임을 지며 스스로 생각할 일이다." 그는 말한다. "다른 곳에서 인간애에서든 다른 어떤 까닭에서든 생겨난 단체들은 그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단체들은 나에게서 어떤 격려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받지 못할 것이다."

진리의 더 맑은 샘을 모르고 그 물줄기를 더 높이 거슬러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과 헌법 곁에 서 있고,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지혜롭다. 그들은 거기서 경건하고 겸손하게 그 물을 마신다. 그러나 그 물이 이 호수나 저 웅덩이로 졸졸 흘러드는 곳을 보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원천을 향해 순례를 이어 간다.

법을 세우는 데 재능을 지닌 사람은 미국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세계의 역사에서도 드물다. 웅변가와 정치가와 말 잘하는 사람은 수천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몹시 시끄러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연사는 아직 말하려고 입을 연 적이 없다. 우리는 웅변이 말할지도 모르는 어떤 진리나 일깨울지도 모르는 어떤 영웅심 때문이 아니라, 웅변 그 자체 때문에 웅변을 사랑한다. 우리의 입법자들은 자유 무역과 자유, 연방과 올곧음이 한 나라에 얼마나 값진지 견주어 보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세금과 재정, 상업과 제조업과 농업 같은 비교적 소박한 문제에 대해서조차 재능이나 솜씨가 없다. 국민의 때맞은 경험과 효과 있는 불평으로 바로잡히지 않은 채 연방 의회 입법자들의 말 많은 재치에만 우리가 길잡이를 맡긴다면, 미국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제 자리를 오래 지키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내게는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신약 성경이 쓰인 지 천팔백 년이 되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입법의 학문에 비추는 빛을 쓸 만큼 지혜와 실제적인 재능을 지닌 입법자는 어디 있는가?

정부의 권위는, 내가 기꺼이 따르려는 그런 권위조차, 여전히 순수하지 못하다. 나는 나보다 더 잘 알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복종할 것이고, 많은 일에서는 나만큼 알지도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복종할 것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의로우려면, 정부의 권위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승인과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내가 넘겨주는 것 말고는 정부는 내 몸과 재산에 대해 순수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절대 왕정에서 제한 왕정으로, 제한 왕정에서 민주정으로 나아온 것은 개인을 참으로 존중하는 쪽으로 나아온 것이다. 중국의 철학자조차 개인을 제국의 바탕으로 여길 만큼 지혜로웠다. 우리가 아는 민주정이 정부에서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개선인가?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조직하는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는 없는가? 국가가 개인을 더 높고 독립적인 힘으로, 국가의 모든 힘과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게 대하게 될 때까지, 참으로 자유롭고 깨인 국가는 결코 없을 것이다. 나는 적어도 모든 사람에게 의로울 수 있고 개인을 이웃으로 존중하며 대할 수 있는 국가를 그려 보며 즐거워한다. 이웃과 동포가 할 의무를 모두 다하면서도 국가에 끼어들지도 국가에 안기지도 않고 국가와 떨어져 사는 사람이 몇 있더라도, 그것을 자기의 평온과 어긋난다고 여기지 않을 국가 말이다. 이런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익는 대로 떨어지게 두는 국가는 더욱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국가로 가는 길을 닦을 것이다. 그 국가 또한 나는 그려 보았지만, 아직 어디서도 보지 못했다.

---

1. 1837년부터 잡지 『민주 평론』 이 내건 표어. 흔히 토머스 제퍼슨의 말로 알려졌다.

2. 멕시코 전쟁(1846~1848): 텍사스 병합 뒤 미국이 멕시코와 벌인 전쟁. 노예제를 넓히려는 전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3. 찰스 울프(1791~1823)의 시 「코루냐에서 존 무어 경을 묻음」.

4. 셰익스피어, 『존 왕』 5막 2장.

5. 윌리엄 페일리, 『도덕 및 정치 철학의 원리』(1785) 제6권 3장.

6. 시릴 터너 또는 토머스 미들턴의 비극 『복수자의 비극』(1607).

7. 콩코드의 새뮤얼 호어. 1844년 매사추세츠주의 흑인 선원 문제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갔다가 쫓겨났다.

8. 마태복음 22장 15~22절.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세금을 물은 대목.

9. 『논어』 「태백」 편.

10. 인두세: 머릿수대로 매기는 세금. 소로는 이 세금을 여러 해 내지 않아 1846년 7월 하룻밤 갇혔다.

11. 조지 필의 희곡 『알카사르 전투』(1594).

판권면

월든

원제 · Walden; or, Life in the Woods

지은이 · 헨리 데이비드 소로 (Henry David Thoreau, 1817~1862)

옮긴이 · 에테르 라이브러리

초판 · 1854년, 보스턴 티크너 앤드 필즈(Ticknor and Fields). 1862년 재판부터 부제가 빠졌다.

부록 · 「시민 불복종」. 1849년 엘리자베스 피보디가 엮은 『미학 논집(Aesthetic Papers)』에 「시민 정부에 대한 저항(Resistance to Civil Government)」으로 처음 실렸고, 1866년 유고 문집에서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이라는 제목을 얻었다.

저본 · 『월든』 1854년 초판과 「시민 불복종」을 함께 옮겨 적은 퍼블릭 도메인 영어 전자 텍스트. 영어 원전에서 직접 옮겼다.

분량 · 원문 116,023단어(「월든」 106,654단어, 「시민 불복종」 9,369단어) · 18장과 부록 1편 · 573문단 · 옮긴이 주 77개

저작권 · 지은이가 1862년에 사망했고 원저작물은 1849년과 1854년에 나왔으므로,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퍼블릭 도메인이다.

한국어 번역 · 에테르 라이브러리가 옮겼고 번역문의 저작권도 에테르 라이브러리에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4.0 국제(CC BY-NC 4.0) 조건으로 누구나 읽고 공유할 수 있다.

판 · 1.0판 · 2026년 10월 · 표지 그림과 판짜기 에테르 라이브러리

◆

원저 퍼블릭 도메인 · 한국어 번역 **CC BY-NC 4.0**

에테르 라이브러리 · Ether Library · 총서 0022